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02-05  
연구보고 07-R13-4

#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책임연구원 : 김태기(호남대학교·교수)

공동연구원 : 임영언(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  
연구단·연구교수)

박 일(오사카시립대학교·교수)

배광웅(오사카교육대학교·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007-02-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02-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02-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고려대학교
2007-02-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동국대학교
2007-02-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과 생활실태 연구	호남대학교
2007-02-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7-02-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증장기 대책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조혜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총괄책임자) 문경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동성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양한순 (아주대학교) 최진숙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고려대학교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채정민(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선임연구원)
협력 연구 기관	동국대학교	김익기 동국대학교 교수	이동훈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
	호남대학교	김태기 호남대학교 교수	임영언 (전남대학교 세계한상· 문화연구단 연구교수) 박일 (오사카시립대학교 교수) 배광웅 (오사카교육대학교 교수)
	한국 외국어대학교	임영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고가영(한국외대 역사문화 연구소 전임연구원) 박지배(한국외대 역사문화 연구소 전임연구원) 이병조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권주영(한국외대 산학협력단 GCC연구원) 김석원 (키예프국립대학교 교수) 최소영(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연구소 연구원) 최인나(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동양학부 한국어 문화센터 연구원) 임현숙(러시아 볼로그라드 국립대학교 동양언어문화 센터 한국어강사)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전재식(한국직업능력 개발원 전문연구원) 길은배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배기형(세종대학교 교수)



## 연구 요약

재일동포가 해방 이후 일본에 정착한지도 약 60년이 흘렀지만, 그동안 재일한인의 인적자원에 해당되는 재일코리안 3세~4세의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로서는 일본의 집요한 동화정책이나 민족차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국정부의 재일한인청소년에 대한 무관심과 현지 연구조사 상의 제약 및 한계 등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기존연구들의 경우 조사단체나 연구방법 등 누가, 무엇을, 어떻게 연구 조사한 것인가에 따라 상이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지구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한국의 세계화 및 국가 경쟁력 고취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재일한민족청소년에 대한 생활실태 및 네트워크 구축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조사에 근거하여 연구결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설문조사 결과

이 연구는 일본에서 재일코리안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인근지역을 포함한 재일청소년 63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이며 면접조사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3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는 간토지방이 9.2%, 아이치가 33.3%, 간사이지방이 50.6%, 큐슈지방이 4.4%, 기타가 2.5%이다. 성별분포는 남성이 46%, 여성이 54%를 차지해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15세~24세까지의 청소년이 89.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신분

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73.5%였다. 종교별분포에서는 무종교가 69.5%, 불교가 9.4%, 유교(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8.7%, 기독교가 6.5% 등이었다. 이민세대별 분포에서는 이민3세~이민4세가 전체 90.5%를 차지했다. 장래희망 직종에서는 전문직이 47.6%, 서비스직이 8.6%였으며 부모의 생존여부에 대해서는 92.1%가 부모 모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의 민족적 배경은 부모 모두가 한인인 경우가 84.7%,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 이상이 49.6% 부모의 직업으로는 상업 및 기타 서비스가 54.2%를 차지했다. 가정의 수입정도나 소득수준, 생활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에 대한 관심과 네트워크 구축이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느낌과 정의 관계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한국에 대한 관심과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느낌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및 한민족 정체성과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느낌은 부의 관계로 가정에서 한국어와 한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관심이 적을수록 한국 및 한국인에 느낌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네트워크 구축에의 관심도가 한민족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정체성이 재일청소년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님과의 가정생활이 네트워크 구축과 부의 관계로 가정에서 부모가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그 반대현상으로 재일한인청소년들은 한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2. 면접조사 결과

재일청소년(민단체, 총련계,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포함) 33명의 면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정체성 및 네트워크에 대한 사례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단체 청소년의 경우 민족학교 졸업자보다는 대부분 일본국공립 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많아 한국어가 서투르고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재일청소년의 경우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한국 언어와 문화로부터 소원해지기 때문에 정체성의 확립이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둔 재일동포의 경우 한일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문화와 한국인을 접할 수 있는 특정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어린시절에는 어린이 청년캠프, 성인식, 크리스마스파티, 청소년잼보리대회 등을 통하여 재일청소년들간의 만남의 길을 열어주고,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민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만남이 네트워크 구축의 협소로 한일간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외청소년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둘째, 총련계(일부는 민단체 청소년도 포함) 청소년들은 언어, 문화의 정체성이 민족의 정체성과 동일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대개 유학동이나 대학단체서클활동을 통한 한글강좌나 문화강좌, 학습연구회 등 학습활동을 통하여 '재일조선인'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계승해나가는 과정이 발견되었다. 특히 총련계 청소년의 경우 가정교육과 사회에서의 각종 교육활동을 통한 '민족'의 재구축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네트워크보다는 일본 내의 민족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지만 한편으로는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에도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셋째, 재일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일'이라는 독자적인 존재로 생각한다. 재일3세와 재일4세의 40% 이상이 조선과 일본의 핏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생활한다. 재일1세와 재일2세는 한국어가 모국어이지만 재일3세와 재일4세는 일본어가 모국어이다. 이들은 한국통일과 관계없이 일본에 생활거점을 두고 살아갈 것이다. 재일1와 재일2세는 그들이 거류민이라고 생각했지만 재일3세와 재일4세는 일본사회에서의 영주와 귀화를 지향한다. 재일3세와 재일4세는 애국심이 빈약하지만

조선 민족이라는 것은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넷째, 재일청소년의 경우 대개 청소년기의 놀이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민족’이라는 폐쇄적인 개념에 청소년기의 다양한 활동이나 인격형성이 매몰된 상태이다. 민단체나 총련계 민족학교 졸업자와는 달리 일본계 학교 출신 및 귀화자 청소년의 경우 대학 입학 후 재일조선인이라는 ‘민족’의 자각과 더불어 동정의식 발로, 강한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에게 지금까지의 생활이나 의식과는 전혀 다른 자기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민족’이 재구축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 대부분은 아직까지 일본 내 민족네트워크의 구축이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편이다.

한편, 이러한 재일청소년의 활동은 현재 민단이나 총련 조직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단체의 청소년 지원활동 목적은 향후 자기 조직의 ‘일꾼양성’이라는 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조직활동을 통한 간부 진출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가 경과되거나 대학 졸업 후 일본사회에 진출함으로써 점차 일본사회에 동화되어가는 양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 귀화자를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3. 정책적인 시사점 및 구체적인 추진방안

이 연구의 정책적인 시사점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한인청소년의 민족정체성의 약화와 관련하여 향후 민단체와 총련계 학생단체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민단체 청소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총련계 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총련계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생 중심의 학생회나 대학생 중심의 조선인유학생동맹 단체, 조선인 문화 서클활동 등에서 한국문화나 재일한인의 역사에 대하여 철저히 연구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일한인청소년의 네트워크 구축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정부는 이러한 재일한인청소년 단체나 조직의 활성화

를 위한 전폭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재일한인청소년의 민족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는 제일 3세~4세들에게 학교나 문화교류의 장을 통하여 재일한인 역사와 한국 역사를 상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좋은 계기를 활용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에서 떠나간 젊은 청소년들을 다시 수용할 수 있는 상호간의 열린 정신적인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면접조사 과정에서 재일한인청소년들이 한국사회의 단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많았지만 모국의 한국인 청소년들도 재일한인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적인 측면이 너무 많았다.

셋째, 현재 민단체 재일한인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잼보리대회나 청소년잼보리대회, 성인식, 광복절 행사, 크리스마스파티 등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어떻게든 총련계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민단체나 총련계의 다양한 단체나 조직을 통한 개개인들의 네트워크를 점점 확대하여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를 초월한 범국가적인 재외한인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의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세대의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을 초월하여 젊은 세대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단체와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청소년대표들에게 행사홍보와 새로운 교류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물심양면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기성세대가 재일한인청소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미래 재일한인청소년들에게 민족자산을 물려주는 가장 큰 과업의 하나이다.

현재 일본 국회의원인 백진훈씨는 재외한인청소년의 정체성 및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재외국민(민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자국(自國)·자사회(自社會)에 그것을 환원시키는 일이 될 것이며 재외국민(민족)을 냉대하는 것은 자국·자사회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민족자산의 측면을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재외한인청소년들이 재외한인청소년과 교류를 생각할 경우 그것은 먼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간단한 일에서부터 먼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하면서 점차 주변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재외한인청소년의 네트워크 구축은 미시적 관계(가까운 관계)와 거시적 관계(세계적 국가적 관계)의 양자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하나로 통합시켜나가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목 차

I. 서 론 .....	3
II. 재일한인의 실태 및 청소년의 현황	
1. 재일한인의 실태와 귀화자 수 .....	9
2. 재일한인청소년의 현황과 연령별 분포 .....	11
III. 선행연구의 검토	
1. 해방 이전(1945년 이전) .....	21
2. 1945년~1965년 .....	21
3. 1965년~1980년 .....	23
4. 1980년대 이후~현재 .....	23
IV. 조사개요	
1. 조사개요 및 연구방법 .....	37
2. 표본의 일반적 특징 및 응답자의 기본속성 .....	39
1) 거주지역 .....	39
2) 연령 .....	41
3) 성별 .....	42
4) 현재신분 .....	43
5) 장래희망직업 .....	44
6) 종교 .....	46
7) 이민세대 .....	48
3. 부모와 가정사정 .....	50
1) 부모생존여부 및 민족적 배경 .....	50
2) 부모와의 동거여부 및 학력수준 .....	52
3) 부모의 직업 및 소득수준 .....	53

V. 재일한인청소년의 생활실태	
1. 청소년의 생활실태	59
1) 조사대상자의 국적	59
2) 일본국적 취득 고려여부	62
3) 일본식 통명의 사용	64
4) 졸업학교	66
5) 남북통일 및 자원봉사활동	69
6) 한국방문여부	70
7) 한국뉴스 청취정도 및 청취수단	71
8) 한국TV시청	74
9)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느낌	76
2. 청소년의 가정생활	77
1) 부모와 관련된 가정생활	77
2) 부모와 관련된 가정생활의 T-test 및 ANOVA 분석결과	80
3. 한국에 대한 관심	86
1) 재일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관심	86
2) 한국에 대한 관심의 T-test 및 ANOVA 분석	88
4.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92
1) 한국어와 한국문화	92
2)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T-test 및 ANOVA분석	94
5. 민족 정체성(Ethnic Identity)	99
1) 재일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99
2) 민족 정체성의 T-test 및 ANOVA분석	102
VI. 재일청소년 네트워크 실태	
1. 재일청소년의 개인적 네트워크(Personal Network)	111
1) 개인적 네트워크	111
2) 상담상대의 국적 및 상담자와의 관계	112
3) 상담자와의 물리적 거리 및 접촉빈도	114
4) 상담내용 및 친밀도	116
2. 재일청소년의 사회적 네트워크 (Social Network)	118
1) 참가단체 및 지원정책	118

2) 네트워크구축 실태 .....	121
3) 네트워크관련 T-test 및 ANOVA분석 .....	123
<b>VII. 재일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네트워크 구축현황</b>	
1. 재일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정체성의 유형 .....	131
1) 민단(한국국적자)-제1유형 .....	133
2) 총련(조선국적자)-제2유형 .....	154
3)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제3유형 .....	188
2. 재일청소년의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	205
1) 재일청소년의 다양성과 의견존중 .....	205
2) ‘재일한인청소년’의 정체성 .....	207
3) 한국정부의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 .....	209
<b>VIII. 결론 및 시사점</b>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	217
2. 연구한계 및 향후 과제 .....	223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공헌 .....	224
1) 연구의 기대효과 .....	224
2) 연구결과 활용 .....	224
<b>참 고 문 헌</b> .....	227
<b>설 문 지</b> .....	235
<b>인 터 뷰</b> .....	258

## 표 목차

<표 1> 국적(출신지)별 외국인등록자 수의 추이 (각 연도 말 현재) .....	10
<표 2> 재류자격 별 외국인등록자수 추이 .....	11
<표 3> 재일코리안의 국제결혼추이 .....	12
<표 4> 한국·조선국적자의 일본국적 취득자수 추이 .....	13
<표 5> 재일코리안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	14
<표 6> 거주 지역별 분포 .....	40
<표 7> 국적 및 거주지역 .....	40
<표 8> 연령별 분포 .....	41
<표 9> 성별분포 .....	42
<표 10> 성별 및 거주지역 .....	43
<표 11> 현재 신분 .....	43
<표 12> 장래희망 직업 .....	45
<표 13> 성별 및 장래희망직업 .....	46
<표 14> 종교생활 .....	47
<표 15> 연령별 및 종교 .....	48
<표 16> 이민 세대별 분포 .....	48
<표 17> 연령과 이민세대 .....	49
<표 18> 부모의 생존여부 .....	50
<표 19> 부모의 민족 배경 .....	51
<표 20> 부모님 민족배경 및 국적 .....	52
<표 21> 부모와의 동거여부 .....	52
<표 22> 부모의 학력수준 .....	53
<표 23> 부모직업 .....	54
<표 24> 가정 수입정도 .....	55
<표 25> 가족의 소득수준 .....	55
<표 26> 생활만족도 .....	56

<표 27> 대상자의 국적 .....	60
<표 28> 국적 및 일본국적취득고려여부 .....	60
<표 29> 국적별 ANOVA 분석결과 .....	62
<표 30> 일본국적 취득 고려 여부 .....	63
<표 31> 일상생활에서 사용이름과 일본 국적취득 고려여부 .....	64
<표 32> 일상생활에서 사용 이름 .....	64
<표 33> 학교 입학 시 이름표기 .....	65
<표 34> 졸업학교 .....	66
<표 35> 초등학교 졸업 및 일본 국적취득 고려여부 .....	67
<표 36> 고등학교 졸업 및 거주지역 .....	68
<표 37> 남북통일 희망여부 .....	69
<표 38> 남북통일 예상시기 .....	69
<표 39> 자원봉사활동 경험유무 .....	70
<표 40> 한국에 방문 경험여부 .....	70
<표 41> 한국방문유무 및 국적 .....	71
<표 42> 한국 뉴스 청취정도 .....	72
<표 43> 한국뉴스 청취경로 .....	72
<표 44> 청소년성별 및 한국뉴스 청취수단 .....	73
<표 45> 한국 연속극, 오락프로 시청 경험여부 .....	74
<표 46> 청소년의 성별 및 한국TV시청여부 .....	75
<표 47> 한국 연속극 및 오락프로그램 .....	75
<표 48> 청소년의 성별 및 한국TV에 대한 느낌 .....	76
<표 49> 한국에 대한 느낌 .....	76
<표 50> 한국인에 대한 느낌 .....	77
<표 51> 제일한인청소년의 부모와 관련된 가정생활 .....	79
<표 52>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 독립표본 T-test ..	80
<표 53>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의 ANOVA 분석결과 ..	81
<표 54>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 독립표본 T-test ..	85
<표 55> 한국에 대한 관심 .....	87
<표 56> 한국에 대한 관심 평균 독립표본 t-test .....	89
<표 57> 한국에 대한 관심의 ANOVA 분석결과 .....	90
<표 58> 한국에 대한 관심 평균 독립표본 T-test .....	92

<표 59>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	94
<표 60>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평균 독립표본 T-test .....	95
<표 61>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ANOVA 분석결과 .....	96
<표 62> 한국어와 문화 이해도에 대한 평균 독립표본 T-test .....	98
<표 63> 한민족(조선민족)의 정체성 관련 .....	101
<표 64> 한민족 정체성 평균 독립표본 T-test .....	102
<표 65>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ANOVA 분석결과 .....	104
<표 66> 한민족 정체성 평균 독립표본 T-test .....	106
<표 67> 도움을 받은 사람의 성별 .....	111
<표 68> 청소년의 성별과 상담상대의 성별 교차 .....	112
<표 69> 상담 및 도움을 받은 사람의 국적 .....	112
<표 70> 상담이나 도움 받은 사람과의 관계 .....	113
<표 71> 상담자와의 물리적 거리 .....	115
<표 72> 상담자와의 접촉빈도 .....	115
<표 73> 청소년의 성별 및 상담상대자와의 접촉빈도 .....	116
<표 74> 상담이나 도움을 받은 내용 .....	116
<표 75> 상담자와의 친밀도 .....	117
<표 76> 성별과 친밀도 .....	117
<표 77> 참가단체 .....	118
<표 78> 한국 정부에 희망하는 지원 정책 .....	119
<표 79> 한국정부 지원정책 .....	119
<표 80> 재일청소년 성별 및 정부에 희망하는 지원정책 .....	120
<표 81> 네트워크 구축 관련 .....	122
<표 82> 네트워크 구축 평균 독립표본 T-test .....	125
<표 83> 네트워크 구축관련 ANOVA 분석결과 .....	125
<표 84> 네트워크 구축 평균 독립표본 T-test .....	127
<표 85> 재일청소년의 3유형 .....	132

## 그림 목차

[그림 1] 청소년의 연령분포 .....	41
[그림 2] 성별분포 .....	42
[그림 3] 현재 신분 .....	44
[그림 4] 종교 .....	47
[그림 5] 이민세대별 분포 .....	49
[그림 6] 부모의 민족별 분포 .....	51
[그림 7] 응답자의 국적 .....	60
[그림 8] 국적 취득 고려 여부 .....	63
[그림 9]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름 .....	65
[그림 10] 한국에 방문경험 여부 .....	71
[그림 11] 한국뉴스 청취수단 .....	73
[그림 12] 상담상대자의 국적 .....	113
[그림 13] 상담이나 도움 받은 사람과의 관계 .....	114



## I. 서론



# I. 서론

현대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지구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세계화 및 국가 경쟁력 고취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세계적으로 재외한인 약 7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과는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가깝게 느껴지는 재일한인청소년의 생활 및 네트워크 실태를 파악하여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및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에서 재일한인들은 ‘한국적’, ‘조선적’ 그리고 ‘일본국적’을 가지고 생활하는 집단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의 동화정책과 일본사회의 차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해 왔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재일한인 1세~2세들은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한국(북한)과의 교류를 위해 노력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재일한인 1세~2세들 중에는 소규모 자영업에서 시작하여 ‘한상(韓商)’ 즉, ‘재일한인 기업가’로 성장한 사람도 많으며, 이들은 한국경제 발전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크게 기여해왔으며, 한국정부는 이러한 인적 자원을 경제성장과 발전과정에서 활용해 왔다(최석신 외, 2006).

그러나 전후 60여년이 경과되면서 일본에서의 재일한인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민단과 총련 관계가 정치적인 대립을 제외한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민족단체간의 대립도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재일한인의 큰 사회적 변화로서는, 재일한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민족조직 이탈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구성원 상호간의 경계선이 애매해지고 그 실정을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 재일한인 사회에서는 사실상 일본기업의 취직차별이나 재일한인 기업의 일본 금융기관의 소외와 배제가 재일한인으로 하여금 민족단체 존재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였으며 재일한인 사회의 요구에 따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금융기관에서 민족학교까지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일한인 청소년의 ‘민족조직 이탈’이라는 현상이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실제적인 연구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생겨났다.

이와 더불어 재일한민족청소년에 해당되는 청소년 3세~4세(이하 재일한인 청소년)의 경우 일본의 동화정책이나 민족차별, 민족단체내의 분열, 한국정부의 민족 정책부재 등으로 인하여 점차 일본 사회 속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에 놓여있다. 현재 총련계 민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청소년이 일본이름(통명)으로 생활하고, 우리말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도 한류와 국제화 시대의 영향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한민족의 구성원으로서 한국과 교류를 원하지만, 그러한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 재일한인 청소년은 한국과 경제대국 일본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중요한 민족자산임에 틀림없다. 재일한인 청소년은 한국에 뿌리를 둔 한국의 중요한 인적자산이다. 재일한인 청소년은 재일한인 1세~2세와는 달리 일본의 언어와 문화 내에서 성장하여, 일본 사회라는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사회의 네트워크를 제외한민족 네트워크와 접목을 시킨다면, 그 파급효과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일한인 청소년이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들 구성원에 의한 커뮤니티, 즉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일한인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과 네트워크의 구축은 상생과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재일한인 청소년의 네트워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일본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외한민족청소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은 재일한민족청소년에 대한 네트워크 실태와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재일한인 청소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상세하게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재일한인 청소년의 민족적 정체성의 외형적인 실태에 대한 분석(이름, 언어, 의식주, 생활, 취업 등)과 민족적 정체성의 내면적인 실태(민족의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재일한인 청소년의 민족적 배경, 국적 및 교육, 가정생활, 한국에의 관심도,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민족정체성(Ethnic Identity) 등 재일한인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재일한인 청소년이 일본에 동화되어 가는 배경과 민족적 정체성 확립의 요건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재일한인 청소년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을 유형별로 분류할 것이다. 기본적인 질문내용으로는 면접대상자의 인구학적인 특징, 민족적 배경 및 가정생활, 한국에 대한 관심과 문화의 이해정도, 청소년 네트워크 실태 및 전망을 분석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글로벌 재외한민족청소년 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재일한인 청소년 네트워크(국내외 관련)에 대한 실태조사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재일한인 청소년 네트워크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재외한인 청소년과의 글로벌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재일한인 청소년 네트워크가 어떠한 방식으로 시스템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재일한인 청소년의 글로벌 네트워크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 네트워크 실태와 청소년 상담네트워크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청소년 네트워크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재일한인 청소년들 상호 간의 접촉빈도와 내용, 다양한 민족조직과의 접촉빈도와 내용, 다양한 시민 네트워크와의 접촉 빈도와 내용, 모국(혹은 모국의 개인 그리고 단체)과의 접촉 빈도와 내용, 글로벌 네트워크(재외한인 네트워크)와의

접촉빈도와 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재외한인 청소년이 접촉하는 네트워크의 형태와 접촉빈도 내용, 그리고 친밀도 등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또한 상기의 연구과제와 분석을 통해, 재외한인 청소년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21세기 재외한인 청소년에 대한 한국정부의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며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정책(지원대책 혹은 교류대책)과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 II. 재일한인의 실태 및 청소년의 현황

1. 재일한인의 실태와 귀화자 수
2. 재일한인청소년의 현황과 연령별 분포



## II. 재일한인의 실태 및 청소년의 현황

### 1. 재일한인의 실태와 귀화자 수

1990년대 초기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국적·조선국적자가 가장 많았을 때는 69만 명 이상이였다(1991년·외국인 등록자수). 그러나 계속 감소하여 2005년에는 60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재일코리안의 감소원인이나 배경 중의 하나는 한국·조선국적자의 일본국적 취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재일코리안의 일본국적취득자수는 매년 1만 명 전후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재일동포’라고 하면 한국국적·조선국적자만을 대상으로 지칭할 경우 재일코리안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많다.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의 상황이나 의식, 정체성까지도 포함시켜서 언급하지 않으면 ‘재일동포’의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sup>1)</sup>.

최근 일본사회의 다민족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법무성입국관리국의 통계(법무성입국관리국, 2007)에 의하면, 외국인 등록자수는 2005년도에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하여, 2006년도 말 현재 208만 4919명으로 과거 최고기록을 세웠다. 이러한 수치는 2005년도 말과 비교해 7만 3364명(3.6%)이 증가한 수치이며 10년 전에 비하면 66만 9783명이 증가한 것이다. 외국인등록자가 일본 총인구 1억 2777만 명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1.63%가 되었다(2005년 말 현재는 1.57%). 외국인등록자의 국적(출신지)수는 188개국에 달하며, 2002년 138개국에서 50개국 정도가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조선적자는 2006년도 말 현재 598,219명으로 전체 28.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중국, 브라질, 필리핀, 페루, 미국 순이었다. 한국·조선국적자는 특별영주자수의

1) 2007년 10월12일자 재외동포신문에 의하면 재일코리안 수는 일본국적취득자를 합쳐 실제로 893,740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재일코리안 등은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감소로 매년 계속 감소 추세이며 현재 59만8219명이다<표 1 참조>.

그러나 2005년도 한국·조선인 국적 598,687명의 숫자는 ‘재일동포’의 수를 나타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종래 그렇게 불렸던 사람들은 일본 출입국관리법상의 ‘특별영주자’에 해당되며 그 숫자는 451,909명이었다. 결국, 지금까지 재일동포라고 불리어졌던 사람들의 수는 대략 약 45만 명이 었다<표 2 참조>.

<표 1> 국적(출신지)별 외국인등록자 수의 추이(각 연도 말 현재)

국적 (출신지)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한국· 조선	645,373 (43.5)	638,828 (42.2)	636,548 (40.9)	635,269 (40.9)	632,405 (35.6)	625,422 (33.8)	613,791 (32.1)	607,419 (30.8)	598,687 (29.8)	598,219 (28.7)
중국	252,164 (17.0)	272,230 (18.0)	294,201 (18.9)	335,575 (19.9)	381,225 (21.4)	424,282 (22.9)	462,396 (24.1)	487,570 (24.7)	519,561 (25.8)	560,741 (26.9)
브라질	233,254 (15.7)	222,217 (14.7)	224,299 (14.4)	254,394 (15.1)	265,962 (15.0)	268,332 (14.5)	274,700 (14.3)	286,557 (14.5)	302,080 (15.0)	312,979 (15.0)
필리핀	93,265 (6.3)	105,308 (7.0)	115,685 (7.4)	144,871 (8.6)	156,667 (8.8)	169,359 (9.1)	185,237 (9.7)	199,394 (10.1)	187,261 (9.3)	193,488 (9.3)
페루	40,394 (2.7)	41,317 (2.7)	42,773 (2.7)	46,171 (2.7)	50,052 (2.8)	51,772 (2.8)	53,649 (2.8)	55,750 (2.8)	57,728 (2.9)	58,721 (2.8)
미국	43,690 (3.0)	42,774 (2.8)	42,802 (2.8)	44,856 (2.6)	46,244 (2.6)	47,970 (2.6)	47,836 (2.5)	48,844 (2.5)	49,390 (2.5)	51,321 (2.5)
기타	174,567 (11.8)	189,442 (12.6)	199,805 (12.9)	225,308 (13.4)	245,907 (13.8)	264,621 (14.3)	277,421 (14.5)	288,213 (14.6)	296,848 (14.8)	309,450 (14.8)
합계	1,482, 707	1,512, 116	1,556, 113	1,686, 444	1,778, 462	1,851, 758	1,915, 030	1,973, 747	2,011, 555	2,084, 919

주) 『平成19年版在留外国人統計』(出版)財団法人入管協會 `2006年末現在

표 중 수치는 실수, ( )안은 %

이와 같은 재일동포 감소의 큰 요인 중 하나는 1985년 일본 국적법 개정으로 국제결혼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의 국적선택에 있어서 ‘부모양계주의’의 도입에 있다. 그때까지는 국제결혼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은 부친의 국적을 계승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법률개정 후에는 부모 어느 쪽 국적을 선택해도 무관하게 되었다.

〈표 2〉 재류자격 별 외국인등록자수 추이

재류자격	2001	2002	2003	2004	2005	구성비 (%)	전년 대비 증가율 (%)	
총수	1,778,462	1,851,758	1,915,030	1,973,747	2,011,555	100.0	1.9	
영주자	684,853	713,775	742,963	778,583	801,713	39.9	3.0	
영 주 자	일반영주자	184,071	223,875	267,011	312,964	349,804	17.4	11.8
	특별영주자	500,782	489,900	475,952	465,619	451,909	22.5	-2.9

주) 『平成19年版在留外国人統計』(出版)財団法人入管協會 `2005年末現在

## 2. 재일한인청소년의 현황과 연령별 분포

재일코리안의 감소의 원인으로는 재일한인청소년의 국제결혼 증가, 귀화자 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현재 재일청소년의 결혼상대자의 90% 이상이 일본인이다. 일본사회에서 생활하고 현실에서 아직도 여전히 재일한국인·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일청소년들은 일본이름을 사용함으로써 한국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재일동포 자녀끼리 서로 교체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당연히 일본인과 교체하며 결혼하는 경우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재일동포와 일본인과의 결혼에 의해 태어난 자녀의 대부분은 ‘일본국적’을 계승하게 된다. 이것이 재일동포의 숫자가 감소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다<표 3 참조>.

재일코리안의 일본인과의 결혼비율 중 남편이 일본인인 경우가 매년 증가추세이며 반대로 아내가 일본인인 경우는 감소하고 있다. 즉 재일청소년의 중 여성들의 일본인 남성과의 결혼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를 보면, 전체적으로 남녀 재일코리안의 일본인과의 결혼자 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 > 재일코리안의 국제결혼추이

연도	부부 중 한쪽이 외국인 및 재일한국·조선인				
	남편이 일본인, 아내가 외국인	남편이 일본인, 아내가 재일한국· 조선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가 일본인	아내가 일본인, 남편이 재일한국· 조선인	재일한국·조 선인 전체 결혼자 수(%)
1997년	20,902	4,504	7,349	2,674	7,178(1.1)
1998년	22,159	5,143	7,477	2,635	7,778(1.2)
1999년	24,272	5,798	7,628	2,499	8,297(1.3)
2000년	28,326	6,214	7,937	2,509	8,723(1.4)
2001년	31,972	6,188	7,755	2,477	8,665(1.4)
2002년	27,957	5,353	7,922	2,379	7,732(1.2)
2003년	27,881	5,318	8,158	2,235	7,553(1.2)
2004년	30,907	5,730	8,604	2,293	8,023(1.3)
2005년	33,116	6,066	8,365	2,087	8,153(1.4)
2006년	35,993	6,041	8,708	2,335	8,376(1.4)

주) 『平成19年版在留外国人統計』(出版)財団法人入管協會, 2006年末現在

다른 요인 중의 하나로는 재일동포의 일본국적취득으로 한국·조선국적자의 일본 국적취득을 들 수 있다. 최근 한국·조선국적자의 일본국적 취득자 수는 매년 약 1만 명 정도이다. 1952년부터 2006년까지 재일동포의 일본국적취득자수는 30만 명 이상이다<표 4 참조>.

일찍이 일본국적취득자는 재일사회에서 ‘민족의 배신자’ 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지배되어 왔다. 최근까지만 해도 재일동포 문제를 거론할 경우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는 재일한국인 다음(2차적인 존재)으로 언급되는 존재였고 재일동포 세계의 주변에 위치한 재일동포 중에서도 소수민족의 하나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는 재일동포 중에 더 이상 소수민족이 아니다. 가까운 장래에 ‘재일동포’란 결국 ‘한국에 뿌리를 둔 일본국적자’를 의미하는 날이 올 것이며 재일동포문제를 언급할 때에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표 4〉 한국·조선국적자의 일본국적 취득자수 추이

연도	취득자	연도	취득자	연도	취득자	연도	취득자
1952	232	1966	3,816	1980	5,987	1994	8,244
1953	1,326	1967	3,391	1981	6,829	1995	10,327
1954	2,435	1968	3,194	1982	6,521	1996	9,898
1955	2,434	1969	1,889	1983	5,532	1997	9,678
1956	2,290	1970	4,646	1984	4,608	1998	9,561
1957	2,737	1971	2,874	1985	5,040	1999	10,059
1958	2,246	1972	4,983	1986	5,110	2000	9,842
1959	2,737	1973	5,769	1987	4,882	2001	10,295
1960	3,763	1974	3,973	1988	4,595	2002	9,188
1961	2,710	1975	6,323	1989	4,759	2003	11,778
1962	3,222	1976	3,951	1990	5,216	2004	11,031
1963	3,558	1977	4,261	1991	5,665	2005	9,689
1964	4,632	1978	5,362	1992	7,244	2006	8,531
1965	3,438	1979	4,701	1993	7,697	합계	304,699

주) 『平成19年版在留外国人統計』(出版)財団法人入管協會, 2006年末現在

이번 조사에서도 인터뷰에 응했던 어떤 일본국적자는 ‘한국계일본인은 재일한국인의 아류가 아니라, 독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소유한 존재들이다’라고 강조했다. 즉 일본국적취득자의 존재는 재일동포라는 존재와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민국가의 존재방식 그 자체를 재검토하도록 촉진하는 요인이다.

1980년대 후반까지 재일동포가 일본국적을 취득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 일본국적 취득과정에서 재일동포의 경제사정과 정치사상 등 많은 것들이 고려대상이었기 때문에 일본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재일동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입국하여 생활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당시 일본 버블경기를 배경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입국했으며 1990년대에는 ‘출입국 및 난민인정법’이 개정되어 외국으로 이민한 일본인과 그 자손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

다. 이것을 계기로 ‘일계인 (日系人)’이 일본사회에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법무성은 급증하는 외국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현실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외국인 정책이나 법률정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

<표 5> 재일코리안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연령별 구분	성별		합계(%)
	남성	여성	
0~4세	6,228	6,069	12,297(2.1)
5~9세	8,284	7,817	16,101(2.7)
10~14세	10,021	9,436	19,457(3.3)
15~19세	12,142	12,141	24,283(4.1)
20~24세	18,099	22,788	40,887(6.8)
25~29세	23,929	25,751	49,680(8.3)
30~34세	26,341	28,309	54,650(9.1)
35~39세	25,018	29,458	54,476(9.1)
40~44세	21,908	26,800	48,708(8.1)
45~49세	20,788	27,625	48,413(8.1)
50~54세	21,253	26,969	48,222(8.1)
55~59세	23,434	24,676	48,110(8.0)
60~64세	18,347	20,143	38,490(6.4)
65~69세	14,874	17,830	32,704(5.5)
70~74세	9,685	13,362	23,047(3.9)
75~79세	6,251	9,061	15,312(2.6)
80세 이상	9,593	13,789	23,382(3.9)
합계	276,195(46.2)	322,024(53.8)	598,219(100)

주) 『平成19年版在留外国人統計』(出版)財団法人入管協会, 2006年末現在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사회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재일동포’를 의미했다. 한때는 외국인 전체비율의 90%를 차지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숫자가 30%도 넘지 못한다. 이제는 ‘재일외국인’이 ‘재일한국인’

을 대신하던 시대는 이미 지난 과거의 일이다.

한때 재일동포의 일본국적취득행정을 담당했던 어느 법무관리는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일본 생활습관도 100% 이해하고 있는 재일한국인들의 귀화(일본국적 취득)에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힘들다. 이전에 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의 자동적으로 일본국적을 허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즉 아이러니컬하게도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일한 외국인의 급증이 일본에서 재일동포의 생활 방식에 대한 선택지를 넓히는 요인이 되었다.

<표 5>는 재일코리안의 연령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재일코리안의 전체적인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 이하가 12.2%, 20대가 15.1%, 30대가 18.2%, 40대가 16.2%, 50대가 16.1%, 60대 이상이 21.4%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재일코리안의 연령대별 분포는 30대가 가장 많고 이번조사의 연구대상인 16~24세까지의 재일한인청소년의 비율은 12.9%를 차지했다.



### Ⅲ. 선행연구의 검토

1. 해방 이전(1945년 이전)
2. 1945년~1965년
3. 1965년~1980년
4. 1980년대 이후~현재



### Ⅲ. 선행연구의 검토

이 연구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지역의 “한민족청소년의 인적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일본이라는 지역을 다루고 있다. 향후 재일한인사회는 일본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재일 3세~재일 4세가 한인사회의 주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일한인’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면 민족호칭으로서 ‘한국조선’, ‘한국조선민족’, 한국조선민족의 구성원 전체, 또는 개인을 가리키는 ‘한국조선인’, 재일민족 집단의 호칭으로서 ‘재일한국조선인’, 그 중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일한국인’, ‘조선’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일조선인’, 일본국적을 가진 사람을 ‘일본적한국조선인’으로 정의한다. 또한 ‘재일한인 청소년’은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한 만 16세~24세까지의 청소년을 가리킨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2006년도 말 현재 전체외국인 등록자 수는 약 208만5,000명이며 일본 총인구의 1.63%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외국인 등록자의 국적은 188개국에 달하며 ‘한국·조선’의 국적 비율이 28.7%로 가장 높다. 그렇지만 귀화자의 증가로 특별영주자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매년 재일한국인의 수가 감소하는 반면에 최근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숫자는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일한인은 약 60만 명(정확한 수치는 598,219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기거주자 및 1980년대 이후 도일한 뉴커머, 그리고 일본국적 취득자와 그 자손을 합하면 약 200만 명의 재일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구적인 수치는 미국,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필적하는 숫자이다.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일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증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재일한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인이나 연구의 어려움을 들 수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재일한인 연구가 위축된 이

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한 정치적인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인 대립의 영향은 순수한 학문을 추구하는 연구자들에게 기피 대상이었고 그만큼 체계적인 연구성과를 생산하기가 어려웠다. 두 번째로는 실증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모집단으로서 재일한인에 대한 명부열람이 매우 어려운 점이다. 가령 한국적은 ‘민단(民團)’이 관리한다거나 조선적은 ‘총련(總連)’이 보유하고 있어 학술적인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의 영향으로 쌍방의 도움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일본 사회과학의 재일한인 문제에 대한 무관심도 큰 이유 중 하나였다.

재일한인을 둘러싼 일본사회 환경은 1980년대 들어서 일본의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사회 전반적인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또한 ‘난민조약체제’의 영향으로 재일한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약화되고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및 ‘지방공무원취임권획득’에 대한 운동이 지지를 받게 되었다. 더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인과의 국제결혼비율의 증가와 더불어 출생한 재일3세~4세들도 절반이상이 일본 국적이거나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귀화자의 증가로 인하여 재일한인에 대한 차별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으로서 공조조직으로서의 민족단체의 존재의의가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민족조직 이탈’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한편 최근 국제화에 따른 일본 내 다양한 외국인의 증가, 국제교류에 의한 다문화 사회 도래, 한류영향 등으로 일본인들의 재일한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재일한인 청소년 연구는 한일간의 지리적 여건과 민간교류, 그리고 경제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재일한인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은 재외한인 청소년과의 교류의 중심축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재일 한국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보면 크게 나누어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와 재일한국인들의 정체성·민족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재일한국인들의 교육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재일 한국인 기업가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재일한국인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 연구의 대상이 재일한인청소년으로 범위를 한정한다면 교육, 민족정체성에 관한 연구로 요약된다.

이 장에서는 재일한인청소년을 중심으로 재일코리아 전체에 대하여 그동안 어떤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해방이전(1945년 이전), 한일국교정상화 이전, 및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서 현재까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해방 이전(1945년 이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식민지하에서 있었던 35년간 이루어진 재일한국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시기를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은 대표적인 것으로 김의환의 ‘일제하 재일동포사회의 분석 연구’를 들 수 있다<sup>2)</sup>. 1989년에 발표된 이 논문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재일동포사회의 형성과 그들의 생활상, 일제 강제연행하의 재일동포사회의 실태 및 일제하 재일민족독립운동과 노동운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렇지만 이 연구의 대상인 재일한인청소년에 관한 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 2. 1945년~1965년

다음은 1945년 해방이후부터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까지의 연구논문을 살펴보자. 이 시기 재일한국인 대상의 연구는 해방 이전의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몇 편이 출간되었다.

---

2) 김의환(1989), 『日帝下在日同胞社会의 分析研究』, 国土館論集제2집, pp.253-288.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박재일(1957)<sup>3)</sup>의 ‘재일조선인에 관한 종합조사 연구’와 박강래와 와타나베히로시(1963)<sup>4)</sup>의 공저인 ‘재일한국인 사회의 종합조사 연구’ 및 이유환(1960)의 ‘재일한국인 50년사: 발생인의 역사적 배경과 해방 후의 동향’이다<sup>5)</sup>. 그러면 여기에서는 박재일과 박강래·와타나베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박재일의 연구는 재일조선인의 역사와 생활 및 장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제2장의 교육부문에서 해방전후 재일조선인의 취학상황, 특히 학교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취학자 수와 취학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결론부분에서 당시의 교육상황에 대하여 재일조선인 청소년의 교육내용은 교육의 미래 목적이나 부모들의 교육의욕에 비해서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상태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강래·와타나베(1963)의 연구는 재일한국인의 특징과 생활상태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연구결과를 통하여 재일동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박재일의 연구를 확대하여 한국으로부터 이주자의 동기와 입국과정 및 정착구조, 재일한국인의 역사적배경과 인구학적 특성, 직업구성, 생활구조 및 교육에 대한 사회 환경적 조건문제와 재일 한국인의 사회적 적응경향(분리적 경향과 동화·공존적 경향을 포함)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의 특징은 재일한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와 일치하는 청소년의 교육부문에 대하여서도 언급하고 있다. 박재일의 연구가 초·중·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 연구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유치원, 양호학교, 각종 학교, 대학교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기타 몇 편의 연구가 존재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재일한국인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대부분이고 재일한인청소년에 초점에 맞춘 연구는 없었다.

3) 朴在一(1957), 『在日朝鮮人に関する総合調査研究』, 新紀元社.

4) 朴康來·渡邊博史(1963), 『在日韓国人社会の総合調査研究』, 民族文化研究会.

5) 李瑜煥(1960), 『在日韓国人の五十年史: 發生因における歴史的背景と解放後における動向』, 新樹物産

### 3. 1965년~1980년

1965년 6월 22일 한국과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을 한반도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국교를 정상화한다. 이 시기의 연구는 1977년에 김찬정에 의한 ‘조국을 모르는 세대 : 재일조선인 2·3세의 현실’이 발간된 것을 제외하고는 재일한국인, 특히 재일청소년에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으나 하다다다카시(1972)에 의한 ‘일본인의 조선관’이라는 책이 발간되었으며, 박경식(1976)에 의한 ‘재일조선인 관계자료 집성’ 제4권과 제5권이 발간되어 이 시기를 대표하는 서적으로 볼 수 있으며, 기타 요시오카(1978)에 의한 ‘재일조선인과 사회보장’이 발간된 정도이다.

### 4. 1980년대 이후~현재

1980년대까지는 박경식(1976)과 요시오카(1978)의 연구가 재일조선인 연구의 중심축을 이루었지만 1983년에 김응렬의 ‘재일한국인의 적응양식과 생활불안’이라는 연구가 출간되었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재일한국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로 생각해도 무방하다. 대표적인 연구를 몇몇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응렬(1990)의 ‘재일한국인의 사회이동’은 1952년 이전의 재일한국인의 직업구조와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1945년 일본의 패전 전에는 재일한국인이 일본사회의 최하층에 배치되어 약90%가 육체노동에 종사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하숙업과 음식업, 서비스업, 판매직에 종사하는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일본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단순노동이나 농림업, 폐품수집업에서 벗어나 전

문직, 사무직, 자영업, 미숙련직 등으로 점차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일본사회가 제도적으로 재일한국인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심리적 편견에 의한 차별이 심해지면서 재일2세~재일3세의 사회적 이동을 제한시키는 본질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민관식(1991)의 ‘재일한국인의 실태’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1987년에서 1988년에 걸쳐 총20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민족정체성과 직결되는 통명사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식 통명을 사용한다고 답변 응답자는 총 595명 중 78%에 해당하는 464명이었다. 또한 보육원, 유치원, 초중고교, 단기대학,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재학생 1044명중에 약67%에 해당하는 698명이 일본식 통명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국명을 사용하는 학생은 약 16%에 해당하는 고작 170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와 비슷한 약 15%인 156명이 본명을 일본식발음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통명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사용하기 때문이었다고 응답했다. 기타 20년 후에 재일동포사회는 어떻게 될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지금과 거의 변화가 없다’, 혹은 ‘더욱 결속 단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약 50%에 달했으며, 실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9.6%였다. 그러나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도 40% 이상으로 결과적으로 재일한국인의 현상유지와 소극론이 절반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향후 5세대 후의 자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약 60%는 ‘일본에 동화되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여 불투명한 후손관이 지속된다면 재일동포의 생활은 항상 동요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으로 제출한 시마야츠코(1993)의 ‘재일한국인 교육의 현황과 조사 분석’이라는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7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정규학교로 인가받은 전일제 한국학교 수를 확대해야 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해야하며 학생 유치를 위한 제반시설을 보강해야 한다.

둘째, 전일제 한국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민족학급 운영을 위해 한국과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재일한국인을 위한 교재는 이중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실용적이며 합리적이다. 넷째, 한국정부로부터 파견교사보다 재일한국인 교사를 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국수학 과정에 교사양성과정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 내에서 실시되는 모국수학, 단기교육과정의 확대와 학부모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 여섯째, 한국정부는 재일한국인을 위한 교육지원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행정적으로는 현지 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일곱째, 민족교육의 대상인 재일한국인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의견이나 요구에 맞는 교육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지금까지 실시된 재일한국인에 관한 실태나 의식조사는 민단이나 총련이 실시한 비공개 조직내부의 자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보자. 재일한인 청소년에 관한 조사는 1986년, 1987년, 1994년 등 3회에 걸쳐 재일한국청년회의소가 실시한 ‘청년의식조사’가 있다.

김명수·후쿠오카야스노리(金明秀·福岡安則, 1997)가 공동으로 실시한 ‘재일한인 청년의 생활과 의식조사’는 일본태생의 18세~30세까지 한국적을 가진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하고 있다. 이 조사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재일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1993년도에 실시된 일본 전국규모의 조사이다.

이와 같은 재일한인 대상의 의식조사가 통계적인 의미를 가지는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엄밀히 따지면 외국등록표로부터의 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지금까지 재일한인 대상으로 실시된 대부분의 조사는 특정 지역의 재일한인이나 특정 집단에 속하는 재일한인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조사상의 제한적인 문제 때문에 샘플의 대표성이나 전반적인 조사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 조사의 모집단은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가 보유하고 있는 명부에서 18세~30세까지를 추출한 후 등간격추출(Random Sampling)로 약 2,000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조사불가능자를 제외한 1,732명에게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총800(46.4%)부가 회수되었다. 조사기간은 약 3개월간 청년회의 간부나 활동가가 조사원으로서 활동하였으며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질문응답방법 등을 설명한 매뉴얼을 배포하고 조사원 연수교육을 실시한 후 조사표에 조사대상자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자기식기입법과 설문지를 현장에서 배포하고 나중에 수집하는 방식을 병용하여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중요한 결과는 재일한인 청소년의 기본적인 입장이 부모세대와는 달리 모국에의 애착심이 약화되어가고 일본사회로의 애착심을 공유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재일한인 청소년의 입장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부모세대의 언젠가는 모국에 돌아가야 하는 ‘임시거처의 장소’가 아니라 ‘정주의 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한인 청소년들은 이제 일본사회가 자기들이 평생 살아가야 할 ‘정착의 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는 특히 이번에 실시중인 재일한인 청소년의 현황과 생활실태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1993년 ‘재일한국인청년의식조사’에서 최대 발견은 ‘민족성(Ethnicity)’이라는 것이 차별과 불평등에 의해 수동적으로 규정된다’는 기존의 논리보다는 ‘획득’과 ‘계승’이라는 자생적인 재생산과정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민족성이라는 것이 차별과 불평등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되어 왔으나 이러한 영향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주장이며 때로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민족성이 계승되거나 획득되어 왔다는 사실은 재일한인 청소년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1995년 한국대사관이 주관한 ‘재일한국인생활의식조사’, 그리고 1997년 재일한국청년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재일한국인의 사회성증과 사회의식조사’, 민단에서 1987년에 실시한 ‘재일동포의 생활실태와 의식조사’, 2000년도에 민단이 주관한 ‘재일한국인 의식조사’ 등이 있다.

그중에서 먼저 도쿄청상이 실시한 ‘재일한국인 사회성증과 사회의식조사

(1997년)'은 청년상공인이 주체가 되어 재일동포의 직업, 민족의식, 생활환경 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조사결과, '사망', '연락처 불명', '일본국적 취득', '대상연령'이 아닌 응답자를 제외하고 1280명의 조사대상자로부터 899명의 조사표가 회수되었다. 이 조사는 특히 20세 이상의 한국국민등록을 마치고 직업을 가진 남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과거 및 현재의 재일한인의 생활과 의식구조나 동태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재일한인 청소년과 일본인 사이의 교육달성에 대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일한인은 교육에 대한 민족차별을 의욕과 능력에 의해 돌파해왔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회적 지위달성의 지표로서 직업을 분석한 결과 재일한인 청소년과 일본인과의 격차는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재일한국인이 비공식적인 네트워크 동원이라는 상호기능을 활용하여 불평등을 극복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재일한인이 소규모자영업에 집중된 원인도 이러한 결과이며 젊은 청소년 세대는 부모세대가 축적한 자원을 계승하여 세대간 상승이동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단(2000년)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재일한국인 의식조사'는 재일동포의 조직이탈 현상을 염두에 두고 민단이 21세기에 어울리는 재일동포사회의 비전과 조직을 갖추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재일동포의 실태와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특히 재일한국여성들과 15세~64세까지의 폭넓은 세대의 재일한국인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의견을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내용범위에서는 가족이나 가정 등 재일한인의 생활실태, 민단의 향후 역할, 단원의 민족의식과 사회의식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모집단은 민단명부에 기재된 등록자 중 만 15세~64세까지 약 35만 명의 남녀 대상자 중 150명씩 등간격추출법(계통추출법)에 의해 표본을 추출하여 약 2,924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유효회수율은 1,325명(45.3%)이었다. 이 조사는 과거 수행된 재일한인 의식조사 중 조사대상자 수가 가장 많고 연령이나

재일동포사회의 전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재일한인의 가장 큰 요망사항은 재일한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한 노력,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장소제공, 남북통일에 공헌, 행정 서비스 절차의 증개, 재일한인의 만남의 장소, 재일동포 사회의 다양화에 따른 대책, 재일한인 전문가의 소개육성과 절차 등이었다. 특히 세대별 요구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자신을 2.5세로서 규정한 재일한인의 경우, 한반도나 재일한인의 역사, 전통문화, 한국어 배움의 장소, 사회적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 재일한인 사회의 다양화 대책, 역사자료 센터 설립 등에 대하여 다른 세대보다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정구(2005)의 ‘재일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 한국인, 특히 재일2~재일3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 속에서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견하고 형성해 나가는가를 고찰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재일청소년의 정체성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일본 내 자신의 출신지역에 애착심을 갖고 자기주변의 사회문제와 차별문제를 일본인들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면서, 재일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역사회와의 공생지향’형이다. 둘째, 일본사회에 살고 있지만 일본에 동화되지 않고 ‘재일조선인 사회’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총련계 젊은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조국지향’형이다. 셋째, 자신의 조국이 한국인가 또는 일본인가에 연연하지 않고 개인적 성공을 달성하여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상승이동을 실현하려고 하는 ‘개인지향’형이다. 넷째, 일본사회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동화함으로써 일본인이 되고자하는 ‘귀화지향’형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재일한국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다수의 재일한인청소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교를 마치는 시기에 걸쳐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주위 일본인에게도 알려지게 되며,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주변 일본인으로부터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재일한국인 문제는 궁극적

으로는 재일한국인 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인 또는 일본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재일한국인에 대한 일본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일본사회가 보다 열린 건전한 사회로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국제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일본 사회에도 책임과 의무를 묻고 있다.

오노치야키(2005)의 ‘재일한국인의 귀화에 관한 연구: 3세대를 중심으로’라는 연구에서는 재일3세의 정체성을 귀화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재일한국·조선인의 귀화 실태를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1950년대는 연간 2000명, 1960년대는 2000~3000명, 1970년대에는 4000~5000명, 1980년 이후에는 연간 6000~8000명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재일1세에서 재일2~재일3세로 갈수록 귀화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귀화이유는 사고 속에서의 모국이지 몸으로 아는 모국이 아니며, 그것이 귀화에 대해서 절대적인 거부감을 약화시켰다고 보았다.

또한 아사가와(2003)의 논문을 인용하여 귀화의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할 것이기 때문’이었으며 다음으로 ‘아이에게 일본국적을 부여하기 위하여’, ‘취업에 관한 사유’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조사사례 건수가 겨우 4건에 불과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sup>6)</sup>.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 중반부터 재일한국인에 대한 국내의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정체성·민족성, 그리고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구의 대부분이 재일한국인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층을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김정구(200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연구결과가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것들이어서 재일한인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로서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은 제1차년도 연구에서 ‘재일한인사회의

---

6) 浅川晃宏(2003), 『在日外国人と帰化制度』, 新幹社.

경제환경(최석신, 임채완 외, 2005)’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재일한인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3개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재일한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재일한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규모, 소비패턴, 한국과의 관련성, 자영업 실태 등 재일한인 사회의 경제실태에 대한 기초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재일한인 자영업자 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로부터 총 466부가 회수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2차년도 연구에서는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영활동(임영언, 2006)’에 대하여 3대 거점도시(도쿄, 오사카,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재일한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우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민단체 ‘재일한국상공회의소’와 총련계 ‘재일본상공연합회’ 소속의 재일한국인 기업가 1,059명의 명부를 입수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대규모 기업조사(특히, 재일한인 기업가는 대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인 관계로 설문지나 면접조사에 대한 회수율이 저조하여 총 154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두 조사는 재일한인의 기업가들에 대한 조사의 성격이 강하고 이러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재일한인 기업가 네트워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3차 년도에서는 재일한인 기업가의 네트워크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들 조사결과는 이번 재일한인 청소년 네트워크 연구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재일한인의 강제이주의 배경이나 일본 현지에서의 민족차별, 저학력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구조나 취직차별에 따라 3D업종이나 소규모자본으로 자금유통이 원활한 야끼니쿠산업, 파칭코산업, 부동산 임대업, 소비자금융업 등에 종사한 기업가가 많았다. 재일한인 기업가의 네트워크에서는 현지 동포기업과의 관계에서 네트워크가 강했지만 해외한인 기업가나 모국기업과의 네트워크 관계가 약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 이번 연구와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재일한인 청소년 기업가의 상당수가 부모세대에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세대간 상승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재일한인 청소년의 상당수가 이들 기업가의 자녀이고

이들이 기업을 상속받고 있는 중이거나 나중에 상속받을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의 주요성과는 재일한인 청소년들에 대한 귀화자 증가로 인한 민족성 약화, 민단조직 이탈현상, 재일한일 사회의 다양성, 재일한인 사회의 조직원간의 강한 연줄과 모국과 해외 한인간의 약한 연줄에 의한 연대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1993년 재일한인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재일한인 청소년의 민족성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성장과정상의 민족적 전통성’에 의한 계승과정에 크게 좌우되며 일부는 ‘민족단체에의 각종 참가경험’에 의해서 획득된다고 주장한다.

즉 간단히 말하면 청소년의 민족성이 ‘민족교육’에 의한 획득과정에 크게 규정되거나, 혹은 ‘민족단체에의 참가’나 ‘학력달성’에 의해서도 획득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재일청소년의 민족성이 종래의 ‘계승’된다고 하는 주장에서 ‘획득’된다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일한인 청소년의 활성화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지에서 재일한인의 거주가 오래될수록 당연히 민족성이 약화되어 간다는 주장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재일한인 청소년들은 현재 ‘재일’로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나가기 위해 현재 전국각지에서 힘쓰고 있다. 일본현지의 외국인과의 교류와 공생운동, 민족전통악기의 계승, 일본문화와의 혼합, 소수민족으로서의 메시지 등 ‘재일’이라는 상황으로부터 새로운 문화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결론이다. 이번 연구도 재일한인 청소년의 현황과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재외한인 청소년이나 모국 청소년과의 연대를 통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획득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연구는 재일한인 사회 전반에 대한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재일한인 기업가를 연구 조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전국적인 대규모조사도 있지만 대부분이 민단조직내부의 자체 자료로서 제한된 일정과 비용으로 제한된 지역과 관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생활실태나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먼저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전쟁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조선인과 그 자손에게 협정영주권이 인정되어 이전과 비교하면 많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재일한국인에 대한 일본사회의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이러한 차별로 한국국적을 버리고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자의 지속적인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인 학교가 일본에서 정규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 정규학교로 인가받을 수 있도록 전일제학교의 확대와 교육과정을 개편, 학생 유치를 위한 제반시설 보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전일제 한국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민족학급 운영을 위한 한국과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절실하며, 교원양성이 불가피하므로 민족교육을 받기에는 아직까지 역부족인 상태이다.

또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와 재일한국인의 교육문제와 결부되는 정체성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재일청소년의 정체성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사회에서 재일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적지위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재일1세보다는 재일2~재일3세가, 재일2~재일3세보다는 재일4세가 모국에 대한 정체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일본식통명을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바로 정체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명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부모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부모교육만으로는 한계성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정부차원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재일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민단지부 및 총련 지부 그리고 각종 산하단체를 통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규모의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는데 있다.

이번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일한인 청소년의 민족적 정체성 및 생활실태 파악하고, 일본 국내 및 국외를 연결하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현황, 다양한 네트워크와의 접촉 빈도 및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일한인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촉진 요인 및 저해 요인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한민족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재일한인 청소년 사회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IV. 조사개요

1. 조사개요 및 연구방법
2. 표본의 일반적 특징 및 응답자의 기본  
속성
3. 부모와 가정사정



## IV. 조사개요

### 1. 조사개요 및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하여 재일한인 청소년에 대한 기존문헌 및 국내외 통계자료를 정리하고 사전지식을 통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항목을 구축하였다. 즉, 이 연구의 이론적 근거와 독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에 실시된 조사연구들에 대한 검토와 국내외 재일동포정책 및 청소년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청소년의 분포 및 현황, 생활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 조사의 모집단은 재일한인 청소년 가운데 16세~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연구의 대표성이나 일반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가 보유하고 있는 명부를 활용하여 16세~24세까지의 청소년을 추출한 후 무작위추출(Random Sampling)된 약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sup>7)</sup>. 일본현지 조사원은 공동연구자가 수행하였으며 설문지는 현지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을 거친 후 한국에서 인쇄한 후 일본 현지 공동연구자에게 우송하였다. 공동연구자가 청년회 각 지부를 협력을 얻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면접조사는 연구자가 일본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기간은 2007년 5월말 현지 예비조사를 거쳐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우편조사와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조사표에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는 조사원이 구두로 설문지의 내용을 읽어주고 기입하는 ‘타기식기입법’이 아니라 대상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거나 체크하는 ‘자기

---

7) 민단청년회 부회장에 의하면 전국회원수는 약 2,500명이며 성비는 남성이 60%, 여성이 40%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기입법'을 사용하였으며 면접조사는 직접대면형식의 방문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조사대상지역외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기간과 연구비용의 제약으로 우편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결과의 대표성과 회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터넷설문조사와 재일조선인유학생동맹을 통한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는 대상지역의 조사원으로부터 각 지역의 청소년 약 10명씩을 소개받아 직접 대면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면접조사자는 총 35명이었다.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자 지역의 조사원에게 설문지의 목적이나 취지, 응답방법을 사전에 설명한 후 설문대상자들에게 배포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 조사는 연구의 목적상 재일한인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정체성과, 모국관, 네트워크구축 실태 및 정책적인 제언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설문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설문응답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입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원이 현장에서 체크하여 응답자가 직접 재기입하도록 했다.

심층면접조사는 각종 통계자료나 정확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통계조사나 기초조사에서 누락되기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 간과하기 쉽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중심으로 재일한인 청소년의 현황 및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조사의 중요내용으로서는 재일한인 청소년의 정체성의 변화추이, 다양한 조직이나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에 대한 단체 활동가의 의견, 재일한인 청소년이 다양한 단체나 조직의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힘든 이유 등이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는 재일한인 청소년 관련 핵심인물 및 재일한인 단체 간부, 청소년 차세대 리더, NGO활동가, 민족운동가 등 재일한인 청소년 교류 및 국제교류협력과 관련성이 높은 특수성을 가진 활동가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재일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의 모집단은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적 및 조선적을 소유한 15세~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80년대 전후에 도입한 뉴커머의 자녀들인 청소년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민단중앙본부에 위치한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청년회)가 보유하고 있는 명부를 활용하였다. 청년회는 일본 도도후현에 각 지부를 두고 있는 민단 산하단체 중의 하나이며 청년회가 보유하고 있는 명부로부터 조사대상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재일한인 청소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지역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대학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과 출신지가 다른 청소년도 다수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이들 세 지역이외의 청소년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들 조사대상자로부터 회수된 설문조사표는 전체 633부이며 조사기간은 2007년 5월 20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서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표의 회수에 협력한 조사원은 재일한국인 청년회 각 지부 간부나 NGO활동가, 유학생동맹 간부 및 각 지역 회원들이 대부분이다.

## 2. 표본의 일반적 특징 및 응답자의 기본속성

### 1) 거주지역

이 연구의 조사대상지역은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간토지방,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간사이지방,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하는 규슈지방이다. 그러나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지역을 상세하게 구분한 결과, 5개 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했으며 간토, 아이치, 간사이, 큐슈, 주고쿠/시코쿠 등이다<sup>8)</sup>.

8) 조사대상지역을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먼저 간토지방은 도쿄, 사이다마현, 가나가와현, 니시도쿄시, 이바라키현, 군마현, 도치기현, 야마나시시 등이다. 아이치는 나고야시, 도요가와시, 도요하시시, 기후현, 미에현, 니즈오카현 등이 속한다. 간사이지방은 교토시, 오사카시, 효고현, 나라시, 고베시, 니가현 등이다. 큐슈지역은 후쿠

재일한인 청소년의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간토지방이 9.2%, 아이치현이 33.3%, 간사이지방이 50.6%, 큐슈지방이 4.4%, 주고쿠/시고쿠 등 기타지역이 2.5%로 주로 간사이지방과 간토지방(아이치현은 엄밀히 말하면 간토지방에 속함)의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 거주 지역별 분포

거주지역	빈도	%
간토(關東)	58	9.2
아이치(愛知)	211	33.3
간사이(關西)	320	50.6
큐슈(九州)	28	4.4
주고쿠(中国) · 시고쿠(四国)	16	2.5
합 계	633	100.0

<표 7> 국적 및 거주지역

국적	거주지역별					합계
	간토	아이치	간사이	큐슈	주고쿠, 시고쿠	
한국적	44(9.9)	134(30)	242(54.3)	13(2.9)	13(2.9)	446(100)
조선적	11(9.4)	43(36.8)	49(41.9)	12(10.3)	2(1.7)	117(100)
일본국적	2(4.3)	21(44.7)	21(44.7)	3(6.4)	0(0)	47(100)
합계	57(9.3)	198(32.5)	312(51.1)	28(4.6)	15(2.5)	610(100)

주) 카이제곱(16df)=26.750, p=0.044

<표 7>은 국적과 거주지역을 교차한 표이다. 전반적으로 재일청소년들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간사이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아이치현, 큐슈지역 순

오카시, 사가현, 오이타현, 구마모토시, 미야자키현, 나가사카시, 가고시마현 등이 속한다. 주고쿠/시고쿠, 기타지역은 오카야마시, 히로시마시, 야마구치현, 카가와현, 에히메현 등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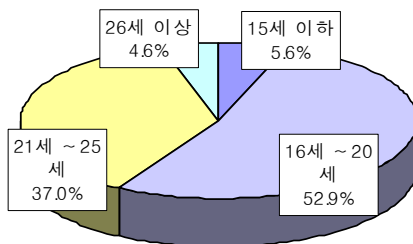
이다. 국적별 거주지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한국적은 아치현보다 간사이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조선적은 간사이지역과 아이치현에 집중되어 있지만 큐슈와 간토지역에도 상당수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국적취득자 역시 간사이지역과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자가 많았다.

## 2) 연령

다음 <표 8>와 [그림 1]은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 대상자가 16~24세까지의 재일한인 청소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조사범주에 속한다. 응답자 전체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6~20세까지의 연령이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21~25세가 37%, 15세 이하가 5.6%, 26세 이상이 4.6%순이다. 이와 같이 이번 조사대상 지역의 재일한인 청소년의 대부분은 고등학생과 대학재학생들이 전체 89.9%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연령별 분포

연령별	빈도	%
15세 이하	35	5.6
16세 ~ 20세	333	52.9
21세 ~ 25세	233	37.0
26세 이상	29	4.6
합계	6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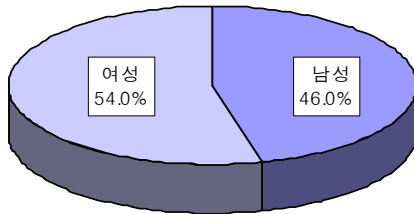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의 연령분포

### 3) 성별

<표 9>과 [그림 2]는 제일한인 청소년의 성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제일한인 청소년의 성별 분포에서는 남성이 291명(46%)에 비해 여성이 340명(54%)을 차지하여 약간 여성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9> 성별분포

성별	빈도	%
남성	291	46.0
여성	341	54.0
합계	632	100.0



[그림 2] 성별분포

사회조사의 대부분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조사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남성보다 여성이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각종 서클활동이나 제일한인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설문조사에도 협력하기 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 제일청소년은 성별로 어느 지역에 더 많이 살고 있을까? <표 10>은 성별과 거주지역을 교차한 표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간사이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남성의 경우 아이치현과 간사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제일청소년은 전체적으로 간사이지역, 아이치현, 간토지방 순으로 제일코리안의 거주지역별 순위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10> 성별 및 거주지역

성별	거주지역					합계
	간토	아이치	간사이	큐슈	주고쿠, 시고쿠	
남성	21(7.2)	113(38.8)	138(47.4)	14(4.8)	5(1.7)	291(100)
여성	37(10.9)	98(28.7)	181(53.1)	14(4.1)	11(3.2)	341(100)
합계	58(9.2)	211(33.4)	319(50.5)	28(4.4)	16(2.5)	632(100)

주) 카이제곱(4df)=9.631, p=0.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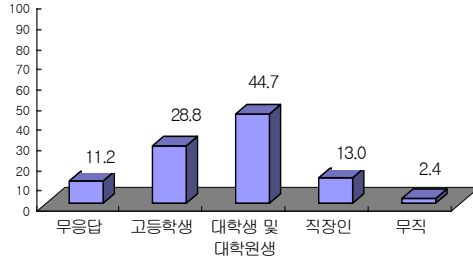
#### 4) 현재신분

다음은 응답자들의 현재의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자. <표 11>와 [그림 3]은 응답자의 현재 신분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28.8%, 회사원이 13%, 무직이 2.4%, 무응답이 11.2%였다. 따라서 약 73.5%가 일본 또는 민족계고등학교이나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연령이나 현재 신분상의 지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현재 신분

신분	빈도	%
고등학생	182	28.8
대학생 및 대학원생	283	44.7
회사원	82	13.0
무직	15	2.4
무응답	71	11.2
합계	633	100.0

(단위:%)



[그림 3] 현재 신분

### 5) 장래희망직업

그러면 제일한인 청소년들은 장래에 어떤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가? <표 12>는 장래의 희망직업을 살펴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sup>9)</sup>. 제일청소년의 장래 희망직업을 살펴본 결과 전문직(변호사, 예술가, 교수, 학자, 의사, 회계사, 교사 등)이 47.6%, 고위관리직(정부3급 이상 공무원, 행정관리, 기업임원 및 이사, 장교이상의 군인 등)이 2.9%, 사무직(정부행정공무원, 기업사무직 종사자, 은행원, 경찰, 하급군인 등)이 6.7%, 기술직(생산 감독, 숙련기술자)이 5.3%, 상업 및 자영업(9인 미만소규모기업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 운전자 등)이 4.7%, 서비스종사자(음식숙박업관리자 및 관련종사자, 미용사 등)가 8.6%, 농업/어업/임업이 0.8%, 생산 및 관련종사자가 0.2%, 가정주부가 6.1%, 무직이 1.2%, 기타 1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제일한인 청소년들은 장래희망직업에서 약 절반정도가 전문직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9) 제일한인청소년의 장래 희망직업과 부모의 직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전문직 등(변호사, 예술가, 교수, 학자, 의사, 회계사, 교사 등 포함), 고위관리직 등(정부 3급 이상 공무원, 행정관리자, 기업체임원/이사, 장교 이상의 군인 등 포함). 사무직 등(정부행정공무원, 기업체 사무직 종사자, 은행원, 경찰, 하위직 군인 등 포함). 기술직 등(생산 감독, 숙련기능공 포함). 상업/자영업(9인 이하 소규모 장사 및 가족종사자, 목공소 주인, 개인택시 운전자 등 포함). 판매종사자(도/소매업종사자, 보험 및 부동산 거래인, 외판원, 점원 등 포함). 서비스직 종사자(음식/숙박업 관리자 및 관련종사자, 이발사, 미용사 등 포함). 농업/어업/임업. 생산 및 관련종사자, 운수 및 단순노무자(공장근로자, 일용노동자 등 포함). 가정주부. 무직. 기타.

나타났으며 이것은 일본사회에서 종래의 민족차별이나 취직차별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일본의 국제화(Globalization)의 영향으로 일본 대기업의 취업이나 전문직으로의 진출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일 1세와 2세들의 일본사회에서의 취업차별과 부모로부터의 계승된 간접차별의 영향을 받아 재일청소년들은 신분상승이나 성공의 중요한 지표로서 전문직에 진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음은 서비스직 종사자가 8.6%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재일 한국인들이 파칭코산업, 야끼니쿠와 음식산업, 부동산임대업 등에 종사자가 많다는 것과 관련이 깊다. 종래의 연구에 의하면 재일청소년들은 재일 1세와 2세들의 기업을 그대로 계승하는 경우가 있으며 서비스직 종사자의 희망이 높은 것은 부모세대의 산업이 재일청소년 3세와 4세들의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12 > 장래희망 직업

직업별	빈도	%
전문직 등	243	47.6
고위관리직 등	15	2.9
사무직 등	34	6.7
기술직	27	5.3
상업, 자영업	24	4.7
판매종사자	24	4.7
서비스직 종사자	44	8.6
농업, 어업, 임업	4	0.8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운수 및 단순 노무자	1	0.2
가정주부	31	6.1
무직	6	1.2
기타	58	11.4
합계	511	100.0

<표 13>는 제일청소년의 성별과 장래희망직업을 교차한 표이다. 제일청소년들의 장래희망직업은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알아보자. 먼저 남녀 모두가 전문직을 희망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기술직과 상업 및 자영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서비스직 종사자나 사무직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여성이 서비스직 종사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야끼니쿠와 음식점 같은 서비스산업 현장에서 여성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전문직 다음으로 기술직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제일 3세, 제일 4세들이 부모세대의 산업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그대로 계승하기 보다는 자기분야의 새로운 직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3> 성별 및 장래희망직업

성별	장래희망직업												합계
	전문직 등	고위 관리직 등	사무직 등	기술직 등	상업, 자영업	판매 종사자	서비스직 종사자	농업, 어업, 임업	생산 및 단순 노무	가정 주부	무직	기타	
남성	114 (46.5)	7 (2.9)	11 (4.5)	23 (9.4)	19 (7.8)	15 (6.1)	13 (5.3)	3 (1.2)	1 (0.4)	0 (0)	4 (1.6)	35 (14.3)	245 (100)
여성	129 (48.5)	8 (3)	23 (8.6)	4 (1.5)	5 (1.9)	9 (3.4)	31 (11.7)	1 (0.4)	0 (0)	31 (11.7)	2 (0.8)	23 (8.6)	266 (100)
합계	243 (47.6)	15 (2.9)	34 (6.7)	27 (5.3)	24 (4.7)	24 (4.7)	44 (8.6)	4 (0.8)	1 (0.2)	31 (6.1)	6 (1.2)	58 (11.4)	511 (100)

주) 표 중 숫자는 빈도, ( )안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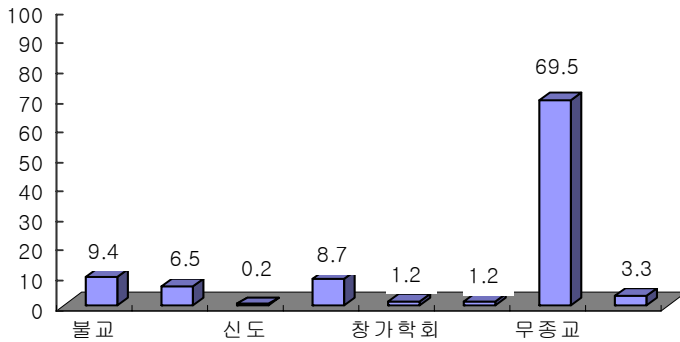
## 6) 종교

다음 <표 14>과 [그림 4]는 제일한인청소년들에게 종교에 대해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무종교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69.5%, 불교가 9.4%, 유교가 8.7%, 기독교가 6.5%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에서 성장한 제일한인청소년들이 제일 1세~제일 2세의 영향을 받아 유교나 불교, 신도를 종교로 생각하기 보다는 무종교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표 14> 종교생활

종교	빈도	%
불교	48	9.4
기독교	33	6.5
신도	1	0.2
유교	44	8.7
참가학회	6	1.2
천주교	6	1.2
무종교	353	69.5
기타	17	3.3
합계	508	100.0

(단위:%)



[그림 4] 종교

<표 15>은 연령과 종교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연령대가 16세에서 25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무종교라고 응답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중에서도 16세에서 20세 청소년의 경우 불교나 유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1세에서 25세의 경우는 불교보다는 유교라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15> 연령별 및 종교

연령	종교								합계
	불교	기독교	신도	유교	창가학회	천주교	무종교	기타	
15세 이하	5 (26.3)	5 (26.3)	0 (0)	0 (0)	0 (0)	0 (0)	8 (42.1)	1 (5.3)	19 (100)
16세~20세	28 (11.2)	21 (8.4)	1 (0.4)	24 (9.6)	5(2)	6 (2.4)	160 (63.7)	6 (2.4)	251 (100)
21세~25세	14 (6.7)	7 (3.3)	0(0)	20 (9.6)	1 (0.5)	0(0)	158 (75.6)	9 (4.3)	209 (100)
26세 이상	1 (3.6)	0(0)	0(0)	0(0)	0(0)	0(0)	27 (96.4)	0(0)	28 (100)
합계	48 (9.5)	33 (6.5)	1 (0.2)	44 (8.7)	6 (1.2)	6 (1.2)	353 (69.6)	16 (3.2)	50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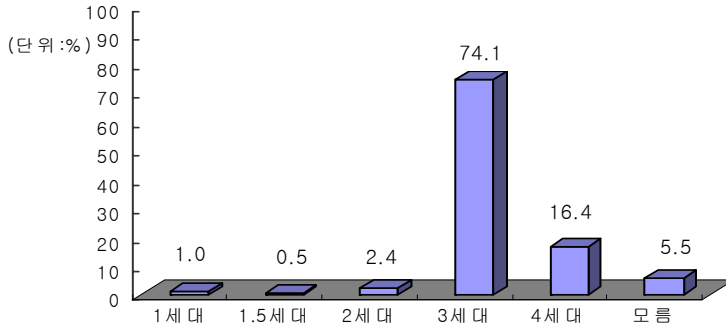
주) 카이제곱(21df)=51.206, p=0.000

### 7) 이민세대

재일한인청소년들에게 ‘당신은 현재 재일한인 몇 세대에 해당되니까?’ 라고 질문하였다. 질문항목에서 1.5세대는 한국에서 출생하여 6~18세 사이에 독일한 청소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재일1세~재일2세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을 가리키고 있다. <표 16>과 [그림 5]는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결과를 보면 재일 3세대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74.1%, 재일 4세대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6.4%, 재일 2세대 청소년이 2.4% 순이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게 재일 3세와 재일 4세가 90.5%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이민 세대별 분포

세대별	빈도	%
재일 1세대	6	1.0
재일 1.5세대	3	0.5
재일 2세대	15	2.4
재일 3세대	456	74.1
재일 4세대	101	16.4
세대 모름	34	5.5
합계	615	100.0



[그림 5] 이민세대별 분포

<표 17> 연령과 이민세대

연령별	이민세대						합계
	재일 1세	재일 1.5세	재일 2세	재일 3세대	재일 4세대	잘 모름	
15세 이하	2(5.7)	1(2.9)	1(2.9)	16(45.7)	8(22.9)	7(20)	35(100)
16세~20세	4(1.3)	1(0.3)	8(2.5)	217(68.2)	62(19.5)	26(8.2)	318(100)
21세~25세	0(0)	1(0.4)	4(1.7)	195(84.4)	30(13)	1(0.4)	231(100)
26세 이상	0(0)	0(0)	2(6.9)	26(89.7)	1(3.4)	0(0)	29(100)
합계	6(1)	3(0.5)	15(2.4)	454(74.1)	101(16.5)	34(5.5)	613(100)

주) 카이제곱(15df)=64.557, p=0.000

다음은 재일청소년의 연령과 이민세대별 교차분석결과를 보자. <표 17>은 청소년의 연령과 이민세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연령별로 14세에서 25세까지 대개 이민 3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재일한인사회는 재일 3세들이 주도권을 형성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부모와 가정사정

#### 1) 부모생존여부 및 민족적 배경

재일한인청소년들의 부모와 가정사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부모의 생존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표 18>은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님 모두 생존이 92.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어머니만 생존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7%, 아버지만 생존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였다. 이번 조사가 재일한인청소년 3세와 4세라는 비교적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생존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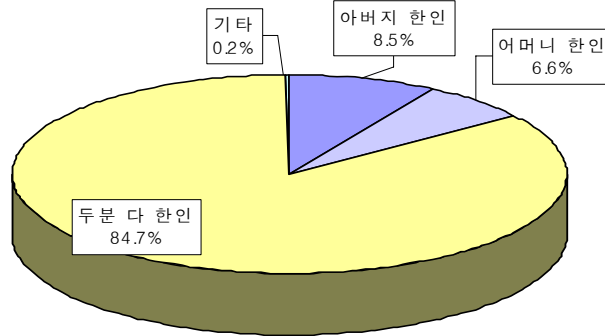
<표 18> 부모의 생존여부

생존여부	빈도	%
부모님 모두 생존	579	92.1
부만 생존	12	1.9
모만 생존	36	5.7
부모님 모두 사망	2	0.3
합계	629	100.0

그러면 이들 부모의 민족적 배경은 무엇인가? 다음은 응답자들에 대한 부모의 민족적 배경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표 19>와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부모 모두가 재일한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4.7%, 아버지가 재일한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5%, 어머니가 재일한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였다. 부모 양쪽이 재일한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즉 이러한 결과는 부모세대의 결혼이 아직까지는 재일한인간의 혼인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19> 부모의 민족 배경

민족적 배경	빈도	%
아버지 한인	52	8.5
어머니 한인	40	6.6
두 분 다 한인	516	84.7
기타	1	0.2
합계	609	100.0



[그림 6] 부모의 민족별 분포

그러면 부모님의 민족적배경이 국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표 20>은 부모님의 민족적배경과 국적을 교차한 표이다. 교차분석결과를 보면 한국적과 조선적 부모가 모두 한인인 경우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특히 조선적의 재일청소년이 부모님의 민족적 배경이 재일한국인의 비율이 높았다. 즉, 조선적의 재일청소년일수록 부모 모두가 재일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반적인 결과를 보더라도 조선국적의 청소년의 부모의 혼혈비율은 한국적부모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표 20> 부모님 민족배경 및 국적

민족배경	국적			합계
	한국적	조선적	일본적	
아버지만 한인	37(72.5)	2(3.9)	12(23.5)	51(100)
어머니만 한인	24(61.5)	5(12.8)	10(25.6)	39(100)
부모님 모두 한인	369(73.5)	108(21.5)	25(5)	502(100)
합계	430(72.5)	115(19.4)	47(7.9)	593(100)

주) 카이제곱(6df)=46.022, p=0.000

## 2) 부모와의 동거여부 및 학력수준

다음은 재일한인청소년이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표 21>은 재일청소년들에게 ‘당신은 현재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부모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7%, 혼자서 자취나 하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7.1%였으며 같은 형제나 자매와 동거하고 있는 비율도 15%순으로 높았다. 응답결과를 보면 재일한인청소년들은 아버지와 동거하는 비율보다 형제나 자매, 또는 어머니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1>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거여부	빈도	%
독신생활	106	17.1
부모와 동거	296	47.7
아버지와 동거	9	1.5
어머니와 동거	51	8.2
형제나 자매와 동거	93	15.0
기타	65	10.5
합계	620	100.0

다음은 부모의 학력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학력을 각각 표시하도록 질문하였다.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는 생존 시의 학력을 표시하도록 했다. <표 22>은 재일한인청소년의 부모의 학력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를 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이하가 7.3%, 고졸이 24.2%, 대졸이 40%, 대학원 이상이 9.6%를 나타내고 있다. 대학졸업 이상이 49.6%로 비교적 고학력자로 나타났다.

<표 22> 부모의 학력수준

부모학력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무학)	46(7.3)	37(5.8)
고등학교 중퇴 졸업	153(24.2)	204(32.2)
대학중퇴 졸업	253(40)	256(40.4)
대학원 이상	61(9.6)	34(5.4)
기타	120(19)	102(16.1)
합계	633(100)	633(100)

어머니의 학력을 살펴보면 중졸이하가 5.8%, 고졸이 32.2%, 대졸이 40.4%, 대학원 이상이 5.4%로 대학졸업 이상이 전체의 45.8%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졸이상은 아버지 학력이 약간 높지만 부모의 학력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와 마찬가지로 재일한인 사회도 학력이 어느 정도 재일한인간의 결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3) 부모의 직업 및 소득수준

<표 23>는 재일한인 청소년의 부모의 직업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모가 이미 정년퇴직을 했거나 돌아가신 경우 재직당시의 직업에 선택하도록 했다. 부모의 직업에 대하여 각각 선택하도록 한 결과 아버지 직업의 경우 전문/관리/사무직이 18.6%, 기술/상업/서비스가 54.2%, 농

업/단순노무가 5.4%이었다.

어머니 직업에 대해서는 전문/사무/관리직이 15.2%, 기술/상업/서비스가 30%, 전업주부가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직업은 한국사회의 유교의 영향을 받아 전업주부가 37%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기술/상업/서비스가 30%, 전문/관리/사무직이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아버지 직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한인간의 결혼이 서비스직은 서비스직, 전문직은 전문직 등 대부분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상의 동류원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23> 부모직업

부모직업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전문, 관리, 사무	118(18.6%)	96(15.2%)
기술, 상업, 서비스	343(54.2%)	190(30%)
농업, 단순노무, 전업주부	34(5.4%)	234(37%)
무직	11(1.7%)	15(2.4%)
무응답 기타	127(20.1%)	98(15.5%)
합계	633(100%)	633(100%)

<표 24>은 가정의 수입정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현재 가족의 수입은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라고 질문한 결과 ‘부족한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4.7%, ‘보통이다’가 38.4%, ‘넉넉한 편이다’가 14.5%, 무응답이 2.4%였다. 재일한인 청소년의 절반이상인 약 52.9%가 가족의 수입정도가 보통이상, 그리고 44.7%가 부족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이것은 재일한인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현상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일한인 사회에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향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4〉 가정 수입정도

수입정도	빈도	%
부족한 편이다	283	44.7
보통이다	243	38.4
넉넉한 편이다	92	14.5
무응답	15	2.4
합계	633	100.0

그러면 제일한인청소년은 가족소득수준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표 25>는 제일한인청소년들의 상대적 빈곤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응답결과를 보면 ‘평균보다 훨씬 낮다’가 14.2%, ‘평균보다 약간 낮다’가 30.5%, ‘평균’이 39.5%, ‘평균보다 약간 높다’가 13.5%, ‘평균보다 훨씬 높다’가 2.3%순으로 나타났다. 제일한인청소년들은 소득수준을 중간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39.5%로 자기가정을 미들클래스로 인정하고 있는 비율이 일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소득수준의 사회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가정수입정도와 소득수준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소득의 양극화에 의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5〉 가족의 소득수준

소득수준	빈도	%
평균보다 훨씬 낮다	86	14.2
평균보다 약간 낮다	185	30.5
평균이다	240	39.5
평균보다 약간 높다	82	13.5
평균보다 훨씬 높다	14	2.3
합계	607	100.0

<표 26> 생활만족도

만족도	빈도	%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	37	6.0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102	16.5
보통이다	239	38.7
만족하는 편이다	179	29.0
매우 만족 한다	61	9.9
합계	618	100.0

그러면 재일한인청소년들은 현재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 <표 26>는 ‘당신은 현재 생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생활만족정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보통이다’가 38.7%, ‘만족하는 편이다’가 29%, ‘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가 16.5%, ‘매우 만족 한다’가 9.9%, ‘전혀 만족하지 못 한다’가 6%로 나타났다. 생활만족정도에서 재일한인청소년들은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5%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V. 재일한인 청소년의 생활실태

1. 청소년의 생활실태
2. 청소년의 가정생활
3. 한국에 대한 관심
4.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5. 민족 정체성(Identity)



## V. 재일한인청소년의 생활실태

### 1. 청소년의 생활실태

#### 1) 조사대상자의 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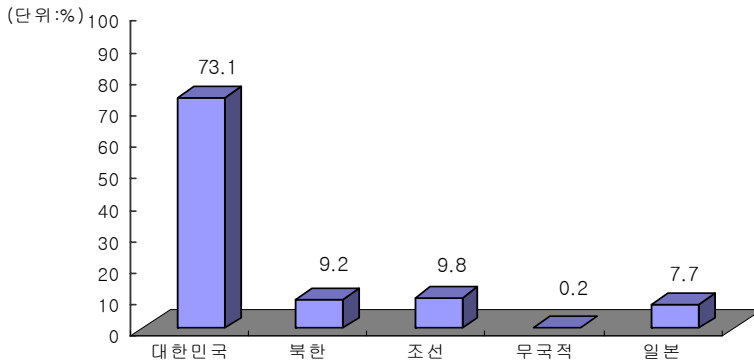
재일한인청소년들의 생활실태에 관해서는 청소년의 현재 국적, 일본국적 취득고려여부, 일본식 통명의 사용, 학교입학 시 사용이름, 졸업학교, 봉사활동여부, 남북통일 희망여부, 남북통일 예상시기, 한국방문여부, 한국뉴스나 한국TV청취경로,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느낌 등에 관해서 조사하였다.

먼저 재일청소년들의 교육과 관련된 질문으로 먼저 조사대상자의 국적이 어디인지를 질문하였다. <표 27>과 [그림 7]은 재일청소년들에게 국적에 대한 질문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대한민국’국적이 73.1%, ‘조선’이 9.8%, ‘북한’이 9.2%, ‘무국적’이 0.2%, ‘일본’이 7.7%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총련계(북한, 조선, 무국적자)가 19.2%, 기타 일본(귀화자)인 순이었다.

<표 28>는 아직 귀화하지 않은 한국적, 또는 조선적을 가지고 있는 재일청소년들에게 일본국적취득을 고려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적별로 교차한 결과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한국적일수록 일본국적취득을 고려하는 청소년들이 많았으며 조선적일수록 일본국적취득을 고려하는 청소년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까지 국적취득에 대하여 무관심한 청소년들의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27> 대상자의 국적

국적	빈도	%
대한민국	446	73.1
북한	56	9.2
조선	60	9.8
무국적	1	0.2
일본	47	7.7
합계	610	100.0



[그림 7] 응답자의 국적

<표 28> 국적 및 일본국적취득고려여부

귀화고려여부	국적		합계
	한국적	조선적	
예	68(97.1)	2(2.9)	70(100)
아니요	251(78.7)	68(21.3)	319(100)
무관심	119(73)	44(27)	163(100)
합계	438(79.3)	114(20.7)	552(100)

주) 카이제곱(4df)=21.065, p=0.000

조선적은 북한, 조선, 무국적자를 포함함.

다음은 국적을 한국적(대한민국), 조선적(북한, 조선, 무국적), 일본적으로 구분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9>은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재일청소년의 활동단체 수, 재일한인 단체 활동 빈도 수, 한국에 대한 느낌, 한국인에 대한 느낌이었다.

국적별 활동 단체 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국적별 활동 단체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4.009$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한국적 집단이 조선적집단보다 활동 단체수가 적었다( $p<.001$ ). 또한 조선적 집단이 일본적 집단보다 유의 많은 활동 단체 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

국적별 한인 단체 활동 빈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국적별 한인 단체 활동 빈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5.528$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는 조선적 집단이 한국적 집단( $p<.001$ )과 일본적 집단( $p<.05$ ) 보다 단체 활동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한국에 대한 느낌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 결과에서는 국적별 한국에 대한 느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1.697$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를 보면 조선적 집단이 한국적 집단보다 한국에 대한 느낌이 높게 나타났다( $p<.001$ ). 또한 일본적 집단이 한국적 집단보다 한국에 대한 느낌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p<.05$ ).

국적별 한국인에 대한 느낌의 차이를 나타내는 일원변량분석(ANOVA)결과, 국적별 한국인에 대한 느낌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2.244$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 조선적 집단이 한국적 집단보다 한국인에 대한 느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1$ ). 또한 일본적 집단이 한국적 집단보다 한국인에 대한 느낌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1$ ).

〈표 29〉 국적별 ANOVA 분석결과

변수	구분	ANOVA 분석결과 ( $\bar{x} \pm S.D.$ )	F(p)
단체 활동 수	한국적	1.18±1.443	24.009 (.000)
	조선적	2.29±1.814	
	일본적	1.47±1.67	
단체 활동 빈도	한국적	.65±1.452	15.528 (.000)
	조선적	1.63±2.459	
	일본적	.87±1.596	
한국에 대한 느낌	한국적	1.68±1.012	11.697 (.000)
	조선적	2.09±.783	
	일본적	2.12±.632	
한국인에 대한 느낌	한국적	1.63±1.004	12.244 (.000)
	조선적	1.99±.826	
	일본적	2.19±.706	

주) N=609(한국적=446, 조선적=117, 일본적=46)

현재 재일청소년들의 국적상황을 조사한 결과, 어릴 적에는 주로 부모의 영향을 받아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재일동포의 귀화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일청소년의 귀화자도 증가추세에 있지만 반대로 자신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고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국적의 역선택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일청소년들은 대개 어릴 적 부모의 국적선택으로 중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심한 갈등과 함께 사춘기를 보내게 되지만 일단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동료들과의 서클활동이나 각종 사회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이나 국적을 다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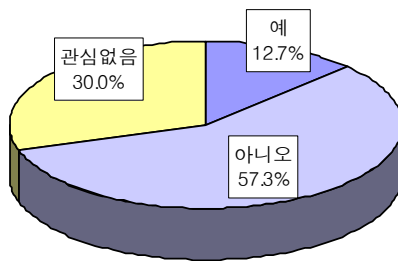
## 2) 일본국적 취득 고려여부

〈표 30〉과 [그림 8]은 귀화하지 않은 재일청소년들에게 향후 일본국적 취득을 고려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국적취득에 대하여 ‘예’

라고 응답한 학생비율이 12.7%, ‘아니요’라고 응답한 비율이 57.3%로 나타났다. 재일청소년들은 향후 일본국적에 대하여 절반이상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지만 국적취득을 고려하고 있거나 국적취득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42.7%로 상당히 높았다. 특히 재일청소년들이 무관심하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글로벌화 시대의 영향으로 자신의 국적에 상당히 개방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일청소년들은 과거 재일 1세나 재일 2세들이 고집하는 법률상의 국적보다는 실질적인 국적취득을 통하여 현지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국적에 관계없이 정체성만은 변하지 않고 재일한국인으로 생활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표 30> 일본국적 취득 고려 여부

귀화여부	빈도	%
예	71	12.7
아니요	319	57.3
무관심	167	30.0
합계	557	100.0



[그림 8] 국적 취득 고려 여부

<표 31> 일상생활에서 사용이름과 일본 국적취득 고려여부

사용이름	일본 국적취득 고려여부			합계
	예	아니요	무관심	
한국식	32(9)	216(60.5)	109(30.5)	357(100)
일본식통명	37(19.9)	98(52.7)	51(27.4)	186(100)
합계	69(12.7)	314(57.8)	160(29.5)	543(100)

주) 카이제곱(2df)=13.188,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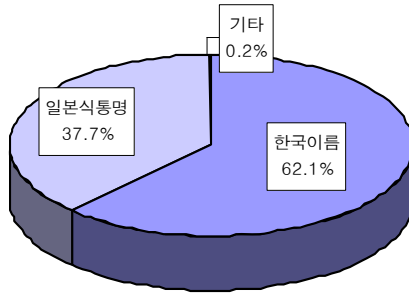
그러면 제일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에 의한 일본국적취득의 고려여부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표 31>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과 일본국적취득을 고려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교차한 표이다. 일상생활에서 일본식 통명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일본국적취득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일수록 일본국적 취득고려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지 않거나 확실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다.

### 3) 일본식 통명의 사용

일상생활에서 제일청소년들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가? <표 32>와 [그림 9]은 제일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름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식 이름이 62.1%, 일본식 통명이 37.7%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일본식 통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2> 일상생활에서 사용 이름

사용이름	빈도	%
한국이름	369	62.1
일본식통명	224	37.7
기타	1	0.2
합계	594	100.0



[그림 9]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름

이것은 재일청소년들이 자신의 이름을 국적과 무관하게 일상생활에서 필요에 따라 각각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활현상은 재일청소년들이 어떠한 계기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으로 생각되며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조선유학동맹의 활동을 통하여 민족의식 재인식이라는 재민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학교 입학 시 이름표기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식 이름	85(29.7)	97(32.3)	120(38.8)
일본식 이름	201(70.3)	203(67.7)	189(61.2)
합계	286(100)	300(100)	309(100)

재일청소년들은 학교입학 시에 자신들의 이름을 어떻게 표기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 표 33>은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 초등학교 때는 일본식 통명의 이름표기가 70.3%, 한국식이름이 29.7%로 나타났다. 중학교입학 시의 경우 일본식이름이 67.7%, 한국식이름이 32.3%, 고등학교의 경우 일본식이름이 61.2%, 한국식이름이 38.8%의 비율로 자신의 이름을 표기했다고 응답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

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본식이름 표기의 응답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한국식이름으로 표기했다는 응답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재일청소년들은 일본사회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졸업학교

재일청소년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졸업학교에 대하여 민족 학교를 졸업했는지, 아니면 일본학교를 졸업했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34>에 나타난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민단계학교는 초등학교가 9.3%, 중학교가 11.4%, 고등학교가 14.5%로 나타났다. 민단계학교의 경우 미미하지만 졸업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총련계 학교의 경우 초등학교가 33.8%, 중학교가 31.4%, 고등학교가 27.7%로 총련계학교 졸업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계공립학교의 졸업자를 보면 초등학교가 49%, 중학교가 41.8%, 고등학교가 32%로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계사립학교의 졸업자는 초등학교가 5.7%, 중학교가 14.2%, 고등학교가 24.1% 대폭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외국계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2.1%, 중학교 1.1%, 고등학교 1.6%로 나타나 글로벌시대의 영향으로 미미하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졸업학교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민단계학교	57(9.3)	70(11.4)	89(14.5)
총련계학교	206(33.8)	192(31.4)	170(27.7)
일본계공립학교	299(49)	256(41.8)	196(32)
일본계사립학교	35(5.7)	87(14.2)	148(24.1)
기타 외국계학교	13(2.1)	7(1.1)	10(1.6)
합계	610(100)	612(100)	613(100)

현재 증가하고 있는 재일청소년의 졸업학교를 보면 민단체학교와 일본계 사립학교로 민단체학교는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계사립학교는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재일청소년들이 총련계민족학교나 일본공립학교보다는 일본유명사립학교의 입학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학교선택도 점차 민족학교보다는 일본사립학교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재일청소년의 이러한 학교선택의 경향은 현재 민족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교육의 질과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35> 초등학교 졸업 및 일본 국적취득 고려여부

졸업학교	국적취득고려여부			합계
	예	아니요	무관심	
민단체학교	8(15.4)	22(42.3)	22(42.3)	52(100)
총련계민족학교	5(2.5)	133(66.5)	62(31)	200(100)
일본공립학교	48(18.9)	140(55.1)	66(26)	254(100)
일본사립학교	7(21.2))	18(54.5)	8(24.2)	33(100)
기타외국계학교	2(16.7)	3(25)	7(58.3)	12(100)
합계	70(12.7)	316(57.4)	165(29.9)	

주) 표 중의 숫자는 빈도, ( )안의 숫자는 %. 카이제곱(8df)=41.458, p=0.000

<표 35>은 다닌 초등학교 및 일본국적 취득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교차한 표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일본계공립학교를 졸업한 재일청소년의 경우 민단체나 총련 민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보다 일본국적취득을 고려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일본계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의 경우 귀화를 지향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교차분석결과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시의 이름표기와 거주지역별 분포를 교차한 결과 일본식 통명을 사용하여 입학한 경우가 간사이지역과 아이치현 지역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졸업초등학교와 거주지역, 졸업중학교와 거주지역을 교차한 결과

총련계 및 일본공립학교, 일본사립학교 출신자는 간사이지역과 아이치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민단계학교 졸업자는 간사이지역에 집중되고 있다<sup>10)</sup>.

<표 36> 고등학교 졸업 및 거주지역

졸업 학교	거주지역					전체
	간토	아이치	간사이	큐슈	주고쿠, 시고쿠	
민단계	1(1.1)	14(15.7)	71(79.8)	2(2.2)	1(1.1)	89(100)
총련계	21(12.4)	60(35.3)	68(40)	16(9.4)	5(2.9)	170(100)
일본계공립	20(10.2)	59(30.1)	104(53.1)	7(3.6)	6(3.1)	196(100)
일본계사립	15(10.1)	59(39.9)	68(45.9)	3(2)	3(2)	148(100)
기타 외국계	0(0)	6(60)	4(40)	0(0)	0(0)	10(100)
합계	57(9.3)	198(32.3)	315(51.4)	28(4.6)	15(2.4)	613(100)

주) 카이제곱(16df)=56.320, p=0.000

다음은 <표 36>과 같이 출신 고등학교와 거주지역을 교차한 결과 총련계 고등학교는 간사이지역과 아이치현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민단계고등학교는 간사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민단계고등학교 4개중 3개가 간사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총련계고등학교는 간사이지역과 간토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또한 간사이지역과 간토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재일청소년들이 일본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상대적으로 민족계고등학교의 학생수의 급감으로 민족학교의 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민족학교는

10) 민단계학교는 총련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학교 수와 학생 수의 면에서 열세이다. 2006년 현재 4개교에 약 1700명 정도가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으며 주로 상사주제원, 대사관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학교 4개교는 도쿄 한국학교(초,중,고), 교토한국학교(중,고), 오사카 백두학원법인의 건국학교(유,초,중,고), 금각학원(유,초,중,고) 등이다. 오사카에 위치한 백두학원과 금강학원은 일본학교 법인인가의 정식학교이고, 도쿄한국학교와 교토의 한국학교는 인가받지 않은 외국계학교이다. 4개교 중 3개교가 간사이지역인 오사카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 국제화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1)</sup>.

### 5) 남북통일 및 자원봉사활동

재일청소년들은 남북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표 37>는 재일청소년들이 남북통일을 희망하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남북통일의 희망의사에 대하여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79.4%, ‘아니요’라고 응답한 비율이 7.7%, ‘무관심’이 12.9%로 나타났다.

<표 37> 남북통일 희망여부

통일희망	빈도	%
예	482	79.4
아니요	47	7.7
무관심	78	12.9
합계	607	100.0

<표 38> 남북통일 예상시기

예상시기	빈도	%
향후 5년 이내	40	8.3
향후 10년 이내	137	28.5
향후 10년 이상	140	29.1
잘 모름	164	34.1
합계	481	100.0

11) 먼저 재일동포 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의 증가(연간 약 1만 명), 동포간의 혼인비율의 감소, 상대적인 외국인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 민족학교 학생 수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감하기 시작하는데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평균 감소 수는 736명,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연평균 322명, 1990년대 중반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약 400-600명, 2003년도에는 초급, 중급, 고급민족학교와 조선대학의 재학생 수가 약 1만 명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조선학교 학부모들은 그들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므로 현재 재일청소년들은 초급학교, 혹은 중급학교를 마치는 시점에서 일본학교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39〉 자원봉사활동 경험유무

자원봉사유무	빈도	%
예	299	49.5
아니요	305	50.5
합계	604	100.0

또한 <표 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북통일의 예상시기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향후 5년 이내’가 8.3%, ‘향후 10년 이내’가 28.5%, ‘향후 10년 이상’이 29.1%, ‘잘 모름’이 34.1%였다. 제일청소년들은 대개 남북통일에 대하여 향후 10년 전후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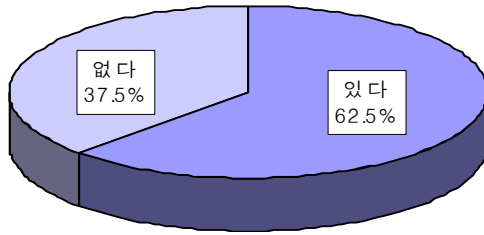
<표 39>는 제일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유무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를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9.5%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6) 한국방문여부

<표 40>과 [그림 10]은 제일한인청소년의 한국방문 여부에 대하여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62.5%가 한국방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37.5%가 한국방문 경험이 없다고 대답했다. 제일청소년 세 명중 두 명은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0〉 한국에 방문 경험여부

경험여부	빈도	%
있다	334	62.5
없다	200	37.5
합계	534	100.0



[그림 10] 한국에 방문경험 여부

<표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일청소년의 국적별 한국방문경험유무를 교차한 결과 한국적의 청소년들이 한국방문의 경험이 많았으며 조선적의 청소년일수록 한국방문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결과 조선적청소년의 경우 한국방문 경험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지만 한국문화,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관심은 한국적청소년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1> 한국방문유무 및 국적

방문경험유무	국적			합계
	한국적	조선적	일본적	
있다	266(81.8)	25(7.7)	34(10.5)	325(100)
없다	93(47.7)	89(45.6)	13(6.7)	195(100)
합계	359(69)	114(21.9)	47(9)	520(100)

주) 카이제곱(2df)=102.593, p=0.000

### 7) 한국뉴스 청취정도 및 청취수단

<표 42>은 제일청소년에게 평소 한국뉴스를 얼마나 자주 듣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일청소년에게 ‘당신은 한국뉴스를 어느 정도 듣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56.6%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뉴스를 전혀, 또는 별로 안 듣는다는 청소년들도 43.3%정도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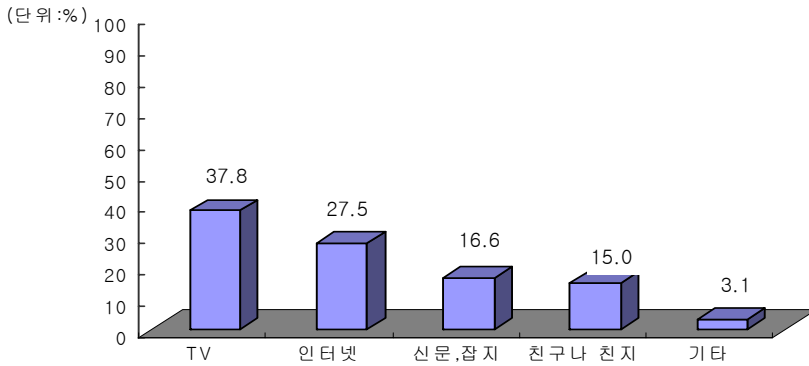
〈표 42〉 한국 뉴스 청취정도

청취정도	빈도	%
매일 듣고 있다	55	10.2
2,3일에 한 번 듣고 있다	139	25.8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있다	111	20.6
별로 안 듣는다	179	33.3
전혀 안 듣는다	54	10.0
합계	538	100.0

그러면 제일 청소년들이 한국뉴스를 듣는 수단(경로)은 무엇인가? ‘청소년들에게 한국뉴스를 듣고 있는 경우 무엇을 통하여 듣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다. <표 43>과 [그림 11]를 보면 TV가 37.8%, 인터넷이 27.5%, 신문/잡지가 16.6%, 친구나 친지가 15%, 기타가 3.1%라고 응답했다. 뉴스 청취수단으로서 TV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최근 젊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터넷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친구나 친지를 통한 한국정보의 입수도 중요한 정보획득 수단의 하나였다.

〈표 43〉 한국뉴스 청취경로

청취수단	빈도	%
TV	169	37.8
인터넷	123	27.5
신문, 잡지	74	16.6
친구나 친지	67	15.0
기타	14	3.1
합계	447	100.0



[그림 11] 한국뉴스 청취수단

<표 44> 청소년성별 및 한국뉴스 청취수단

성별	정보획득수단					합계
	TV	인터넷	신문, 잡지	친구, 친지	기타	
남성	66(31.7)	70(33.7)	34(16.3)	28(13.5)	10(4.8)	208(100)
여성	103(43.3)	53(22.3)	39(16.4)	39(16.4)	4(1.7)	238(100)
합계	169(37.9)	123(27.6)	73(16.4)	67(15)	14(3.1)	446(100)

주) 카이제곱(4df)=13.212, p=0.010

다음 <표 44>은 제일청소년의 한국뉴스 청취경로와 성별을 교차한 표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제일청소년이 남성인 경우 인터넷을 통한 한국뉴스나 정보를 획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는 TV를 통한 한국뉴스나 정보 획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단인 것을 나타냈다. 즉 여성의 경우 TV를 통한 드라마나 각종 한국에 관한 뉴스를 입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남성의 경우 TV도 중요한 정보획득 수단이나 인터넷도 중요한 정보획득 수단 중의 하나였다.

## 8) 한국TV시청

다음은 제일청소년들은 한국TV시청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자. <표 45>은 제일청소년들에게 한국 TV연속극이나 오락프로그램 시청정도를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 ‘자주 시청한다.’가 26.5%. ‘가끔 시청한다.’가 63.9%로 응답해 90.4%가 한국 TV를 시청한 적이 있다고 응답해 최근 한류열풍으로 인하여 한국TV 시청이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한국 연속극, 오락프로 시청 경험여부

TV 시청정도	빈도	%
자주 시청한다.	142	26.5
가끔 시청한다.	342	63.9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	45	8.4
중계가 안 되어 시청할 수 없다	6	1.1
합계	535	100.0

그러면 제일청소년의 성별과 한국연속극이나 오락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교차분석 하였다. <표 46>의 조사결과를 보면 남녀모두가 한국연속극이나 오락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가 남성보다도 한국TV를 시청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V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도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TV시청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청소년의 성별 및 한국TV시청여부

성별	TV시청여부				합계
	자주 시청	가끔 시청	전혀 시청안함	중계가 안 되어 시청 못함	
남성	31(12.2)	183(72)	37(14.6)	3(1.2)	254(100)
여성	110(39.3)	159(56.8)	8(2.9)	3(1.1)	280(100)
합계	141(26.4)	342(64)	45(8.4)	6(1.1)	534(100)

주) 카이제곱(3df)=63.520, p=0.000

재일청소년들은 한국 연속극이나 오락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에 대하여 한국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질문하였다. <표 47>의 조사를 보면 ‘매우 재미있다’가 36.2%, ‘재미있는 편이다’가 40.6%로 전체 76.8%가 한국TV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47> 한국 연속극 및 오락프로그램

한국TV	빈도	%
매우 재미있다	175	36.2
재미있는 편이다	196	40.6
그저 그렇다	94	19.5
유치하고 재미없다	18	3.7
합계	483	100.0

그렇다면 재일청소년들은 성별로 한국TV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자. <표 48>은 재일청소년의 성별분포와 한국TV에 대한 느낌을 교차한 표이다. 교차분석결과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도 한국TV에 대하여 호의적인 경향이 강했으며 매우 재미있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보다 여성이 한국 TV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48> 청소년의 성별 및 한국TV에 대한 느낌

성별	한국TV				합계
	매우 재미있다	재미있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유치하고 재미없다	
남성	40(18.9)	99(46.7)	61(28.8)	12(5.7)	212(100)
여성	134(49.6)	97(35.9)	33(12.2)	6(2.2)	270(100)
합계	174(36.1)	196(40.7)	94(19.5)	18(3.7)	482(100)

주) 카이제곱(3df)=54.959, p=0.000

### 9)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느낌

다음은 제일한인청소년들이 한국을 어떤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표 49>은 제일청소년들에게 ‘당신은 한국에 대하여 어떤 나라로 느끼고 있는가?’라고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이미지에 대하여 ‘좋다’라고 느끼고 있는 비율이 67.4%로 한국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한국이 능력이 있는 나라인지 아닌지를 질문한 결과 64.8%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활동적인 측면에서는 75.7%, 친밀감에서는 63.6%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평가항목 중에서는 활동적인 측면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제일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한국에 대한 느낌<sup>12)</sup>

한국 느낌	매우	약간	어느 쪽도 아님	약간	매우	합계	한국 느낌
좋다	111 (21)	245 (46.4)	152 (28.8)	14 (2.7)	6 (1.1)	528 (100)	나쁘다
능력이 있다	107 (20.2)	236 (44.6)	173 (32.7)	11 (2.1)	2 (0.4)	529 (100)	능력이 없다
활동적이다	173 (32.5)	230 (43.2)	118 (22.1)	9 (1.7)	3 (0.6)	533 (100)	비활동적이다
친밀하다	124 (23.4)	213 (40.2)	170 (32.1)	20 (3.8)	3 (0.6)	530 (100)	친밀하지 않다

주) 표 중의 숫자는 빈도, ( )안의 숫자는 %

12) 좋다 vs. 나쁘다 = good vs. bad; 능력이 있다 vs. 능력이 없다 = capable vs. incapable; 활동적이다 vs. 비활동적이다 = active vs. inactive; 친밀하다 vs. 친밀하지 않다 = intimate vs. not intimate

그러면 제일청소년들은 한국인들에 대하여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표 50>은 한국인들의 이미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에 대하여 66%가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능력에 대해서는 65.3%, 활동에 대해서는 75.5%, 친밀감에서는 68.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한국인에 대한 평가항목에서도 한국에 대한 평가항목과 같이 활동적인 측면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한국이나 한국인에 대한 평가에서 양쪽 모두 부정적인 측면에서 친밀감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제일청소년들은 한국이나 한국인에 대하여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한국인에 대한 느낌

한국인 느낌	매우	약간	어느 쪽도 아님	약간	매우	합계	한국인 느낌
좋다	124 (23.5)	224 (42.5)	163 (30.9)	12 (2.3)	4 (0.8)	527 (100)	나쁘다
능력이 있다	118 (22.3)	227 (43)	177 (33.5)	5 (0.9)	1 (0.2)	528 (100)	능력이 없다
활동적이다	180 (34)	220 (41.5)	122 (23)	8 (1.5)	0 (0)	530 (100)	비활동적이다
친밀하다	162 (30.5)	203 (38.2)	146 (27.5)	15 (2.8)	5 (0.9)	531 (100)	친밀하지 않다

주) 표 중의 숫자는 빈도, ( )안의 숫자는 %

## 2. 청소년의 가정생활

### 1) 부모와 관련된 가정생활

다음은 제일한인청소년들에게 부모와 관련된 가정생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51>은 제일청소년의 가정생활과 관련하여 총 7개의 질문을 통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에서 선택하도록 한 측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 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75.5%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제일청소년들의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은 ‘보통이다’가 17%, ‘대체로 그렇다’가 3.4%, ‘매우 그렇다’가 4.1%로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제일한인청소년 부모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대하여 ‘부모님은 대체로 한국에 대해 좋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질문한 결과 보통 이상이 81.7%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제일한인청소년들의 부모님이 평상시 가정에서 한국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별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청소년도 18.2%나 되었다.

제일청소년 부모들의 한국어 공부에 대한 희망에 대하여 ‘부모님은 내가 한국어 공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질문한 결과,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86.2%나 되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더구나 최근 한류열풍과 더불어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일본국내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일청소년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는가? 이번에는 ‘부모님은 내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질문한 결과 ‘보통이다’가 35.7%, ‘별로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53.6%로 일본에서 직업상의 차별완화와 더불어 직업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체로 10.7%만이 한국과 관련된 직업 갖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한인청소년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가? 에 대하여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신다.’라고 질문한 결과, ‘거의 가르치고 있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50.9%, ‘보통이다’가 29.1%, ‘대체로 가르치고 있다’가 19.9%로 나타났다. 부모들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비율은 절반 이상이 무관심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정보다는 학교나 사회에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권하는 경향이 많았다. 면접조사결과 부모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는 가정에서 구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만 일상적인 대화는 일본어로 의사소통

하는 가정이 많았다.

재일한인청소년의 부모들은 가정에서 한국음식을 어느 정도 만들어 주시는가? '부모님은 한국음식을 즐겨 만드신다'라고 질문한 결과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9.8%로 가정에서 한국음식을 즐겨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에서 한국음식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7%로 재일청소년 열 명중 한명은 가정에서 한국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면접조사결과, 재일청소년의 경우 주로 한국방문횟수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한국음식을 먹거나 접하는데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재일한인청소년의 부모와 관련된 가정생활

가정생활 관련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 한다	303 (49.4)	160 (26.1)	104 (17)	21 (3.4)	25 (4.1)	613 (100)
부모님은 대체로 한국에 대해 좋게 말씀 하신다	42 (6.9)	69 (11.3)	252 (41.4)	137 (22.5)	108 (17.8)	608 (100)
부모님은 내가 한국어 공부하기를 바란다	38 (6.2)	46 (7.6)	192 (31.5)	154 (25.3)	179 (29.4)	609 (100)
부모님은 내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바란다	155 (25.5)	171 (28.1)	217 (35.7)	43 (7.1)	22 (3.6)	608 (100)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신다	168 (27.5)	143 (23.4)	178 (29.1)	76 (12.4)	46 (7.5)	611 (100)
부모님은 한국음식을 즐겨 만드신다	23 (3.7)	31 (5.0)	131 (21.3)	169 (27.5)	260 (42.3)	614 (100)
부모님은 내가 한국인과 결혼하기를 바란다	82 (13.4)	79 (12.9)	171 (27.9)	119 (19.4)	162 (26.4)	613 (100)

주) 표 중의 숫자는 빈도, ( )안의 숫자는 %

마지막으로 부모들의 자녀의 결혼관에 대하여 ‘부모님은 내가 한국인과 결혼하기를 바란다.’라고 질문한 결과,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8%, ‘보통이다’가 27.9%, ‘그렇지 않다’가 26.3%로 여전히 재일한인간의 결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경우 자녀가 좋다면 어떤 국적의 사람과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일한인 또는 한국인들과의 결혼을 선호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 2) 부모와 관련된 가정생활의 T-test 및 ANOVA 분석결과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이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른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5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결과, 남성이 2.77, 여성이 3.0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52>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 독립표본 T-test

변 수	남성	여성	t(p)
	(n=291)	(n=341)	
	$\bar{x} \pm S.D.$	$\bar{x} \pm S.D.$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2.77 ± .914	3.00 ± .788	-3.440 (.011)

주) (t=-3.440, p<.05)

<표 53>은 각 항목에 대한 ANOVA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연령대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변수로서는 연령별, 이민세대별, 거주지역별, 아버지 직업별, 어머니 직업별, 가족수입, 아버지 학력, 현재신분, 부모님의 민족배경, 국적, 졸업학교별로 ANOVA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별, 거주지역별, 어머니 직업별, 가족수입별과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2.260, p>.05).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과

이민세대별, 아버지 학력별, 국적별 평균의 차이는 없었다.

ANOVA분석과 사후검증결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이민세대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일원변량분석(ANOVA) 분석결과, 이민세대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F=2.716, p<.05$ ).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한 결과 이민세대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은 차이가 없었다( $p>.05$ ).

<표 53>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의 ANOVA 분석결과

구분	변수	N	분석결과( $\bar{x} \pm S.D.$ )	F(p)
연령별	15세 이하	35	2.82 ± .803	2.260 (.080)
	16~20세	333	2.85 ± .898	
	21세~25세	233	3.02 ± .714	
이민세대	26세 이상	29	2.84 ± 1.003	2.716 (.019)
	1세대	6	3.26 ± .753	
	1.5세대	3	1.76 ± 1.786	
	2세대	15	3.00 ± .666	
	3세대	456	2.88 ± .781	
	4세대	101	3.08 ± .600	
지역별	잘 모름	34	2.73 ± .880	1.270 (.280)
	간토지방	58	3.00 ± .523	
	아이치	211	2.82 ± .975	
	간사이지방	320	2.90 ± .839	
아버지 직업	규슈	28	3.12 ± .648	3.811 (.010)
	쥬고쿠, 시고쿠	16	3.05 ± .703	
	전문, 관리, 사무	118	3.10 ± .703	
	기술, 상업, 서비스	343	2.93 ± .768	
어머니 직업	농업, 단순노무, 주부	34	2.62 ± .990	1.255 (.289)
	무직	11	3.16 ± .817	
	전문, 관리, 사무	96	2.94 ± .786	
	기술, 상업, 서비스	190	3.00 ± .726	
가족 수입	농업, 단순노무, 주부	234	2.62 ± .851	2.285 (.103)

	무직	15	2.94 ± .909	
	부족한 편이다	283	2.93 ± .821	
아버지 학력	보통이다	243	2.88 ± .828	4.346 (.005)
	넉넉한 편이다	92	3.09 ± .691	
	중졸이하	46	2.71 ± .736	
현재신분	고등학교 중퇴·졸업	153	2.82 ± .817	8.338 (.000)
	대학교 중퇴·졸업	253	3.15 ± .793	
	대학원 이상	61	2.94 ± .862	
	고등학생	182	2.62 ± .974	
부모님 민족배경	대학생, 대학원생	283	3.02 ± .797	7.212 (.001)
	직장인	82	2.95 ± .656	
	무직	15	3.01 ± 1.077	
	아버지 한인	52	2.72 ± .909	
국적	어머니 한인	40	2.51 ± .873	14.594 (.000)
	두 분 다 한인	516	2.95 ± .787	
	한국적	446	2.97 ± .712	
	조선적	117	3.18 ± .730	
초등학교 출신	일본적	46	2.52 ± .606	13.347 (.000)
	민단계학교	57	2.76 ± .953	
	총련계학교	206	3.25 ± .698	
	일본계 공립학교	299	2.76 ± .759	
	일본계 사립학교	35	2.76 ± .887	
	기타 외국계학교	13	2.99 ± 1.002	
중학교 출신	민단계학교	70	2.91 ± .921	13.212 (.000)
	총련계학교	192	3.25 ± .684	
	일본계 공립학교	256	2.72 ± .770	
	일본계 사립학교	87	2.84 ± .825	
	기타 외국계학교	7	2.88 ± 1.025	
고등학교 출신	민단계학교	89	2.80 ± .988	10.269 (.000)
	총련계학교	170	3.24 ± .697	
	일본계 공립학교	196	2.75 ± .748	
	일본계 사립학교	148	2.90 ± .773	
	기타 외국계학교	10	2.60 ± .933	

거주지역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과의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거주지역별로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270, p>.05$ ).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과 아버지 직업별 일원변량분석(ANOVA)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811, p<.05$ ).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한 결과 아버지 직업이 전문, 관리, 사무직인 집단이 농업, 단순노무, 주부 집단에 비해 가정생활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p<.05$ ).

어머니 직업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어머니 직업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270, p>.05$ ).

가족 수입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족수입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2.285, p>.05$ ).

아버지 학력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아버지 학력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4.346, p<.01$ ).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한 결과 아버지 학력별 가정생활 평균은 차이가 없었다( $p>.05$ ).

현재신분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신분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8.338,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한 결과 대학생·대학원생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가정생활 평균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고, 직장인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p<.05$ ).

부모님 민족 배경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모님 민족 배경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7.212, p<.05$ ).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한 결과 두 분다 한인인 집단이 어머니만

한인인 집단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05$ ).

국적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국적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4.594$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국적이 조선인 집단이 한국 국적( $p<.05$ )이나 일본 국적 집단( $p<.001$ )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고, 한국적집단이 일본국적 집단보다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에서 높은 평균을 보였다( $p<.001$ ).

초등학교 출신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닌 초등학교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3.347$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한 결과 총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p<.05$ ).

중학교 출신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닌 중학교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3.212$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한 결과 총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p<.05$ ).

고등학교 출신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다닌 고등학교별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0.269$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 한 결과 총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p<.05$ ).

이상과 같이 ANOVA분석과 T-test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가정생활에서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및 한국에 대한 평가, 직업이나 음식, 결혼 등에 대한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님의 영향이나 간섭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ANOVA 분석 및 T-test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과 아버지 직업과의 차이로 아버지 직업이 전문, 관리, 사무직에 종사한 경우 가정생활 전반에 관한 평균점수가 높았다. 청소년의 현재 신분과 가정생활과의 ANOVA 분석 및 사후검증결과는 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가 가정생활과의 평균점수가 높았고, 고등학생 집단보다는 직장인 집단의 평균이 높았다. 또한 부모 양쪽 모두가 한국인인 경우가 어머니만 한인인 경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학교와 가정생활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총련계 졸업생들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즉 총련계 출신학생들이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많고 한국음식문화나 재일한국인과 결혼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방문 경험 여부에 따른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5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결과, 방문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평균이 3.01, 방문경험이 없는 집단이 3.02로 방문 여부에 따른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은 차이가 없었다( $t=.116, p>.05$ ). 즉, 한국방문의 유무가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집단이 오히려 일본 내 부모님과의 가정생활에서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 독립표본 T-test

변 수	방문경험 있다 (n=329)	방문경험 없다 (n=197)	t(p)
	$\bar{x} \pm S.D.$	$\bar{x} \pm S.D.$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평균	3.01 ± .709	3.02 ± .788	.116(.908)

### 3. 한국에 대한 관심

#### 1) 재일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관심

다음은 재일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에 살펴보도록 하자. <표 55>은 재일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한국관련뉴스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56.7%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가 30.6%로 대체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재일한인청소년들에게 향후 한국 방문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향후 2-3년 이내에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약 절반에 가까운 50.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재일청소년이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할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21.9%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즉 재일한인청소년들이 향후 한국에 방문할 계획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지만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할 계획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재일청소년이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78.5%가 그렇다고 응답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향후 재일청소년이 한국정부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를 통하여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있는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63.9%가 그렇다고 응답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한국방문과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원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55> 한국에 대한 관심

관련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한국관련 뉴스에 관심이 있다	35 (6.6)	33 (6.2)	163 (30.6)	162 (30.4)	140 (26.3)	533 (100)
향후 2-3년 내게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	86 (16.2)	88 (16.6)	88 (16.6)	93 (17.5)	176 (33.1)	531 (100)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할 계획이 있다	142 (27)	145 (27.6)	124 (23.6)	52 (9.9)	63 (12)	526 (100)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24 (4.6)	20 (3.8)	69 (13.1)	120 (22.8)	293 (55.7)	526 (100)
한국에 있는 내 나이 또래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싶다	39 (7.4)	30 (5.7)	121 (23)	131 (24.9)	205 (39)	526 (100)
나는 배우자로 한국(조선) 사람을 선택할 것 이다	52 (9.9)	57 (10.9)	177 (33.8)	80 (15.3)	158 (30.2)	524 (100)
한국(조선)과 관련 있는 직업 갖기를 계획하고 있다	73 (14)	90 (17.2)	221 (42.3)	69 (13.2)	70 (13.4)	523 (100)
나는 나의 부모님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86 (16.3)	97 (18.4)	199 (37.7)	70 (13.3)	76 (14.4)	528 (100)
나는 나의 부모님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122 (23.1)	137 (26)	155 (29.4)	65 (12.3)	48 (9.1)	527 (100)
한국어(조선어)를 배워두면 장래 직업이나 진로 설정에 더 유리할 것이다	25 (4.8)	43 (8.2)	148 (28.1)	145 (27.6)	165 (31.4)	526 (100)

주) 표 중의 숫자는 빈도, ( )안의 숫자는 %

재일청소년이 결혼시의 배우자 선택에 대하여 ‘배우자로 한국(조선)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결과 45.5%가 그렇다고 응답해 아직까지 민족간의 결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의 한국사람 선택에 대하여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3.8%,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이 20.8%로 약 절반이상이 민족간의 결혼에 대하여 전보다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청소년에게 ‘한국(조선)과 관련 있는 직업 갖기를 계획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보통이다’가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가 26.6%, ‘그렇지 않다’가 31.2%로 직업과 한국과의 관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다음은 재일청소년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부모보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가?’라고 질문했다. 응답결과를 보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27.7%,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4.7%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부모세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부모보다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한 결과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9.1%로 ‘그렇다’고 응답한 21.4%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한국어(조선어)를 배워두면 장래 직업이나 진로 설정에 더 유리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59%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13% 비해 월등히 높았다. 재일청소년은 한국어를 향후 직업이나 진로선택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총련과는 달리 과거 일부 민단계 출신의 재일청소년의 경우 잊어야 할 언어로부터 배워야 할 긍정적인 언어로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 2) 한국에 대한 관심의 T-test 및 ANOVA 분석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남성과 여성이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을 실시하였다. <표 5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결과, 평균은 남성이 2.71,

여성이 2.80으로 여성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795, p<.05$ ).

<표 56> 한국에 대한 관심 평균 독립표본 t-test

변 수	남성	여성	t(p)
	(n=291)	(n=341)	
	$\bar{x} \pm S.D.$	$\bar{x} \pm S.D.$	
한국에 대한 관심	2.71 ± 1.321	2.80 ± 1.472	-.795 (.029)

<표 56>은 한국에 대한 관심 항목별 ANOVA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연령대별 한국에 대한 관심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별 한국에 대한 관심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0.543,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한 결과 26세 이상인 집단과 21세~25세인 집단이 16세~20세인 집단과 15세 이하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 평균이 더 높았고, 16세~20세인 집단이 15세 이하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 평균이 더 높았다( $p<.05$ ).

이민세대별 한국에 대한 관심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5.002,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는 3세대 집단과 4세대 집단이 이민세대를 모르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 평균이 더 높았다( $p<.05$ ).

거주지역별 한국에 대한 관심의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5.218,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을 실시한 결과, 큐슈지방에 사는 집단이 간토지방에 사는 집단과 주고쿠시고쿠에 사는 집단에 보다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의 평균이 더 높았다( $p<.05$ ).

현재신분별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한국에 대한 관심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94.605$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한 결과 대학생·대학원생 집단과 직장인 집단, 무직인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한국에 대한 관심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

<표 57> 한국에 대한 관심의 ANOVA 분석결과

구분	변수	N	분석결과( $\bar{x} \pm S.D.$ )	F(p)
연령별	15세 이하	35	1.48 ± 1.459	30.543 (.000)
	16~20세	333	2.49 ± 1.505	
	21세~25세	233	3.30 ± .985	
	26세 이상	29	3.29 ± .961	
이민세대	1세대	6	2.05 ± 1.597	5.002 (.000)
	1.5세대	3	1.06 ± 1.510	
	2세대	15	2.75 ± 1.249	
	3세대	456	2.85 ± 1.365	
	4세대	101	2.88 ± 1.397	
	잘 모름	34	1.75 ± 1.310	
지역별	간토지방	58	2.29 ± 1.740	5.218 (.000)
	아이치	211	2.84 ± 1.377	
	간사이지방	320	2.77 ± 1.337	
	규슈	28	3.48 ± .698	
	쥬고쿠, 시고쿠	16	1.92 ± 1.833	
아버지 직업	전문, 관리, 사무	118	2.90 ± 1.274	.953 (.415)
	기술, 상업, 서비스	343	2.84 ± 1.367	
	농업, 단순노무, 주부	34	2.61 ± 1.730	
	무직	11	3.37 ± 1.179	
어머니 직업	전문, 관리, 사무	96	2.80 ± 1.472	.716 (.543)
	기술, 상업, 서비스	190	2.76 ± 1.455	
	농업, 단순노무, 주부	234	2.93 ± 1.263	
	무직	15	3.05 ± .093	
가족 수입	부족한 편이다	283	2.83 ± 1.441	.864 (.422)
	보통이다	243	2.71 ± 1.375	
	넉넉한 편이다	92	2.91 ± 1.255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46	2.89 ± 1.377	.846 (.469)
	고등학교 중퇴·졸업	153	2.61 ± 1.613	

	대학교 중퇴·졸업	253	2.80 ± 1.403	
	대학원 이상	61	2.87 ± 1.118	
현재신분	고등학생	182	1.47 ± 1.475	94.605 (.000)
	대학생, 대학원생	283	3.22 ± 1.074	
	직장인	82	3.42 ± .772	
	무직	15	3.16 ± .998	
부모님 민족배경	아버지 한인	52	2.65 ± 1.369	1.067 (.444)
	어머니 한인	40	2.48 ± 1.494	
	두 분 다 한인	516	2.84 ± 1.372	
국적	한국적	446	2.97 ± .712	14.594 (.000)
	조선적	117	3.18 ± .730	
	일본	46	2.52 ± .606	
초등학교 출신	민단계학교	57	2.33 ± 1.240	12.613 (.000)
	총련계학교	206	3.33 ± 1.111	
	일본계 공립학교	299	2.57 ± 1.464	
	일본계 사립학교	35	2.48 ± 1.437	
	기타 외국계학교	13	2.89 ± 1.236	
중학교 출신	민단계학교	70	2.51 ± 1.282	13.129 (.000)
	총련계학교	192	3.37 ± .982	
	일본계 공립학교	256	2.53 ± 1.488	
	일본계 사립학교	87	2.55 ± 1.508	
	기타 외국계학교	7	3.09 ± .942	
고등학교 출신	민단계학교	89	2.60 ± 1.072	16.761 (.000)
	총련계학교	170	3.45 ± .839	
	일본계 공립학교	196	2.35 ± 1.614	
	일본계 사립학교	148	2.77 ± 1.472	
	기타 외국계학교	10	2.97 ± .685	

국적별 한국에 대한 관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4.327$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국적이 한국인 집단이 조선적인 집단( $p<.001$ )과 일본 국적인 집단 ( $p<.05$ )보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 $p<.001$ ).

기타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가족수입, 아버지

학력, 부모님의 민족배경, 국적별로 ANOVA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58> 한국에 대한 관심 평균 독립표본 T-test

변 수	방문경험 있다	방문경험 없다	t(p)
	(n=334)	(n=220)	
	$\bar{x} \pm S.D.$	$\bar{x} \pm S.D.$	
한국에 대한 관심	3.24 ± .884	3.22 ± .892	.187(.862)

상기 <표 58>는 한국방문의 경험유무에 따라 제일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결과, 방문경험이 있는 집단의 경우 평균이 3.24, 방문경험이 없는 집단이 3.22로 방문유무에 따른 한국에 대한 관심의 평균은 차이가 없었다( $t=.187, p>.05$ ). 한국방문 여부에 의한 한국에 대한 관심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 1) 한국어와 한국문화

제일한인청소년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표 59>는 제일청소년들에게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한민족(조선민족) 배경은 내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7.4%, ‘그렇지 않다’가 16.5%, ‘보통이다’가 46.1%로 나타났다. 제일청소년들이 한민족의 배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약 절반 이상이 민족적인 배경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한국의 전통명절에 대하여 재일청소년이 가정에서 설, 추석, 단오, 한식 등 한국의 전통명절을 쇠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재일청소년 61.2%가 한국 고유의 전통명절을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15.5%였다. 재일청소년의 경우 가정에서 약 6할 이상이 전통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청소년들은 한민족문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청소년들에게 ‘나는 한민족(조선민족) 문화를 많이 알고 있다.’라고 질문한 결과 32%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29.2%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결과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8.8%로 대개 청소년들은 한민족문화에 대하여 가정교육 수준에서 한번 들어본 정도이고 학교교육이나 문화강좌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재일한인청소년들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듣기, 말하기, 쓰기능력을 평가하였다. 먼저 한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에서는 약 절반가량인 41.7%가 듣고 이해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재일청소년의 40.3%가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총련계 민족학교의 감소와 더불어 일본국공립학교에의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어의 말하기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38.7%가 구사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43.5%가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한국어의 쓰기능력에서는 43.8%가 한국어를 읽고 쓸 수 있다고 38.2%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을 전반적으로 약 4할 정도가 한국어를 구사하거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이해도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한민족(조선민족) 배경은 내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31 (5)	71 (11.5)	285 (46.1)	105 (17)	126 (20.4)	618 (100)
2. 설, 추석, 단오, 한식 등 한국의 전통명절을 쇠고 있다.	34 (5.5)	62 (10)	144 (23.3)	179 (29)	199 (32.2)	618 (100)
3. 나는 한민족(조선민족) 문화를 많이 알고 있다.	37 (6)	143 (23.2)	239 (38.8)	130 (21.1)	67 (10.9)	616 (100)
4. 나는 한국어(조선어)를 듣고 이해한다.	123 (19.9)	126 (20.4)	111 (18)	148 (23.9)	110 (17.8)	618 (100)
5. 나는 한국어(조선어)를 말할 수 있다.	141 (22.7)	129 (20.8)	110 (17.7)	129 (20.8)	111 (17.9)	620 (100)
6. 나는 한국어(조선어)를 읽고 쓸 수 있다.	126 (20.3)	111 (17.9)	111 (17.9)	136 (21.9)	136 (21.9)	620 (100)

주) 표 중의 숫자는 빈도, ( )안의 숫자는 %

대개의 경우 초등학교, 중등학교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민족학교를 경험한 학생의 경우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초등학교 이후 계속해서 일본계 학교를 졸업한 경우 대학에 입학하여 서클활동이나 유학생 동맹을 통하여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T-test 및 ANOVA분석

다음은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6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결과, 평균은 남성이 3.01, 여성이 3.20으로 여성과 남성의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2.237, p>.05$ ). 즉 남성과 여성사이의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차이가 없었다.

<표 60>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평균 독립표본 T-test

변 수	남성	여성	t(p)
	(n=291)	(n=341)	
	$\bar{x} \pm S.D.$	$\bar{x} \pm S.D.$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평균	3.01 ± .914	3.20 ± .788	-2.237 (.121)

<표 61>은 각 항목별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ANOVA 분석결과이다. 연령대별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4.617, p<.01). 사후검증(Scheffe test)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21세~25세인 집단이 16세~20세인 집단에 비해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5).

아버지 학력별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의 일원변량분석(ANOVA)결과, 아버지 학력별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3.566, p<.05).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에서도 아버지 학력이 대학이나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집단이 중졸이하인 집단에 비해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5).

현재신분별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현재신분별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2.992, p<.05).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는 고등학생 집단이 대학생·대학원생 집단과 직장인 집단에 비해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p<.05).

부모님의 민족 배경별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의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는 일원변량분석(ANOVA)에서는 부모님 민족 배경별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148, p<.01).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 두 분 다 한인인 집단이 아버지만 한인인 집단과 어머니만 한인인 집단보다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05$ ).

국적별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ANOVA)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F=60.983$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조선적 집단이 한국적 집단 보다 평균이 높았고 ( $p<.001$ ), 일본적 집단보다도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 $p<.001$ ). 또한 한국적 집단이 일본적 집단보다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서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 $p<.05$ ).

다년 초등학교별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ANOVA)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05.447$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 결과에서는 총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기타 외국계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p<.05$ ).

<표 61>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ANOVA 분석결과

구분	변수	N	ANOVA 분석결과 ( $\bar{x} \pm S.D.$ )	F(p)
연령별	15세 이하	35	2.89 ± .879	4.617 (.003)
	16~20세	333	3.00 ± 1.130	
	21세~25세	233	3.29 ± 1.047	
	26세 이상	29	3.41 ± 1.040	
이민세대	1세대	6	3.78 ± .750	2.177 (.055)
	1.5세대	3	3.61 ± 1.085	
	2세대	15	2.88 ± 1.106	
	3세대	456	3.12 ± 1.104	
	4세대	101	3.22 ± 1.021	
지역별	잘 모름	34	2.65 ± .922	1.316 (.263)
	간토지방	58	3.28 ± 1.218	
	아이치	211	3.06 ± 1.165	

	간사이지방	320	3.08 ± 1.036	
	큐슈	28	3.48 ± 1.035	
	쥬고쿠, 시고쿠	16	3.19 ± 1.022	
아버지 직업	전문, 관리, 사무	118	3.30 ± 1.022	1.611 (.186)
	기술, 상업, 서비스	343	3.12 ± 1.060	
	농업, 단순노무, 주부	34	2.92 ± 1.116	
	무직	11	2.89 ± .920	
어머니 직업	전문, 관리, 사무	96	3.30 ± 1.084	1.208 (.306)
	기술, 상업, 서비스	190	3.16 ± 1.115	
	농업, 단순노무, 주부	234	3.07 ± .994	
	무직	15	2.98 ± 1.037	
가족 수입	부족한 편이다	283	3.18 ± 1.087	.805 (.448)
	보통이다	243	3.06 ± 1.122	
	넉넉한 편이다	92	3.16 ± .919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46	2.86 ± .895	3.566 (.014)
	고등학교 중퇴·졸업	153	3.07 ± 1.145	
	대학교 중퇴·졸업	253	3.50 ± 1.087	
	대학원 이상	61	3.13 ± .974	
현재신분	고등학생	182	2.69 ± 1.101	12.992 (.000)
	대학생, 대학원생	283	3.26 ± 1.010	
	직장인	82	3.34 ± 1.085	
	무직	15	2.80 ± 1.305	
부모님 민족배경	아버지 한인	52	2.73 ± .982	7.583 (.001)
	어머니 한인	40	2.68 ± 1.100	
	두 분 다 한인	516	3.18 ± 1.068	
국적	한국적	446	2.99 ± 1.006	60.983 (.000)
	조선적	117	4.00 ± .832	
	일본적	46	2.54 ± .858	
초등학교 출신	민단계학교	57	3.20 ± 1.030	105.447 (.000)
	총련계학교	206	4.03 ± .736	
	일본계 공립학교	299	2.55 ± .836	
	일본계 사립학교	35	2.60 ± .760	
	기타 외국계학교	13	3.69 ± .799	
중학교 출신	민단계학교	70	3.32 ± .995	107.816 (.000)
	총련계학교	192	4.06 ± .684	
	일본계 공립학교	256	2.50 ± .822	
	일본계 사립학교	87	2.71 ± .858	
	기타 외국계학교	7	3.71 ± 1.074	
고등학교 출신	민단계학교	89	1.08 ± 1.081	73.171 (.000)
	총련계학교	170	.70 ± .702	
	일본계 공립학교	196	.89 ± .888	
	일본계 사립학교	148	.89 ± .893	
	기타 외국계학교	10	1.03 ± 1.028	

다닌 중학교별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ANOVA)결과, 다닌 중학교별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07.816,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 총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기타 외국계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p<.05$ ).

<표 62> 한국 언어와 문화 이해도에 대한 평균 독립표본 T-test

변 수	한국에 방문해 본적 있다 (n=334)	한국에 방문해 본적 없다 (n=220)	t(p)
	$\bar{x} \pm S.D.$	$\bar{x} \pm S.D.$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평균	3.10 ± .981	3.42 ± 1.113	-3.514 (.024)

다닌 고등학교별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ANOVA)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73.171,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에서는 총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기타 외국계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p<.05$ ).

기타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이민세대별, 거주지역별,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가족수입에 대한 일원변량분석(ANOVA)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한국 방문 경험 유무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6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결과, 한국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이 3.10, 한국에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이 3.42로 한국에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 집단이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서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t=-3.514, p<.05$ ). 즉 한국을 한번이라고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집단일수록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 민족 정체성(Identity)

### 1) 재일청소년의 한민족 정체성

다음 <표 63>는 재일청소년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과 관하여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질문은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후손이라는 점이 자랑스롭다.’라고 질문하여 평가하도록 했다.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하여 46.9%가 한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의외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0.9%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면 재일한인청소년들은 한민족의 전통이나, 역사, 관습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노력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재일청소년들에게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라고 평가하도록 질문한 결과 51.4%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15.2%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재일청소년들이 한국문화나 역사, 관습에 대한 관심은 상

당히 높은 편이라고 일본국내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재일한인청소년들은 재일한인단체나 조직참여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재일청소년들에게 ‘나는 주로 한인(조선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또는 사회단체(협회, 동호회, 동향인 모임 등)에 활발하게 참여한다.’라고 질문하여 선택하도록 한 결과, 29.3%가 한인단체나 조직참여에 무관심하다고 응답했으며 34.9%가 단체나 조직에 참여하고 응답했다. 다른 항목에 비해 재일청소년들의 단체나 조직참여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젊은 세대의 민단이나 총련조직으로부터의 조직이탈현상이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중에서 재일청소년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서는 학생회, 한국유학생동맹, 재일조선인유학동맹, 재일한국청년회, 재일조선인장학회 등 주로 학생활동과 관련된 서클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재일청소년들이 한민족의 민족적 배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한민족의 배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0.3%,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민족적 배경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국내 학생들이 재일청소년들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재일청소년 자신들의 민족적 배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 향후 재일한국인 역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재일청소년들은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한민족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8.2%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 ‘보통이다’가 38.6%로 한민족에 대하여 관망하는 자세가 여전히 높으나 한민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재일청소년들이 한민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

가? 대체로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3.8%였으나 재일청소년의 22.7%가 거의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재일청소년들의 단체나 조직 활동과도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일한인청소년의 정체성 혼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3> 한민족(조선민족)의 정체성 관련

관련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후손이라는 점이 자랑스럽다.	19 (3.1%)	56 (9.1%)	252 (40.9%)	130 (21.1%)	159 (25.8%)	616 (100%)
2.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고 노력한다.	33 (5.4%)	60 (9.8%)	205 (33.4%)	185 (30.1%)	131 (21.3%)	614 (100%)
3. 나는 주로 한인(조선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또는 사회단체(협회, 동호회, 동향인 모임 등)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77 (12.5%)	102 (16.6%)	160 (26%)	113 (18.4%)	163 (26.5%)	615 (100%)
4. 나는 나의 한민족(조선민족)배경에 대해 잘 안다.	63 (10.2%)	142 (23.1%)	224 (36.4%)	137 (22.3%)	49 (8%)	615 (100%)
5. 나는 내가 한민족(조선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24 (4.5%)	46 (8.7%)	204 (38.6%)	113 (21.4%)	142 (26.8%)	529 (100%)
6.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47 (7.7%)	92 (15%)	205 (33.5%)	135 (22.1%)	133 (21.7%)	612 (100%)
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52 (8.5%)	111 (18%)	209 (34%)	132 (21.5%)	111 (18%)	615 (100%)

주) 표 중의 숫자는 빈도, ( )안의 숫자는 %

재일청소년들이 다른 제3자에게 한민족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5%로 나타났으며 26.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제일청소년의 경우 대개 어떤 계기로 자신이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상당한 갈등과 결심 후에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제 3자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신과 가까운 친구나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이 한민족이라는 것을 밝히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통성명(일본식 이름)을 한국이름으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에 까지 알려지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위에 어떤 친구나 동료가 있는가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새롭게 정립시켜나가는데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에서 어느 학생은 자신이 제일조선인유학동맹에 참여하면서부터 제일한인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꾸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식 이름만을 고집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 2) 민족 정체성의 T-test 및 ANOVA분석

다음은 한민족 정체성이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6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결과, 평균은 남성이 3.13, 여성이 3.24로 여성의 한민족 정체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1.338, p<.05$ ).

<표 64> 한민족 정체성 평균 독립표본 T-test

변 수	남성	여성	t(p)
	(n=291)	(n=341)	
	$\bar{x} \pm S.D.$	$\bar{x} \pm S.D.$	
한민족 정체성 평균 (남성-여성)	3.13 ± 1.156	3.24 ± 1.007	-1.338 (.030)

<표 65>는 각 항목별 한민족정체성에 관한 ANOVA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연령별 한민족 정체성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별 한민족 정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F=13.049$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한 결과 21세~25세인 집단이 16세~20세인 집단과 15세 이하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민족 정체성 평균이 더 높았다( $p<.05$ ). 즉, 고등학생보다도 대학생들의 한민족정체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세대별 한민족 정체성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는 일원변량분석(ANOVA)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6.026$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한 결과 3세대 집단과 4세대 집단이 이민세대를 모르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민족 정체성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p<.05$ ).

현재 신분별 한민족 정체성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신분별 한민족 정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F=94.605$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한 결과 대학·대학원 집단과 직장인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한민족 정체성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p<.05$ ).

부모의 민족 배경별 한민족 정체성 평균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F=7.174$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에서는 두 분 다 한인인 집단이 어머니만 한인인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한민족 정체성이 높게 나타났다.

국적별 한민족 정체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43.341$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조선 국적 집단이 한국국적 집단 보다 평균이 높았고 ( $p<.001$ ), 일본적 집단보다도 높은 평균을 보였다 ( $p<.001$ ).

<표 65> 한민족 정체성에 대한 ANOVA 분석결과

구분	변수	N	ANOVA 분석결과 ( $\bar{x} \pm S.D.$ )	F(p)
연령별	15세 이하	35	2.81 ± .854	13.049 (.000)
	16~20세	333	3.00 ± 1.113	
	21세~25세	233	3.50 ± .925	
	26세 이상	29	3.48 ± 1.264	
이민 세대	1세대	6	2.88 ± 1.051	6.026 (.000)
	1.5세대	3	3.43 ± .429	
	2세대	15	2.82 ± .814	
	3세대	456	3.26 ± 1.065	
	4세대	101	3.30 ± 1.022	
	잘 모름	34	2.31 ± .857	
거주 지역별	간토지방	58	3.19 ± 1.060	2.234 (.064)
	아이치	211	3.24 ± 1.211	
	간사이지방	320	3.11 ± .999	
	큐슈	28	3.72 ± .844	
	쥬고쿠, 시고쿠	16	3.13 ± .951	
아버지 직업	전문, 관리, 사무	118	3.40 ± .951	.165 (.197)
	기술, 상업, 서비스	343	3.22 ± .979	
	농업, 단순노무, 주부	34	3.04 ± 1.167	
	무직	11	3.10 ± .939	
어머니 직업	전문, 관리, 사무	96	3.26 ± 1.060	.112 (.953)
	기술, 상업, 서비스	190	3.24 ± 1.015	
	농업, 단순노무, 주부	234	3.26 ± 1.002	
	무직	15	3.10 ± 1.252	
가족 수입	부족한 편이다	283	3.30 ± 1.058	1.792 (.167)
	보통이다	243	3.13 ± 1.066	
	넉넉한 편이다	92	3.22 ± .993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46	3.23 ± .918	.412 (.744)
	고등학교 중퇴·졸업	153	3.15 ± 1.127	
	대학교 중퇴·졸업	253	3.27 ± 1.012	
	대학원 이상	61	3.26 ± 1.026	

현재 신분	고등학생	182	2.45 ± .993	94.605 (.000)
	대학생, 대학원생	283	3.42 ± .920	
	직장인	82	3.64 ± .982	
	무직	15	3.05 ± 1.276	
부모님 민족배경	아버지 한인	52	2.90 ± .986	10.454 (.000)
	어머니 한인	40	2.65 ± 1.115	
	두 분 다 한인	516	3.30 ± 1.011	
국적	한국적	446	3.09 ± .962	43.341 (.000)
	조선적	117	3.97 ± .885	
	일본적	46	2.91 ± .895	
초등학교 출신	민단계학교	57	2.64 ± .860	45.826 (.000)
	총련계학교	206	3.91 ± .817	
	일본계 공립학교	299	2.91 ± .937	
	일본계 사립학교	35	2.92 ± 1.006	
	기타 외국계학교	13	3.22 ± 1.094	
중학교 출신	민단계학교	70	2.79 ± .940	43.928 (.000)
	총련계학교	192	3.93 ± .778	
	일본계 공립학교	256	2.89 ± .942	
	일본계 사립학교	87	2.98 ± .965	
	기타 외국계학교	7	3.31 ± 1.328	
고등학교 출신	민단계학교	89	2.62 ± .978	46.747 (.000)
	총련계학교	170	3.98 ± .796	
	일본계 공립학교	196	2.92 ± .878	
	일본계 사립학교	148	3.17 ± .967	
	기타 외국계학교	10	2.76 ± 1.176	

다닌 초등학교별 한민족 정체성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 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다닌 초등학교별 한민족 정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45.826,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에서는 총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한민족 정체성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p<.05$ ). 즉 총련계 초등학교를 졸업한 집단의 정체성이 민단계 학교나 일본계학교를 졸업한 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다닌 중학교별 한민족 정체성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는 일원변량분석(ANOVA)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43.928,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한 결과, 총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한민족 정체성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p<.05$ ).

다음은 다닌 고등학교별 한민족 정체성의 평균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다닌 고등학교별 한민족 정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F=46.747,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 결과에서는, 총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기타 외국계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한민족 정체성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지만,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한민족 정체성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p<.05$ ). 즉 민단계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일본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보다 정체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과정에서 민족학교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타 한민족 정체성관련 항목과 거주지역별,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가족수입, 아버지 학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보기 위한 일원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66> 한민족 정체성 평균 독립표본 T-test

변 수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 (n=334)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없다 (n=220)	t(p)
	$\bar{x} \pm S.D.$	$\bar{x} \pm S.D.$	
한민족 정체성 평균 (한국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	3.19 ± .937	3.60 ± 1.079	-4.608 (.021)

한민족 정체성이 한국에 방문해 본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66>과 같이 분석결과 평균은 한국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이 3.19, 한국에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이 3.60으로 방문한적 없는 집단의 한민족 정체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t=-4.608$ ,  $p<.05$ ). 이러한 결과는 민족학교의 교육이나 정보화시대의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진 것과 관련된다.



## VI. 재일청소년 네트워크 실태

1. 재일청소년의 개인적 네트워크  
(Personal Network)
2. 재일청소년의 사회적 네트워크  
(Social Network)



## VI. 재일청소년 네트워크 실태

### 1. 재일청소년의 개인적 네트워크(Personal Network)

#### 1) 개인적 네트워크

이 장에서는 재일청소년의 개인상담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상담상대의 성별, 연령, 상담상대와의 관계, 거주지, 교제기간, 상담빈도, 상담내용, 상담자에 대한 평가(자원의 가치) 친밀도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재일청소년들의 개인 상담네트워크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진로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먼저 <표 6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움 받은 사람의 성별을 질문한 결과, 남자가 42.7%, 여자가 57.3%로 여성으로부터 도움 받은 사실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표 67> 도움을 받은 사람의 성별

성별	빈도	%
남자	199	42.7
여자	267	57.3
합계	466	100.0

재일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나 고민에 대하여 누구와 상담하기를 좋아하는지 살펴보자. <표 68>은 재일청소년의 성별과 상담자의 성별을 교차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은 남성에게 여성은 여성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진로를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민이나 상담상대에 대하여 같은 성끼리의 동류원리 현상이 나타났다.

〈표 68〉 청소년의 성별과 상담상대의 성별 교차

성별	상담상대 성별		합계
	남성	여성	
남성	165(77.8)	47(22.2)	212(100)
여성	34(13.4)	220(86.6)	254(100)
합계	199(42.7)	267(57.3)	466(100)

주) 카이제곱(1df)=196.138, p=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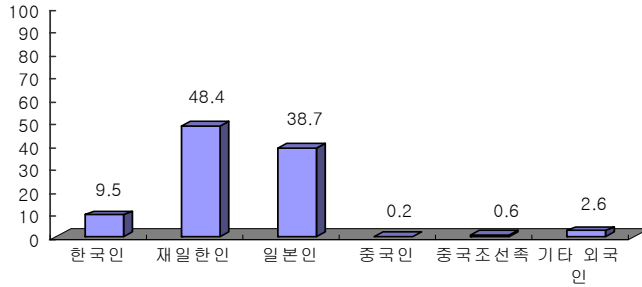
## 2) 상담상대의 국적 및 상담자와의 관계

다음은 제일청소년들에게 상담이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사람의 국적이 어디인지를 질문했다. 〈표 69〉과 [그림 12]은 제일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나 고민에 대하여 상담이나 도움을 받은 사람의 국적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제일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나 고민에 대한 상담상대자로서 ‘재일한인’ 이 48.4%, 그리고 ‘일본인’ 이 38.7%, ‘한국인’ 이 9.5%, 중국인이 0.8%, 기타외국인이 2.6%라고 응답했다. 제일청소년들은 상담상대자로서 재일한인을 선호하는 경우가 가장 높지만 현지 일본인들도 상담상대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69〉 상담 및 도움을 받은 사람의 국적

국적	빈도	%
한국인	44	9.5
재일한인	224	48.4
일본인	179	38.7
중국인(조선족)	1	0.8
기타 외국인	12	2.6
합계	463	100.0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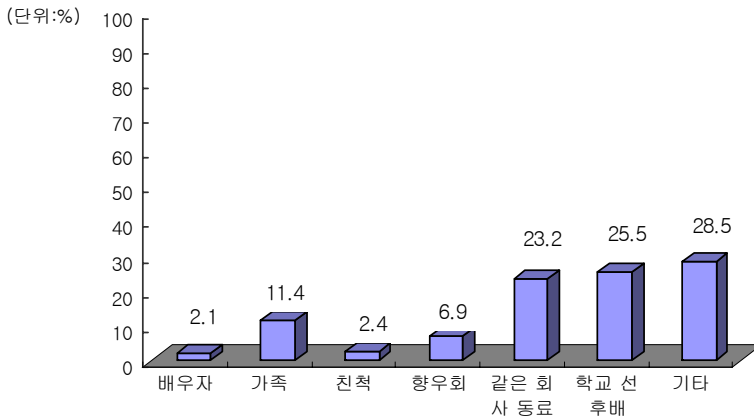


[그림 12] 상담상대자의 국적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추측 가능하게 하지만 먼저 재일청소년의 경우 재일 1세~재일 2세와는 달리 일본국제화와 더불어 민족차별이나 취직차별이 어느 정도 완화된 시점에서 일본인과의 교류도 활발하다는 점이다. 또한 재일청소년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한 재일 3세~4세이기 때문에 일본어와 일본문화에 익숙하며 더구나 고등학교까지 일본계학교를 졸업한 재일청소년의 경우 재일한인들과의 접촉은 사실상 거의 드물게 된다. 반대로 재일청소년들이 고등학교졸업 때까지 민족학교를 졸업한 경우 대부분의 상담자들은 재일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0> 상담이나 도움 받은 사람과의 관계

상담자와의 관계	빈도	%
배우자	10	2.1
가족	53	11.4
친척	11	2.4
향우회	32	6.9
같은 회사 동료	108	23.2
학교 선후배	119	25.5
기타	133	28.5
합계	466	100.0



[그림 13] 상담이나 도움 받은 사람과의 관계

다음은 제일청소년들에게 상담이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질문하였다. <표 70>와 [그림 13]은 응답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학교 선배’가 25.5%, ‘같은 회사동료’가 23.2%, ‘가족’이 11.4%, ‘향우회’가 6.9%, ‘친척’이 2.4%, ‘배우자’가 2.1%순이었다. 특히 ‘기타’가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제일청소년들이 각종 민족단체나 학생회, 서클활동을 통하여 만난 경우 여기에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3) 상담자와의 물리적 거리 및 접촉빈도

제일청소년들에게 상담자와의 물리적 거리감을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상담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7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결과를 보면 상담자와 ‘같은 도시’가 36.8%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일본 국내’가 31.8%,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15.3%, ‘버스로 갈 수 있는 거리’가 13.1%, ‘한국이나 기타 외국 등’이 3.1% 순이었다. 제일청소년들은 대부분 상담상대자로서 일본 국내에서 같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28.4%가 걸어가거나 버스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한국이나 기타 외국에

상담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1%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재일청소년들은 한국이나 기타 외국과의 네트워크는 아직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 상담자와의 물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	빈도	%
걸어갈 수 있는 거리	70	15.3
버스로 갈 수 있는 거리	60	13.1
같은 도시	169	36.8
일본 국내	146	31.8
한국이나 기타 외국 등	14	3.1
합계	459	100.0

〈표 72〉 상담자와의 접촉빈도

접촉빈도	빈도	%
일주일에 한번	181	42.8
월 한번	161	38.1
1년에 한번	46	10.9
거의 만나지 못함	35	8.3
합계	423	100.0

상담상대자와의 접촉빈도에서 재일청소년이 평소 ‘그 사람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라고 질문했다. 조사결과 〈표 7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주일에 한번’ 이 42.8%로 가장 높았고, ‘월에 한번’ 이 38.1%, ‘1년에 한번’ 이 10.9%, ‘거의 만나지 못함’ 이 8.3%였다. 이와 같이 재일청소년의 경우 상담상대자로서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으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73〉은 성별과 상담상대자의 접촉빈도를 교차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 정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보다 자주 만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경우 월에 한번정도 만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보다는 자주 상담상대와 만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청소년의 성별 및 상담상대자와의 접촉빈도

성별	접촉빈도				합계
	1주일 1회	월 1회	1년 1회	거의 만나지 못함	
남성	103(51.8)	58(29.1)	24(12.1)	17(7)	199(100)
여성	78(34.8)	103(46)	22(9.8)	21(9.4)	224(100)
합계	181(42.8)	161(38.1)	46(10.9)	35(8.3)	423(100)

주) 카이제곱(16.096), p=0.001

#### 4) 상담내용 및 친밀도

재일청소년들은 상담상대자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주고받는가? <표 74>은 ‘그 사람에게 상담한 내용이나 도움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향후 진로나 고민상담’ 이 8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취업문제’ 가 13.2%였다. 상담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재일청소년의 경우 자신들의 향후 진로나 취업문제로 상담하는 경우가 93.5%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표 74> 상담이나 도움을 받은 내용

상담내용	빈도	%
법률적인 문제	2	0.4
금전적인 도움	5	1.1
향후 진로나 고민 상담	357	80.0
취업문제	59	13.2
기타	23	5.2
합계	446	100.0

〈표 75〉 상담자와의 친밀도

친밀도	빈도	%
매우 친하다	290	63.0
친하다	139	30.2
보통	27	5.9
전혀 친하지 않다	4	0.9
합계	460	100.0

다음은 상담자와의 친밀도로서 청소년들에게 친밀관계를 질문하였다. 〈표 75〉은 제일청소년들에게 ‘상담자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가’라고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일청소년들에게 상담자와의 친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매우 친하다’가 63%, ‘친하다’가 30.2%, ‘보통이다’가 5.9%, ‘전혀 친하지 않다’가 0.9%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제일청소년의 93.2%가 상담자와 친하다고 응답했으며 자신과 아주 친밀한 사람에게 자신의 고민이나 진로를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 성별과 친밀도

성별	친밀도				합계
	매우 친함	친함	보통	전혀 친하지 않음	
남성	114(55.1)	78(37.7)	14(6.8)	1(0.5)	207(100)
여성	176(69.6)	61(24.1)	13(5.1)	3(1.2)	253(100)
합계	290(63)	139(30.2)	27(5.9)	4(0.9)	460(100)

주) 카이제곱(3df)=11.890, p=0.008

그러면 제일청소년들이 성별로 만나는 상대와의 친밀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표 7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과 상담상대와의 친밀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친한 상대와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상대와의 비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강한 연대의 상담상대자와 자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일수록 친한 관계에 있는 여성과 만나 상담하는 경향이 있었다.

## 2. 재일청소년의 사회적 네트워크 (Social Network)

### 1) 참가단체 및 지원정책

한인단체에서 활동하고 재일청소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을까? <표 77>은 재일청소년들에게 구체적인 활동단체의 성격을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문화교류가 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언어교육이 25.4%, 민족권리 운동이 24.6%, 스포츠가 19%, 연구활동이 12%, 정치활동이 11.2%, 종교 활동이 1.1%, 기타가 6.8%였다.

<표 77> 참가단체

활동단체	빈도	%
스포츠	120	19.0
민족권리 운동	156	24.6
문화교류	238	37.6
언어교육	161	25.4
정치활동	71	11.2
종교 활동	7	1.1
연구활동	76	12.0
기타	43	6.8
합계	633	100.0

이와 같이 재일청소년들은 문화교류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한류와 한글배우기 붐으로 언어교육관련 단체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민족단체나 학교 서클활동을 통한 언어교육이 재일청소년들에게는 시기적으로 가장 활발한 문화활동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표 78〉 한국 정부에 희망하는 지원 정책

지원정책	빈도	%
현지 능력개발(언어 등) 관련 학비 등 금전적인 지원	102	20.9
능력개발(언어 등) 관련 기자재 및 교재 지원	27	5.5
능력개발(언어 등) 관련 교사 파견 지원	25	5.1
한국으로 초청하여 직업교육이나 훈련 실시	38	7.8
한국유학자금 지원	166	34.0
어학연수 지원	87	17.8
원격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14	2.9
기타	29	5.9
합계	488	100.0

재일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향후 한국정부에게 희망하는 지원정책은 무엇일까? 〈표 78〉은 ‘당신은 한국정부나 관련단체가 재외한민족청소년의 능력개발을 위해 어떤 정책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유학자금 지원’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현지 능력개발(언어 등) 관련 학비 등 금전적인 지원’이 20.9%였으며 ‘어학연수 지원’이 17.8%였다. 이상과 같이 재일청소년들은 주로 어학연수나 유학자금 지원 등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금전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9〉 한국정부 지원정책

정부지원 정책	빈도	%
한국 내 취업 알선	42	8.8
한국기업에서의 인턴쉽지원	51	10.7
현지 한국 진출 기업 취업 지원	26	5.5
한국 내 기업 및 현지 한국기업에 관한 정보 제공	23	4.8
한국의 재일한인 청소년 관련 기관, 사회단체 관련정보 제공	45	9.5
다양한 재일한인 청소년 관련 단체 활동 금전적 지원	129	27.1
한국 청소년과의 다양한 교류 활동 지원	138	29.0
기타	22	4.6
합계	476	100.0

이번에는 재일청소년들에게 한국정부나 단체가 재외한인 청소년의 경제활동과 다양한 단체 활동을 위해 어떤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표 79>에 나타난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청소년과의 다양한 교류활동 지원’이 29%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다양한 재일한인청소년 관련단체 활동 금전적 지원’이 27.1%였으며 한국기업에서의 인턴쉽지원이 10.7%였다. 한국청소년과의 교류활동 및 재일한인 청소년단체에의 금전적 지원, 그리고 한국기업 취업에 필요한 인턴쉽지원 등이 현재 재일청소년들이 가장 지원해주기를 희망하는 정책들이었으며 기타 한국 내 재일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정보, 한국기업에의 취업알선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표 80>은 청소년의 성별 및 한국정부에 희망하는 지원정책을 교차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교류활동에 필요한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의 경우 다양한 교류활동 지원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남성의 경우 단체나 교류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금, 여성의 경우는 교류활동을 통한 상호간의 만남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0> 재일청소년 성별 및 정부에 희망하는 지원정책

성별	정부에 희망하는 지원정책								합계
	한국 내 취업알선	한국기업 인턴쉽 지원	현지 한국진출 기업 취업지원	한국 및 현지한국기업에 관한 정보제공	한국 내 재일한인청소년 관련 기관, 사회단체 관련 정보제공	다양한 재일한인 청소년 관련 단체 활동 금전적 지원	한국 청소년과의 다양한 교류 활동 지원	기타	
남성	26 (11.6)	23 (10.2)	19 (8.4)	8 (3.6)	22 (9.8)	64 (28.4)	52 (23.1)	11 (4.9)	225 (100)
여성	16 (6.4)	28 (11.2)	7 (2.8)	15 (6)	23 (9.2)	65 (26)	85 (34)	11 (4.4)	250 (100)
합계	42 (8.8)	51 (10.7)	26 (5.5)	23 (4.8)	45 (9.5)	129 (27.2)	137 (28.8)	22 (4.6)	475 (100)

주) 카이제곱(7df)=17.251, p=0.016

## 2) 네트워크구축 실태

재일청소년들은 일본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가? 재일청소년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10개의 질문항목을 사용하여 측정했다. 먼저 청소년이 다양한 한인(조선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표 81>은 재일청소년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약 44.5%가 한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청소년의 30.5%는 한인단체에서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해외네트워크구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27.4%만이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재일청소년들이 각종 한인단체에서 활동하는 비율은 높지만 네트워크 구축은 아직도 미약한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정부는 재일동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특히 청소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53.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12.5%만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절반이상은 한국정부가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한국과의 교류확대의 측면에서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향후 한국과 재일청소년과의 교류확대를 질문한 결과 약 59.6%가 교류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 네트워크 구축 관련

측정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1. 한인(조선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86 (16.2%)	76 (14.3%)	132 (24.9%)	86 (16.2%)	150 (28.3%)	530 (100%)
2.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157 (29.5%)	100 (18.8%)	129 (24.2%)	71 (13.3%)	75 (14.1%)	532 (100%)
3. 한국에서 재외동포에게 유용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114 (21.6%)	168 (31.9%)	179 (34%)	44 (8.3%)	22 (4.2%)	527 (100%)
4.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33 (6.2%)	30 (5.6%)	152 (28.6%)	141 (26.5%)	176 (33.1%)	532 (100%)
5. 나는 한국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한다.	205 (38.7%)	105 (19.8%)	122 (23%)	45 (8.5%)	53 (10%)	530 (100%)
6. 한국 청소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87 (16.5%)	77 (14.6%)	221 (41.9%)	75 (14.2%)	68 (12.9%)	528 (100%)
7.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24 (4.5%)	43 (8.1%)	259 (48.7%)	117 (22%)	89 (16.7%)	532 (100%)
8.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62 (11.8%)	64 (12.2%)	296 (56.3%)	54 (10.3%)	50 (9.5%)	526 (100%)
9. 나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유학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243 (46%)	120 (22.7%)	95 (18%)	32 (6.1%)	38 (7.2%)	526 (100%)
10. 나는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취업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	295 (55.8%)	132 (25%)	73 (13.8%)	12 (2.3%)	17 (3.2%)	529 (100%)

주) 표 중의 숫자는 빈도, ( )안의 숫자는 %

재일청소년들이 한국에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서는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8.5%를 차지했으며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68.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인터넷 사이트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27.1%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31.1%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상과 같이 재일청소년은 인터넷의 활용도의 측면에서 수준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지만 인터넷을 통한 한국청소년들과의

대화창구의 구축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일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일까? 청소년들에게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질문한 결과 38.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재일청소년의 12.6%가 한국유학생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한국유학생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한국유학생에 의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9.8%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재일청소년들이 한국유학생들과의 교류관계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한국유학생과의 교류확대에 필요한 정책수립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재일청소년들에게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한국 유학프로그램과 한국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 유학프로그램에 대하여 13.3%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취업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5%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한국정부의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재일한인청소년들은 한국이나 한국인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은 반면, 한국유학생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재일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정책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네트워크관련 T-test 및 ANOVA분석

재일청소년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8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결과, 평균에 있어 남성이 2.29, 여성이 2.29로 남녀의 네트워크 구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t=.003, p>.05$ ).

<표 83>은 각 항목별 네트워크 구축관련 ANOVA분석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 네트워크 구축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대별 네트워크 구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6.905$ ,  $p<.001$ ).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사후검증(Scheffe test)을 한 결과 26세 이상인 집단과 21세~25세인 집단이 16세~20세인 집단과 15세 이하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구축 평균이 더 높았고, 16세~20세인 집단이 15세 이하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구축 평균이 더 높았다( $p<.05$ ). 네트워크 구축의 평균차이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순으로 높았다.

이민세대별 네트워크 구축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ANOVA)결과, 이민세대별 네트워크 구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3.650$ ,  $p<.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에서는 이민3세대 집단과 4세대 집단이 이민세대를 모르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구축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p<.05$ ).

거주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평균의 차이를 나타내는 일원변량분석(ANOVA)결과, 거주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4.402$ ,  $p<.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 큐슈에 거주하는 집단이 류고쿠시고쿠에 사는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구축 평균이 더 높았다( $p<.05$ ).

현재신분별 네트워크 구축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일원변량분석(ANOVA)결과, 현재신분별 네트워크 구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89.283$ ,  $p<.05$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에서는 대학생-대학원생 집단과 직장인 집단, 무직인 집단이 고등학생 집단에 비해 네트워크 구축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5$ ).

국적별 네트워크구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국적별 네트워크 구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6.973$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에서는 조선적 집단이 한국적 집단 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p<.001$ ).

<표 82> 네트워크 구축 평균 독립표본 T-test

변 수	남성 (n=291)	여성 (n=341)	t(p)
	$\bar{x} \pm S.D.$	$\bar{x} \pm S.D.$	
네트워크 구축	2.29 ± 1.140	2.29 ± 1.237	.003 (.079)

다닌 초등학교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일원변량분석(ANOVA)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14.603, p<.001).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에서는 총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체 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네트워크 구축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p<.05).

<표 83> 네트워크 구축관련 ANOVA 분석결과

구분	변수	N	ANOVA 분석결과 ( $\bar{x} \pm S.D.$ )	F(p)
연령별	15세 이하	35	1.42 ± 1.270	26.905 (.000)
	16~20세	333	2.04 ± 1.250	
	21세~25세	233	2.73 ± .900	
	26세 이상	29	2.83 ± .911	
이민 세대	1세대	6	1.88 ± 1.478	3.650 (.003)
	1.5세대	3	1.90 ± 1.652	
	2세대	15	2.17 ± 1.056	
	3세대	456	2.37 ± 1.149	
	4세대	101	2.33 ± 1.250	
거주 지역별	간토지방	58	2.02 ± 1.517	4.402 (.002)
	아이치	211	2.35 ± 1.187	
	간사이지방	320	2.31 ± 1.244	
	큐슈	28	2.80 ± .509	
	쥬고쿠, 시고쿠	16	1.42 ± 1.530	
아버지 직업	전문, 관리, 사무	118	2.48 ± 1.088	.948 (.417)
	기술, 상업, 서비스	343	2.34 ± 1.139	

	농업, 단순노무, 주부	34	2.12 ± 1.323	
	무직	11	2.35 ± .978	
어머니 직업	전문, 관리, 사무	96	2.33 ± 1.205	.701 (.552)
	기술, 상업, 서비스	190	2.30 ± 1.246	
	농업, 단순노무, 주부	234	2.46 ± 1.048	
	무직	15	2.39 ± 1.120	
가족 수입	부족한 편이다	283	2.32 ± 1.185	.231 (.793)
	보통이다	243	2.29 ± 1.211	
	넉넉한 편이다	92	2.39 ± 1.086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46	2.49 ± 1.174	2.499 (.059)
	고등학교 중퇴·졸업	153	2.08 ± 1.329	
	대학교 중퇴·졸업	253	2.33 ± 1.189	
	대학원 이상	61	2.45 ± .943	
현재 신분	고등학생	182	1.24 ± 1.250	89.283 (.000)
	대학생, 대학원생	283	2.64 ± .885	
	직장인	82	2.93 ± .945	
	무직	15	2.37 ± .945	
부모님 민족배경	아버지 한인	52	2.18 ± 1.116	.895 (.444)
	어머니 한인	40	2.11 ± 1.237	
	두 분 다 한인	516	2.36 ± 1.170	
국적	한국적	446	2.18 ± 1.22	16.973 (.000)
	조선적	56	2.84 ± .833	
	일본적	60	2.56 ± .811	
초등학교 출신	민단계학교	57	2.05 ± 1.027	14.603 (.000)
	총련계학교	206	2.80 ± .978	
	일본계 공립학교	299	2.08 ± 1.214	
	일본계 사립학교	35	2.09 ± 1.190	
	기타 외국계학교	13	2.36 ± .940	
중학교 출신	민단계학교	70	2.21 ± .966	16.014 (.000)
	총련계학교	192	2.84 ± .875	
	일본계 공립학교	256	2.05 ± 1.232	
	일본계 사립학교	87	2.05 ± 1.267	
	기타 외국계학교	7	2.51 ± .758	
고등학교 출신	민단계학교	89	2.23 ± .790	22.443 (.000)
	총련계학교	170	2.93 ± .751	
	일본계 공립학교	196	1.85 ± 1.321	
	일본계 사립학교	148	2.29 ± 1.250	
	기타 외국계학교	10	2.62 ± .715	

다닌 중학교별 네트워크 구축과 (ANOVA)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6.014$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는 총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네트워크 구축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5$ ).

다닌 고등학교별 네트워크 구축의 일원변량분석(ANOVA)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2.443$ ,  $p<.001$ ). 사후검증(Scheffe test)결과는 총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이 민단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일본계 공립학교를 졸업한 집단, 일본계 사립학교를 졸업한 집단에 비해 네트워크 구축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계 사립학교가 일본계 공립학교에 비해 네트워크 구축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p<.05$ ). 즉 차이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총련계 민족학교를 졸업한 집단의 네트워크 구축이 민단계나 일본계 학교를 졸업한 집단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네트워크 구축평균은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가족수입, 아버지 학력, 부모님의 민족배경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표 84> 네트워크 구축 평균 독립표본 T-test

변 수	한국에 방문해 본적 있다 (n=334)	한국에 방문해 본적 없다 (n=220)	t(p)
	$\bar{x} \pm S.D.$	$\bar{x} \pm S.D.$	
네트워크 구축	2.69 ± .763	2.67 ± .825	.290 (.623)

네트워크 구축이 한국에 방문해 본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표 8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석결과, 평균은 한국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 집단이 2.69, 한국에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집단이 2.67로 한국 방문여부별 네트워크구축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t=-.290$ ,  $p>.05$ ). 즉 네트워크 구축이 한국방문의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VII. 재일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네트워크 구축현황

1. 재일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정체성의 유형
2. 재일청소년의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 VII. 재일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네트워크 구축현황 - 면접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 1. 재일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정체성의 유형

이 장에서는 면접조사에 응해준 재일청소년 35명을 대상으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자 한다. 먼저 면접대상자의 일반적인 속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하자. 출신지역별로는 도쿄지역이 19명, 오사카지역이 11명, 후쿠오카지역이 5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1명, 여성이 14명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재일청소년의 생활실태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및 전문가의 조언을 목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19세에서 51세까지 다양했다. 세대별로는 재일2세가 6명, 재일3세가 26명, 재일4세가 3명 등 재일3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대학생, 청년회간부, 취업준비생, 연구원, 재수생, 기자 등 각 분야별로 다양하다.

다음 <표 85>는 인터뷰대상자의 질적조사 자료를 참고로 재일청소년의 유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한 결과이다. 제1유형에 대하여 주로 민단계 청소년들이 ‘개인지향형’에서 ‘글로벌지향형’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sup>13)</sup>. ‘개인지향형’의 유형은 재일한국인이라는 사회적 차별이 있을지라도 개인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유형이다. 일본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일류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기업이나 일본대기업에 취직하려는 청소년들이다. 최근에는 민단계의 청소년들이 자기부모들의 영향으로 개인지향형 보다는 정체성이나 민족의식의 회복차원에서 글로벌지향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화의 영향으로 재일동포들이 글로벌네트

13) 福岡安則·金明秀, 『在日韓人青年の生活と意識』(東京大学出版会, 1997), pp.129-135참조

워크를 구축하여 재일 3세~재일 4세들의 안목과 시야를 넓혀주고 재일한국인은 물론 재외한인과의 만남을 중요시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제2유형은 ‘조국지향형’에서 ‘동포지향형’을 이동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조국지향형’은 주로 민족학교 출신자들로 총련에의 귀속의식이 강한 조선국적의 청소년들이 주로 여기에 속한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재일3세~재일4세들이 ‘재일’보다는 조국을 위하여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최근 조선국적 소유자들이 한국국적으로 변경한다든지 재일동포생활센터를 설립하여 일본사회에서의 내실 있는 동포사회 만들기 에 노력하는 모습에서 ‘동포지향형’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동포지향형’의 청소년들은 일본사회에서 적극적인 민족활동으로 청년회의 간부나 활동가를 준비하는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유형은 재일청소년들이 ‘귀화지향형’에서 ‘독자지향형’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귀화지향형’은 주변의 일본과 똑같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여 실제로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청소년들을 가리킨다.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제로 귀화한 청소년을 인터뷰한 결과, 귀화는 했지만 ‘한국에 뿌리를 둔 일본국적자’ 라는 정체성과 동시에 한국인임을 강조하는 유형이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재일’이라는 새로운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향하는 청소년들이 여기에 속한다.

〈표 85〉 재일청소년의 3유형

재일청소년 3유형	국적구분	재일청소년의 유형화	
		제1유형	민단(한국국적자) 17명
제2유형	총련(조선국적자) 8명	조국지향형	동포지향형
제3유형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 10명	귀화지향형	‘재일’독자지향형
합계		총 35명	

주)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 1) 민단(한국국적자)-제1유형

민단청년들은 대개 부모의 권유로 한국에 어학연수나 유학생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가 서투르다. 대부분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일본학교 출신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기회나 계기가 없으면 대부분의 재일동포는 일본사회에 귀화하거나 동화되어가는 경향이 강했다.

A씨는 동경본부청년회장이다. 그가 회장이 된 계기는 민단 청년회가 주관하는 어린이 잼보리대회에 참가한 이후 선배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은혜를 갚아야(恩返し)겠다는 생각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다. 현재 그는 회사원이지만 아내도 일본훗카이도 출신으로 이곳 청년 잼보리대회를 통하여 만났다고 했으며 지금도 함께 청년회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B씨는 재일동포와 뉴커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5세이다 아버지가 민단 사무국장으로서 일하기 때문에 늘 민단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경한국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에 입학하여 신문방송학을 전공하였다. 재일동포로서 그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한국정부나 일본정부에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가르쳐 동포의 현황이나 실정을 이해해주어야 한다.’ 라는 것이었다. 먼저 재일동포의 실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금까지의 상호신뢰를 완전히 회복한 후 재일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고 했다.

총련의 경우와 같이 선후배를 중심으로 하는 끈끈한 정과 민족교육 및 민족경제를 중시하는 민족간 강한 연대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동료의식이나 민족의 재구축이 없이 일본교육 시스템 속에서 각종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인정체성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단소속 청소년의 생활방식이 글로벌지향형이지만 어디까지나 한국인에 가까운 정체성을 지향하며 확대개방형 네트워크 구축(일본, 한국 등)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형찬

(사이타마현출생, 23세, 남성, 재일2.5세, 민단청년회간부)

### (1) 생활실태

우리 집안은 태어날 때부터 불교집안이며 제사를 지내고 있다. 나는 재일한국인 3세이며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살아계신다. 아버지가 재일동포 2세이시고 어머니는 뉴커머이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나는 재일 2.5세인 셈이다. 현재 혼자 독립하여 자취생활을 하고 있다. 아버지는 전문대학을 졸업하셨지만, 어머니의 학력은 잘 모른다.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이시고 연수입은 약 600만 엔 정도로 중하정도의 생활은 된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용돈은 거의 받지 않으며 수입의 대부분은 핸드폰이용료, 취미생활, 패션 등에 사용한다. 결혼관에 대해서는 재일동포 이든 일본인이든 민족적인 정체성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부모님도 그런 결혼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한국어는 어머니만 자주 사용하는 편이다. 나는 한국어를 읽을 줄 알지만, 아직 말하기는 서투른 편이다.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늘 긍정적으로 말해주시고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도 유치원 때쯤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되었다.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특별히 부모님이 학과를 권유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 계속해서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일본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친구들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민단 청년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재일동포 친구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가정에서의 식사는 어머니가 최근에 도입한 뉴커머이기 때문에 한국음식을 자주 먹는 편이다. 그 중에서 김치는 거의 매일, 그리고 가끔씩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등 찌개종류를 만들어 주신다. 자주 많이 먹는 음식으로는 김밥, 비빔밥, 냉면, 찌개, 나물 등이다. 내가 만들 수 있는 한국음식은 비빔밥 정도이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정체성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관한 소식은 일본 뉴스에서 듣는 정도이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한국청소년과의 교류나 대화를 자주 가지고 싶다. 한국에는 지금까지 10번 정도 갔으니까 자주 가는 편이다. 대부분 고향방문이나, 여행, 어학연수 등이다. 부모님은 한국드라마를 자주 보시는 편이지만 나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가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도시의 냄새가 일본과 다르다는 점이다. 향신료, 마늘이나 고추를 음식에 많이 사용하니까 독특한 냄새가 난다. 한국인의 성격, 특히 한국여성들의 성격에 대하여 좀 거칠고 강하다고 생각된다. 어머니의 성격이 좀 강한 편이기 때문이다. 한국과의 교류는 매년 민단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나 청소년 잼보리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현재 나는 야스모토라는 일본식 통명과 한국식 이름을 둘 다 사용해 왔다. 지금은 내가 재일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한국식 이름만 사용하기로 했다. 일본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일본에 입국할 때 매번 재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솔직히 한민족에 대한 자부심은 없지만 제사나 윗사람에 대한 예절(술, 담배) 등 좋은 점은 지키려고 노력하며 재일동포단체의 행사에는 소속감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다.

나의 친한 친구 중에 한국인은 별로 없다. 한국 유학생에 대한 이미지는 참 일본어를 잘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친해지고 싶지만 그런 장소가 아직 없다. 현재 나의 가장 큰 고민은 귀화할 생각이 없지만 외국인등록증을 항시 휴대하는 것과 직업 때문에 통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일본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민단에서는 본명, 일본인 친구들과과는 일본식 통명을 사용해 왔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편리한 이름을 사용해 왔다.

최근 귀화자의 증가로 민단내부에서도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럴 때 일수록 민단에서도 많은 외곽단체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나는 민단조직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지

원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에도 참가한 적이 몇 번 있다. 한국정부에 바란다면 현재 민단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나 재일 청소년들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 일본에서 참정권이나 선거권 획득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그리고 재외한인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등이 더욱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운

(히로시마출생, 23세, 남성, 재일3세, 회사영업사원)

### (1) 생활실태

우리 가정은 태어날 때부터 불교 집안이며 재일3세이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재일2세이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이다. 나는 대학졸업 후 히로시마에서 취직했지만 약 1개월 전 도쿄지점으로 발령이나 혼자서 생활하고 있다. 한 달 수입은 거의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한다. 부모님께서서는 일본인과의 결혼에 대해 반대하시는 편은 아니지만 될 수 있는 한 한국인 혹은 재일교포와 결혼하기를 내심 바라고 계시는 것 같다. 히로시마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했을 때는 집안에서 가끔 한국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한국어를 조금은 할 수 있다. 한국어에 대한 흥미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조금 더 공부하고 싶고 부모님 또한 권유하신다. 한국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은 안하신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다. 이름도 한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부모님께서 특별히 대학진학 때 권유한 학과는 없었기 때문에 공업학과를 졸업했다. 부모님은 모든 의사결정은 내 자신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기는 편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었다. 내 주변 친구들은 일본인이나 한국인 양쪽 다 있었던 것 같다. 한국음식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고 찌개나 지지미 등을 먹는다. 한국음식을 매우 좋아하지만 만들지는 못한다. 재일교포의 미래에 대해 지금 확실히 모르겠지만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음악관련 일을 하고 싶었지만 회사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적으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관련 뉴스는 조금 접하고 있고 한국인과의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은 5~6회 가량 여행으로 간 적이 있다. 한국에 와서 느낀 점은 한국에서 한국음식을 먹거나 한국인과 이야기를 해봤을 때 역시 자신은 한국인이라는 크게 느낌을 받았다. 여권도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전통영화를 보면 감동을 받고, 한국노래를 들으면 즐겁다. 한국인은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한국식 예의는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일본생활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재일한국인이라는 사실은 받아들이며 자부심도 느낀다. 특별히 다른 민족이었으면 하는 생각은 하지 않으며 재일한국인으로서 불편을 느낀 적은 없다.

한국어는 조금 구사할 수 있고 레벨은 초등학생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민족으로서 자부심, 역사에 대한 관심도 대단하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인터넷으로 연락하는 한국 사람은 특별히 없고, 한국유학생은 건강하고 성실한 느낌이다. 앞으로 한국과 재일동포간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재일한인청소년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참가해 보고 싶다. 현재 재일청소년들은 국적문제, 결혼상대, 자녀들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 현재 일본 법률상, 경제상 재일동포의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선거권도 없는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모두 힘을 합쳐서 권리를 찾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적이고 앞으로 귀화할 생각은 없다. 한국이름을 계속 사용해왔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는 조선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는 일본학교를 다녔다.

한국 전통문화가 내 생활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다.

나는 고민이 있을 때는 항상 히로시마에 있는 가족과 함께 상담하고 주

로 결혼에 관한 상담이 많다. 봉사활동은 현재 하지 않고 있지만 가끔 민단 청년회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재일청소년을 위한 유학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참가 경험은 없다.

한류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 본적은 없다. 나는 재일동포를 위해서라도(선거권 획득문제라든지)일본인과의 차별이 없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임영상

(도쿄거주, 20세, 남성, 재일3세, 재수생)

나는 재일교포 3세이다. 아버지는 재일2세이고 메이지대학을 중퇴 후 민단에서 근무하신다. 아버지는 출장이 잦기 때문에 거의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식비나 용돈 등 개인 생활비는 아버지로부터 받아 생활한다. 아버지는 일본인과의 결혼을 특별히 반대하시지는 않는다. 어느 민족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괜찮다고 하신다.

가정에서 한국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한국어를 읽고 쓰기가 어렵다. 역시 모국어를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찬성하신다.

나는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지만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국식이름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특별히 권유하신 학과는 없고 제 의견을 존중해주시는 편이다.

아버지가 집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적은 없고 제 친구들은 재일동포나 일본인 양쪽 다 골고루 있다. 한국음식은 예전에 어머니가 계셨을 때는 가끔 먹었지만 지금은 혼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사먹는 정도이다. 한국 요리는 좋아하는 편이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재일교포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이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재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관련뉴스는 일본뉴스에서 듣는 정도이고 지금까지 한국을 10회 이상 방문한 적이 있다. 보통 친척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친척을 만나러 간다든지 관광을 위해 방문한다. 한국에 가면 왠지 집에 돌아온 느낌이 든다. 그러나 한국을 가면 한편으로는 역시 일본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특히 한국인은 매우 정렬적인 것 같다.

올해 9월에 개최되는 청소년잼버리대회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국인으로 일본에서의 생활상에 득이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역시 나는 일본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일본인과는 다른 한국적이기 때문에 재일한국인으로 생활해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봉사활동은 민단청년회에서 활동하는 정도이며 활동을 통하여 재일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취직할 때도 재일한국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적이고 한국이름을 사용한다. 고등학교 때까지 일본학교를 다녔지만 한국전통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해왔으며 고민이나 진로문제에 관한 상담을 주로 친구들과 한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에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지만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

김경호

(사이타마현 거주, 남성, 23세, 재일4세, 회사원(보잉기 정비사))

## (1) 생활실태

현재 보잉기정비사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다. 어머

나는 민족학교를 졸업하였고 아버지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신다. 아버지의 수입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내 수입은 연 550만 엔 정도이다. 대개 생활비는 친구를 사귀거나, 차량유지비 등 주로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용한다.

부모님은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라면 일본인과의 결혼을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재일동포 여성과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국어는 조금 할 줄 한다. 부모님께서서는 한국에 대해 연장자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거나 시간적으로 좀 적당히 여유를 갖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셨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부모님은 제가 체육관련 학교를 가기를 바라셨고 나도 원했기 때문에 진학을 했으며 현재 일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신다.

내 주변 친구들은 주로 일본인과 한국인들이다. 한국음식은 아주 좋아하며 거의 매일 먹고 있는 편이며 그중에서 주로 김치찌개나 잡채 등을 많이 먹는다. 하루에 3번 밥을 먹고 한국음식을 매우 좋아하는 편이다.

재일동포의 미래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한국 관련뉴스는 민단이나 민단신문, 일본방송을 통해 듣는 정도이다. 한국은 매년 방문하고 있으며 총 15회 정도를 방문한 것 같다.

한국드라마는 좋아하지 않지만 영화는 좋아하는 편이다.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일본의 영화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한국음악은 고등학교 때 음악시간에 “임진강”이라는 노래를 배운 적이 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는 감명 깊게 감상했다.

한국인에 대해 나쁜 인상을 받은 적이 있다. 사업차 일본을 방문한 사람이었는데 민단사람들과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 재일동포를 향해 ‘쪽바리’이라든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지거리로 시비를 한 적이 있었다. 결국 싸움으로 번졌다.

한국인들의 성격은 강한 민족인 것 같다. 한국전통문화와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다. 할아버지 세대의 슬픈 역사와 그분들의 고난과 아

품을 던고 만들어 놓은 현재를 지금 세대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로서 불편한 점은 해외에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재입국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과 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상의 여러 가지 수속과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나중에 더 불편을 느끼면 귀화를 고려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재일한국인과 한국인은 확실히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제사를 지내는 정도이고 한국말은 20%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전에는 한국인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한국유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부모님께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재외한인청소년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할지라도 아마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재일청소년들은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애매한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적은 한국인이다. 사회생활에서는 일본식 통칭명과 한국명 둘 다 사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본학교를 다녔지만 한국전통문화는 잘 알고 있다. 한국문화의 손득을 떠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세대에도 소중하게 물려주고 싶다.

나의 상담자는 부모님이시고 주로 직업과 관련된 영업상담이 많다. 현재 민단청년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 한국정부가 재일동포에 대한 지원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조금 걱정된다.

일본정부에 바라는 것은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을 주었으면 좋겠고 한국정부에게는 재외한인과 한국인들의 축제나 미니올림픽을 개최하면 좋을 것 같다. 체육활동을 통해 700만 재외동포가 친밀해졌으면 좋겠다.

김경지

(사이타마현 거주, 남성, 20세, 재일4세, 취직활동 중)

### (1) 생활실태

나의 종교는 기본적으로 유교라고 생각한다. 부모님이 무종교이지만 가르침이 한국식의 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취직활동 중이고 하와이에서 유학경험을 바탕으로 영어 관련된 일을 찾고 있다. 재일4세로 형, 아버지, 어머니와 생활하고 있다. 어머니는 고등학교(음악관련)를 졸업하셨고 아버지가 대학교를 중퇴하셨다. 현재 어머니는 아르바이트, 아버지는 자동차 관련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

부모님의 결혼관은 특별히 일본인과 결혼하라든지 한국인과 결혼하라든지 강요하지 않는다. 내가 좋아하는 여성이라면 상관없다고 말씀하신다.

가정에서 한국어를 조금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국어를 이해하고 있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쯤 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영어 관련 일을 권유하신다. 어머니는 나에게 가끔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다. 나는 일본인 친구가 많지만 가끔 민단 청년회의 청소년들과 교류를 하기도 한다.

한국음식은 1주일에 3번 정도 먹지만, 주로 비빔밥이나 김치찌개, 지지미가 주 메뉴이다. 한국음식을 무척 좋아하지만 만들 수 있는 것은 김치찌개 정도이다.

한국뉴스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 독도,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룬 뉴스를 듣는 정도입니다.

한국인과는 하와이 유학시절 한국 유학생들과 친하게 지냈고 재일한국인과는 민단 청년회를 통해 교류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굉장히 친구를 배려해주고 친절하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강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국유학생의 이미지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좋다고 생각한다. 옛날 한국전쟁이라든지 전쟁을 모르는 세대인 지금의 유학생들이 일본에 와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좋은 자세이다. 또한 앞으로 재일청소년과 한국인과의 교류가 지금보다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그와 관련해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

한국은 여행으로 2번 가본 적이 있다. 한국드라마는 하와이에 있을 당

시 ‘올인’이나 ‘가요대상’ 등을 본 적이 있다. 이번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에 개최되는 민단 잼버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어를 조금 말할 줄 알고 이해는 조금 부족하지만 읽고 쓰기는 가능하다.

나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학교에서의 이지매, 차별을 당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의 국적은 한국이고 앞으로 귀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 통성명은 ‘도모’라는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고 재일청년회와의 교류 때는 한국명을 사용한다. 현재 봉사활동으로 민단 청년회에서 재일한국인 선거권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한국정부에서 지원하는 유학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참여한 경험은 없다. 한류는 일본인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일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에 바라는 것은 특별히 없지만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일본이 청소년에게 역사공부를 제대로 시키고 재일한국인에 대한 이지매가 없었으면 좋겠으며 재일동포는 재일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재일한인청소년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한국인과 일본인의 네트워크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현철

(사이타마현 거주, 남성, 24세, 재일3세, 도쿄대 대학원 약학부 재학 중)

## (1) 생활실태

나는 재일교포 3세이며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아버지는 와세다대학, 어머니는 고졸이다. 아버지의 직업은 현재 자영

업이다. 우리 집의 생활수준은 중 정도라고 생각하며 한 달 용돈은 3만 엔 정도이다. 용돈은 주로 식비에 사용하고 있다. 결혼상대는 제일동포이면 좋겠지만 부모님은 일본인이란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다.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에 대하여 부모님은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신다.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알게 되었다. 부모님은 나에게 경제적인 감각을 몸에 익히도록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친구들은 일본인과 한국인 양쪽 다 많다. 한국요리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먹는 편이고 김치, 비빔밥, 김치찌개를 주로 먹는다. 대학에 다니는 이유는 장래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이다. 또한 미일관련의 사업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유학을 생각하고 있다.

한국뉴스는 그다지 보지 않는 편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세 번 방문 학적이 있고 주로 여행과 생물학 관련한 연구로 공부하러 간 적이 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는 많이 보지 않는 편이다. 한국인에 대한 특별한 이미지는 없지만 ‘일본 정말 싫어!’ 라고 단정 지어 말하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기 좋지 않다.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있고, 제일동포간의 교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생활상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나 이름이 한국식이기 때문에 일본인에게 이름에 대하여 설명하기가 귀찮을 때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다. 나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보다는 제일교포로서의 자부심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어는 조금 말할 수 있는 정도이고 읽고 쓰기는 가능하다. 한국의 역사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소속감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유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한 강요가 많은 것 같다. 한국인이라서 교류하고 싶었는데 자꾸 종교를 강요해 곤란했던 적이 있었다. 제일청소년과 한국인과의 교류가 증진되기를 바란다.

지금 제일청소년들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나는 민족학교 출신이라 한국인 친구들과 교류가 적었던 것 같다. 현

재 한국적이고 앞으로 귀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 현재 한국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총련계 민족학교를 고등학교 때부터는 일본계 학교를 다니고 있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한국정부 유학프로그램에 대해서 민단에서 홍보가 부족하여 잘 모르고 있다. 작년 일본과 미국의 재외국제대학 포럼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전부 한국정부의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청소년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재외한인들에 대해 모르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역사교과서에 기재하여 재외한인 역사에 대해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서사직(서 사오리)

(요코하마 거주, 여성, 24세, 재일3세, 무직)

## (1) 생활실태

나는 재일교포 3세이고 조상에 대한 제사 외에는 특별히 믿는 종교는 없다. 작년에 한국의 연세대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해서 한국어 구사에는 문제가 없다. 현재 요코하마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결혼에 대해 부모님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일본인이나 한국인에 상관없이 괜찮다고 말씀하신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한국인임을 알게 되었다. 부모님은 특별히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사람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셨다. 부모님이 특별히 한국어를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놀기 때문에 국적을 가리지 않고 사귀는 편이다.

가정에서 거의 매일 한국요리(교포요리)를 먹고 김치, 비빔밥, 잡채 등을 먹는 편이다.

나는 일본에 있을 때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내가

단지 제일동포구나 라고 느꼈다. 한국뉴스는 거의 매일 듣고 있다. 한국은 유학을 했기 때문에 15 번 정도 방문한 것 같다. 한국영화나 드라마는 자주 보고 있는 편이고 단순히 한국에 여행 갔을 때는 일본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유학으로 한국에 갔을 때는 역시 일본과 다른 것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원망보다는 가끔 한국인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

유학시절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일본말을 하는 나에게 ‘일본사람이 왜 여기에 있어?’라고 말하던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냥 웃고 넘겼지만 결코 기분은 좋지 않았다. 한국여성은 성격이 강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한국문화는 기본적 예의를 지키는 정도이고 그것이 제 생활상 득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일동포는 일본에서 외국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류상 절차상 복잡한 점이 불편하다. 일본 내에 한국유학생들은 한국인들끼리 뭉쳐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그다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재외한인청소년과의 교류가 증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외한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적극적으로 참가해 보고 싶다. 나의 국적은 한국이고 한국이름을 주로 사용한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일본학교를 다녔고 일본문화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한국전통문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 개인적인 상담은 주로 요코하마에 있는 가족들과 이야기한다.

사회적인 봉사활동은 특별히 하고 있지 않지만 가끔 민단에 가는 정도이다.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유학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나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박계화

(도쿄거주, 여성, 24세, 재일3세, 회사원)

### (1) 생활실태

대학에서 국제학을 전공한 재일3세이다. 특별히 종교는 없고 현재 친구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아버지는 상업관련 대학원을 중퇴하고 현재 자영업을 운영하신다. 가족수입은 보통 수준이다.

부모님은 예전에 재일동포 혹은 한국인과 결혼하기를 강조하셨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좋다고 말씀하신다.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지금 많이 잊어버렸다. 한국에 대해 부모님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이다.

내가 철이 들 무렵부터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국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내 친구들은 한국인이나 일본인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나라 사람과 교류하고 있다.

한국요리는 1주일에 1~2회 정도이며 주로 찌개와 김치볶음밥이다. 한국 음식을 만들 줄도 알고 한국음식을 좋아하는 편이다. 내 스스로 재일한국인으로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일을 하고 싶다.

나는 내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뿌리(루트)를 따져봤을 때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일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국 관련뉴스는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잘 보지 않는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본 적은 있다. 아직 한국을 가본 적은 없다. 한국노래는 누군가가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한국노래를 들었을 때 무언가 끌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한국의 고향이라는 느낌이 든다. 내가 느끼는 한국인에 대한 소속감은 스스로 깨닫는 정도이고 특별한 것은 없다. 한국인유학생을 만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유학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재일한인청소년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참가하지 않을 것 같다. 재일한인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자기이해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소속감이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귀화에 대해서는 일본 국적이 여러모로 편리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으면 귀화하고 싶다. 이름은 고등학교까지는 민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명을 사용하고 있다. 부모님이 민족학교를 보내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조선학교로 가게 되었고 대학은 내가 결정해서 일본대학을 가게 되었다.

나는 내 자신이 재일한국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본인이나 한국인으로서 여러 가지 것을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깊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재일동포로서 살아가면서 한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일본에 생활하면서 일본의 문화를 알고 있으니까 양쪽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체성이라는 것도 보통 생활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 보니 인생이 좀 더 풍요로워진 것 같다. 그러니까 재일한국인이라는 위치가 특별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류는 문화적인 교류라는 의미에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재외한인청소년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고민하고 있고 미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인 고민에 대해서는 주로 일본인 선생님과 상담한다.

### 이민화

(도쿄도 거주, 여성, 24세, 재일3세, 회사원(tbs보도국 기자))

## (1) 생활실태

도쿄외국어대학교의 라오스학과를 졸업하고 올해부터 tbs방송국의 보도국의 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예전부터 하고 싶었

던 일이기 때문에 만족하며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기상캐스터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재일 교포 3세이고 어머니가 뉴커머시고 아버지가 재일교포2세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재일2.5세이다. 아버지께서는 단기대학의 경제학부를 졸업하셨고 어머니께서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신 후 각각 한국과 일본에서 무역관련 회사에 종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사업차 만나 결혼하셨다. 지금 부모님께서서는 자영업에 종사하신다. 가족수입은 형제가 4명이기 때문에 평범한 가정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대학교 시절 보통 용돈은 12만 엔 정도를 받았다. 용돈은 주로 식비나 친구들과 유희비, 여행 등에 사용했다. 일본인이나 다른 민족과의 결혼에 대해 부모님은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는다. 한국인과의 결혼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가끔 한국인과의 결혼을 말씀 하실 때도 있다.

가정 내에서는 한국어를 가끔 사용한다. 그리고 나도 고등학교 때 교류 활동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다른 재일동포 친구들이 한국어를 잘 구사하는 것을 보고 왜 나는 한국어를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독학으로 공부해 지금은 어느 정도 한국어를 구사하게 되었다. 부모님은 한국의 역사라든지 개인 인생사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 해 주신다.

내가 유치원 무렵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부모님께서서는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법학부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지만, 내 스스로의 결정으로 외국어학부인 라오스학과에 진학했다. 부모님께서서는 나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문가가 될 것 강조하시곤 했다. 집에서 간혹 한국어를 가르쳐주시기도 하신다.

친구는 한국인이나 일본인친구가 골고루 많은 편이며 대학시절부터 사귀는 남자친구도 일본인이다.

한국요리는 좋아하는 편이며 일주일에 3번 정도는 김치, 순두부찌개, 수육 등을 먹는다. 한국요리 중에는 순두부찌개와 김치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뉴스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위성방송을 통해 KBS를 주로 본다. 한국에 할머니와 친척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자주 방문한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도 자주 보는

편이다. 한국 영화나 노래 등을 접할 때면 할머니나 어머니가 이런 문화 속에서 자랐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운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지만 한국에 가면 일본에서 온 사람처럼 보여 지는 것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과 한국에서 보여지는 자신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된다.

나에게 나쁜 인상을 줬던 한국인은 대학시절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인이었다. 내가 그 학생을 도와주는 튜터였는데 자주 거짓말을 해 나를 곤란하게 만들곤 했다. 또한 한국인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지만 감정적인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한국인으로서 생활상 득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일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재일동포로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 한국적이면서도 한국에서 선거권도 없고, 일본에 영주권이 있어 생활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도 선거권이 없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서 여러 가지 복잡한 수속절차가 불편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뿌리(루트)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 조선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관심, 식민지 시대에 대한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재일동포단체에는 학생시절에 자주 참여 했었고. 학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민족으로서의 소속감은 아니지만 한국인이라는 사실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 한국유학생에 대한 이미지는 예전엔 나빴지만 지금은 아르바이트하면서 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또한 한국에 자주 연락하는 친구가 있다.

재일동포는 자신이 조선적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쪽인지 항상 정체성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참정권이 없고 일본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해외에서 일본에 들어올 때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하는 등 어느 쪽도 아닌 중간 상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권리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국적은 한국적이고 앞으로 귀화할 생각도 없다. 현재 한국명을 사용하고

있고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일본학교를 다녔다. 나는 자신의 선조나 조상인 부모님, 조부모님이 소중히 간직해온 (전통문화)를 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싶다는 생각이며 그것이 자긍심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한다.

나의 상담 상대들은 일본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으며 재일동포 선후배, 친구, 학교 선생님 등 다양하다. 주로 취직이나 진로문제에 대해 자주 상담하곤 한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봉사활동은 가끔 하고 있지만 특히 학생시절에는 민단 학생회(학생회회장 역임), 활동을 활발히 했다. 지금은 방송국에서 일하기 때문에 바쁘니까 시간이 없다.

나는 재외한인청소년들이 한국문화를 짧게나마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에서 같은 세대간 교류가 있으면 좋을 것이다.

또한, 일본에 태어나더라도 일본적이 아니면 국가공인(공무원)이 될 수 없으므로 한국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한국어가 서투르니까 불리하다. 이러한 재일동포들이 정부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일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가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재외한인청소년 네트워크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 최문향

(훗카이도 거주, 여성, 21세, 재일3세, 대학교 1학년생)

## (1) 생활실태

나는 재일3세이며 현재 도쿄그리스도대학의 1학년이며 법학을 전공하고 있다. 아버지는 현재 민단에 근무하시고 어머니는 할머니의 일을 돕고 있다. 아버지는 대학 중퇴이지만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

가족수입은 중하정도이고 용돈은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고 있다. 부모님과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은 없지만 한국인과 결혼을 원할 것으로 생각한다. 집에서는 거의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에 대해 부모님은 자신들의 모국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름도 한국식으로 읽고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이미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모님이 법률이나 정치에 관련된 학과를 원했고, 나도 원했기 때문에 법률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으며 항상 세상 사람들을 위한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한국어는 엄마, 아빠 등 간단한 단어 정도는 알고 있다.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고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단어 정도를 가르쳐주신다. 주변에 재일동포 친구들은 거의 없다. 만날 기회가 별로 없다. 대만이나 중국 등 외국사람들이 많고 남자친구도 일본사람이다.

집에서 한국음식은 1주일에 3번 정도로 김치는 식탁에 자주 나오는 편이고 찌개나 잡채 등을 만들어 주신다.

재일청소년의 미래는 매우 불안하다는 생각이 든다. 저의 미래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일본에서 생활하면 특별히 의식하지 않으면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별이 안 되지만 이름을 보거나 들을(호명 받을 때) 때는 역시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한다. 한국 관련뉴스는 일본 TV에서 보는 정도이고 가끔 KBS방송 뉴스나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

한국에 가 본적이 아직 없지만 ‘대장금’을 일본에서 방영한 적이 있어 본적이 있는데 일본의 영화와 음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가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국가수 중에는 보아를 좋아한다. 한국인의 이미지는 실제로 잘 모르지만 TV에서 봤을 때 이미지는 자주 화내는 것 같이 보였다.

현재 제사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9월 14일에 민단행사 관련으로 한국에 갈 예정이다. 내가 재일동포로서 득이 되는 부분은 일본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을 재일한국인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득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어쩐지 자신이 일본과 한국의 중간자의 위치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잘 모르고 한국어도 잘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가 한국과 일본의 어느 민족도 아닌 나는 나로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현재 한국친구가 없기 때문에 재외한인청소년과의 교류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재일청소년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무언가 재미있으며 참가하고 싶다. 나는 재일한국인이지만 자신이 일본인이나 한국인으로 결정된다고 해서 애국심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애국심은 국가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보다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가적 차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재일청소년들이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다. 재일청소년들이 한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잘 알게 되어 사이좋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한국적이고 앞으로도 귀화할 생각은 없다. 한국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초중고를 일본 국립학교에서 졸업했다. 장래에 대한 상담은 주로 부모님과 상의하며 봉사활동으로는 초등학교 학생들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 한류 붐으로 인해 살기 쉬워졌다. 내 성이 비슷하니까 이름을 말할 때 ‘최지우의 최와 같습니다.’ 라고 소개하면 ‘겨울소나타’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서 친근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다. 한류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 또한 재일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역사나 문화 등 한국에 대한 학습프로그램이나 한국에서 일본역사나 문화에 대한 이해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한국은 지금과 같이 영화나 음악에서 상호(일본에) 교류하고 있는 것처럼 좀 더 (두 나라가)섞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재일한국인에게도 참정권을 주었으면 한다.

## 2) 총련(조선국적자)-제2유형

총련소속 청소년의 경우 대개 부모의 가정교육의 영향으로 국적을 조선적에서 한국적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으며 부모가 한국과 친밀한 학생일수록 한국방문횟수나 교류가 많았다. 인터뷰에 응한 7명은 유학동(재일본조선인유학동맹)출신이었지만 한국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북한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북한(총련)에 호의적이기 보다는 재일조선인(민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터뷰 도중에 아직도 자기들(친구사이)사이에 가끔씩 ‘동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그들 사이에 자신들을 지칭하는 단어로는 ‘재일코리안’이나 ‘재일한국인’을 사용하기보다는 ‘재일조선인’이라는 호칭을 즐겨 사용했다.

유학동 출신 중(A씨, B씨)는 유학동연구회(학습회)에 대하여 “유학동연구회를 통하여 재일조선인의 역사, 문화, 법적지위나 권리 등을 공부하여 자신이 ‘재일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유학동을 통하여 일본속에서 정체성과 ‘민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계속해서 ‘재일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생활하겠다.” 라고 응답했다. 유학동연구회는 ‘재일조선인’ 대학생이 중심이 되어 재일조선인의 역사, 전통문화, 재일본조선인 형성사, 재일조선인 법적지위와 권리, 전후보상 문제처리 등 주된 관심분야에 대하여 매주 2회 이상 토론하고 한달에 한번 정도 지역별 연구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유학동은 대학생활을 통하여 재일조선인이라는 재인식, 자기 정체성의 형성, 민족의 부활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학생들로 하여금 일본사회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일본사회에서 긍정적이고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고교까지 민족학교 출신이 많았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일본학교 출신의 경우 민족에 대하여 아무런 의식이 없이 무작정 지내다가 대학 유학동에 참가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의 재발견과 자기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응답했다. 즉 유학동 활동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민족의 재발견과 부활의 계기를 가져다주고 있었다. 대부분 부모

나 대학친구의 권유로 유학동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한국과 북한 실정은 물론 일본사회와도 단절된 인상을 주었다.

그러나 대학졸업 후 사회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민족의식의 재발견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계승되고 지속되어 가는 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현재의 조사결과로서는 대학 졸업 후 총련소속의 재일조선인의 세대간 단절이 예상된다. 물론 대학 OB나 OG 등 선후배간 모임, 기타 단체나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사결과 대학졸업과 동시에 대개는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의 바쁜 관계로 조직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총련소속의 재일조선인 청소년들은 일본, 한국, 북한사회와는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들만의 ‘재일조선인’이라는 동포지향형의 자기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일, 1980년생,

(교토거주, 남성, 27세, 재일3세, 교토 ‘유학동’ 청년위원장)

### (1) 생활실태

나는 교토 출생으로 영어학을 전공했다. 대학시절 총련 산하단체인 교토 ‘유학동’(유학생 동맹)에서 활동하면서 조선의 역사라든지 민족에 대해 재일동포선배들에게 배우면서 졸업 후에도 ‘유학동’에서 위원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약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학동’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재일3세이고, 가족은 오사카에서 살기 때문에 ‘유학동’ 기숙사에서 나를 포함한 4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가족은 모두 4명으로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있다. 아버지는 오사카에서 자영업으로 공장을 경영하고 종업원 3명과 함께 주로 건축공사 및 시공을 하신다. 아버지 한 달 수입 50만~ 60만엔 정도이다. 나는 ‘유학동’에서 활동하면서 기본적으로 15만엔 가량의 월급을 받고 있다. 수입은 기본적으로 생활비에 사용하지만 주로 ‘유학동’ 교제비에 사용한다. 일본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부모님은 반대의사이며 나도 일본인과의 결혼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

아버지는 한국어를 못하지만 어머니와 저는 민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어를 할 줄 안다. 그러나 부모님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지금 하는 일도 수입이 없고 장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대학교 때 유학경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신다.

내가 조선인이라는 사실은 민족학교를 다녀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다. 부모님이 한국어를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민족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다. 집에서 김치는 매일 먹는 편이고, 한식, 일식 둘 다 자주 먹는 편이다.

재일동포의 장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일동포에 대한 권리나 차별이 개선되고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유학동’에서 일하게 된 계기도 취업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총련일꾼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한국관련 뉴스나 드라마는 때때로 보고 있다. 한국노래도 들어본 적이 있지만 한국인과 교류해 본 적은 없다. 그 때문에 특별히 나쁜 인상을 준 한국 사람도 없었다. 집에서는 추석, 설, 한식 등은 세지 않고 제사 정도만 지내고 있다. 민단 청년회가 교류해 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교류해 보고 싶다. ‘유학동’은 1년에 3~4번 100명 200명 규모로 민단외 단체와 교류를 하고 있다. 재일교포로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지만 학교 다닐 때는 많았다. 하지만 재일교포로서의 자부심은 늘 가지고 있다.

한국인유학생과 연락한 적이 있는데 향후 재일청소년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참가해보고 싶다. 재일청소년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총련을 부정적으로 보는 편견 때문이다. 이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재일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교육을 통해 조선말을 배울 수 있었고 한국문화를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나는 한국적이고 한국명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머니 아버지는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일본식 통명을 사용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는 조선학교, 대학교는 일본대학을 졸업했다.

한국 전통문화는 옷놀이를 민족학교에서 해본 적이 있다. 한국 전통문화가 나에게 정서상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대학시절에 ‘유학동’에서 활동하면서 재일동포와 만나면서부터 민족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제 고민상담자는 주로 ‘유학동’ 선배들이다. 봉사활동은 ‘유학동’이외에 특별히 없다.

한국정부에서 지원하는 유학프로그램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참가경험 또한 없다. 한류로 전체적 분위기는 좋다고 생각한다. 차츰 재일동포간의 교류의 장이 사라져가면서 머지않아 재일교포가 모두 귀화해 버릴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한데 일본의 차별정책이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교육에 대한 지원 또한 뒷받침 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귀화할 생각은 없다.

재일동포가 일본인과의 결혼비율이 높은 이유 또한 동포끼리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일본인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본 내에 재일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불식되어야 한다.

이용일

(교토거주, 남성, 19세, 재일4세, 교토대학 공학부 재학 중(지구공학과))

### (1) 생활실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민족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일본학교를 졸업했다. 기본적으로 저희 집은 유교를 신봉하며 제사는 지내고 있다. 저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 환경 분야 일을 하고 싶다. 향후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다. 나는 재일4세로이며 아버지가 재일2세 어머니가 재일3세이다. 재일한인 대학생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유학생동맹 ‘유학동’에서 활동하고 있다.

약 50년 전에 ‘유학동’이 결성되었을 때 유학생 단체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재일동포의 산하단체로서 최초 단체의 성격과 많이 달라졌다. ‘유학동’은 비영리 봉사단체이며 한 달에 500엔의 회비를 내며 서클활동은 대학 강의실을 빌려서 한 달에 2~3번 정도 연구회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적으로 크게 1년에 1~2번 정도 행사를 개최한다. 내용은 주로 조선역사나 문화, 재일본조선인의 형성사, 일본에서의 법적 지위, 법적권리 등에 대하여 상급생이 지도한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 계시고 두 분 다 재일동포이다. 가족 모두가 교토에서 생활하고 있다. 특히 민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집에서 특별히 한국문화 한국말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한국어를 할 줄 안다.

아버지 어머니는 조선대학교를 졸업했고 아버지는 컴퓨터 전문학교 강사로 일하시고 계시고 어머니는 아르바이트를 하신다. 내 개인적으로는 재일동포와 결혼하고 싶다. 왜냐하면 일본인과 결혼하게 되면 아이가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운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어머니는 일본인과 결혼해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아버지는 싫어하신다. 집에서 인사나 호칭은 한국말이지만 일상회화는 일본어를 사용한다. 우리말을 모르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친구와도 일본어로 이야기를 한다. ‘유학동’의 강의 및 토론회도 일본어로 진행된다.

한국말은 민족학교에서 공부했고 집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일본학교를 선택할 때 아버지는 반대를 하셨지만 어머니는 장래의 직업을 고려하면 일본학교를 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 일본학교를 진학했다.

부모님은 북한이나 한국 어느 쪽이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양쪽 다 우리 조국이라고 말씀하신다. 유치원부터 조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선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부모님은 제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재일동포의 약점은 전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기를 바란다.

나는 주로 ‘유학동’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재일동포의 친구들이 많다. 매주 목요일에 ‘유학동’ 교토지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떤 학습을 할 것

인가에 대한 회의를 한다. ‘유학동’에서 일하면서 조선역사 등을 배울 수 있으니까 좋다. ‘유학동’에서 활동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지냈을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유학동 활동은 학교 내에 조선이름을 가진 학생들을 찾아 ‘유학동’에 들어오기를 권유하기도 한다. 귀화해서 일본이름을 가진 학생에게는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자고 권유하기도 한다. 취직하더라도 계속해서 ‘유학동’ 활동을 하고 싶다. 제일동포이지만 국적은 조선이다. 어머니의 국적은 한국이고, 아버지의 국적은 조선이다.

나는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제법 보는 편이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면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가족들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한국인의 나쁜 점은 적당 적당히 하는 것이며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다. 제일동포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해야하는 것과 외국에 나갈 때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 불편하다.

한국 유학생을 만나본적 있지만 자주 접촉해 보지 않아 잘 모르겠다. 또 한국유학생과 이야기해보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다. 제일청소년들이 일본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본사회에서 ‘조선인은 나쁘다’라고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귀화해 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제일조선인에 대하여 정확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일청소년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귀화할 생각 없지만. 부모님은 두 분다 민족학교를 졸업하시고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상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고 계신다.

한국의 전통문화는 ‘유학동’에서 사물놀이, 우리노래를 배우거나 성인식 때 치마저고리를 입어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몸에 익숙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봄으로써 자신이 조선인이라고 다시 한 번 느끼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고민에 대해서는 주로 학교선배들과 상담한다. 선배들은 항상 지금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충고해준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한국정부나 일본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일본인과 같은 교육수준의 권리(교육권리)를 민족학교에도 일본정부가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한국 정부에는 재외한인청소년 네트워크가 빨리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재일동포가 1년에 1만 명씩 귀화하는 이유는 직접차별이 존재하기 보다는 주변이 모두 일본사람이고 자신만이 조선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소외감으로 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재일동포사이에 교류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 자신만이 조선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귀화하기 쉬워질 것이다.

서학주

(히로시마 거주, 남성, 20세, 재일3세, 교토대학 공학부 2학년 (물리학)  
재학 중)

## (1) 생활실태

나는 현재 ‘유학동’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민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부터 대학까지는 일본학교를 다녔다. 종교는 특별히 없지만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재일3세이며 할아버지가 경상북도 달성군이 고향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둘이서 생활하고 있다. 형제들은 오사카와 도쿄에 각각 살고 있으며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조선대학을 졸업한 재일조선인이다. 일본인과 의 결혼보다는 재일동포와의 결혼을 원하신다.

가정에서는 주로 일본어를 사용하며 초등학교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조선어를 배우지 않았다. 부모님은 한국과 조선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친구들은 조선인이 많고 그 중에 일본인 친구도 있다. 한국음식은 어머니가 가끔 비빔밥, 김치, 지지미등을 만들어 주신다.

향후 재일동포들이 일본 사회진출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차별이 보이긴 하지만 큰 차별은 없다고 생각한다. 내 자신이 재일동포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과의 교류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싶다. 한편 재일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일본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재일동포들이 마치 일본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동포가 많아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생각한다. 재일동포로서 자긍심을 가지지 않고 생활하는 재일교포들이 많은 점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나와 어머니는 한국적이며 원래는 조선적이었는데 3년 전에 변경했다. ‘유학동’은 귀화자, 한국적, 조선적 모두가 가입할 수 있다.

재일동포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일본사회를 좀 더 개선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재일동포들이 귀화하지 않더라도 일본인과 동등하게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저는 귀화하지 않을 생각이다. 어머니께서는 일본식이름과 한국명 둘 다 사용하지만 저는 한국명을 사용하고 있다.

진로나 진로에 대한 상담은 어머니와 ‘유학동’선배들과 하고 있다. 앞으로 재일동포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일본정부에 대해 바라는 것은 특별히 없다. 한국정부에는 좀 더 교류가 활발해 졌으면 좋겠다. 재일동포 교류단체가 점차 사라지는 이유는 핵가족화로 인해 조선의 문화를 전달해줘야 하는 조부모와의 단절이 생기면서 점차 직접적으로 전달 기회가 사라지게 되었고, 또 하나는 재일동포 단체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일본 사회에 진출 및 취직을 하게 되면서 바빠지기 때문에 민족단체에 참여가 적어지고 단절 되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류장소가 적어지는 있는 것이 이유일 것이다. 나는 1주일에 한번 정도 ‘유학동’에 참가 하고 있다.

박현호

(나라현 거주, 남성, 19세, 재일3세, 교토대학1학년, 법학부(법률전공))

### (1) 생활실태

나는 재일3세이며 고향은 나라현이기 때문에 교토에서 혼자서 하숙하고 있다. 특별한 종교는 없지만 집에서 제사는 지내고 있다. 저는 장래에 변호사가 되고 싶다. 재일동포 출신 변호사가 많이 있지만 제가 아는 재일동포 출신 변호사중 한명은 ‘유학동’ 출신의 젊은 변호사가 제법 많다. 부모님은 재일조선인으로 일본대학을 졸업하셨고 아버지는 상업(경영)을 전공하셨다.

아버지 현재 형제분이 하시는 병원의 사무를 보고 있다. 어머니는 요식업에 종사하신다. 부모님은 재일동포와 결혼을 바라신다. 예전에는 결혼상대의 국적은 어디든 상관없었지만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는 재일동포와 하고 싶어졌다. 조선인이라면 북한이든 한국이든 상관없지만,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일본사회에서 취직을 하면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지만 변호사가 되면 어디서든 일 할 수 있으니까 법학을 택했다.

가정 내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한국어를 공부하셔서 한국어를 하실 줄 안다.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미지가 없지만, 공화국(북한)에는 한번 가보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했는데 가지 말라고 하셔서 못 갔다. 한국에는 10회 정도 가본 적이 있다. 처음 갔을 때는 어렸기 때문에 일본과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했다. 내가 재일동포라는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알았다. 내 이름이 다른 애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때 재일동포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내가 일본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친구들은 일본친구가 많지만 대학에 와서 ‘유학동’에 들어와서는 동포친구들도 많이 생겼다. 가정에서 어머니는 1주일에 1~2회 정도 비빔밥, 찌개, 지지미등을 만들어 주신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일본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다. 또한 집에서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설이나 추석을 지내기도 한다.

지금의 조선반도의 정세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재일동포의 미래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여행이외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은 없지만 제주도출신의 할아버지가 세계한국대학교생교류회에 참가를 권유하고 있는데 일정이 맞는다면 참가해보고 싶다.

재일동포로서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지만 가끔 재일동포에 대해 모르는 일본인들로부터 일본어를 말할 수 있어? 라든지 일본어 잘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은 없지만 이름이 한국명이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할 경우에 화제가 되곤 한다. 물론 자신의 한국이름이 일본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을 때 부끄러워하는 재일동포 친구들도 있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일본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익숙해진 탓인지 한 번도 한국본명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다. 부모님도 저를 항상 본명으로 부르고 있으며 ‘유학동’ 활동을 하고나서부터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유학동’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은 모두 같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유학생동맹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민족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도 차이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유학동’에서는 친구를 동무, 한국인을 조선사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고 재일교포를 재일코리안, 재일한국인이라고는 하지 않고 재일조선인이라고 부른다. ‘유학동’에서는 주로 역사, 현재 조선반도의 정세, 일본식이름에 대한 의미, 조선인의 법적지위 부분을 배운다.

재일동포로서 고민이라면 만약 취직을 하더라도 승진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없지만 일본식이름을 사용하는 친구들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본정부가 왜 자신들이 재일동포로서 일본에 존재하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 재일동포라는 존재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선전쟁이라든지, 일본에 강제로 끌려온 조선 노동자들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박물관이 일본에는 전혀 없다. 현재 일본인들

은 조선인의 역사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일본 정부가 역사교육과 박물관을 세우는데 적극 노력한다면 조선인의 역사를 알리고, 왜 자신들과 같은 재일동포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국적은 한국이며 앞으로 귀화할 생각은 없다. 상담자는 주로 부모나 ‘유학동’의 선배정도이며 주로 진로에 대한 상담이 대부분이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일본정부나 한국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직프로그램을 참가한 경험은 없다. 제사를 통해서 친척들이 많이 모이는 기회가 생기고 민족문화계승을 위한 기회도 생기는데 핵가족화가 되어가면서 한국의 전통문화의 계승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을 졸업해 사회활동을 하게 되면 민족단체에 참가할 기회가 적어질 것이고 OB회에 참여한다고 해도 지원을 구하는 정도이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마츠오 (김)유리코

(오사카 거주, 여성, 21세, 재일3세, 리즈메이칸대학 2학년(동양사학전공))

## (1) 생활실태

우리가족은 5명이며 종교는 없지만 제사는 지낸다. 재일교포 3세이며 오사카에서 생활하고 있다. 두 분 다 재일조선인이시고, 어머니가 고급민족학교, 아버지는 일본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할아버지가 토목건축회사에 사장이시고 아버지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신다. 종업원은 20여명 정도 되는 회사이다. 생활수준은 중상 정도 된다.

부모님은 일본인과의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조선인을 더 선호하신다. 같은 동포친구와 결혼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는 사고방식이나 의식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집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대학에 들어와서 1년간 조선어 수업을 듣고 공부했다. 이후 어머니에게 조선어를 물어보는 횟수가 늘어났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일본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으로부터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다지 충격은 없었다. 부모님 역시 한국적이다. 가족 모두가 제가 초등학교쯤에 한국 국적으로 바꿨다.

어머니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 기뻐한다. 한국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유학동’에 들어가면서부터이다. 오빠가 대학에 입학 후 ‘유학동’에 참가하면서 나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다. 재일조선인의 뿌리(루트)라든지 역사, 재일조선인의 정체성, 법적지위 등에 대해서 공부한다.

한국전통문화는 대학에 들어와 ‘유학동’에서 처음 사물놀이를 해보았다. ‘유학동’에 들어와서 크게 달라진 점은 지금까지 일본에 살면서 조선인으로서 의식이 없었는데 의식을 갖게 되었다. 조선인이라는 새로운 의식이 없었는데 ‘유학동’에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고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자신이 재일조선인으로서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 무엇보다도 재일조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되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싫었다. 일본인 친구들의 직접적인 차별이나 이지메는 없었지만 일본인 친구가 농담으로 ‘조센진’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듣고 ‘조선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와서는 조선인이라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현재 주변 친구들은 조선인이 많다. 보통 어머니가 주로 김치찌개를 만들어 준다. 그 이외에 지지미, 삼계탕 등을 자주 먹는다. 한국음식 중에 내장을 넣은 찌개를 제일 좋아한다..

한국관련 드라마나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조선인과 성격이 비슷하거나 닮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유학생과 만나 이야기를 해보았을 때 한국인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재일조선인으로서 일본에 생활하면서 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지만 불편한 점이라고 해야 할까 싫다고 생각한 적이 많다. 조선인이란 뉴스에서 보통 조선인은 북조선사람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이 공화국에 대해 나쁜 말을 한다면 기분은 좋지 않다. 고등학교시절에는 재일조선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었지만 대학에 들어오고 난 후 재일조선인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한국유학생의 이미지는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재일조선인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 졌으면 좋겠다. 한국이 재일조선인에 대해 잘 모르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한다.

재일조선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재일조선인이 자신을 재일조선인으로서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납치문제라든지 핵문제등이 뉴스에서 나오게 되고 조선인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었을 때 재일조선인으로서 ‘유학동’에 참가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민족학교를 나와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본이름을 사용하는 사람 즉 민족의식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문제이다.

예전에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이지만 반드시 조선인과 결혼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졌다고 하지만 지금세대는 어느 쪽 이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나는 귀화할 생각이 없다.

사물놀이를 해보면서 우리나라 놀이가 이런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고민에 대한 것을 부모님이라든지 선배들과 주로 상담을 하는데 취직이나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한국정부에서 지원하는 유학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학교에서 교환학생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돈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가해보지는 못했다.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이 일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교과서에도 신지 않고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재일조선인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일본인들이 많다. 재일조선인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리고 스스로 재일조선인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재일조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좋겠다.

재일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보통의 조선인으로서 모여서(지금은 모이는 것이 힘들게 되었지만) 일본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나는 계속해서 제사, 한국 전통문화 등 할머니가 남겨주신 것들을 계승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저는 취직을 하더라도 될 수 있는 한 동포의 모임이나 단체에는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활동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저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사람은 주로 학교 선배님들이다. 주로 재일조선인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유학동’활동과 조선대학교와의 교류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신일

(도쿄거주, 남성, 34세, 재일3세, 민단 청년회 도쿄본부 회장(시스템엔지니어))

### (1) 생활실태

종교는 특별히 없지만 제사는 지내고 있다. 재일3세이고 재일동포이신 어머니가 계시고 제 아내도 재일동포로 홋카이도에서 청년회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아내와는 청년회중앙대회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 도쿄 전기대학에서 기계공업을 전공했다.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이다.

부모님은 예전에 일본인과의 결혼을 반대하셨다. 결혼 전에 사귀었던 일본여자친구가 있었지만 평소 부모님께서 너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나 재일교포와 결혼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부모님께 그 일본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줄 용기가 없었다. 역시 내 자신도 한국인이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재일동포와 결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으며,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도 기뻐하셨다.

청년회에서는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살아온 100년의 역사도 배운다. 비록 한국말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한국을 생각하고 있고 아이들이 태어나도 그들에게 한국을 가르치고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라기를 바라고 있다.

내가 지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단 청년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기를 일본에서 생활하지만 역시 민족은 다르다. 재일동포이기 때문에 이치메를 당하거나 한국인으로 최소한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일교포로서 절반은 재일문화를 절반은 한국문화를 배우면서 부모님 역시 기본적으로 ‘너의 인생이니까 내가 정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 국적을 바꾸고 귀화를 하는 것도 자유이고 취직이나 아이들 문제로 상황이 점점 바뀌어 귀화를 고민할지도 모르는 때가 오겠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해도 지울 수 없는 사실이고, 부정을 해도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일인데 틀어박힌 사고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그것을 무기화 할 수 있는, 즉 귀화를 하더라도 ‘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인에서 한민족으로 살아가기를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러한 부모님의 가르침처럼 아이가 생기면 민족이름을 지어주고 싶다. 어려움은 청년회가 지금의 나를 키워준 곳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청년회에 참가하는 10대, 20대의 젊은 재일청소년들에게 내가 배웠던 것을 거꾸로 가르쳐주는 입장이 되었다. 그들이 좀 더 한국인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또 자신의 나라에 대해 흥미를 가지도록 선배들에게 받은 가르침을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연구회는 민단에서 항상 하고 있다. 한글 교습이라든지, 한국영화를 보고 토론해 본다든지, 저희들 생활의 공통되는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역사적인 부분은 재일교포1세들의 이야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본에 건너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지금 우리들이 있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청소년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지금 세대들은 재일한국의 역사적인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70세 80세가 된 1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역사적인 부분을 많이 듣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일동포의 역사를 전달하자는 운동을 펼쳐 전국 민단에서 재일1세대들을 인터뷰하거나 직접 비디오를 촬영하여 자료를 보조하기도 했다. 민단에서는 귀화문제, 국제결혼문제에 대한 주제를 설정하고 학생들끼리 토론을 시키는 활동도 펼치고 있다.

내가 청년회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 4학년 때부터이다. 사실은 10세에 어린이 잼버리에 참가하면서 민단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지금 청년회에 참가하는 사람들 역시 나와 같이 어린이 잼버리에 참가했던 사람들로, 이것은 참 굉장한 인연(緣)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청년이 되어 민단을 방문했을 때 어릴 적 잼버리대회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선배가 이제는 민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때 그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다행이다. 우리들이 한 일들이 역시 틀린 일이 아니었다.’ 라고 말을 해주었다. 내가 청년회회장으로서 지금 청년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나와 같이 성장하여 다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린이 잼버리는 2년에 1번 개최한다. 참가비는 개인이 조금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청년 잼버리는 1년에 1번이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루트를 더듬어보고,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또는 자신의 윗세대인 할머니, 할아버지세대를 생각해 본다든지, 자신을 그렇게 깊게 생각할 기회는 별로 없다. 자신이 재일교포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자신의 뿌리라든지,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려는 것이 오히려 찬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점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한국어는 잘 못하지만 아내가 연세대학교에 유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매우 잘한다. 내가 철이 들었을 때부터 한국인이라는 깨달았으며 이름도 한국식이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고, 가정 내에서도

어머니가 조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친척들끼리는 한국어로 이야기를 했었고, 매일 한국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일본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일본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곤 했다. 왜냐하면 가족이 일제 시대 때 일본인에게 살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일본에 오게 된 계기는 할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강제징용으로 오사카로 건너오셨다고 한다.

지금 재일청소년들은 귀화하는 청소년이 많이 있으며 재일동포의 부모도 젊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젊은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정확히 자신들의 역사나 정체성에 대해 가르쳐줄 수 없다. 그 때문에 자녀들이 일본어나 다름없게 성장해 버리고 말 것이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확실히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재일청소년들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한다.

재일교포청소년들에게 자기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면 같이 모여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한국 관련뉴스는 인터넷을 통해 항상 본다. 민단에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싶어 한국의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나 이화여대 등에 유학한 청소년이 많다. 그래서 그들은 한국에 친구들이 꽤 많고, 나도 연락하는 한국인 친구가 많다. 한국은 일년에 한번 꼭 방문한다. 전국체전에 봉사활동으로 참가를 하기도 한다.

저에게 나쁜 인상을 준 한국인은 없었고 오히려 한국의 선배들로부터 한국에서의 예의를 배운 적이 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설날에는 떡국을 먹기도 하며 제기차기나 윷놀이 등 한국놀이를 가르치기도 한다.

나는 재일동포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 무기라고 생각한다. 내 이름이 한국이름이기 때문에 명함을 교환하면 상대방에 ‘이’라는 제 이름을 보고 나에게 궁금해 한다. 이것 또한 하나의 찬스이다. 상대방이 일본어를 잘한다고 물으면 저는 일본에서 자랐으며 한국어를 잘 못하는 한국인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나의 무기이다. 상대방은 재일동포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이야기를 해보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나를 알리는 기회가 된다.

귀화를 하는 이유는 많다. 일본에서 올림픽을 출전하고 싶어도 한국적이기 때문에 출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은 취직 때문에 귀화하는 경우도 있다. 귀화를 한다고 해서 자신의 뿌리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단에 오는 사람 중에 귀화한 사람도 굉장히 많다. 예전에는 귀화하는 사람이 배신자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귀화한다고 해서 전혀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점점 민단에서 멀어져가는 재일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과의 접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일본에서 재일동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전에는 공영주택에도 들어갈 수 없고, 연금도 받을 수 없었다. 민단이 만들어지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지금은 공영주택도 들어갈 수 있고, 연금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도록 노력한 것이 민단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민단이 있어야 할 이유가 모호해졌다. 또한 예전에는 한국에 가기 위해서는 민단에 등록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다. 한국영사관이 없었던 시절에는 민단에서 여권을 만드는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모두가 민단에 가입했지만 지금은 영사관이 생기고 민단을 통해서만 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단의 역할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민단의 조직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다. 지금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은 없지만 아직 참정권이라든지, 재입국허가 철폐 등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민단의 역할이 필요하다.

재일동포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다.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어밖에 모르는 그들에게 그들의 뿌리에 대한 힌트 정도를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마지막 결정은 청소년 자신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은 한국 사람과 재일동포 먼저 서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사람에게 재일동포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한국적이고 귀화할 생각도 없다. 계속 한국이름을 사용했지만 중학교 때 부모님이 친구들에게 이지메를 당할까봐 ‘이와모토’라는 일본식이름을 쓰게 한 적이 있다.

한국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재정적인 부분의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민단청년회가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의식이 있는 사람이 기부를 하기도 하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일본 정부에게는 재일한국인이 일본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풍족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재입국허가의 자유와 참정권을 당연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현상

(도쿄거주, 남성, 24세, 재일2.5세, 민단 동경본부 청년회소속, 대학원생)

#### (1)생활실태

현재 재일3세이며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어머니는 뉴커머이시고 아버지는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동포이다. 전공은 실용음악이고 장래 희망은 음반회사의 CEO 및 프로듀서이다.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아버지는 민단에서 근무하고, 어머니는 통역사이다.

부모님은 일본인과의 결혼을 달갑게 여기시지 않고 있으며 다른 민족과의 결혼에도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그렇다고 한국인과의 결혼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최근에 오셨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 저는 서울대학에서 5년간 공부했었기 때문에 한국어는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시지만 나는 매우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재일동포들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받아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미국사람이나 일본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재일동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

이 이상하다.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다.

나는 한국인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알았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민단한국학교를 다녔다. 한국에서도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한국친구들이 많다.

향후 한국과 재일청소년과의 괴리감이 커지고 있으며 일본정부나 한국정부도 재일동포에 대해 배타적이기 때문에 재일동포는 점점 일본인화 되어 갈 것이다. 나는 한마디로 재일청소년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국을 가기 전에 한국 사람은 재일동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직접 한국을 가보니 재일동포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실망했다. 재일동포에 대해 한국인인데 왜 주민번호가 없냐는 등 최저인취급을 당하는 것 같아 싫었다. 우리들도 한국인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국인들이 재일동포에 대해 배타적인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재일동포를 잘 모르는 것은 문제 있다.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재일동포로서 살아가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 저희 집은 엄격한 편이라서 한국이름 밖에 사용하지 않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재입국허가 받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도 많다. 또한 취업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 일본사회에서의 차별과 한국사회에서의 차별, 참정권획득, 취업 문제가 해결하기 힘든 점이라고 생각한다.

민단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민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민단에서 봉사 활동 하는 친한 친구들도 많기 때문이며 민단청년회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돕고 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의 이미지는 저는 별로 좋지 않다. 재일동포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또한 일본에서 잠깐 공부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만 심어주고 돌아간다. 오히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친구들이 더 좋다. 고민이나 진로문제는 주로 부모님과 상의한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에 바라는 것은 재일동포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재일동포에 대한 폭 넓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의 교류프로그램이 있다면 당연히 참가해보고 싶다. 일본에서 재일동포로서 불편함이 있지만 그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일을 할 때 차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본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연락을 가끔 하곤 한다.

그리고 재일청소년들이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재일동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재일동포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한국식 이름에 대해 고민을 한다든지 취직에 대해 고민을 한다든지 할 때 먼저 떳떳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일청소년을 위한 동포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정부에 바라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 재일조선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국가적으로 에다가와학교 문제 등 재일동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일본 정부에는 위안부문제나 교과서 문제 등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오희미(쿠레모토 에미)

(오사카 거주, 여성, 21세, 재일3세, 대학3학년(영어전공))

### (1) 생활실태

우리 집은 기본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종교는 유교이다. 재일조선인3세이고, 내가 ‘유학동’에 참가하게 된 건은 대학교 1학년 때 민족학교의 선배로부터 전화로 권유를 받고 참가하게 되었다.

초등학교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민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했다. 그 전에 아버지가 귀화를 원하신 적이 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나를 민족학교에 진학시켰다. 친구들에게 특별히 차별을 받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불편 없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민족학교를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민족교육을 받길 원했다. 그러나 ‘유학동’활동에 대해 어머니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반대하신다.

‘유학동’에 들어와서 제가 재일조선인으로서 살아가는 기쁨과 일본에서 살아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 귀화할 생각이 없지만 졸업하면 ‘유학동’ 활동을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민족학교의 선생님을 하고 싶다.

앞으로 재일조선인과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어머니도 그러길 바라는다. 집에서는 주로 일본어를 사용한다. 어머니가 일본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조선어를 잘 못하신다. 그 때문에 한국어는 특별히 가르쳐주시지 않으셨지만 간단한 조선어 단어 정도는 가르쳐주셨다. 친구들은 대개 재일동포 친구들이 80%정도 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민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교 때부터 일본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지금 일본인과 결혼하는 재일조선인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좀 씁쓸한 기분이 든다.

대학에 들어온 이유는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영어를 가르쳐 준 재미교포출신 선생님의 영향으로 나중에 외국에 나가 공부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다.

재일청소년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생각한다. 졸업 후 일단 민족학교의 교사가 되고 싶지만 그 전에 우선 돈을 벌고 싶다. 민족학교 교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나도 민족교육을 받고 민족의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역시 교육이라는 것이 재일조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한국을 가본 적이 없지만 관련뉴스나 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 한국드라마는 어머니가 자주 보기 때문에 나도 좋아하게 되었다. 한국유학생에 대

해서는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특별히 나쁜 인상을 받은 적은 없다.

재일교포로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 차별받는 부분도 많고 일본에 조선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내가 재일조선인이기 때문에 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어 라든지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지? 라고 질문한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재일조선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재일조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유학동’에 들어와 가장 좋았던 점은 재일조선인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좋았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특히 봉사활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학교 내에 ‘이뿐이’이라는 한글을 배우는 서클이 있어 거기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취직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한국정부의 재정적인 지원과 유학프로그램, 한국유학생활동 등 한국인과 재일조선인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일본정부에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겠고, 일본학생들에게도 재일조선인에 대한 역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채가 (아야카)

(야마구치 거주, 여성, 19세, 재일3세, 대학교2학년(영문학전공))

## (1) 생활실태

특히 종교가 없지만 제사는 지내고 있다. 재일교포3세이고 부모님이나 나 역시 한국적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본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유학동’에 들어온 계기는 ‘이뿐이’라는 서클에 가입하면서부터이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어렸을 적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아버지는 자동차 매매 자영업을 하시며 생활비는 거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부모님께서서는 제가 한국인과 결혼하기를 원하시고 나도 가능하다면 재일동포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한국을 가 본적이 없지만 부모님은 가본 적이 있다. 그러나 특별히 한국에 대해서 거의 말씀은 하지 않으셨다.

‘유학동’에 들어와 여러 사람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학동’에 들어오기 전에는 재일동포의 역사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공부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재일동포로서 살아가고 싶다. 내가 재일동포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재일동포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는 기분도 들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한글수업을 들으면서 ‘유학동’에 들어오라는 권유를 받았다. 내가 일본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학동’에서 실시하는 설문지를 통해 재일교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학동’에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는 일본친구들이 많았지만 현재 재일동포 친구들이 많고 남자친구도 재일동포이다. 남자친구는 ‘유학동’에서 만났다.

나는 일본인이 아니고 국적도 한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일조선인으로서 생활해나가고 싶다. 가정에서는 김치를 먹고 한국음식을 주로 먹었기 때문에 다른 가정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역시 나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느꼈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나는 재일동포로서 일본에 살면서 특별히 불편했던 점을 느끼지 못했다. 차별을 받은 적도 없었지만 지금 일본에서 생활하는 이상은 당연한 권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일본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와 대우를 받기 원한다. 일본정부에 바라는 것은 일본에서 재일동포가 좀 더 살기 쉽게 처우해주었으면 좋겠고 한국정부에는 한글을 잘 모르는 재일동포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주면 좋겠다.

리호

(오사카 거주 남성, 19세, 재일2.5세, 대학2학년(전기공학전공))

### (1) 생활실태

어머니는 뉴커머이시고, 아버지가 재일교포2세이다. 어머니집안은 모두 기독교 이지만 특별히 종교는 없다. 재일동포이기 때문에 제사는 지내고 있다. 아버지는 전기회사의 사장이시며 종업원은 20명 정도 된다. 어머니는 보험회사 사원이다. 나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거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 집에서 부모님이 한글을 가르쳐주시지 않았다기보다는 내가 관심이 없었다.

내가 16살 때까지 일본인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을 받고 나면서부터 재일동포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 일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인으로 생각했고 국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에 국적이 한국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 어렸을 적 어머니가 한국말을 하는 것을 간혹 듣기는 했지만 어머니가 머리가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가족 모두가 일본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대학교 들어와서 한국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깜짝 놀랐다. 일본뉴스에서 나오는 북한에 관한 소식은 무척 나쁜 인상을 받았었고 친구들에게도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유학동’같은 민족단체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때 학생회의 지도원이 집에 찾아와 권유해서이다. 당시 내가 조선인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 되어 한참 고민하던 시기였고 주변 친구들이 다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상담할 사람이 없었다. 학생회에 가면서부터 나와 같은 처지의 재일동포와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이야기하다보니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민족단체에 참가할 기회가 없었지만 고등학교부터는 민족단체가 있기 때문에 참가할 수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인으로서는 살아가고 싶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학동’에 들어와 여러 이야기를 듣고 나면서부터는 내 자신을 알아가고 좋아지도록 노력하자 라는 의지가 생겼다. 조선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고 조선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증인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싫어도 저희가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자고 결심하게 되었다.

‘유학동’의 토론 등은 2주에 한번 정도 실시하고 있다. 내용은 재일교포의 역사, 현재의 정세 등을 배우고 함께 토론을 한다. ‘유학동’은 전체회원이 모이는 것은 1년에 3~4번이고 전국적인 대회는 1년에 한번 정도이다. ‘문화공연’은 연 1회 실시하는데 사물놀이, 무용, 재일조선인극 등을 한다.

아버지는 대학교 1학년 때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하라고 가르치셨다. 특별히 재일조선인과 결혼하라는 강요는 하시지 않으시고 성인이 되어서는 제가 결정하도록 한시다. 매년 귀화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재일교포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변 일본친구들이 나의 존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재일동포로서 불편했던 점은 없었지만 취직을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조선인이기 때문에 다른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머니가 뉴커머이기 때문에 자주 한국에 가시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따라 자주 가신다. 나도 2번 정도 가 본 적이 있다. 한국에 가기 전에는 역시 일본을 싫어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한국에 가보니 의외로 일본 프로그램이 방송하고 있고 일본 제품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나쁘게만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지금 한류 붐으로 양국이 사이가 더욱 발전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왜 재일조선인들이 일본에 있는지를 모르는 일본인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최근에는 재일조선인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것 같다.

한국유학생을 고등학교 때 만난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왜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느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나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재일

조선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재일조선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 지금 일본 내에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재일조선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피하게 되고 그 대신 재일동포라고 말하는 걸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며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주로 ‘유학동’의 선배들과 상담하며 ‘유학동’이외의 민족단체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지원하는 유학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없다. 한국 정부가 재일조선인에 대해 좀 더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같은 나라의 사람으로서 생각해주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일본정부에 바라는 것은 우선 지도자가 차별을 하고 있고 그 지도자부터 조선인을 차별을 하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재일조선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유학동’에 참가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유학동’에 가입하면서 민족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같은 민족끼리 고민이나 진로를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이태기 (나카무라 타이키)

(도쿄거주, 남성, 24세, 재일3세, 회사원)

## (1) 생활실태

도쿄의 긴시초에서 혼자 살고 있으며 회사원이다. 와세다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다. 아버지도 와세다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셨고 현재 부동산에서 근무하신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부동산에서 일하신다.

부모님은 어떤 민족과 결혼하기를 바라는지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재일

1세와 재일2세들이 강요한 재일동포와의 결혼에 대하여 재일3세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재일1세와 재일2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지금까지의 기반을 만들어 재일3세가 풍족하게 살고 있지만 한국어나 한국문화도 모르고 재일3세가 특별히 재일동포와 결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재일1세와 재일2세의 생각이 재일3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한다.

집안에서 한국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어에 흥미가 있어서 대학교를 다닐 때 수업으로 청강을 했다. 한국어를 읽거나 쓸 줄은 알지만 의미는 잘 모른다. 부모님은 한국어 공부를 하시는 것에 찬성 하시지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지는 않는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일본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재일동포 친구들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일본인 친구들과 같이 논다. 어머니가 한국음식을 자주 만들어 주시며,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한국음식을 먹고 있으며 냉장고에 항상 김치가 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처럼 민족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일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에 가도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정체성이 희미해서 약간 불안하다. 만약에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빠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어느 나라 사람일까?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할 것 같다. 이것은 내가 한국 사람을 만나면 나를 이태기라고 소개하고 일본사람을 만나면 ‘나카무라 타이키’ 라고 소개하는 것과 같다.

한국뉴스는 일본뉴스에서 소개하는 정도이고 한국드라마나 TV는 보지 않지만 어머니는 자주 보신다. 한국음악은 어머니께서 겨울연가 CD를 좋아하셔서 같이 들어 본 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한국의 영화나 음악을 듣고 특별한 감정이나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한국인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크고 버릇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인은 한국인에 비해 목소리가 대부분 작기 때문이다.

제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친척들끼리 모여서 지냈다. 그

러나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제사를 지내지는 않는다.

한국에 가까운 시일 내에 방문계획은 없다. 한국인 이라는 것이 생활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점은 특별히 없다. 그리고 내가 재일동포라는 사실을 받아 드리고 있다 다른 민족이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재일한국인으로서 불편한 점은 특별히 느끼지 못했다. 확실히 재일한국인으로서의 긍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인 유학생에 대한 이미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히 재일동포에게 흥미를 가져주어서 나에게는 기쁜 일이었다. 인터넷으로 교류하는 한국인 친구는 없지만 만약에 교류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긴다면 참가 해보고 싶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특별히 내가 재일동포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없고 아직까지 귀화할 생각은 없다. 지금 민단단체나 조직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 학생이었을 때는 민단의 학생회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다.

한류에 대해 좋은 점도 있지만 한국드라마나 TV를 보고 예전의 한국의 역사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류만으로는 일본인이 가지고 차별이나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는 의식을 갖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정부가 재일동포에게 해줄 만한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다. 재일동포로 생활할지라도 일본에서 형사상의 일을 제외하고는 지금은 직업을 선택할 때 차별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 장희석

(도쿄거주, 남자, 24세, 재일3세, 회사원)

### (1) 생활실태

도쿄의 긴시초에 살고 있으며 부모님은 조선학교(민족학교)에서 대학까지

졸업했다. 결혼에 대해 특별히 관여 하지 않으시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민족에 상관없다고 말씀하신다.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는 제일동포이다.

한국어는 읽고 쓰기는 할 수 있지만 의미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교 다닐 때 한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잠깐 공부한 적이 있다. 부모님은 한국어 공부를 강요하시지는 않으셨다. 또한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

어렸을 때부터 제일동포라는 사실을 알고 자랐다. 부모님이 민족학교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학교에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알게 되었다. 부모님은 저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늘 가르치셨다.

부모님은 한국요리를 자주 만들어 주셨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따로 살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만들어 주셨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김치는 항상 있었던 것 같다. 한국요리는 지지미나 김치찌개를 만들 줄 안다. 어제는 부대찌개를 만들어 먹었다.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내 스스로 ‘중간자’ 라고 생각한다. 한국 관련 뉴스는 일본TV에 나오는 한국 뉴스와 신문에 나오는 한국 기사 정도는 본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나 TV는 자주 보지 않는다. 어머니는 자주 보시는 편이다. 한국의 음악은 자주 듣지는 않지만 영화는 본적 있다.

한국인 유학생 중에 나쁜 인상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약속시간에 1시간 이상 늦게 나온 적이 있었다. 한국에는 4번 정도 가본 적이 있고 관광과 민단연수의 목적으로 다녀왔다. 한국을 가기 전과 후의 차이점은 한국을 다녀온 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에 이번 9월쯤에 민단에서 단체로 갈 예정이었는데 바빠서 갈수 없게 될 것 같다.

한국인이어서 생활에 이익이 되는 일은 특별히 없다. 제가 다른 민족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어렸을 때는 해 본적은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제일동포라서 불편한 점은 특별히 없지만 한번은 집을 옮길 때

외국인이라서 어려웠던 적은 있었다. 재일동포서의 긍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재일동포라서 특별히 고민하고 있는 일 또한 없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일본학교를 다녔지만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한국적이며 귀화할 생각은 없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봉사활동은 2년 전 민단에서 열심히 청년회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을 하고 있어 활동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교류하고 있는 한국인 친구는 특별히 없다. 제가 생각하는 한국인 유학생은 다들 다른 나라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더 공부하고 싶다. 내가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국식 제사에 대해 물을 때는 한국문화에 대해 더 알아야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에게 장래나 진로에 관한 상담자는 일본인 대학 때 선생님과 재일동포 선배가 있다. 봉사활동은 민단 청년회에서 하고 있다. 한국정부에서 지원하는 유학, 취직 프로그램은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일본의 한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나 나와 같은 재일동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면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국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유학생을 통해 한국인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지만 많은 재일청소년들은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가 가능한 방법이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

박명자

(사이타마현 거주, 여성, 23세, 재일3세, 회사원)

### (1) 생활실태

현재 직업은 회사원이며 특별히 종교는 없다. 저는 재일교포 3세로써, 어머니가 재일1세, 아버지가 재일2세이고, 지금은 어머니와 살고 있다. 결혼에 대해서는 특별히 일본인과 다른 민족과의 결혼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지금도 할머니랑 친척이 한국에 살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한국 관련 뉴스는 일본TV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오면 보는 편이다. 한국유학했을 때 한국인 친구와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일본에는 한국인 친구가 없어서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다. 한국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갔다.

한국 노래를 들으면,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한국 음악이나 영화를 좋아한다. 한국 사람은 친절하고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것 같다. 한국 아주머니들은 목소리가 좀 큰 것 같다. 일본에서 한국인으로서 보다 그냥 재일교포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단지 재일동포로서 구청에 가서 주소변경 하는 게 좀 귀찮을 뿐이다. 재일동포로서 자긍심은 없지만 한국은 무척 좋아한다. 지금 민단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전통 같은 것은 알고 있고, 특별히 소속감 같은 것은 없지만, 민단에서 개최하는 한일교류프로그램은 재미있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한국에서 온 유학생에 대한 이미지 특별히 없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구나 하고 느껴지고 일본어를 무척 잘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재일동포로서 불편한 점은 선거권이 없다는 것이고 선거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재일청소년을 위해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국적은 한국이지만, 나중에 귀화 할 생각은 없고,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은 일본식 이름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는 좀 더 공부하고 싶고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선 지금부터 한국인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한국에 할머니 집에 가거나 나중에 내가 아기를 낳게 되면 한국의 전통문화를 가르치고 싶다. 나도 부모님 덕분에 한국 전통문화를 알게 되었고 지금의 민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유학 시 한국 정부지원으로 공부했다. 재외한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본에도 한국어 학교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종태

(요코하마 거주, 남성, 24세, 재일3세, 회사원)

#### (1) 생활실태

부모님은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이고 나는 재일3세이다. 한국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가정에서도 전혀 안 쓴다. 한국어는 흥미가 있어서 공부했고 국적도 한국적이고 내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공부했다. 부모님이 일본 태어나서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대학에서 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했고 자신은 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 ‘재일동포’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뉴스에서 나올 때 잠깐 보고 한국인과는 가끔씩 교류도 한다. 어머니가 한국드라마를 자주 보시기 때문에 그때 나도 한국드라마를 보게 된다. 한국 사람은 직설적 면이 많아, 일본사람이 잘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있지만 재일교포들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재일동포라서 불편함 점은 서류상으로 일본인과 차별당하기 때문이다. 재일동포의 자긍심보다 내 스스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재일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정체성 확립에 문제에 대하여 한국어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일청소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지금 국적은 한국적이지만, 귀화까지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고 중학교까지 일본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이름을

사용해도 문제된 적은 없었다.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재일동포의 존재를 한국정부가 인정해주길 바란다. 한국정부가 재일동포의 존재에 대하여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주고 서로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영동

(도쿄거주, 남성, 23세, 재일3세, 민단청년회소속)

### (1) 생활실태

나는 재일본대한민국청년회 도쿄지방본부에서 일하고 있으며 도쿄의 아다치구에 살고 있다. 아버지는 재일2세이고 어머니는 뉴커머이지만 지금은 이혼한 상태이다. 지금은 아버지와 남동생 2명, 이렇게 4명이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의 학력은 조선학교를 다니셨는데 고등학교 때 중퇴하셨다. 아버지는 결혼에 대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어머니는 한국인과 결혼하기를 원하신다.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이 축구경기를 할 경우 한국을 응원하신다. 요즘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자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고 강조하신다.

한국음식은 무척 좋아하며 너무 매운 음식은 못 먹지만 대부분의 한국음식은 좋아한다. 한국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음식을 잘 만들 수 있다. 잡채, 지지미, 김치 정도는 직접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냉장고에는 항상 김치가 들어 있다.

내 스스로는 내가 한국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국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신을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닌 재일 동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만약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재일동포로서 어려운 점은 항상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재일동포는 일본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등록증

을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한다. 그래서 구청을 갈 때도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 그래도 현재 나의 국적은 한국이고 귀화할 생각은 없다.

보통 내 이름은 한국명을 사용하고 있지만 학교를 다닐 때는 일본식 이름을 사용했다. 어렸을 때는 이름이 2개라고 자랑한 적도 있었다.

한국에는 지금까지 6번 정도 갔는데 성묘하러 갔었다. 그리고 올해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민단청년회에서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다.

한국 드라마나 TV는 거의 보지 않고 한국에 관한 뉴스는 일본에서 나오는 한국에 관한 뉴스 정도이다. 내가 생각하는 한국인의 성격은 자기의사 표시를 확실히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공부하며 일본인보다 말이 공손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나에게서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재일동포이기 때문에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설명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다른 사람에게 설명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2) 청소년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의견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유학이나 취직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학교 다닐 때 한국유학을 갔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재일청소년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정부에 바라는 것은 재일동포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재일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본정부에 바라는 것은 재일동포에게도 참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길 바란다.

## 3)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제3유형

일본국적취득자에 대해서는 10명을 인터뷰 결과, 이들은 일본사회의 차별적 경험과 환경에 의해 한국인(민족)이라는 젊은 세대 특유의 새로운 의

미를 찾아내고 젊은 세대만이 가질 수 있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축해나가는 움직임은 가지고 있었다. 반대로 일본사회의 차별적 상황 때문에 적극적·긍정적으로 한국인이라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일본사회에서 자신들의 부정적인 면을 크게 의식해 버리는 젊은 세대들도 존재했다. 여기에서 이들을 「재일」 독자지향형으로 지칭하고 있다.

재일한인사회에서 「한국인」을 거론할 때, 재일동포 또는 일본국적자에게 그것은 반드시 한국에 사는 한국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일동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한국인성」을 가리키며 또한 일본국적자로서는 「한국에 뿌리를 둔 일본국적자만의 한국인성」 혹은 「한국에 뿌리를 둔 일본국적자의 독자적인 정체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에 뿌리를 둔 일본국적자만의 한국인성·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재일청소년들 자신들이 실감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좀처럼 언어로 표현하기 곤란한 것이다. 이러한 「독자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후속연구과제로서 보다 많은 일본국적자를 조사하여 그러한 독자적인 한국인성(정체성)을 느끼는 구체적인 장면과 대상을 실증적으로 입증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그 형태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토사오리

(후쿠오카거주, 26세, 여성, 재일3세, 자영업)

### (1) 생활실태

대학졸업 후 일본기업에 취직했지만 그만두고 지금은 어머니가 경영하는 야끼니쿠음식점을 도와주고 있다. 가족은 아래로 여동생과 위로는 오빠가 있다. 지금부터 약 10년 전 할머니가 74세의 일기로 돌아가시고 같은 해 아버지가 56세 때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약간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 야끼니쿠음식점을 개업했다.

일본국적으로 귀화한 것은 사오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일이다.

삼촌이 민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국적으로 바뀐 후에도 민단이 주최하는 ‘어린이캠프’에 가끔 참석했다. 대학4학년이 되기 전 봄 방학 때 서울교육원에서 실시한 어학연수(10일간)에 참가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국적을 취득한 이들에게는 민단으로부터 행사안내나 권유는 없었다. 항상 삼촌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입수했다. 사오리씨는 성인이 되었을 때 민단의 ‘성인식’에 치마저고리를 입고 나가려고 생각했으며 이것을 실현했다. 현재 민단주최의 한국어교실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사오리가 민족이나 문화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는 할머니의 영향이 크다고 했다. 할머니의 남동생이 한국에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사오리씨와 여동생 둘이서 할머니를 따라 한국의 고향을 몇 번이고 방문했다. 할머니 고향의 친척들은 모두가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이와 같이 아주 어렸을 때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이나 기억이 사오리씨에게는 한국이나 한국문화를 소중히 생각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학생시절 다른 지방(현)의 대학생과 교제한 경험이 있다. 남자친구는 다른 지역 한국인 대학생 모임에 참가하고 있었으며 사오리씨도 몇 번이고 그 모임에 참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국인청소년 집회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가령 사오리 이름의 ‘사오리’ 라는 명칭을 일부러 한국어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려고 한다거나, 혹은 사오리씨에게도 한국어 명칭을 사용하도록 권하는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에 위화감을 느꼈다. 물론 사오리 자신은 한국인이라는 사실, 한국의 뿌리를 둔 인간이라는 사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싶지만 ‘사오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불러준 부모님의 생각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회인이 되면서 한국어교실의 강사의 소개로 국제유도대회에서 한국팀의 통역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 일본 전국유도대회로서 그해는 기념대회의 일환으로 한국, 중국, 대만에서 선수단이 파견되어 국제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한국팀의 통역을 했다. 한국에서는 부산과 전북 익산에서 유도팀이 참가했다. 시합을 지켜보면서 일본선수와 한국선수의 시합에 임하는 자세

에 큰 차이점을 발견했다고 한다. 일본선수의 기술은 ‘기초연습에 충실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팀의 기술은 ‘실천적이고 먼저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한국선수의 유도기술은 씨름이나 태권도를 융합시킨 것으로 일본의 순수한 유도기술에는 볼 수 없는 기술이 많이 보였다고 한다.

제사는 민족적인 의식에 대하여 어머니는 항상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오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결혼상대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을 결혼상대자로 선택하고 싶다고 했다.

## (2) 재외 한인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

재외 한인청소년들간의 모임이 있으며 참가하고 싶지만 먼저 자신의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특히 일본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는 민족단체로부터 연락이나 참가권유가 없기 때문에 참가하고 싶어도 참가할 수 없다. 또한 민족단체 자체도 현재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대적인 흐름과 필요(NEEDS)에 따라 바꾸어 주기 바란다.

### 카가와사토미

(후쿠오카거주, 34세, 여성, 재일3세, 회사원)

#### (1) 생활실태

사토미씨는 단기대학(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관광호텔의 후쿠오카영업소에 근무한 적이 있다. 현재 일본 음식관계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사토미가 가족과 함께 일본국적으로 변경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이다. 당시 사토미씨는 일본국적 취득을 결정한 부모님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했다. 사토미씨 자신이 결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한국적에는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당시 사토미씨는 20

세가 되면 자신이 직접 한국적으로 다시 되돌리겠다고 생각했다 한다.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할머니가 한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할 때면 자주 따라 다녔다. 20살 때쯤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친족방문과 업무 때문에 1년에 3~4번 정도는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다. 특히 한국의 ‘괜찮아요! 정신’이 좋다고 했다. ‘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또한 어떠한 곤경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극복해나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까지는 한국과 일본을 오고가면서 자기 자신이 변한 것도 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라고 했다.

삼촌이 민단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여름에는 재일청년회가 주최하는 ‘어린이캠프’나 크리스마스파티에도 참가했다. 이러한 모임에 참가하는 것이 사토미씨에게는 매우 즐거운 일이었다. ‘한국의 풍습을 배우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즐거웠다’라고 했다.

제사 등의 한국의 풍습에 대하여 ‘자연히 어릴 적부터 제사가 있었으며,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약간 다를지 몰라도 설날이나 추석 때 친척들이 모두 모여 같이 밥을 먹거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차례를 계속 지켜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보존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 그렇게 한국의 풍습이나 습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나가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그것은 조상이 한국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사토미씨는 얼마 전까지 후쿠오카에서 멀리 떨어진 간토지방에 결혼해서 한동안 생활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멀리 떨어져 생활하고 있었지만 후쿠오카에서 제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돌아왔다고 한다. ‘그 이유는 부모에 관한 일이니까 멀리서도 돌아오고 싶었다. 반드시 돌아오고 싶었다.’라고 대답했다.

이와 같이 국적은 일본일지라도 민족으로서 재일코리안이라는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싶다는 의견이 강하게 엿보인다.

## (2) 재외한인청소년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

사토미는 재외한인청소년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일상적인 일본친구들과 다른 무엇인가 재일청소년만의 네트워크(연대)와 같은 것이 있을 것 같다.’ 일본국적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민족적 정체성을 말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지만, 일본사람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민족적 네트워크(연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와무라고이치

(후쿠오카 거주, 29세, 남성, 재일3세, 회사원)

### (1) 생활실태

현재 77세인 할아버지는 5살 때 도일한 재일 1세이며 1957년 경 할아버지가 창업한 건설업의 사업상의 이유로 일본국적을 취득했다고 한다.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한국인들 중에 꽤 이른 시기에 귀화한 가족의 예이다.

고이치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영국유학길에 올랐다. 그곳에서 호텔업을 공부했다. 일본에 귀국 후 후쿠오카켄 내에 있는 호텔에 취직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가업인 건설업을 도와주고 있다. 고이치씨의 건설회사는 후쿠오카켄 내에서도 꽤 큰 회사의 하나이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 받는 경우도 많다. 몇 해 전부터 한국에서도 건설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회상의 업무 때문에 고이치씨는 많을 때는 1개월에 3~4회 정도 한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한국에 있는 친척과의 관계는 이전부터 빈번하게 있었다고 했다. 한국에서의 사업을 소개한 사람도 친척이라고 한다.

할아버지는 사업에 열심이였기 때문에 고이치씨의 아버지에게는 민족문화를 거의 가르쳐주지 못했다. 그 배경에는 할아버지 자신이 5살 때 도일하여 자신 스스로도 민족문화로부터 어릴 적에 멀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이치씨의 아버지는 민족문화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할아버지가 민단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실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5살 때까지 한국에서의 기억과 증조부와의 생활체험으로부터 한국어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할아버지를 따라 고이치씨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와 친해지기 위해 공부한 한국어이지만 한국과의 업무가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고이치씨 자신도 한국어회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지금은 혼자서 한국어교실에 다니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요리는 일본식 요리가 주류이다. 제사 등의 가족행사 때는 한국식 요리가 나온다. 한국음악이나 드라마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장남이고 한국에도 선산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조상의 묘지나 토지는 자신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업상이나 친척관계에서 한국과의 네트워크는 향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연애와 결혼에 대하여 국적은 어느 나라사람도 관계없다고 했다.

## (2) 재외 한인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

사업상, 또는 친척관계의 네트워크(연대)로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재외한인청소년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 코사와 타쿠

(효고겐 출신, 현재 캐나다 유학중, 24세, 남성, 재일3세, 대학3학년)

#### (1) 생활실태

코사와씨는 가족으로 부모님과 22세 여동생이 있다. 조사시점인 현재 캐나다 대학에 유학 중인 학생이었다. 2008년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돌아와 취직할 예정이다. 16세 때까지 조선적이었지만 가족이 한국국적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일본국적을 취득하였다. 조선적이었지만 가족이 총련에 소

속되어 있지는 않았다. 자신이 굳이 어느 쪽이라고 말한다면 「반공산주의·반사회주의」 적 사상의 소유자라고 말한다.

코사와씨의 가정은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다. 아버지는 재일 2세로 6년 전에 가족 모두가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현재 교육관계의 일을 하고 있다. 어머니도 재일 2세로 약제사이다. 부모님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도 매우 높다. 어머니는 민족학교를 졸업해 한국어를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다.

코사와씨는 고등학교 때 단기간 캐나다 유학한 경험으로부터 일본사회의 폐쇄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대학재학 중 캐나다 유학을 결심했다. 코사와씨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 유학 중에 수업을 받은 일본의 ‘좌익’ 교수와의 자극적인 토론,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과의 교류와 갈등 등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자신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한국문화도 역시 알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 (2) 재외 한인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

한국정부에 바라는 것은 재외한인에 대한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보다는 먼저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행동으로 재일한인사회에 아주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가토유미

(아이치겐 거주, 31세, 여성, 재일3세, 회사원)

### (1) 생활실태

유미씨는 아이치겐에서 태어나 현재도 아이치겐에 거주하고 있다. 직업은 회사원이다. 유미씨는 18살 때 부모님의 의사로 가족 전원이 일본국적을 취득했다.

유미씨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중학교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 가정에서는 한국요리나 한국풍의 양념을 한 요리가 일주일에 3번 정도 나온다. 또 설날이나 조상의 기일에는 제사를 한국식으로 하고 있다.

부모님은 재일 2세로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일본기업에 근무 하시며 올해 59세이다. 앞으로 1년 후에 회사를 정년퇴임한다. 아버지는 최근 민단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에 다니며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한국 친척들과의 관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없으면 부끄럽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미씨의 면접조사 때 유미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짧은 시간이었지만 국적 취득과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일본 국적취득의 경위를 「회사원으로 일하던 중에 가능한 빨리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회사 상사로부터 귀화하도록 요청받았다.」 라고 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청과의 거래 등 책임이 따르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일본사회에서는 한국적으로 관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일본국적을 취득해서 일본에서 선거권을 얻게 된 것에 대해 ‘(선거권을)취득해 정신적 여유와 안정감을 가지게 되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다보면 선거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우리 집은 아이들까지 합쳐 6표이다. 선거철이 되면 마을회장도 부탁하러온다. 이러한 것은 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게 한다. 또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이라는 틀 속에 있지 않으면 입수되지 않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선거권을 가지지 않는, 즉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본인들 거의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정보나 가치의 세계로부터 배제된다.’ 라고 말했다. 선거권의 유무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암묵의 승인(pass)이 되고 있는 일본사회 커뮤니티의 실상을 엿볼 수 있다.

유미씨는 현시점에서는 한국의 문화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보다는 서양의 음악이나 무용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기 스스

로도 무용을 배우고 있다.

이러한 유미씨에게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결혼 문제이다. ‘결혼 상대에게는 자신은 귀화한 원래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주는 상대, 또는 가족이 아니라면 결혼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귀어 좋아지게 된 사람이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일는지 항상 불안하다.’라고 했다.

## (2.) 재외 한인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

유미씨는 향후 한국인끼리의 네트워크에 자신이 참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로부터 만약 재일동포에 대한 지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이전에 한국적이었다는 것이 구직활동을 할 때 심리적 부담이 되었던 경험에서 ‘재일한국인의 취직 알선활동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한일 관계나 북한문제 등의 외교문제가 일어나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재일한국인들이 받기 때문에 ‘외교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재외한인청소년에게 일어났을 때 버림당하지 않았다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한국정부에 희망하고 있다.

## 가토미카

(아이치겐 거주, 29세, 여성, 재일3세, 회사원)

### (1) 생활실태

미카씨는 아이치겐 출생으로 현재 29세의 여성으로 재일교포 3세이다. 직업은 회사원이다. 일본국적은 미카씨가 16살 때 부모의 의사에 의해 가족 전원이 취득했다.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귀화해

도 여전히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라고 말했다. 서류상으로는 자신의 민족적 뿌리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변에 국적이 알려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본사회의 엄연한 현실을 선명하게 엿볼 수 있다.

또한 민족명 사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절대 없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이미 일본에서는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적이었다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조선이라는 것이 말하기 꺼려지는 것은 역시 현재에도 일본의 모든 지역에서 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이 사실을 숨길 것이다.’ 라고 말했다.

## (2) 재외 한인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에 와서 정치와 관계없이 관광 등을 했으면 좋겠다. 일본문화의 좋은 점을 접해보고 그것을 한국 매스컴에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 재일교포들과 심적 교류를 통해서 그것을 전부 한국 매스컴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의식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희망했다.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이 중국과 조선에 범한 역사상의 죄를 사실대로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을 교과서에도 분명하게 기록하여 후세들이 올바르게 배워나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과거 사실을 그대로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박여미씨

(오사카시 거주, 23세, 여성, 재일3세, 대학 4학년)

### (1) 생활실태

박여미씨는 한국국적이며 현재 대학 4학년생으로 취직활동 중에 있다. 장래에 간호사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박여미씨의 아버지는 재작년 일본국적을 취득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2006년 오사카 시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였지만 유감스럽게도 낙선했다. 아버지가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본사회의 정치세계에서 재일한국으로서 주장을 하고 싶어서였다.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국적 취득자는 가족전원이 귀화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족 전원이 아니라 개개인이 판단해서 개개인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때문에 최근 재일동포세계에도 같은 가족 내에서 국적이 다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박여미씨의 아버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재일한국인을 위한 어린이회 활동을 친구들과 시작했다. 아버지가 태어나 자란 지역의 재일한국인 대부분이 가난하고, 또한 일본사회의 차별이 심한 상황 속에서 장래에 밝은 희망을 가지지 못한 채 비행에 빠지는 재일교포 어린이들이 많았다.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재일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하고 착실한 사회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러한 아버지의 딸인 여미씨도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회 활동에 참가했다. 여미씨는 아주 어릴 적부터 재일동포를 위해 사회활동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났다. 그것은 여미씨의 성장과정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자신은 한국적인 여미씨가 아버지의 일본국적 취득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여미씨가 간호사가 되려고 생각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다. 간호사는 국가자격이고 이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취직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사회에서 향후 더욱 간호사는 필요할 것이다. 여미씨는 어렸을 때부터 재일교포 2세인 부모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어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 구하기란 매우 힘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여미씨는 국적에 좌우되지 않는 자격과 기능을 가지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일본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남녀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여성이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은 남성에 비해 훨씬 적다. 간호사 직업은 여성이 연령제한 없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더라도 계속할 수 있는 직업 중의 하나였다.

여미씨가 간호사를 택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이 때문에 자신은 아버지와 같이 사회활동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해온 일은 ‘물론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고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 올수 있었다. 그밖에 어린이회가 없는 지역의 친척 중에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필사적으로 숨기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활동, 즉 어린이회활동이 너무 자신과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어린이회에 참가하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지는 분위기도 있었으며 그 때문에 자신과 남동생은 계속 이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2) 재외 한인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

박여미씨는 재외한인청소년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국인끼리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은 물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모국과의 교류가 아니라 재일동포끼리의 교류가 먼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일동포끼리의 교류를 확실히 하고 본국과의 교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재일동포끼리의 횡적연대가 가능하지 않은 시점에서 모국과의 교류를 추진한다 해도 결국 일본에 있는 자신들은 고독한 존재일 뿐이죠. 재외한인청소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그것이 최종 목표일지라

도 우선 재외한인이 살고 있는 나라마다 네트워크를 만들고 나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과 교류하더라도 저희는 재일교포로서 일본사회에서 일본인 속에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한국인에게 그것을 이야기해도 우리들의 고민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에게 이야기해도 결국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고 고독감만 깊어질 뿐입니다.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만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해결책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역시 결혼문제라든지 생활상의 문제를 서로 상담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연령이나 세대에 따라 고민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 연령이 많아져도 연대는 있는 편이 좋지 않습니까? 신뢰관계를 갑자기 그러면 이 장소를 빌어 설정하니까 만들어 달라고 해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견은 시사성이 매우 풍부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노구치미에씨

(오사카시 거주, 51세, 여성, 재일2세, 공무원 )

이노구치미에씨는 현재 51세이며 재일교포 2세 여성. 오사카시 자치단체에서 시(市)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4년에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이노구치씨와는 2007년 9월에 약 20분 정도 짧은 인터뷰조사를 했다. 주로 일본국적을 취득했을 때의 기분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노구치씨는 ‘지금까지 일본사회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적이어서 좋았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일본국적을 취득했을 때 자신조차 생각지 못했던 “상실감”이 엄습해왔다.’라고 말했다.

이노구치씨의 인터뷰는 ‘민족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대답이었다.

이다히로키

(히로시마겐 출신, 사이다마겐 거주, 39세, 남성, 재일 2.5세, 연구원)

### (1) 생활실태

이다씨는 현재 나이는 39세 남성으로 한국인 어머니(국적은 일본국적)와 일본인 아버지사이에서 태어났다. 현재 대학에 비상근 강사로 출강하고 있으며 대학부속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연구자이다. 이다씨 자신이 일본국적자의 정체성문제 등을 테마로 연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해왔다.

이다씨는 고등학교 때까지 자신의 어머니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어머니의 조부모의 말투나 생활방식이 일본인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인이라고 가르쳐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었다. 고등학교 때 어머니에게 물어보고 나서야 한국인이라 사실을 알았다.

아버지는 일본 천황제나 황실을 존경하는 사고방식을 강하게 가져온 사람이었고, 장남인 이다씨 자신은 어렸을 때 군사용 장난감을 자주 사곤 했다고 한다. 집에 있을 때는 일본축일 때 ‘일장기’를 집 현관에 거는 것이 장남인 이다씨의 역할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오사카의 전원 기숙사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집에서 떨어져 지냈다. 자신의 피의 절반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한국에 강한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다씨 스스로가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이다씨의 얼굴은 한국에 가면 ‘한국인의 얼굴’과 같아서 일본인 친구와 걸어가고 있으면 친구는 일본인으로 알고 말을 걸어오지만 이다씨는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처럼 취급받을 때가 많았다고 한다. 이런 경험으로부터 자신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집에서는 어머니가 가끔 한국식 요리를 만들어주셨다. 조부모 집에서 떡국스프와 재료를 가지고 와서 떡국을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 이외에는 한국식, 또는 한국풍의 문화는 없었다고 했다.

한국에 뿌리를 가진 일본국적취득자는 지금까지 재일동포 연구 중에서도 재일동포 속의 소수자, 혹은 주변적인 존재로서 자리매김 되어 왔다. 그러나 이미 수적으로 한국·조선적의 재일동포 수를 능가하려는 수준에 까지 이르고 있다. 일본국적취득자의 정체성은 한국·조선적 재일동포의 아류가 아니라 독자적인 성질을 가진 독자적인 존재라고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에 뿌리를 가진 일본국적취득자는 장래 ‘재일동포’의 기존의 틀과 경계를 초월한 새로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2) 재외 한인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하면 한국 피를 절반정도 가진 ‘혼혈(half)’, 또는 ‘더블(double)’ 재일한인청소년 사이트가 있다고 한다. 이들 사이트에서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의식하는 모습이나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는 의견 등이 많이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을 뿐 이러한 의견이 무언가 구체적인 행동이나 운동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의견교환’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기존의 민족단체는 이러한 젊은층의 기대나 수요(NEEDS)에 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기성세대의 가치나 방법에 따라 아무런 개혁이나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 기존단체나 방법이 아닌 새로운 서클활동이나 공동체(커뮤니티)활동, NGO활동의 존재나 모색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백진훈씨

(도쿄출신, 48세, 남성, 재일2.5세, 일본민주당참의원)

### (1) 생활실태

백진훈씨는 1958년 도쿄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사이에서 태어났다. 현재 48세이며 일본학교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았고 1983년 일본대학 생산공학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그 후 동대학원 생산공학연구과 박사전기과정에 진학하여 1985년에 수료했다.

같은 해 조선일보 일본지사에 입사했으며 조선일보·일본지사를 설립하는데 참가했다. 1986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했으며 1990년 조선일보 일본지사 부지사장에 취임한 후 1994년에 지사장이 되었다. 2003년에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2004년에 조선일보 일본지사를 퇴임한 후 같은 해 참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비례구로 입후보해 첫 당선 을 이루었다. 민주당내 경력으로서 ‘납치문제대책본부간사’ 또한 민주당이 작성하는 ‘차기내각’ 구상 중에는 ‘차세대방위부대신’이 유력시 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일본외교방위위원, 북한에 의한 납치문제 등에 관한 특별 위원회필두이사를 겸임하고 있다<sup>14)</sup>.

## (2) 재외 한인청소년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

현재 재일코리안의 주변을 둘러싼 시대적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며 재일동포사회에 대한 지원도 그 변화에 부응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한국정부는 누가 일본국적의 재외동포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신고제 등록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동포지원은 강압적인 것이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한국에 여행을 가면 여러 가지 경제적 실리가 있는, 즉 현실적 실리적인 것일수록 좋을 것이다. 또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재미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재일동포가 한국에 와서 ‘우리들을 따뜻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있구나. 환영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책을 실시할 때 일본국적자와 한국국적자의 차이를 두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국적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일본국적취득을 장려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재외한인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는 긴 안목으로 보면 한국정부·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재외한인을 냉대하면 재외한인이 한국이라는 국가와 사회에 애착을 가질리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한국국가와 사회에 불이익이 되는 행동으로 치닫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14)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haku-s.media-trust.com/index.html> 참조)

## 2. 재일청소년의 네트워크 구축 가능성

### 1) 재일청소년의 다양성과 의견존중

한마디로 ‘재일청소년’이라고 하면 정체성의 상황은 다양하다. 자기 의지대로, 혹은 부모의 의지로 자신이 성인이 되기 전, 또는 몇 살 때 일본국적을 취득했느냐는 등 그 형태는 여러 가지이다. 재일한국인으로서 생활환경이나 체험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그들의 정체성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카토유미·미카 자매가 태어나고 자란 지역은 주변 어느 지역보다 많은 재일동포가 살고 있는 곳이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지역은 전쟁 중 군수 공장이 있었으며 그 공장에 많은 조선인이 노동자로서 끌려왔기 때문에 전쟁 후 그 지역에는 조선인이 많이 남아 생활하게 되었다.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의식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사회에서 조선인이 많이 사는 지역은 그 주변 지역으로부터도 차별을 받았다. 그리고 그 지역 일본인들도 재일동포에 대한 강한 차별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학교교육의 장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다. 교사들의 재일동포를 차별하는 언동이 빈번했고, 일상생활의 당연한 일이 되었다. 교육내용 속에서 왜 그 지역에는 조선인이 많이 생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일본의 조선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나 조선인들을 이해하는 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못했다. 그 지역에는 지금도 그런 교육은 전혀 없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가토자매에게 재일한국인이라는 사실은 필사적으로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주위에 알려져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것이다.

미카는 ‘한국이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가능성은 절대 없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일본에서는 매우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미국적이었다면 전혀 개의치 않고 공개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조선인이라고는 말하기 힘든 것은 역시 지금

도 일본에서 한국·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사실을 숨길 생각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자신이 한국인(민족)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다른 민족이 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적이었을 때 불편한 적은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고통일 때도 있습니다. 귀화해도 여전히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의 이 응답배경에는 그녀의 생활체험과 환경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들과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부탁했을 때 거절당할 때가 많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본사회의 재일한국에 대한 차별 때문에 자신이 한국에 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강하게 거절하는 경우였다. 실명은 공표하지 않고 가명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개인의 특정사항이 알려지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할 것이며, 현시점에서는 일본에서 공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청소년개발원에 제출하는 보고서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응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지금도 일본사회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재일한국이 그러한 차별에 어느 정도 깊게 상처를 입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강하게 거절한 다른 이유는 자신이 한국에 뿌리를 가진 일본국적자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이유는 ‘이제 와서 한국정부가 재일한국인에게 무엇을 해줄 걱정인가?’ 라는 말이었다. ‘재일동포는 오랜 시간 한국정부에 많은 자금을 보내주었다. 재일동포 부자들은 일본사회에서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불우함과 충족되지 못하는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한국정부로부터 훈장이라도 받고 싶었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한국에 보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재일동포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 그들은 재일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재일동포사회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한국만을 바라보았다. 이런 식으로 재일동포를 “이용”해

은 한국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분명히 또다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강한 불신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보고서 내용에 기재된 인터뷰내용만으로는 일본국적 청소년이나 재일 한인청소년의 실상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재일청소년들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재일한인청소년’의 정체성

재일한인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재일한국인(민족)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다른 민족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전에 한국적이었을 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물론 재일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본인으로 살아왔고 외국인등록증도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부모의 보호를 받고 살아왔다. 한국 여권으로 해외여행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한국적으로서의 불편을 느낀 적은 없다. 부모님 덕분에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만약 한국적으로서 차별을 받았거나 불편한 점을 겪었다면 지금 내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끼쳤을지도 모른다.

귀화한 지금은 한국여권도 없고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더욱 완벽히 통달하고 싶고 극단적일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본관과 한국명을 몸에 새기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MC씨).

장래 결혼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일본적이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귀화한 것이 고등학교 때였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FK씨).

재일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귀화해도 여전히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불편한 점은 이것이 전부입니다(FM씨).

여러 가지 사소한 부분에서도 가령 습관이나 감성 등이 ‘같은 한국인’으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과 재일동포는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일동포는 한국적이지만 문화나 습관적인 부분은 일본적이다. 한국인에게 한국의 습관도 있지만 의식이나 습관적인 상호 허용범위, 척도(기준)가 다르며 재일동포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일본이다 (FP씨).

다음은 재일한인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재일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재일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재일동포들과 똑같은 ‘자부심’인지는 잘 모르겠다. 일본인에 대해서 혹은 한국인에 대하여 재일동포로서 자신은 2개 나라의 문화(일본과 한국)를 알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은 거꾸로 이해하면 한국으로부터는 일본인으로서 취급받고 일본국내에서는 재일동포(=한국인)로 취급받는다. 두 개의 나라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있는 실정이다. 재일동포로서 멋대로 허세를 부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 자신은 일본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위에 재일동포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지도 모르겠다. 거기에는 모국의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은 존재하지 않는다(MC씨).

저는 재일한국인으로 제자신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FK씨).

저는 재일한국인으로서 제 자신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FM씨).

재일한국인에 대한 동일화라고나 할까요. 동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고 싶다는 느낌입니다(FI씨).

이상과 같이 사람들의 체험은 환경에 의해 한국인(민족)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젊은 세대가 독자적인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고 젊은 세대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축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반면, 일본사회의 차별상황 때문에 적극적·공정적으로 한국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본사회에서 부정적인 면을 크게 의식해 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때, 재일한인청소년이나 일본국적자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한국의 한국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일청소년만의 한국인성’이며, 또한 일본국적자에게는 ‘한국에 뿌리를 둔 일본국적자만의 한국인성’, 혹은 ‘한국에 뿌리를 둔 일본국적자의 독자적인 정체성’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에 뿌리를 가진 일본국적자의 독자적인 한국인성·정체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은 재일청소년들 자신들이 실감은 하고 있지만 좀처럼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것들이다. 이러한 ‘재일청소년의 독자적인 한국인성·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보다 많은 재일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러한 독자적인 것을 느끼는 구체적인 장면과 상황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 3) 한국정부의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의견

한국정부가 재일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수행해야하는가? 그리고 재외한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과 응답을 해주었다.

재일동포 3세로서 저는 한국정부로부터 특별히 어떤 지원도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굳이 말하자면 부모나 조부모 세대의 재일동포가 일본사회 속에서 받아 온 차별에 대한 사후 보상과 같은 것이라면 그것에 의해 한국정부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겠지만 결국 한국정부는 무엇을 하더라도 중간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MC씨).

한국정부나 일본정부에 대한 요망사항은 너무 많지만 아무리 말해 보아야 지금과 같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외한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한국인 경영자 모임 등 이미 연결될만한 곳은 다 연결되었다. 이와 같은 재외한인네트워크에 대한 운운보다는 한국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것은 북한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한국인의 행동으로서 재일한국인·조선인에 관계없이 일본에서 차별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불필요한 한국 내의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 세계에 흩어져있는 재외한인동포는 한국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군대를 거부하고 보다 좋은 교육을 찾아서 한국적을 버리기 위해 외국에 이민가는 한국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외국으로 떠나 버린 한국인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언젠가 될지는 한국정부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트워크 구축이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MC씨).

해외에서 외교문제 등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재외청소년에게 일어났을 때 수수방관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FK씨).

국가간 상호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국가로서의 국력향상이 재일청소년들의 생활향상에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편견에 신경 쓰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도 그러한 의식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그러한 의식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개혁이 나와 같은 재일청소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FM씨).

일본정부는 먼저 자신들이 중국·조선에서 저질러온 역사적인 죄를 분명히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역사상의 사실들을 그대로 교과서에도 기록하여 아이들이 올바르게 배우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과거 사실을 분명히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의식이 뿌리 깊게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에 와서 정치와 관계없이 관광 등을 했으면 좋겠다. 일본문화의 좋은 점을 접해보고 그것을 한국 매스컴에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 재일동포들과 깊은 심적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이러한 것을 모두 한국 매스컴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 대대적인 의식 개혁을 실행했으면 좋겠다(FM씨).

해외한인네트워크를 만드는 것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단계적으로 그것이 최종 목표라 할지라도 우선 살고 있는 나라마다 횡적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결국 한국과 교류를 할지라도 우리들은 재일청소년으로서 일본사회와 일본인들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한다 해도 우리들의 고민과 생각을 ‘공유’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인에게 그것을 이야기한다 해도 결국 이해할 수 없고 실망감과 고독감만 깊어질 뿐이다. 그것이 약간의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하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단체 등이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우선 이러한 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FP씨).

영어 웹사이트에 혼혈 한국인, 혼혈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전부 물론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우선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 글을 많이 올리는 곳이 있다. 대부분이 영어로 쓰여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러시아와 한국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등 두 개 국가뿐만 아니라 8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일한국인 같았다. 그런데 뭔가 연대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 되지는 못하고 있다.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처음 들어와 본 느낌으로 뭔가 하고 있나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것만이 계속되고 있을 뿐 조금 더 활동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족단체, 특히 민단 청소년들과 이야기해보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매력이 없다고 이야기 한다. 그 때문에 특별히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꿈도 희망도 없는 것 같다. 무언가 열심히 연결해 두고 보자는 것뿐이고 그것이 결국 이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재일한인청소년회에 가입하면 좀 더 즐겁다 라든지 무언가 연대감에서 나오는 기쁨 같은 것을 청소년회가 만들어야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계획하자고 하면 모두 입을 닫아버리고 조용해진다(MI씨).

재일한국인을 둘러싼 시대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며 재일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시대적인 변화와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정부는 먼저 누가 일본국적의 재일한인청소년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신고제 형식의 등록제도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 실시하려는 지원은 강제정보다는 예를 들면 여행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 실리를 준다든지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것일수록 좋다. 또한 심각한 것보다는 ‘즐거운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재일청소년이 한국을 방문해서 ‘자신들이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환영 받고 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좋다. 정책을 실시할 때 일본국적자와 한국적자의 차이를 두는 것은 피해야한다. 예를 들면 일본국적자만 지원할 경우

일본국적취득을 장려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받기 쉽다. 재외한국인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은 긴 안목에서 보면 한국정부·사회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재외한인을 냉대하면 재외한인이 한국이라는 국가와 사회에 애착을 가질리 없고 그 반대로 한국이나 한국사회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MB씨).

이상과 같은 의견이 많았다. 일본국적자를 포함하여 재일동포의 일상생활 속에는 일본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재외한인과의 교류’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혹은 그것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이미지를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외에서 재외한인과의 교류를 경험하고 그것이 재일동포, 혹은 일본국적자로서 자신을 재발견하는 계기를 경험하는 것은 재외한인과의 교류가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미지화하기 쉽다. 이 때문에 재외한인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더라도 거기에 참가할 경우 그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즉 가능하면 구체적인 비전을 참가자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 사람들의 의식은 ‘어떤 네트워크 방식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수준에 있다.

한편 재외한인청소년과의 교류·네트워크를 구축 전에 먼저 재외한인청소년끼리의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의견도 있었다.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재외한인청소년, 즉 예를 들면 민단청년회활동이나 학생운동이 활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사람들의 의식이 점점 개별화되면서 ‘함께 모여 무엇인가 하나를 실행하자’라는 움직임은 희미해져 갔다. 1980년경에 태어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 지금, 민단단체의 사회적·시대적 역할, 그리고 학생회나 청년회의 실정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활기가 없다. 재일청소년들이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지만 기존단체가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한편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 귀화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일본국적을 취득하면 민족단체는 그들을 파악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일본국적자의 다수도 국적취득을 계기로 재일동포사회에서 멀어져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청소년들 각자의 체험에 따라 다르지만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재외한인청소년과의 ‘교류’보다는 먼저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와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다. 재일동포가 겪는 독특한 청소년기의 고민, 연애문제, 결혼문제, 자녀문제 등 각 연령에 따라 상담이 가능한 장소와 네트워크가 우선 시급하다. 재외한인청소년 네트워크는 먼저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재일한인청소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이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병행해 나갈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외한인네트워크란 무엇을 교류하는 것이며 교류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라는 교류내용이 중요하다. 남북문제, 한인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세계적인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의 확장이라는 것은 국가적 수준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구축되면 긴 안목적인 측면에서 각각의 재외동포들(국적을 불문하고)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매일 생활고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들은 다른 세계의 이야기로 들린다. 재일청소년들은 재외한인청소년과의 교류를 하고 싶어 하지만, 먼저 가까운 주변문제에서부터 교류를 원한다. 따라서 재외한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는 미시적 관점(가까운 주변문제)과 거시적 관점(세계적 국가적인 문제)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인 MB씨는 매우 시사적인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고 있다. ‘재외국민(민족)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결국 자국(自國)·자사회(自社會)에 그것을 환원시키는 것이고 재외국민(민족)을 냉대하는 것은 자국·자사회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이다.’

## VIII.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2. 연구한계 및 향후 과제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공헌



## VIII. 결론 및 시사점

###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일본에서 제일코리안이 가장 많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인근지역을 포함한 제일청소년 63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이며 면접조사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3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지역별분포는 간토지방이 9.2%, 아이치가 33.3%, 간사이지방이 50.6%, 규슈지방이 4.4%, 기타가 2.5%이다. 성별분포는 남성이 46%, 여성이 54%를 차지해 여성의 비율이 약간 높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15세~24세까지의 청소년이 89.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신분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73.5%였다. 종교별분포에서는 무종교가 69.5%, 불교가 9.4%, 유교(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8.7%, 기독교가 6.5% 등이었다. 이민세대별 분포에서는 이민3세~이민4세가 전체 90.5%를 차지했다. 장래희망 직종에서는 전문직이 47.6%, 서비스직이 8.6%였으며 부모의 생존여부에 대해서는 92.1%가 부모 모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의 민족적 배경은 부모모두가 한인인 경우가 84.7%,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 이상이 49.6% 부모의 직업으로는 상업 및 기타 서비스가 54.2%를 차지했다. 가정의 수입정도나 소득수준, 생활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에 대한 관심과 네트워크구축이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느낌과 정의 관계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한국에 대한 관심과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느낌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및 한민족 정체성과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느낌은 부의 관계로 가정에서 한국어와 한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관심이 적을수록 한국 및 한국인에 느낌이 좋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네트워크 구축에의 관심도가 한민족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한민족정체성이 재일청소년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님과 가정생활이 네트워크 구축과 부의 관계로 가정에서 부모가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그 반대현상으로 재일청소년들은 한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면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일청소년(민단체, 총련계,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포함)의 정체성 및 네트워크에 대한 사례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단체 청소년의 경우 민족학교 졸업자보다는 대부분 일본국공립 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많아 한국어가 서투르고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재일청소년의 경우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한국 언어와 문화로부터 소원해지기 때문에 정체성의 확립이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둔 재일동포의 경우 한일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문화와 한국인을 접할 수 있는 특정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어린시절에는 어린이 청년캠프, 성인식, 크리스마스파티, 청소년잼보리대회 등을 통하여 재일청소년들간의 만남의 길을 열어주고,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민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만남이 네트워크구축의 협소로 한일간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재일청소년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둘째, 총련계(일부는 민단체 청소년도 포함) 청소년들은 언어, 문화의 정체성이 민족의 정체성과 동일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대개 유학동이나 대학단체서클활동을 통한 한글강좌나 문화강좌, 학습연구회 등 학습활동을 통하여 ‘재일조선인’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계승해 나가는 과정이 발견되었다. 특히 총련계 청소년의 경우 가정교육과 사회에서의 각종 교육활동을 통한 ‘민족’의 재구축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네트워크보다는 일본 내의 민족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지만 한편으로는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에도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셋째, 재일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일’이라는 독자적인 존재로 생각한다. 재일3세와 재일4세의 40%이상이 조선과 일본의 핏줄을 이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어로 생활한다. 재일1세와 재일2세는 한국어가 모국어이지만 재일3세와 재일4세는 일본어가 모국어이다. 이들은 한국통일과 관계없이 일본에 생활거점을 두고 살아갈 것이다. 재일1세와 재일2세는 그들이 거류민이라고 생각했지만 재일3세와 재일4세는 일본사회에서의 영주와 귀화를 지향한다. 재일3세와 재일4세는 애국심이 빈약하지만 조선 민족이라는 것은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넷째, 재일청소년의 경우 대개 청소년기의 놀이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민족’이라는 폐쇄적인 개념에 청소년기의 다양한 활동이나 인격형성이 매몰된 상태이다. 민단체나 총련계 민족학교 졸업자와는 달리 일본계 학교 출신 및 귀화자 청소년의 경우 대학 입학 후 재일조선인이라는 ‘민족’의 자각과 더불어 동정식 발로, 강한 동료의식을 바탕으로 자신들에게 지금까지의 생활이나 의식과는 전혀 다른 자기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민족’이 재구축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 대부분은 아직까지 일본 내 민족네트워크의 구축이나 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편이다.

한편, 이러한 재일청소년의 활동은 현재 민단이나 총련 조직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단체의 청소년 지원활동 목적은 향후 자기 조직의 ‘일꾼양성’이라는 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조직활동을 통한 간부 진출이 좌절되거나 포기한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가 경과되거나 대학 졸업 후 일본사회에 진출함으로써 점차 일본사회에 동화되어가는 양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 귀화자를 더욱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국적자를 포함한 재일청소년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본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며 생활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외한인과의 교류」나, 그들과의 네트워크구축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가 쉽게 떠오르지 않아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외에서 재외한인과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이 재일코리안, 혹은 일본국적자로서 자신을 재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외한인과의 교류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재외한인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구체적인 장점이나 비전을 재일청소년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 재일청소년들의 관심이나 의식은 「어떤 네트워크구축 방식이 있나?」라는 구축 방식 보다는 먼저 재일청소년들에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취지의 문제이다. 한편 재외한인과의 교류·네트워크구축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재일동포 상호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1970년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재일청소년들은 민단청년회활동이나 학생운동에 열성적이었던 때가 있었다. 이후로 재일청소년의 의식이 점차 개별화하고 자연적으로 「함께 모여 무엇인가 하나의 일을 하자」라는 조직이나 단체 활동의 필요성은 점차 감소했다. 1980년경에 태어난 젊은 세대가 성인이 된 지금, 민족단체의 사회적·시대적 역할, 학생회나 청년회의 실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민족운동이나 활동에 활기가 없다. 젊은 세대가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지만 기성세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기성세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재일청소년들에게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러한 배경에는 역시 일본국적취득자의 증가와 관계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일본국적을 취득하면 민족단체는 그들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고 일본국적자의 대부분이 국적취득을 계기로 재일동포사회에서

떨어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일청소년들은 각자의 경험도 다르고 추상적이며 보이지 않는 재외한인과의 「교류」를 원하기보다는 같은 마을, 같은 지역에 사는 친구 등 자신과 친밀한 동포와의 교류를 보다 더 원하고 있다. 재일청소년만이 겪어야 할 특유의 청소년기의 고민, 연애문제, 결혼문제, 자녀문제, 각 연령별 상담이 가능한 장소와 인간관계 등 이러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재외한인 네트워크는 자신 가까운 재일동포, 또는 젊은 세대만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기는 어렵고 양자를 동시에 진행해 나가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자기의 현실적인 문제로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재외한인네트워크구축은 재외한인과의 교류로 재일청소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청소년 간에 무엇을 교류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재외한인 네트워크 구축에 의해 재일청소년이 전세계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의 확장이라는 것은 국가 레벨에서는 필요하고 그것이 구축되면 긴 안목에서 각국의 한사람 한사람의 재외동포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생계유지를 위해 날마다 일상생활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남북문제, 전 세계적인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의 문제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른다. 재일청소년들이 재외한인청소년과 교류를 생각할 경우 그것은 먼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간단한 일에서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재외한인과의 교류는 미시적 시점(가까운 문제)과 거시적 시점(세계적 국가적 문제) 등 양자를 동시에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정책적인 시사점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한인청소년의 민족정체성의 약화와 관련하여 향후 민단계와 총련계 학생단체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민단계 청소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총련계 청소년들의 민족 정체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총련계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생 중심의 학생회나 대학생 중심의 조선인유학생동맹 단체, 조선인 문화 서클활동 등에

서 한국문화나 재일한인의 역사에 대하여 철저히 연구하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일한인청소년의 네트워크 구축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정부는 이러한 재일한인청소년 단체나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재일한인청소년의 민족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는 재일 3세~4세들에게 학교나 문화교류의 장을 통하여 재일한인 역사와 한국 역사를 상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좋은 계기를 활용하여 한국에 대한 관심에서 떠나간 젊은 청소년들을 다시 수용할 수 있는 상호간의 열린 정신적인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면접조사과정에서 재일한인청소년들이 한국사회의 단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많았지만 모국의 한국인 청소년들도 재일한인사회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적인 측면이 너무 많았다.

셋째, 현재 민단체 재일한인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잼보리대회나 청소년잼보리대회, 성인식, 광복절 행사, 크리스마스파티 등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총련계 어떻게든 총련계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민단체나 총련계의 다양한 단체나 조직을 통한 개개인들의 네트워크를 점점 확대하여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를 초월한 범국가적인 재외한인청소년 네트워크를 구축의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세대의 이데올로기적인 편향을 초월하여 젊은 세대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단체와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청소년대표들에게 행사홍보와 새로운 교류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물심양면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실 현재 세대가 재일한인청소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미래 재외한인과 한국 청소년들에게 민족자산을 물려주는 가장 큰 과업중의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일본국회의원인 백진훈씨는 재외한인청소년의 정체성 및 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재외국민(민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결국 자국(自國)·자사회(自社會)에 그

것을 환원시키는 일이 될 것이며 재외국민(민족)을 냉대하는 것은 자국·자 사회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다.’

## 2. 연구한계 및 향후 과제

이 연구의 대상자는 재일한인청소년의 극히 한정된 일부 지역인 3개 지역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일반화시킬 때 이러한 샘플의 편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샘플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면접조사의 응답자가 재일한인청소년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족의식이 높고 고학력자이며 경제적배경이 높은 청소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민단이나 총련 자체내부조사 이외에는 아직까지 이번과 같은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실시된 633명이라는 재일청소년에 대한 조사결과는 대단히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될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아직 미흡한 점은 후속과제로서 남겨두었다. 먼저 이번 연구결과는 재일청소년들 중에서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위주의 연구조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대학졸업 후 사회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대학시절의 민족의식의 재발견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계승되고 지속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과제에서는 민족의식의 단절과 지속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치원이나 중등학교과정에서 형성된 정체성 및 네트워크가 대학생활이나 결혼, 취직 등 사회화과정에서 어떻게 재형성되고 변질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조사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일본국적취득자(귀화자), 그리고 민단계나 총련계에 속하는 재일 청소년들이 현재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인성, 혹은 조선인인성, ‘재일’이라는 독자적인 정체성의 인식과 구축이라는 움직임에 대하여 향후 치밀하고 지속적인 연구로서 구체적으로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공헌

#### 1) 연구의 기대효과

재일한인 청소년들의 경우 기성세대인 재일 1세~2세와는 달리 일본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성장했으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여 일본에서 정착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경을 초월하는 교류가 빈번해지고 있는 시대에 이들은 모국과 그들의 주재국을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현재 재일한민족청소년과 재외한민족청소년들에게 모국이나 민족과 관련된 정체성 제고가 필요한 과도기이며, 이들 상호간의 연대 및 네트워크 형성은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필요성에 따라 재일한인청소년의 생활 및 네트워크실태를 조사한 연구결과이다.

또한 연구기대효과는 차세대를 이끌어 갈 재일한인청소년과 재외한인청소년들의 네트워크 구축에 의해 현재 183개국 700만 재외한인의 권익옹호 및 상호협력증진에 공헌할 것이다. 재외한인의 민족 공동체 발전을 위한 연대방안 모색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 2) 연구결과 활용

지금까지 재일한인청소년에 관한 기존연구들이 오래된 센서스 자료를 활용하거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거나 적용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거시적인 관점의 이론적인 방향을 재정립시키고 연구방향의 재설정 등에 의한 미시적인 관점을 동시에 병행하여 재일한인청소년 연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고 재일한인 청소년의 향후 진로와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수단과 방안마련 및 실행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재일한인청소년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한국과 일본간의 경제, 외교, 문화적 교류를 선도할 수 있게 하며 재외한민족청소년과의 연대협력을 통한 한민족의 위상제고와 한국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적 위상제고에도 직

접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일한인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청소년의 이면구조와 심연구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일한인 청소년들의 정확한 실태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을 재외한인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것은 재일한인청소년의 한국과의 관심을 확대시키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외한인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재일한인청소년과 재외한인청소년의 모국과의 교류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재외한인 인적자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재외청소년 및 재일청소년들에게 한국 5천년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민족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인력확보 및 재일한인 기업의 인턴쉽 과정과 연수과정을 통한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으로 한국청년실업과 재일한인 청소년 실업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재외한인들의 이민생활에 필요한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현지생활에 적응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재외한인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 발굴과 교류협력 사업전개 및 재일한인 차세대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이주역사, 한글보급운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섯째, 글로벌 시대 재일한인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들과의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적 차원에서의 유대를 강화하여 국내 청소년들의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 및 글로벌 역량을 증진시키고 국제적인 시각을 길러주며 재일한인 청소년들에게 한민족 의식과 한국문화 및 모국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키는 이중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재외한민족청소년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한국청소년의 국제적인 감각을 배양하고 재외 한민족청소년들은 한민족 의식과 한국 문화 및 모국에 대한 관심 고취시킬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연구는 21세기 재일한인청소년 및 재외한인청소년들의 생활 및 네트워크실태를 파악하고 재외한인청소년의 새로운 정체성확립과 미래방향성 및 동포의 미래상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회 인권정책연구회, 동북아평화센터(2002). 21世紀와 人權發展 : 세기를 넘어,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 재일한국인. 국회인권정책연구회.
- 김봉규(1999). 세계 한민족 생활권에서 재일동포의 위치와 재외동포재단의 역할. 외교, 50, pp. 57-62
- 김성호(1999). 재일코리안 지방참정권 문제의 현상과 전망. 平和研究.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 김성학(2005). 재외동포의 이주와 정체성 및 한민족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교통관광대학원 석사논문
- 김정구(2004). 재일한국인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 논총 33집, pp.265-279
- 김의환(1989). 日帝下在日同胞社會의 分析研究. 國土館論集 제2집, pp.253-288.
- 김응렬(1990). 재일한국인의 사회이동. 아세아 연구 33권 2호, pp.167-193
- 김용우(2003). 한일의 현재와 옛 이민족과정 다양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도지미(1998). 재일코리안 사회에서의 연구. 한신 논문집
- 민관식(1990). 재일본한국인. 아세아정책연구원
- 민단(1987). 재일동포의 생활실태와 의식조사. 민단자체보고서
- 민단(2000). 재일한국인 의식조사. 민단자체보고서
- 박경식(1992). 재일조선인강제연행민족문제. 삼일서방
- 박일(1994). 재일동포 신세대의 「동화」를 생각한다. 海外同胞, 63, pp.11-13
- 배광웅(2004). 재일동포사회의 세대변화와 통일의식 : 시민단체 활동 통해 통일의식 고취 :북한의 변화와 재외동포 사회의 역할. 통일한국, 제22권 6호, pp.24-25
- 송기찬(1999). 민족교육과 재일동포 젊은 세대의 아이덴티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 서용달(1984). 재일본 교포문제 : 재일한국 조선인의 현상과 과제 ( 在日韓國 朝鮮人の 現狀と課題 ). 일본학, 제3권, 10호, pp.131~163
- 조현미(2000). 재일동포의 집주지역 형성과 민족 정체성의 변화 - 요세바 고도 부키을 중심으로 - (The Formation of a Regional Segregated

- Area and Ethnic Identity of Korean Immigrants to Japan - A Case Study of Yoseba, Kotobuki District-. 대한지리학회지, 제 35권 제1호, pp.141~157
- 정병호(2003). 문화적 저항과 교육적 대안 :재일 조선학교의 민족 정체성 재생산. 비교문화연구, 제9집 제2호, pp.125-155
- 정순영·방혜영·김영혜(2002).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여성부 국제협력담당관실
- 정시동(1996). 재일동포사회의 세대변화와 통일의식: 민족의식보다 지역사회의식 증대. 통일한국, 제151호, pp.68~69
- 정진성(1999). 재일동포사회의 당면과제와 미래상 討論. 僑胞政策資料, 58, pp.131-145
- 재외동포신문. 2007년 10월 12일자 제1면
- 재일한국청년상공인연합회(1997). 재일한국인의 사회성층과 사회의식조사. 재일한국청년상공인연합회 보고서
- 이재정(2004). 탈냉전과 한국정부의 재일동포 정책 변화. 동아시아연구, 제 8호, pp.225-250
- 이제환(2006). 재일한인의 정보 빈곤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40권 제2호, pp.33-58
- 이제환·정수원·송정숙(2004). 日 常 的 苦 悶 을 통 해 본 在 日 韓 人 의 삶. 韓 國 民 族 文 化, 23, pp.149-186
- 이창교(2006). 재일교포의 교육과 직업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일본학과 석사 논문
- 임수연(2002). 재일한인 젊은 세대의 민족적 상징의 발화와 민족정체성 재현: 재일한인 청년단체 'W'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언(2006).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영활동. 한국학술정보(주)
- 오갑렬(2003). 참여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개혁시대, 제5권 제4호, pp.40-48
- 오규상(1992). 재일조선인 기업활동 형성사. 웅산각
- 오노치야키(2005). 재일한국인의 귀화에 관한 연구: 3세대를 중심으로. 신간사

- 옥승준(1999). 한일 신세대 포럼·일본과 한국의 국제화와 재일한국 조선인(日本と韓國の國際化と在日韓國 朝鮮人). 일본학, 제18권, 10호, pp.366~370
-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8). 재일동포의 문화생활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해외교포문제연구소·L.A. 한인회·뉴욕 한인회(1999). 교포정책포럼, 1999 : 해외동포 법적지위와 교포사회의 미래상. 해외교포문제연구소
- 한명숙(2004). 재외동포정책, 이대로 좋은가 : 탈냉전 시대 한민족 네트워크, 이제 유라시아로 눈을 넓히자. 한명숙의원실
- 한국대사관(1995). 재일한국인생활의식조사. 재일한국대사관자체보고서
- 한치문(1962). 在日僑胞의 資本導入問題. 제주도, 2.
- 홍효정(2006). 재일동포 청소년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현무암(2006). 동아시아와 코리안 디아스포라. 창작과 비평, 131호, pp. 258~273
- 최석신·임채완 외(2005). 재일코리안 사회의 경제환경. 집문당
- 姜永祐·徐竜達(1986). 民族教育の現状と将来 韓国・朝鮮人の現状と将来—人権先進国・日本への提言. 社会評論社
- 金明秀·福岡安則(1997). 재일한인 청년의 생활과 의식조사. 재일본대한민국 청년회
- 金明石(1995). 在日三世以降にとっての民族教育を展望する. ほるもん文化, 5, 新幹社
- 金明秀(1994). 民族的求心力の形成論—LISRELを用いた因果構造分析. 年報人間科學, 15.
- 金明秀(1997). 에스니シティ의 形成論—在日韓国人青年を事例として. ソシオロジ, 124.
- 金原左門ほか(1986). 日本のなかの韓国・朝鮮人、中國人—神奈川縣内在住外國人實態調査より. 明石書店
- 金錫厚(1960). 自由中國의 華僑政策 : 在日韓僑問題를 再檢討하기 爲하여. 民族文化, 제5권 제4호, pp.24-28

- 金峰生(1983). 재일교포의 세대교체 와 민족교육特輯. 廣場, 120, pp.77-85
- 金昶勇(1996). 日本의 在日韓國·朝鮮人 歸化政策研究. 高麗大 大學院 석사학위 논문
- 李瑜煥(1960). 在日韓國人の五十年史: 發生因における歴史的背景と解放後における動向. 新樹物産
- 李英勳(1981). 在日同胞 2・3세를 위한 民族教育 의 課題. 海外同胞, 19, pp.33-45
- 李英勳(1981). 在日同胞 2・3세를 위한 民族教育 의 課題. 海外同胞, 18, pp.26-34
- 李英勳(1981). 在日同胞 2・3세를 위한 民族教育 의 課題. 海外同胞, 20, pp.21-40
- 李明(1987). 21世紀의 在日同胞社會의 展望. 僑胞政策資料, 25, pp.122-130
- 浅川晃宏(2003). 在日外國人と歸化制度. 新幹社
- 内藤正中(1988). 在日朝鮮人の地域移動. 山陰地域研究, 4.
- 田中宏(1993). 日本에서의 韓國人 永住者들과 新入國者들. 在外韓人研究, 3, pp.307-318
- 田鎬潤(1984). 在日僑胞 學校의 教育課程 比較 研究: 在日韓國學校와 在日朝鮮人學校를 中心으로. 高麗大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谷富夫ほか(1994). 1993年度社會學實習報告書生野の生活構造—民族關係の視點から. 大阪市立大学文学部社会学研究室
- 東京韓国青年商工会(1982). 青商—豊かな同胞社會を目指して. 東京韓国青年商工会
- 辻本久夫ほか(1994). 親と子がみた在日韓國·朝鮮人白書—在日韓國·朝鮮人と日本人の三つの意識調査. 明石書店
- 堤要(1993). アメリカにおけるエスニシティ理論—エスニシティと階層構造の関連を中心に. 社會學評論, 174.
- 宮原浩二郎(1994). エスニックの意味と社会学の言葉. 社會學評論, 176.
- 朴柄潤(1987). 在日僑胞와 在中共僑胞의 比較研究. 海外同胞, 26, pp.26-33
- 朴康来·渡邊博史(1963). 在日韓國人社會の總合調査研究. 民族文化研究会
- 朴在一(1957). 在日朝鮮人に關する總合調査研究. 新紀元社

- 朴鐘鳴·佐藤明·山田照美(1986). 在日朝鮮人の社会·經濟生活. 在日朝鮮人.
- 徐龍達(1987). 在日韓國人の 將來. 海外同胞, 26, pp.8-16
- 鄭印燮(1988). 日本の 歸化制度와 在日 韓國人. 僑胞政策資料, 27, pp.156-185
- 曹賢美(2003). 日本인의 對韓認識과 재일 동포의 아이덴티티 : 일본의 로칼리즘, 내셔널리즘, 리저널리즘. 日本語文學, 제23집, pp.495-538
- 在日高麗労働者連盟(1992). 在日朝鮮人の労働實態調査—大阪を中心に. 新幹社
- 原尻英樹(1989). 在日朝鮮人の生活世界. 弘文堂
- 日本法務省出入国管理局(2006). 平成19年版在留外國人統計. 財団法人入管協會
- 福岡安則(1993). 在日韓國·朝鮮人—若い世代のアイデンティティ. 中央公論社
- 福岡安則ほか(1991). 在日韓国·朝鮮人問題をめぐる社会学的研究—「在日」若い世代の葛藤と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化. 1988—1989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
- 福岡安則·金明秀·在日本大韓民国青年会(1994). 第3次在日韓國人青年意識調査中間報告書. 在日本大韓民国青年会
- 吉野耕作(1987). 民族理論の展開と課題—『民族の復活』を直面して. 社會學評論, 148.



## 부 록

1. 한국어 설문지
2. 일본어 설문지
3. 인터뷰 내용



## 부록 1. 한국어 설문지

# 재일 한민족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설문지

### <설문의 목적과 부탁말씀>

안녕하십니까?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에서는 재일한인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모국과의 협력방안, 세계 한민족청소년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의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 절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하신 설문지는 모두 통계처리가 되오니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하여 누락된 곳이 없도록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항목 수가 많고 길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응답이 재일한인 청소년의 향후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지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주 관 :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한국 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59-1

책임연구원 : 김태기(호남대학교 일본어과 교수)

공동연구원 : 임영언(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연 락 처 : TEL82-62-530-2703 / 82-11-648-2772 / FAX : 82-62-530-2707

메 일 : yimye@hanmail.net

후 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 기본 인적사항

1.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도시이름)?( )

2.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 )세

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_\_① 남성 \_\_\_\_\_② 여성

4. 귀하의 현재 신분은 무엇입니까?  
\_\_\_\_\_① 고등학생 \_\_\_\_\_② 대학생 \_\_\_\_\_③ 대학원생  
\_\_\_\_\_④ 직장인 \_\_\_\_\_⑤ 무직 \_\_\_\_\_⑥ 기타 ( 구체적으로: )

5. 귀하의 장래 희망 직업은 아래 번호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
|--|
| _____① 전문직 등 (변호사, 예술가, 교수, 학자, 의사, 회계사, 교사 등)             |
| _____② 고위관리직 등(정부 3급 이상 공무원, 행정관리자, 기업체 임원이사, 장교 이상의 군인 등) |
| _____③ 사무직 등(정부 행정 공무원, 기업체 사무직 종사자, 은행원, 경찰, 하위직 군인 등)    |
| _____④ 기술직(생산 감독, 숙련 기능공)                                  |
| _____⑤ 상업·자영업(9인 이하 소규모 장사 및 가족 종사자, 목공소 주인, 개인택시 운전자 등)   |
| _____⑥ 판매종사자(도·소매업 종사자, 보험 및 부동산 거래인, 외판원, 점원 등)           |
| _____⑦ 서비스직 종사자(음식·숙박업 관리자 및 관련 종사자, 이발사, 미용사 등)           |
| _____⑧ 농업, 어업, 임업  |
| _____⑨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운수 및 단순 노무자(공장근로자, 일용노동자 등)            |
| _____⑩ 가정주부  |
| _____⑪ 무직  |
| _____⑫ 기타(구체적으로, )   |

6.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복수 선택)

\_\_\_\_\_① 불교 \_\_\_\_\_② 기독교 \_\_\_\_\_③ 신도  
\_\_\_\_\_④ 유교 \_\_\_\_\_⑤ 창가학회 \_\_\_\_\_⑥ 천주교  
\_\_\_\_\_⑦ 종교 없음 \_\_\_\_\_⑧ 기타 ( 구체적으로, )

7. 귀하는 이민 몇 세대입니까?

(1.5세대는 한국에서 출생하여 6~18세 중에 이민을 간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1세대와 2세대와는 다르다고 인식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_\_\_\_\_ ① 1세대      \_\_\_\_\_ ② 1.5세대      \_\_\_\_\_ ③ 2세대      \_\_\_\_\_ ④ 3세대  
 \_\_\_\_\_ ⑤ 4세대      \_\_\_\_\_ ⑥ 5세대      \_\_\_\_\_ ⑦ 모름

II. 부모와 가정 형편

1. 귀하의 부모님은 생존해 계십니까?

- \_\_\_\_\_ ① 부모님 모두 생존      \_\_\_\_\_ ② 부만 생존  
 \_\_\_\_\_ ③ 모만 생존      \_\_\_\_\_ ④ 부모님 모두 사망

2. 귀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민족배경은 무엇입니까?

- \_\_\_\_\_ ① 아버지 한인      \_\_\_\_\_ ② 어머니 한인      \_\_\_\_\_ ③ 두 분 다 한인

3. 귀하는 현재 누구와 같이 살고 계십니까?

- \_\_\_\_\_ ① 혼자 산다      \_\_\_\_\_ ② 부모님과 같이 산다  
 \_\_\_\_\_ ③ 부와 같이 산다      \_\_\_\_\_ ④ 모와 같이 산다  
 \_\_\_\_\_ ⑤ 형제나 자매와 같이 산다      \_\_\_\_\_ ⑥ 기타 (구체적으로, )

4. 부모님의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빈칸에 아래 번호 중 해당하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현재 안 계시면, 생전의 학력)

(1) 아버지 (아래 번호 중): \_\_\_\_\_번

(2) 어머니 (아래 번호 중): \_\_\_\_\_번

- |                         |                     |
|-------------------------|---------------------|
| _____ ① 학교를 전혀 다니지 못하였다 | _____ ② 초등학교 중퇴·졸업  |
| _____ ③ 중학교 중퇴·졸업       | _____ ④ 고등학교 중퇴·졸업  |
| _____ ⑤ 대학교 중퇴          | _____ ⑥ 대학교 졸업      |
| _____ ⑦ 대학원 이상          | _____ ⑧ 기타(구체적으로, ) |



### III. 부모님과 관련된 가정생활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과 대화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	1	2	3	4	5
2. 부모님은 대체로 한국에 대해 좋게 말씀을 하신다.	1	2	3	4	5
3. 부모님은 내가 한국어를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1	2	3	4	5
4. 부모님은 내가 한국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1	2	3	4	5
5. 부모님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신다.	1	2	3	4	5
6. 부모님은 한국음식을 즐겨 만드신다.	1	2	3	4	5
7. 부모님은 내가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1	2	3	4	5

### IV. 한국에 대한 관심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관련 뉴스에 관심이 있다.	1	2	3	4	5
2. 향후 2-3년 내에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	1	2	3	4	5
3. 한국에서 연수나 공부를 할 계획이 있다.	1	2	3	4	5
4.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1	2	3	4	5
5. 한국에 있는 내 나이 또래 청소년들과 대화하고 싶다.	1	2	3	4	5
6. 나는 배우자로 한국(조선)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7. 한국(조선)과 관련 있는 직업 갖기를 계획하고 있다.	1	2	3	4	5
8. 나는 나의 부모님보다 한국(조선)에서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많다.	1	2	3	4	5
9. 나는 나의 부모님보다 한국(조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	1	2	3	4	5
10. 한국어(조선어)를 배워두면 장래 직업이나 진로 설정에 더 유리할 것이다.	1	2	3	4	5

11. 한국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_\_\_\_\_ ① 있다 ( \_\_\_\_\_ 번)      \_\_\_\_\_ ② 없다

12. 귀하는 평소에 한국 뉴스를 얼마나 듣고 있습니까?

- \_\_\_\_\_ ① 매일 듣고 있다                      \_\_\_\_\_ ② 2,3 일에 한 번 듣고 있다  
 \_\_\_\_\_ ③ 일주일 에 한 번 듣고 있다        \_\_\_\_\_ ④ 별로 안 듣는다  
 \_\_\_\_\_ ⑤ 전혀 안 듣는다

13. (한국 뉴스를 듣는다면), 누구를 통해 듣고 있습니까?

- \_\_\_\_\_ ① TV                      \_\_\_\_\_ ② 라디오                      \_\_\_\_\_ ③ 인터넷  
 \_\_\_\_\_ ④ 신문, 잡지            \_\_\_\_\_ ⑤ 친구나 친지            \_\_\_\_\_ ⑥ 기타 (구체적으로)

14. 귀하는 TV나 라디오를 통해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를 시청한적 있습니까?

- \_\_\_\_\_ ① 자주 시청한다.                      \_\_\_\_\_ ② 가끔 시청한다.  
 \_\_\_\_\_ ③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            \_\_\_\_\_ ④ 중계가 안 되어 시청할 수 없다.

15. (시청한적 있다면) 귀하는 한국의 연속극이나 오락프로에 대해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 \_\_\_\_\_ ① 매우 재미있다.                      \_\_\_\_\_ ② 재미있는 편이다.  
 \_\_\_\_\_ ③ 그저 그렇다.                      \_\_\_\_\_ ④ 유치하고 재미없다.

16. 귀하는 한국이 어떤 나라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매우	약간	어느 쪽도 아님	약간	매우	
좋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나쁘다
능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능력이 없다
활동적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적이다
친밀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친밀하지 않다

좋다 vs. 나쁘다 = good vs. bad; 능력이 있다 vs. 능력이 없다 = capable vs. incapable; 활동적이다 vs. 비활동적이다 = active vs. inactive; 친밀하다 vs. 친밀하지 않다 = intimate vs. not intimate

17. 귀하는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매우	약간	어느 쪽도 아님	약간	매우	
좋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나쁘다
능력이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능력이 없다
활동적이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비활동적이다
친밀하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친밀하지 않다

V. 한국(조선)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한민족(조선민족) 배경은 내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1	2	3	4	5
2. 설, 추석, 단오, 한식 등 한국의 전통명절을 쇠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한민족(조선민족) 문화를 많이 알고 있다.	1	2	3	4	5
4. 나는 한국어(조선어)를 듣고 이해한다.	1	2	3	4	5
5. 나는 한국어(조선어)를 말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한국어(조선어)를 읽고 쓸 수 있다.	1	2	3	4	5

VI. 한민족(조선민족)의 정체성 관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랑스롭다.	1	2	3	4	5
2.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의 역사, 전통, 관습 등에 대해 알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3. 나는 주로 한인(조선인)들로 구성된 조직체 또는 사회단체(협회, 동호회, 동향인 모임 등)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1	2	3	4	5
4. 나는 나의 한민족(조선민족) 배경에 대해 잘 안다.	1	2	3	4	5
5. 나는 내가 한민족(조선민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1	2	3	4	5
6. 나는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민족(조선민족)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1	2	3	4	5



- \_\_\_\_\_⑥ 어학연수 지원
- \_\_\_\_\_⑦ 원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제공
- \_\_\_\_\_⑧ 기타(구체적으로 제시 )

14. 귀하는 한국 정부나 관련 단체 등이 해외 한민족(조선민족) 청소년들의 경제활동과 다양한 단체 활동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 \_\_\_\_\_① 한국 내 취업 알선
- \_\_\_\_\_② 한국기업에서의 인턴십 지원
- \_\_\_\_\_③ 현지 한국 진출 기업 취업 지원
- \_\_\_\_\_④ 한국 내 기업 및 현지 한국기업에 관한 정보 제공
- \_\_\_\_\_⑤ 한국의 재일한인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관한 정보 제공
- \_\_\_\_\_⑥ 다양한 재일한인 청소년 관련 단체 활동에 대한 금전적지원
- \_\_\_\_\_⑦ 한국 청소년과의 다양한 교류 활동 지원
- \_\_\_\_\_⑧ 기타(구체적으로 제시 )

### VIII. 개인 상담 네트워크

귀하가 자신의 진로나 고민에 대하여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
2. 그 사람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자 ②여자
3. 현재 그 사람의 나이는 몇 살 정도입니까?
4. 그 사람과 알게 된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5. 그 사람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①한국인 ②재일한인 ③일본인 ④중국인 ⑤중국조선족 ⑥기타 외국인



3. 위의 질문에서 ①번에 체크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_\_ )

4. 귀하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은?

\_\_\_\_\_ ①한국 이름(조선 이름)      \_\_\_\_\_ ②일본식 통명

5. 귀하는 어느 종류의 초등학교를 다녔습니까?

\_\_\_\_\_ ①민단계학교      \_\_\_\_\_ ②총련계학교  
\_\_\_\_\_ ③일본계공립학교      \_\_\_\_\_ ④일본계사립학교  
\_\_\_\_\_ ⑤기타 외국계학교 (국가 명 \_\_\_\_\_ )

6. 위의 질문에서 ①, ②번 이외에 체크한 경우, 귀하는 초등학교 입학 시 이름표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_\_\_\_\_ ①한국 이름(조선 이름)      \_\_\_\_\_ ②일본식 통명

7. 귀하는 어느 종류의 중학교를 다녔습니까?

\_\_\_\_\_ ①민단계학교      \_\_\_\_\_ ②총련계학교  
\_\_\_\_\_ ③일본계공립학교      \_\_\_\_\_ ④일본계사립학교  
\_\_\_\_\_ ⑤기타 외국계학교 (국가 명 \_\_\_\_\_ )

8. 위의 질문에서 ①, ②번 이외에 체크한 경우, 귀하는 중학교 입학 시 이름표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_\_\_\_\_ ①한국 이름(조선 이름)      \_\_\_\_\_ ②일본식 통명

9. 귀하는 어느 종류의 고등학교를 다녔습니까? (또는 다니고 있습니까?)

\_\_\_\_\_ ①민단계학교      \_\_\_\_\_ ②총련계학교  
\_\_\_\_\_ ③일본계공립학교      \_\_\_\_\_ ④일본계사립학교  
\_\_\_\_\_ ⑤기타 외국계학교 (국가 명 \_\_\_\_\_ )

10. 위의 질문에서 ①, ②번 이외에 체크한 경우, 귀하는 고등학교 입학 시 이름표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_\_\_\_\_①한국 이름(조선 이름) \_\_\_\_\_②일본식 통명

11. 귀하는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원하십니까?

\_\_\_\_\_①예 \_\_\_\_\_②아니요 \_\_\_\_\_③관심없음

12. 위의 질문에서 ①번에 체크한 경우, 귀하는 남북한이 언제쯤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_\_\_\_\_①향후 5년 이내 \_\_\_\_\_②향후 10년 이내  
\_\_\_\_\_③향후 10년 이상 \_\_\_\_\_④불투명

13.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_\_\_\_\_①예 \_\_\_\_\_②아니요

14. 위의 질문에서 ①번에 체크한 경우, 주 또는 월 몇 회 정도입니까?

(주 회, 또는 월 회)

마지막으로 한국정부에 대해 꼭 부탁하고 싶은 요망 사항 등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부록 2. 일본어 설문지

### 在日コリアン青少年の生活実態に関する調査

#### <調査の目的とお願い>

湖南大学校人文社会科学研究所では、在日コリアン青少年の生活実態と母国間の協力増進、または世界韓民族青少年ネットワーク構築方案などを模索するため、研究調査を行っております。

このアンケートは研究目的の以外には使用いたしません。回収された質問紙はすべて統計処理いたしますので、記入漏れがないようお願い致します。

質問項目が少し長いと思われませんが、皆-1が作成して下さった一枚一枚は在日コリアン青少年の今後の展望を探るための貴重な資料となります。

本質問紙の趣旨についてご理解頂き、ご協力賜りますよう宜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主管: 湖南大学校人文社会科学研究所

韓国光州市西鳳洞 59-1

責任研究者: 金太基(湖南大学校日本語科教授)

共同研究者: 林永彦(全南大学校世界韓商文化研究団研究教授)

連絡先: TEL82-62-530-2703/82-10-9883-2428/FAX: 82-62-530-2707

メール: yimye@hanmail.net

後援: 韓国青少年開発院

## I. 個人の基本事項

1. あなたが現在住んでいる場所は（都市名）どこですか。（ ）
2. あなたの年齢は何歳ですか。（満 歳）
3. あなたの性別は何ですか。 \_\_\_\_\_① 男性 \_\_\_\_\_② 女性
4. あなたの現在の身分は何ですか。  
\_\_\_\_\_① 高校生 \_\_\_\_\_② 大学生 \_\_\_\_\_③ 大学院生  
\_\_\_\_\_④ 会社員 \_\_\_\_\_⑤ 無職 \_\_\_\_\_⑥ その他（具体的に： ）
  
5. あなたが将来に希望している職業は次の中でどれですか。  
\_\_\_\_\_① 専門職など（弁護士、芸術家、教授、学者、医師、会計士、教師など）  
\_\_\_\_\_② 高級管理職など（政府 3 級以上公務員、行政管理者、企業役員"E"理事、将校以上の軍人など）  
\_\_\_\_\_③ 事務職など（政府行政公務員、企業事務職従事者、銀行員、警察、下級軍人など）  
\_\_\_\_\_④ 技術職（生産監督、熟練技術者）  
\_\_\_\_\_⑤ 商業・自営業（9人未満小規模企業及び家族従事者、個人タクシー運転手など）  
\_\_\_\_\_⑥ 販売従事者（小売・卸売り従事者、保健及び不動産仲介人、営業員、店員など）  
\_\_\_\_\_⑦ サービス従事者（飲食・宿泊業管理者及び関連従事者、美容師など）  
\_\_\_\_\_⑧ 農業、漁業、林業  
\_\_\_\_\_⑨ 生産及び関連従事者、運輸及び単純労働者（工場労働者、日雇い労働者など）  
\_\_\_\_\_⑩ 家庭主婦  
\_\_\_\_\_⑪ 無職  
\_\_\_\_\_⑫ その他（具体的に： \_\_\_\_\_）
  
6. あなたの宗教は次の中でどれですか。（複数選択）  
\_\_\_\_\_① 仏教 \_\_\_\_\_② キリスト教 \_\_\_\_\_③ 神道  
\_\_\_\_\_④ 儒教 \_\_\_\_\_⑤ 創価学会 \_\_\_\_\_⑥ カトリック  
\_\_\_\_\_⑦ 無宗教 \_\_\_\_\_⑧ その他（具体的に： \_\_\_\_\_）
  
7. あなたは在日の何世代目にあたりますか。  
（1.5世代は韓国で出生し、6～18歳の間で移民した人として自分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在日 1世代と 2世代とは違うと認識している人を指す。）

\_\_\_\_\_① 在日1世 \_\_\_\_\_② 在日1.5世 \_\_\_\_\_③ 在日2世  
\_\_\_\_\_④ 在日3世 \_\_\_\_\_⑤ 在日4世 \_\_\_\_\_⑥ 在日5世 \_\_\_\_\_⑦ わからない

## II. ご両親と家庭事情

1. あなたのご両親について質問です。

\_\_\_\_\_① 両親とも生存 \_\_\_\_\_② 父のみ生存  
\_\_\_\_\_③ 母のみ生存 \_\_\_\_\_④ 両親とも死亡

2. あなたの父と母の民族的背景は何ですか。

\_\_\_\_\_① 父が在日 \_\_\_\_\_② 母が在日 \_\_\_\_\_③ 両親とも在日

3. あなたは現在誰と一緒に生活していますか。

\_\_\_\_\_① 一人暮らし \_\_\_\_\_② 両親と暮らす  
\_\_\_\_\_③ 父と暮らす \_\_\_\_\_④ 母と暮らす  
\_\_\_\_\_⑤ 兄弟姉妹と暮らす \_\_\_\_\_⑥ その他(具体的に：)

4. ご両親の学歴についての質問です。下記の番号の中から該当する番号を書いてください。(現在亡くなられた方は生存時の学歴)

(1) 父(下記の番号の中で): \_\_\_\_\_番

(2) 母(下記の番号の中で): \_\_\_\_\_番

\_\_\_\_\_①無学 \_\_\_\_\_②小学校中退・卒業 \_\_\_\_\_③中学校中退・卒業  
\_\_\_\_\_④高校中退・卒業 \_\_\_\_\_⑤高校中退卒業 \_\_\_\_\_⑥専門大学・大学校中退  
\_\_\_\_\_⑦大学院以 \_\_\_\_\_⑧その他(具体的に：)

5. ご両親の職業は何ですか。下記の中から該当する番号を選んでください。

(引退や死亡の場合、生存時の職業)

(1) 父(下記の番号の中で): \_\_\_\_\_番

(2) 母(下記の番号の中で): \_\_\_\_\_番

\_\_\_\_\_①専門職など(弁護士、芸術家、教授、学者、医師、会計士、教師など)  
\_\_\_\_\_②高級管理職など(政府3級以上公務員、行政管理者、企業役員・理事、将校以上の軍人など)  
\_\_\_\_\_③事務職など(政府行政公務員、企業事務職従事者、銀行員、警察、下級軍人など)

- \_\_\_\_\_④技術職（生産監督、熟練技術者）
- \_\_\_\_\_⑤商業・自営業（9人未満小規模企業及び家族従事者、個人タクシー運転手など）
- \_\_\_\_\_⑥販売従事者（小売・卸売り従事者、保健及び不動産仲介人、営業員、店員など）
- \_\_\_\_\_⑦サービス従事者（飲食・宿泊業管理者及び関連従事者、美容師など）
- \_\_\_\_\_⑧農業、漁業、林業
- \_\_\_\_\_⑨生産及び関連従事者、運輸及び単純労働者（工場労働者、日雇い労働者など）
- \_\_\_\_\_⑩家庭主婦
- \_\_\_\_\_⑪無職
- \_\_\_\_\_⑫その他（具体的に： \_\_\_\_\_）

6. 現在家族収入は家族が生活するためにはどのような水準ですか。

- \_\_\_\_\_① とても不足である \_\_\_\_\_② やや不足である
- \_\_\_\_\_③ 普通である \_\_\_\_\_④ やや充分である
- \_\_\_\_\_⑤ とても充分である

7. 一般的な家庭と比べ、あなたの家族の所得はどのような水準ですか。

- \_\_\_\_\_① 平均よりとても低い。 \_\_\_\_\_② やや平均より低い
- \_\_\_\_\_③ 平均くらいである \_\_\_\_\_④ やや平均より高い
- \_\_\_\_\_⑤ 平均よりとても高い

8. あなたは現在の生活について全般的に満足していますか。

- \_\_\_\_\_① まったく不満である \_\_\_\_\_② 不満である
- \_\_\_\_\_③ 普通である \_\_\_\_\_④ 満足である
- \_\_\_\_\_⑤ とても満足である

### III. ご両親と関連する家庭生活

家庭生活	全くそう 思わない	そう 思わない	普通で ある	そう 思う	とても そう 思う
1. 両親と対話の時は韓国語（朝鮮語）で話す。	1	2	3	4	5
2. 両親は大抵韓国について肯定的に評価する。	1	2	3	4	5
4. 両親は私が韓国と関連する職業で働いて欲しいと願う。	1	2	3	4	5
5. 両親は私が韓国人と結婚して欲しいと願っている。	1	2	3	4	5
6. 両親は韓国の食べ物をよく作る。	1	2	3	4	5

#### IV. 韓国への關心

	全くそう 思わない	そう思わ ない	普通であ る	そう思う	とてもそ う思う
1. 韓国関連のニュースに関心がある。	1	2	3	4	5
2. 今後 2-3年以内に韓国を訪問する計画がある。	1	2	3	4	5
3. 韓国で研修や勉強をする計画がある。	1	2	3	4	5
4. チャンスがあれば、韓国を訪問したい。	1	2	3	4	5
5. 韓国にいる同世代の青少年と対話をしたい。	1	2	3	4	5
6. 私は配偶者として韓国(朝鮮)人を選択したい。	1	2	3	4	5
7. 韓国(朝鮮)と関連している職業に就職したい。	1	2	3	4	5
8. 私は両親より韓国(朝鮮)で起きていることに関心が高い。	1	2	3	4	5
9. 私は両親より韓国(朝鮮)についてもっと知っている。	1	2	3	4	5
10. 韓国語(朝鮮語)を勉強しておけば、将来職業や進路選択に に有利である。	1	2	3	4	5

11. 韓国を訪問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_\_\_\_\_ ① ある ( \_\_\_\_\_ 回) \_\_\_\_\_ ② ない

12. あなたは韓国ニュースをどのくらい聞いていますか。

\_\_\_\_\_ ① 毎日 \_\_\_\_\_ ② 2-3 日の内 1 回

\_\_\_\_\_ ③ 一週間 1 回 \_\_\_\_\_ ④ ほとんど聞かない

\_\_\_\_\_ ⑤ まったく聞かない

13. (韓国ニュースを聞いている場合) 何 (誰) を通して聞いていますか。

\_\_\_\_\_ ① TV \_\_\_\_\_ ② ラジオ \_\_\_\_\_ ③ インターネット

\_\_\_\_\_ ④ 新聞・雑誌 \_\_\_\_\_ ⑤ 友達や親戚 \_\_\_\_\_ ⑥ その他 (具体的に：)

14. あなたは TV やラジオを通して韓国ドラマや娯楽番組を見たことがありますか。

\_\_\_\_\_ ① 頻繁にある。 \_\_\_\_\_ ② 時々ある。

\_\_\_\_\_ ③ 全くない。 \_\_\_\_\_ ④ 中継施設不備の関係で視聴できない。

15. (見たことのある方に) あなたは韓国のドラマや娯楽プログラムについて  
どのような感じでしたか。

\_\_\_\_\_① とても面白かった。 \_\_\_\_\_② 面白い方である。  
 \_\_\_\_\_③ あまりマわらない。 \_\_\_\_\_④ 幼稚で面白くない。

16. あなたは韓国がどんな国だと感じていますか。

	とても	そこそこ	どちらでもない	そこそこ	とても	
良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悪い
能力がある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能力がない
活動的である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非活動的である
親密である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親密でない

良い vs. 悪い = good vs. bad; 能力がある vs. 能力がない = capable vs. incapable; 活動的である vs. 非活動的である = active vs. inactive; 親密である vs. 親密でない = intimate vs. not intimate

17. あなたは韓国人がどんな人だと感じていますか。

	とても	そこそこ	どちらでもない	そこそこ	とても	
良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悪い
能力がある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能力がない
活動的である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非活動的である
親密である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親密でない

## V. 韓国(朝鮮)言語は文化に対する理解度

	まったくできない	ほとんどできない	普通	大体できる	まったくそうである
1. 韓民族(朝鮮民族)であることが、私に生きているのに大きな助けとなる。	1	2	3	4	5
2. お正月、お盆、端午、寒食などの韓国の伝統を守っている。	1	2	3	4	5
3. 私は韓民族(朝鮮民族)の文化を沢山知っている。	1	2	3	4	5
4. 私は韓国語(朝鮮語)を聞いて理解している。	1	2	3	4	5
5. 私は韓国語(朝鮮語)を喋れる。	1	2	3	4	5
6. 私は韓国語(朝鮮語)を読み書きできる。	1	2	3	4	5

## VI. 韓民族(朝鮮民族)のアイデンティティ関連

	まったく できない	ほとん どでき ない	普通	大体で きる	まった くそう である
1. 私は韓民族(朝鮮民族)の後継であることが自慢できる。	1	2	3	4	5
2. 私は韓民族(朝鮮民族)の歴史、伝統、慣習などを知ろうと努力している。	1	2	3	4	5
3. 私は主として韓国人(朝鮮人)たちで構成されている組織、または社会団体(協会、同好会、同郷会の集いなど)に活発的に参加している。	1	2	3	4	5
4. 私は私の韓民族(朝鮮民族)の歴史を良く知っている。	1	2	3	4	5
5. 私は、私の韓民族(朝鮮民族)の一員であることが自慢できる。	1	2	3	4	5
6. 私は韓民族(朝鮮民族)に対して強い所属感を感じている。	1	2	3	4	5
7. 私は他の人々に韓民族(朝鮮民族)について良く話している。	1	2	3	4	5

## VII. ネットワーク構築関連

	まった くでき ない	ほとん どでき ない	普通	大体で きる	まった くそう である
1. 韓国人(朝鮮人)団体が積極的に活動している。	1	2	3	4	5
2. 韓国にいる人や団体と連絡を取っている。	1	2	3	4	5
3. 韓国は在外同胞に有用な情報を十分に提供している。	1	2	3	4	5
4. 韓国の青少年たちとの交流機会が多くなることを願う。	1	2	3	4	5
5. 私は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をよく利用している。	1	2	3	4	5
6. 韓国の青少年と対話可能な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を構築する必要がある。	1	2	3	4	5
7. 韓国から留学してきた学生に対して良いイメージをもっている。	1	2	3	4	5
8. 韓国から留学してきた学生のお陰で韓国に好感をもてた。	1	2	3	4	5
9. 私は韓国政府が支援する韓国の留学プログラムを知っている。	1	2	3	4	5
10. 私は韓国政府が支援する韓国就職プログラムを知っている。	1	2	3	4	5

11. 韓国人(朝鮮人)団体が積極的に活動している場合、その団体の性格は。

(複数選択可)

- ① スポーツ       ② 民族権利運動       ③ 文化交流  
 ④ 言語教育       ⑤ 政治活動       ⑥ 宗教活動  
 ⑦ 研究活動       ⑧ その他(具体的に： )

12. 上記 11の質問で団体活動をしている場合、週または月何回程度ですか。

①週 \_\_\_\_\_ 回, または月 \_\_\_\_\_ 回      ②\_\_\_\_\_非定期的

13. あなたは韓国政府や関連団体が海外の韓民族（朝鮮民族）青少年の能力開発のためどのような政策遂行を願いますか。

\_\_\_\_\_① 現地での能力開発（言語等）関連学費等金'K的な支援

\_\_\_\_\_② 能力開発（言語等）関連機材および教材支援

\_\_\_\_\_③ 能力開発（言語等）関連教師派遣支援

\_\_\_\_\_④ 韓国へ招待して職業教育や訓練実施

\_\_\_\_\_⑤ 韓国への留学資金支援

\_\_\_\_\_⑥ 語学研修支援

\_\_\_\_\_⑦ 遠隔教育訓練プログラムの開発・提供

\_\_\_\_\_⑧ その他(具体的に: \_\_\_\_\_)

14. あなたは韓国政府や団体が海外の韓民族（朝鮮民族）青少年の経済活動と多様な団体活動のためどのような政策遂行を願いますか。

\_\_\_\_\_① 韓国内での就業斡旋

\_\_\_\_\_② 韓国企業でのインターンシップ支援

\_\_\_\_\_③ 現地韓国進出企業への就業斡旋

\_\_\_\_\_④ 韓国内企業および現地韓国に関する情報提供

\_\_\_\_\_⑤ 韓国の在日青少年関連機関や社会団体に関する情報提供

\_\_\_\_\_⑥ 多様な在日韓国人青少年関連団体に関する金銭的な支援

\_\_\_\_\_⑦ 韓国青少年との多様な交流活動支援

\_\_\_\_\_⑧ その他(具体的に: \_\_\_\_\_)

## VIII. 個人相談・ネットワーク

(あなたが自分の進路や悩みを相談できる人に対する質問です。)

1. そのような人は何人いますか。 ( \_\_\_\_\_ 人)

2. 主とするその人の性別は。      ①男子      ②女子

3. 現在、その人は何歳ですか。 (満 \_\_\_\_\_ 歳)

4. その人に知り合った期間はどの程度ですか。 ( \_\_\_\_\_ 年 \_\_\_\_\_ ヶ月)

5. その人の国籍は何ですか。  
 ①韓国人 ②在日韓国人 ③日本人 ④中国人 ⑤中国朝鮮族 ⑥その他外国人
6. その人とはどんな関係ですか。  
 ①配偶者 ②家族 ③親戚 ④同郷会 ⑤同僚 ⑥学校の先輩後輩 ⑦その他
7. その人はどこに住んでいますか。  
 ①徒歩で行ける距離 ②バスで行ける距離 ③同じ都市 ④日本国内 ⑤韓国等の外国
8. その人とどの程度会いますか。  
 ①週に一回 ②月一回 ③年に一回 ④ほとんど会えない
9. その人に相談、または助けてもらった主な内容は何ですか。  
 ①法律的な問題 ②金銭的な助け ③今後の進路や悩み相談 ④就職問題  
 ⑤その他(具体的に： )
10. その人から受けた相談や助けを点数にすると100点満点で何点つけますか。  
 ( ) 点)
11. その人との親密関係は何ですか。  
 ①とても親しい ②親しい ③普通 ④親しくない ⑤まったく親しくない

## IX. 教育関連

1. あなたの国籍は何ですか。  
 \_\_\_\_\_①大韓民国      \_\_\_\_\_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_\_\_\_\_③ 朝鮮  
 \_\_\_\_\_④無国籍      \_\_\_\_\_⑤日本
2. 上記の質問で ①, ②, ③, ④をチェックした場合、あなたは今後日本国籍の取得を考慮していますか。  
 \_\_\_\_\_①はい      \_\_\_\_\_②いいえ      \_\_\_\_\_③関心ない

3. 上記の質問で①番にチェックした場合、その理由は何ですか。  
( )
4. あなたが日常生活で使用している名前は何か。  
\_\_\_\_\_①韓国名 \_\_\_\_\_②日本式通称名
5. あなたはどんな種類の小学校に通いましたか  
\_\_\_\_\_①韓国系民族学校 \_\_\_\_\_②総連系民族学校 \_\_\_\_\_③日本系公立学校  
\_\_\_\_\_④日本系私立学校 \_\_\_\_\_⑤その他外国系学校(国家名: )
6. 上記の質問で ①, ②番以外にチェックした場合、あなたが小学校入学時に表記した名前は 何ですか。  
\_\_\_\_\_①韓国名 \_\_\_\_\_②日本式通称名
7. あなたはどんな種類の中学校に通いましたか  
\_\_\_\_\_①韓国系民族学校 \_\_\_\_\_②総連系民族学校 \_\_\_\_\_③日本系公立学校  
\_\_\_\_\_④日本系私立学校 \_\_\_\_\_⑤その他外国系学校(国家名: )
8. 上記の質問で ①, ②番以外にチェックした場合、あなたが中学校入学時に表記した名前は 何ですか。  
\_\_\_\_\_①韓国名 \_\_\_\_\_②日本式通称名
9. あなたはどんな種類の高等学校に通いましたか  
\_\_\_\_\_①韓国系学校 \_\_\_\_\_②総連系学校 \_\_\_\_\_③日本系公立学校  
\_\_\_\_\_④日本系私立学校 \_\_\_\_\_⑤その他外国系学校(国家名 )
10. 上記の質問で ①, ②番以外にチェックした場合、あなたが高等学校入学時に表記した名前は 何ですか。  
\_\_\_\_\_①韓国名 \_\_\_\_\_②日本式通称名
11. あなたは南北が統一されることを願いますか。  
\_\_\_\_\_①はい \_\_\_\_\_②いいえ \_\_\_\_\_③関心ない

12. 上記の質問で①番にチェックした場合、あなたは南北がいつごろ統一されると思いますか

\_\_\_\_\_①今後5年以内 \_\_\_\_\_②今後10年以内 \_\_\_\_\_③今後10年以上 \_\_\_\_\_④不透明

13. あなたはボランティア活動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_\_\_\_\_①はい \_\_\_\_\_②いいえ

14. 上の質問で①番にチェックした場合、週または月何回程度ですか

(週 \_\_\_\_\_ 回, または 月 \_\_\_\_\_ 回)

最後に、韓国政府に対して願いたい要望があったら自由に書いてください。

ご協力にどうも有り難うございました。

## 부록 3. 인터뷰 내용

「在日コリアン」의 아이덴티티와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의 가능성에 대해

### 1. 調査対象者

- (1) 古沢 拓 (仮名)
- (2) 加藤由美 (仮名)
- (3) 加藤美和 (仮名)
- (4) 伊藤沙織 (仮名)
- (5) 香川里美 (仮名)
- (6) 川村弘一 (仮名)
- (7) 朴麗美 (仮名)
- (8) 井口美江 (仮名)
- (9) 飯田弘樹 (仮名)
- (10) 白 眞勲 (実名)

### 2. 「日本籍コリアン」とその家族の実像

- (1) 古沢 拓さん

#### 【要 約】

#### 1. 生活経緯

年齢24歳。男性。兵庫県生まれ。在日3世。家族構成は両親と22歳の妹がいる。調査時点でカナダの大学に留学する学生。2008年より日本にもどって就職する予定。16歳のとき朝鮮籍であったが家族で韓国籍へ変更。その後、日本国籍を取得。朝鮮籍であったが、家族が総連に所属していたわけではない。彼の手紙や回答にもあるが、どちらかといえば「反共産主義・反社会主義」的思想であると自分では語っている。

古沢さんの家庭は経済的には中流階層である。父は在日2世で6年前に家族で日本国籍を取得し、現在、教育関係の仕事をしている。母も在日2世であり薬剤師である。両親とも大学を卒業しており、子どもへの教育熱もたいへん高い。母親は民族学校を卒業しており韓国語を話すことができるが子どもたちに教えるは来なかった。

両親は地域社会では、さまざま差別を避けるため、在日韓国人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せず生活してきた。古沢さんもまた同様の考え方で生活してきた。大学でいろいろな経験をするまで、「自分は日本人だ」と考えてきた。

古沢さんは高校時代の短期間のカナダ留学経験から、日本社会の閉鎖性を強く意識し、大学からのカナダ留学を考える。試験合格し入学する。古沢さんからは2007年2月にEメールで手紙が送られてきた。カナダ留学の中で授業を受けた日本の「左翼的」教授との刺激的な議論。そして韓国から留学してきている学生との交流と葛藤。そうした経験から自分の韓国のルーツのことを意識しはじめる。そして韓国語を勉強し始めており、韓国文化も知りたいと考えている。

## 2. 在外韓人ネットワークに対する考え

韓国政府にのぞむことは、在外韓人へのサポートやネットワーク構築より、まず北朝鮮の問題を解決することだと考える。北朝鮮の行動は在日社会にも大きなマイナスの影響をあたえてきたのでそれを解決することがまず必要であると考ええる。

### 【調査結果】

調査はあらかじめ用意した質問項目にしたがって回答を記入していただき、それに対して、よりくわしく回答を求めるという方法で調査をおこなった。

実施日：2007年8月29日

<家族生活>

Q. 家庭内で韓国語は使っていましたか？

A. 少しだけ。幼い頃、母方の祖母の家に行くと、挨拶も小さな会話もできるだけ韓国語でするようにとされていた。ただどあるとき、そうやって中途半端に韓国語を話すように強制させられることに嫌気がさし、一切日本語で通していた。いくら、「お前は韓国人だ」といわれても、自分のことを日本人だと信じて疑わなかったときなので、韓国語を使えという要求に反発していたのだと思う。

Q. 韓国語を話せますか？

A. 小さいときそうやって韓国語を拒絶したので、まったく話せなかったが、カナダにきて、こちらの韓国人移民たちを見るうちに、韓国語ができないことには、カナダにいる韓国人移民になにも主張できないと思い、大学で韓国語を習い始めた。もちろん英語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とれるけれども、韓国

語ができないと、いくらこっちが韓国人だといってもこっちの意見をそこまで聞かないと思った。たとえば、韓国語ができないと5歳も6歳も年下の人間が英語の感覚で「Yo, What's up, man?」などといってくる、しかし、韓国同様敬語が発達した日本で育っている僕にとって、韓国人の年下から、そのように英語の(敬意をまったく略した)言い方をされるとムっとすることが多々ある。それはその韓国人が英語しか話せないなら、まだましかもしれないが、こちらにいる韓国人のほとんどは過去5, 6年の間の移民である場合が多く、英語よりも韓国語を家庭内でも使い、彼らの英語能力は低い。

Q. 韓国語に興味があって勉強したいのですか？

A. したいし、実際にしている。

Q. 両親はあなたが韓国語の勉強を賛成するのですか？

A. 在日にとって韓国語を話せることは必須ではないけれど、話せたほうがいいに決まっている。それは在日だからという理由よりも、一人の国際人としても、母国語以外の言語を多く話せるほうが話せたほど良いはず。

Q. 一般的に両親は韓国に対してどのように話していますか（肯定的か、否定的か）。

A. 両親は在日2世だが、やはり政治的意見などは、一般の日本人の意見と同じだと思う。

僕自身は、在日3世として、identity crisisを経験している分、ものすごく2世とは違った立場にいると思う。通った学校が私立の中高一貫で教師の思想なども右寄りが多かった。それに影響されたわけではないと思うが、やはり自分は右か左かといわれると右になるのだと思う。

そして、韓国政府や中国政府が日本の内政に干渉してくることをおかしいとも思う。

靖国神社の問題にしても、参拝してはいけないとか、そういうことを韓国も、中国も言うべきではないと思う。日本の首相（たとえば、小泉元首相）は一国のリーダーとして、公式な参拝をもしかしたら自粛するべきだったかもしれないが、それを自分の意思で公式参拝とする信念には、僕は賛同する。

Q. 韓国人であることをいつ頃両親に聞かれましたか？

A. 小さいときというか、いつ聞いたかもう覚えてないほどに昔。韓国人であることは知っていたが、日本人として生きるように言われていたし、自分も

日本人として生きていた。そう信じて生きていた。

Q. 両親は韓国語を教えてくださいませんか？

A. 母親は韓国語を流暢に話すけれど、特別時間を設けて、韓国語の時間というような教わり方はしなかった。でも思いつきで、韓国語を話してくれることは今も昔もあった。今は僕が大学で韓国語を習っていることもあって、意識して韓国語を使おうとはしている。

Q. 学生は普通どんな友達と遊びますか（日本人、在日）？

A. 高校を卒業するまで日本の学校に通ったし、それまで日本人の友達しかいなかった。もしかしたら、中には在日がいたのかもしれないけれど、お互い自分が在日であるとカミングアウトするような機会は高校を卒業するまで一度もなかった。

Q. おつきあいしている人（恋人）は在日、あるいは日本人ですか？

A. 恋人は在日でも日本人でもどっちでもいいと思う。在日にしても日本の学校を出ていない在日とは少し価値観などがずれるのではないかとも思う。理想は、自分と同じ思想的ステージにいる在日なのかもしれないけど、はっきりして在日でも日本人でも白人でも誰でもいい。

### <結婚観>

Q. 結婚相手は韓国人がいいとおもいますか？その場合、日本籍？韓国・朝鮮籍？

A. 結婚相手も、在日でも日本人でおどっちでもいい。在日のほうが両親は少し喜びも大きいのかもしいないと思う。日本の文化を知らない在日よりも、韓国の文化に興味をもってくれる日本人のほうがはるかにいいと思う。

### <食事>

Q. 両親は韓国の食べ物をどの位よく作っていましたか（1週間何回、月何回）？

A. ほぼ毎日、日本式と韓国式の両方。

Q. それは主にどんな食べ物ですか？

A. あらゆる種類の韓国料理。ごく普通に韓国の食卓に並ぶだろうもの。

Q. 韓国の食べ物が好きですか？

A. 大好き。

#### <韓国について>

Q. 「自分は韓国人だ」と思いますか？

A. 高校を卒業して、2年間ふらふらといろいろな国にいて、やはり一番最初に仲良くなるのは日本人。そして次が韓国人。その両方ともがまったくいない場合は、中国人？きっと人間は孤独になった場合、自分と一番共通点が多い相手と融和、共生をはかっていこうとするのだろう。タイに行ったときにチャイナタウンをみたときは、少しは安心したかもしれないけど（実際タイには日本人も韓国人も無数にいたので、そこまでチャイナタウンをありがたがってはいないけれど、たとえば南アフリカ共和国などでチャイナタウンをみかけると、それはきっと違った話なのだと思う）

話がそれた。

2年間のふらふらバックバック旅行期間を経て、僕はカナダにきた。

カナダに来てやはり自分は日本人だと最初いていた。韓国人にだけは、自分はコリアンジャパニーズだといっていた。しかし、つい去年くらいから、自分は韓国人だ、と韓国人にだけ言うようになった。それは自分が心底韓国人だと思っ  
ていっているというよりも、お前たち(カナダの韓国人よりも)、日本で韓国人の気持ちとか誇りというようなものは教えられて育ってきたという自負からくるものだと思う。

Q. 韓国関連ニュースはどの位よく聞いていますか？

A. 特別、韓国だけを意識してニュースを見ているというようなことはないけれど、海外のメディアのニュースを見ていて、話題にのぼっている韓国関連のニュースは、同じく話題に上る日本のニュースと同様の気持ち、好奇心でチェックしている。

Q. あなたは仲間の韓国人と交流や対話をしたこととか、していますか？それは在日ですか？本国の韓国人ですか？

A. カナダにきて、韓国からの移民や留学生の韓国人と話をすることは多々ある。移民してしまっている韓国人と、短期的な留学生とでは、同じ本国からの韓国人でも様子が違うところがある。移民してたかが数年なのに、自分たちは、一時的な本国からの留学生とは違うのだという態度をとる韓国人移民

が多く、彼らとは僕はあまり仲良くない。性質が違うと思ってしまう。そして移民してくる韓国人は留学してくる韓国人よりも数年長くいるというだけで英語は若干達者かもしれないが、やはり学力的に低レベルであるということはいえる気がする。もちろん例外はあるにしても。無理にカナダのスタイルに同化しようとしている雰囲気を見せる韓国移民は、どこかちぐはぐなところがある。それは、在日としてこっちにいるいかなる韓国人コミュニティと(かかわりはあっても)どっぷりつかってしまっていない僕だから見えるものだし、いえることだと思う。

Q. 韓国に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何回、目的は)?

A. 1回。ショッピング。また行きたい、頻繁にいつかみたいという気持ちは強い。

Q. 韓国ドラマやTVの視聴はよく見えますか?

A. ものすごくよく見ている。とても好き。

Q. 韓国へ行く前と行って来た後の差異は何でしたか?

A. 何回も通えば通うほど親近感もわくのだろうなどは感じた。

Q. 韓国の歌を聴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

A. あるし、歌える。

Q. 韓国の映画や歌を聞くとどんな思いがしますか?

A. 昔、祖母の家で聴いたことのあるような歌を、ふと耳にすると、ああ、自分の歌だ、などと思うことがある。周りが日本人ばかりのところ、韓国の歌を聞いたりすると、「これ知ってるんだ」などと誇らしい気持ちになる。

Q. 今まであった韓国人の中で悪い印象を残した人はいますか?

A. 無数にいる。タイであった韓国人の女子学生は態度がとても大きく、生意気だった。でもそのとき、僕は彼女に自分は日本人だといっていた。在日といえば、態度も柔らかくなったのかもしれないけれど、いずれにせよ、日本人ということで態度が硬化するという事実とうんざりした。

ほかにもカナダでであった韓国人で、日本を極端に嫌っている発言をする学生など、こいつらと2度と話すものかとさえ思った。

Q. 韓国人の性格に対してどう思いますか？

A. ものすごく義理堅い。それが保守的な家庭であればあるほどそうだと思う。  
女性は態度が大きくて在日的感覚からはムっとすることも多い気がする。

Q. 韓国式礼儀とそれを守っていますか？（祭司、正月、お盆、端午、寒食）

A. 厳密には守っていないと思うけど、法事など大事な行事は韓国式でやっているとと思う。

Q. 近い内に韓国訪問計画や韓国で研修、青少年との交流希望はありますか？

A. 予定があれば、ぜひ。興味はすごくある。

#### <アイデンティティ、民族性>

Q. 韓国人であることが生活上で益になりますか？

A. 韓国人であることを対外的に示して益がでるような状況は思いつかない。それはきっと日本人であることを示して益がでるような状況がないのと同じ。そういう国籍の誇示で益が出るような状況はエンターテイメント的意味合いが強い状況かなにかだと思う。

Q. 「自分が韓国人（民族）である」ということを受け入れてますか？他の民族であつたらいいと思っているのか？かつて韓国籍であつたとき不便なことはありましたか？

A. もちろん受け入れているし、今では誇りを持っている。しかし、日本人として生きてきたし、外国人登録証も見ることがない。すべて親に守って生きてきた。韓国のパスポートで海外に旅行したこともないので、韓国籍であることに不便を感じたことは、僕は両親のおかげで、幸運だったのだと思うけど、なかった。もし、韓国籍であることで差別を受けたり、不便なことがあった場合、今の僕の考え方にも影響があつたかもしれないが。

帰化してしまった今となつては、韓国のパスポートもなく、自分が韓国人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ものは何もなくなつてしまった。だからこそ、韓国語を完璧に話せるようになりたいし、極端かもしれないけれど、自分の本質と韓国名を体に彫りたいとも思った。

Q. 自分は「在日韓国人」としての“誇り”をもっているとおもいますか？

A. 持っていると思う。でもそれは、ほかの在日と同じ「誇り」であるのかどう

かはわからない。

日本人に対して、もしくは本国の韓国人に対して、在日として、自分は二つの国の文化（日本と韓国）を知っているという誇り。しかし、その誇りは、逆に捕らえれば、本国の韓国からは、日本人として扱われ、日本国内では、在日＝韓国人そして扱われる、二つの国を持ちながら、どちらからも見放されている、在日としての勝手な強がりなのかもしれない。僕自身は、日本人としての誇りの上に、在日としての誇りを持っているといったほうが正確なのかもしれない。そこには「韓国人」としての誇りは存在しない。

Q. あなたは韓民族に対する誇り・理念などの韓国伝統を守っていますか？

A. 韓民族に対する誇り。それはあると思う。つまり、自分の先祖が韓国でとても高い位の人であったということに対する誇りはあると思う。自分の祖先はすごかったのだ、という子供の憧れに近いような誇り。しかしその誇りは、韓国人としての誇りではないことは、再度明記したい。

Q. 韓国語を話せますか？

A. カナダの大学で2年間のんびりと勉強したので、日常会話くらいは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けれど、まだ「話せる」とまではいってないと思う。これからも勉強は続けていこうと思っている。

Q. 韓民族後継者であることの誇り、朝鮮民族の歴史、伝統習慣などへの関心と努力、在日同胞団体や組織参加、韓民族への所属観などがありますか？

A. 在日同胞団体や組織への参加意思、所属間などは一切ない。そしてこれからも持つこともない。在日の知り合いや友達を増やしていきたいとは思うけど（それは今まで日本人として生きてきたのでそういう友達が皆無に近いから）わざわざそういう団体に所属してまで出会っていこうとは思わないし、きっとそういう団体に所属している人たちとは価値観が合わないとも思う。

カナダにきて、こちらにいる韓国移民のもつ習性としてもっとも情けないことのひとつは、韓国人はすぐに同胞同士で殻を作って固ま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外の世界との接触を一人ではしようとせず、常に団体で動こうとする。カナダ(特に、モントリオールに限って言えば)では、日本人も中国人も同じ習性を持っていると思われるけれど、日本人は団体を作るほどの留学生(移民は本当に少なく)は数えるほどしかおらず、そういう団体というものは皆無に近い。また中国人の場合は、チャイナタウンや、中国人のための縦

合病院が存在することなどからみても、団体で行動することで、現地の人間以上の存在感とパワーをもっていたりする。韓国人の場合とはとても中途半端で韓国人学生のレベルの低さ、社会性のなさなどにつながっているように思う。

#### <ネットワーク構築関連>

Q. インターネットで連絡する韓国人友達がありますか？

A. たくさんいる。

Q. 韓国から来た留学生に対するイメージは何ですか（留学生に対するあなたの考え）？

A. 日本で韓国から来た留学生と触れ合う機会はこれまでほとんどなかったけれど、数少ない韓国人留学生と触れ合ってみて感じたことは、韓国人はすれていない（純粋である。素朴である）、ということ。どこか日本人を田舎臭くした(いい意味で)ようなところがあるな、と思った。もちろん悪い学生もいるのだろうけれど。それがカナダに留学にきている韓国人学生や、カナダに数年前に移住した韓国人学生となるとまったく話は別ということはここまでたびたび触れてきたとおり。

Q. 今後韓国から来た学生と交流関係が増進すると期待していますか？

A. 日本において、韓国から来た留学生との交流関係を増やしていこうというような努力はするつもりはないし、そういう場に出かけていくつもりはないけれど、そういう出会いが持ち上がった場合はそれを大切にしたいし、深めて生きたいと思う。また韓国に行った際は、学生に限らずいろいろなバックグラウンドの韓国人といろいろな交流を持って意見を交換させたいとも強く思う。

Q. 世界在外青少年が一つになるインターネットのサイトが構築すれば参加しますか？

A. すでにインターネットの世界には存在している。韓国のサイワールドや北米にはFacebookというものもある。アカウントは持っていないがそこまで積極的に参加はしていない。友達と連絡を取るくらいにしか使っていない。

Q. 現在、在日青少年達が一番悩んでいる問題は何ですか？

A. 日本籍のコリアンについて・・・悩みなど何もないとも思う。少なくとも僕は日本籍のこり案としての悩みは何もない。

A. 韓国・朝鮮籍のコリアンについて・・・わからないが、差別問題や北朝鮮問

題のとばっちりを受けやすいのではないかとも思う。

Q. 具体的に在日青少年ため、どのような助けが必要だとおもいますか？

A. 日本籍コリアンについて・・・日本人として生きている人がほとんど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しいて助けが必要というならば、もっと韓国の文化や伝統を、日本人として生きてきた僕のような在日に触れさせてくれる機会を増やすこと、かなとも思う。

韓国・朝鮮籍コリアン・・・一番必要なのは、韓国政府の積極的な理解ではないかと思う。僕の理解不足かもしれないけれど、韓国政府は今まで多くの在日からの献金を受けてきている。それなのに、在日が韓国政府から受けれる恩恵はいったいなにかがあるのか、と思う。日本にいる在日が北朝鮮の拉致問題のとばっちりを受け、差別に合うのなら、韓国政府はそのような差別から、在日を守るべく、公式声明を発表するなど。日本政府だけでなく韓国政府の精神的な支えというものは、望む望まないにかかわらず、まだ日本人としてではなく、韓国人として生きている、生きていこうとしている在日に必要なことではないのかな、と思う。

### <名前>

Q. あなたはこれから先、自分の民族名を使う可能性があるとおもいますか？あるいは使いたいとおもいますか？また逆に使いたくないとおもいますか？使いたい場合、使いたくない場合、いずれにしても、その理由はなんですか？

A. 今すでにカナダでは韓国人に対しては、自分には○○○という韓国名があり、だけどパスポートの名前は日本名の○○○○だとはっきり知っている。そして、日本でも、今まで日本人として生きてきたけれど、日本の友達にも実は自分には○○○という韓国名を持っていた。帰化してもう公式的にはどこにも残っていないが、と説明をし始めている。これから先、自分の民族名を公式に使えることはなくても、それを新しく出会っていく人に知ってもらおうと思う機会は多くな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使いたくないとか、隠すというような気持ちは微塵もない。

### <朝鮮半島について>

Q. あなたの考えでは南北統一はいつ頃になりそうですか？

A. わからない。でも簡単ではないと思う。

<韓国文化について>

Q. 韓国文化をもっと勉強したいのですか？（勉強したい/したくないいずれでも）その理由はなぜですか？

A. もっと勉強したい。それは韓国文化でなくてもどこの国の文化であっても興味はあるけれど、やはり自分の祖先の文化なので韓国文化はなおさらに知りたいという気持ちは大きい。

Q. 韓国の伝統文化があなたの人生に益になると考えていますか？

A. 知っていて損なものは何もないと思う。

Q. どのような面で韓国の伝統的な文化がためになったと思いますか？

A. ドラマを見ていてもすんなりと状況を理解できること。

Q. 自分の将来や進路への相談者はいますか？（その人の国籍、関係、お住まい、相談内容）

A. いる。両親。けれど、そういう問題は結局は自分で悩んで解決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だと思っている。

Q. ボランティア活動をしていますか？

A. していない。

Q. あなたが参加や活動している在日韓国人団体や組織はありますか？

A. ない。これからもよほどの縁や義理がない限り参加することはないと思う。

Q. 韓国政府が支援する留学（就職 プログラム）があ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か（参加経験）？

A. 知らない。

Q. 日本の韓流についてどう考えていますか？

A. すばらしいことだと思う。

Q. 在外青少年の未来のためあなたが考えている一番望ましい韓国からの政策的提案（支援）は何ですか？

A. 在外青少年ではなくて、在日青少年というのならかなりあると思う。

それは、カナダやアメリカに移民した韓国人と、在日とでは根本的に抱える問題が違うため。

在日に対して韓国政府ができることとして、それは日本国籍の在日であろうと韓国・北朝鮮籍の在日であろうと同じく、韓国政府が本国の韓国人に、正しい歴史を教えるべき。日本があたるとき韓国人を連行した、それゆえに日本は戦後賠償の責任がある・・・とそこから歴史は日本の責任問題だけが語られ続けているように思う。韓国の歴史教育で、日本へ渡った韓国人、連行された韓国人がどのように捕らえられているのか正確には知らないけれど、少なくとも、本国の韓国人の中に、在日に対する羨望や嫉妬の気持ちがあることは事実だと思う。それは韓国政府による公式な説明（本国の韓国人に対して）また、在日にたいしては精神的かつ物的（必要ないにしても）サポートなどが必要な、と思う。必要かどうかよりも、そういうものがあれば、少しは何か少しは変わ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

Q. 韓国政府が日本籍コリアンのためどんな政策を行うべきですか（在日の人的支援活用政策）？

A. 日本国籍在日3世として、韓国政府から特に何のサポートも必要ではないと僕は思う。それは日本政府から何のサポートも必要ないと思うのと同じ理由で。しいていうなら、両親や祖父母の世代の在日が日本社会の中で受けてきた差別に対する事後補償のようなものがあれば、それによって韓国政府の真剣さは伝わるだろうけど、結局韓国政府は何をやっても中途半端だと僕は思っている。

Q. 最後に、韓国政府や日本政府に対する要望、日本籍コリアンの将来のため必要なこと、在外韓人とのネットワーク構築に対する意見などを述べてください。

A. 韓国政府や日本政府に対する要望などは多すぎてわからないし、いったところで何もしないだろうという気持ちのほうが強い。在外韓人とのネットワーク構築。それは果たして必要なことなのだろうかと思う。ビジネスの世界において韓国人経営者の会など、つながるところはすでにつながっている。そのような在外韓人のネットワーク云々よりも韓国政府が、一番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は、北朝鮮との問題であると思う。北朝鮮がおかしな行動に出ると、それは韓国人の行動として、在日韓国人・朝鮮人問わず差別を受ける原因になってきた。そして、そのために必要な韓国国内の幾多の問題。ひとつだけはっきりしていることは、世界に散らばる在外韓人は韓国

政府に対する信頼というものを持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軍隊を拒否し、よりよい教育をもとめて韓国国籍を捨てるために外国へ移民する韓国人は後を絶たない。外に出てしまった韓国人は、いつかは自分たちの故郷に帰りたいと思っている。いつ帰れるのだと、それをずっと見守っているのだと思う。それがいつになるかは韓国政府のこれからにかかっているのだから、ネットワークの構築がその意味において必要なことであるとは僕は思わない。

## (2) 加藤由美さん

### 【要約】

#### 1. 生活経緯

愛知県で生まれ、現在も在住。31歳の女性で在日3世にあたる。職業は会社員である。次に掲載されている加藤美和さんの姉である。由美さんは18歳のときに両親の意思によって家族全員で日本国籍を取得した。

自分が韓国人であることは中学生のときに両親から教えられ知った。家庭では韓国料理や韓国風の味付けをした料理が週に3度ほどは出る。また、正月や祖先の命日には法事も韓国式でおこなっている。

両親は在日2世で韓国語は話せない。父親は日本の企業に勤めており59歳である。あと1年ほどで会社を定年退職する。父は最近、民団の事務所でおこなわれている韓国語教室に通い始め、韓国語を勉強し始めた。理由は、韓国の親戚とのつながりが今でもあるので、韓国を訪ねたときに少しぐらいは話せないとはずかしいからであるという。

加藤由美さんからの調査に先だって、由美さんの父母からも短い時間であるが話をきいた。お父さんは、日本国籍取得の経緯を、「会社員をする中で、これがもう絶対になるべく早く日本国籍を取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おもった。また、会社の上司からも要請された」と述べている。年齢が増えるにつれ、官庁との取引など、責任ある仕事をするようになったとき、日本社会では韓国国籍でそれを遂行することは困難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った。

また、日本国籍を取得して、日本の選挙権を得たことについて、「(選挙権を)取得して精神的ゆとりと安心感が持てた。地域社会で生活していると選挙権があ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が、とても大きな意味をもっていることがわかる。うち子どもも合わせた6票ある。選挙ともなれば町内会長もお願いになってくる。こうしたことは社会で生活する者として自尊心を持てる。また、選挙権を持っている＝日本人という枠の中にいないと、入ってこないさまざまな情報があ

る。選挙権を持っていない＝日本人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そうした日本人がふつうに共有している情報や価値の世界から排除されている」と述べていた。選挙権を持つかどうか地域社会の構成員としての暗黙のパス (pass) となっている日本社会のコミュニティの実状がうかがえる。

由美さんは現時点では韓国の文化に強い関心は持っていない。どちらかといえば西洋の音楽や舞踊に強い関心を持つ。自らも舞踊を習っている。

そうした由美さんにとって大きな関心はやはり結婚問題だ。「結婚する相手には、自分は帰化した、元・韓国人だということをわかってくれる相手、家族じゃないと結婚はできないだろうとおもう。だから、知り合って好きになった人が、それを理解をしてくれる人かどうか不安はある」と述べる。この考えは妹さんもまったく同じであった。

## 2. 在外韓人ネットワークに対する考え

由美さんは、今後、韓国人どうしのネットワークに自分が参加していくことは現時点ではないだろうと述べている。しかし、韓国政府に対して、もし在日同胞に対する支援があるとすればどんなことが考えられる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は、自分がかつて韓国籍であったということが、求職活動をするときの心理的負担となった経験から、「在日韓国人の就職の斡旋活動をおこなってほしい」という意見を述べられた。

また、韓日関係や北朝鮮問題などの外交問題が怒ると、かならずそのマイナスの影響が在日韓国人には起こることから、「外交問題などが起きたときや、さまざま問題が在外青少年に起きたときに、見捨てない姿勢を見せること」ということを韓国政府に望んでいる。

### 【調査結果】

調査は、2007年9月20日に実施し、まず質問用紙に記入するかたちで回答いただき、それに対する疑問点をこちらから尋ねるという方法をとった。

「Q」は筆者で、「A」は由美さんである。

### <家族生活>

Q. 家庭内で韓国語は使っていましたか？

A. 使用していません。

Q. 韓国語を話せますか？

A. 話せません。

Q. 韓国語に興味があって勉強したいのですか？

A. 今のところは特に興味はありません。

Q. 両親はあなたが韓国語の勉強を賛成するのですか？

A. 自分の意志に任されています。

Q. 全般的に両親は韓国に対してどのように話していますか（肯定的か、否定的か）。

A. 肯定的だとも思います。

Q. 韓国人であることをいつ頃両親に聞かれましたか？

A. 中学生の時に聞かされたと思います。

Q. 両親は韓国語を教えてくださいますか？

A. 両親もほとんど話せません。

### <結婚観>

Q. 結婚相手は韓国人がいいとおもいますか？その場合、日本籍？韓国・朝鮮籍？

A. 日本人がよいです。韓国人ならば、日本籍。

### <食事>

Q. 両親は韓国の食べ物をどの位よく作っていましたか（1週間何回、月何回）？

A. 週3回ほどです。

Q. それは主にどんな食べ物ですか？

A. タンポッチャン、ナムル、味付けが韓国的な煮物・煮魚・和え物　ごま油を  
入れたほうれん草のおひたし、定期的にキムチやチヂミ。

Q. 韓国の食べ物が好きですか？

A. 料理によって好きなものとそうではないものがある。

### <韓国について>

Q. 「自分は韓国人だ」と思いますか？

A. 思いません。

Q. 韓国関連ニュースはどの位よく聞いていますか？

A. ほとんど聞いていません。

Q. あなたは仲間の韓国人と交流や対話をしたこととか、していますか？それは  
在日ですか？本国の韓国人ですか？

A. 経験ありません。

Q. 韓国に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何回、目的は）？

A. 1回。観光。

Q. 韓国ドラマやTVの視聴はよく見えますか？

A. たまに見ています。

Q. 韓国へ行く前と行って来た後の差異は何でしたか？

A. 特にありません。「外国」という視点で見えています。

Q. 韓国の歌を聴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

A. あります。

Q. 韓国の映画や歌を聞くとどんな思いがしますか？

A. 種類にもよりますが、情緒的だとも思います。

Q. 今まであった韓国人の中で悪い印象を残した人はいますか？

A. 外国での現地ツアーで時間にルーズな人。

Q. 韓国人の性格に対してどう思いますか？

A. 激情的。実直。熱い魂。

Q. 韓国式礼儀とそれを守っていますか？（祭司、正月、お盆、端午、寒食）

A. 正月・お盆・命日の法事

Q. 近い内に韓国訪問計画や韓国で研修、青少年との交流希望はありますか？

A. 家族旅行を計画中です。

#### <アイデンティティ、民族性>

Q. 韓国人であることが生活上で益になりますか？

A. ならないとおもいます。

Q. 「自分が韓国人（民族）である」ということを受け入れてますか？他の民族であつたらいいと思っているのか？かつて韓国籍であつたとき不便なことはありましたか？

A. 日本人という意識で生活しています。元は韓国人であるということは受け入れています。

今後の結婚を考えると、最初から日本国籍であればよかったと思うことも時々にあります。

帰化したのが高校生の時であつたので、不便なことはなかったです。

Q. 自分は「在日韓国人」としての“誇り”をもっているとおもいますか？

A. よくわかりません。

Q. あなたは韓民族に対する誇り・理念などの韓国伝統を守っていますか？

A. わかりません。

Q. 韓国語を話せますか？

A. 話せません。

Q. 韓国語の理解と読み書きはどの位できますか？

A. 単語5つほどしか理解できません。

Q. 韓民族後継者であることの誇り、朝鮮民族の歴史、伝統習慣などへの関心と努力、在日同胞団体や組織参加、韓民族への所属観などはありますか？

A. 考えたことはありません。

#### <ネットワーク構築関連>

Q. インターネットで連絡する韓国人友達がありますか？

A. いません。

Q. 韓国から来た留学生に対するイメージは何ですか（留学生に対するあなたの考え）？

A. 真面目な努力家。

Q. 今後韓国から来た学生と交流関係が増進すると期待していますか？

A. 期待していません。

Q. 世界在外青少年が一つになるインターネットのサイトが構築すれば参加しますか？

A. たぶん参加しないと思います。

Q. 現在、在日青少年達が一番悩んでいる問題は何ですか？日本籍のコリアンについて・・・

A. 特段ないと思います。あるとすれば、会社・友人に、自分が帰化した人間だと知られたとき、また、結婚する時だと思います。

Q. そのように悩む背景と理由は何ですか？

A. 日本人の潜在意識にある在日朝鮮人への差別。

Q. 具体的に在日青少年ため、どのような助けが必要だとおもいますか？

日本籍コリアンについて・・・

A. 特になくてもよい。

韓国・朝鮮籍コリアン・・・

A. 今は就職口の斡旋しか思いつきません。

### <名前>

Q. あなたはこれから先、自分の民族名を使う可能性があるとおもいますか？あるいは使いたいとおもいますか？また逆に使いたくないとおもいますか？使いたい場合、使いたくない場合、いずれにしても、その理由はなんですか？

A. 使う可能性はなく、日本で生活する以上使いたくないです。

理由は、日本での在日コリアンへの偏見を気にしてしまう性格のためです。

### <韓国文化について>

Q. 韓国文化をもっと勉強したいのですか？（勉強したい/したくないいずれでも）その理由はなぜですか？

A. 今のところは特に勉強しようとは考えていません。他に興味のあることが多

いからです・・・。

Q. 韓国の伝統文化があなたの人生に益になると思っていますか？

A. 伝統文化が分かりません。

Q. 自分の将来や進路への相談者はいますか？（その人の国籍、関係、お住まい、相談内容）

A. 元は韓国籍であったことをふまえての相談であれば、一人います。  
在日二世で現在日本国籍の叔母。日本在住。

Q. ボランティア活動をしていますか？

A. していません。

Q. あなたが参加や活動している在日韓国人団体や組織はありますか？

A. ありません。

Q. 韓国政府が支援する留学（就職 プログラム）があ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か（参加経験）？

A. 知りませんでした。

Q. 日本の韓流についてどう考えていますか？

A. 韓国に好意的な意識を持つ人が増えるきっかけになり、大変うれしく思います。  
韓国の生活習慣・国民性など知る機会になりました。日本の年配者に支持が高く、彼らの今までの人生経験から共感する部分が多い映画・ドラマであることも、ブームになった一つだと思います。中身のある俳優・ドラマなどが多いと思います。

Q. 在外青少年の未来のためあなたが考えている一番望ましい韓国からの政策的提案（支援）は何ですか？

A. 外交問題などが起きたときや、さまざま問題が在外青少年に起きたときに、見捨てない姿勢を見せること。

Q. 韓国政府が日本籍コリアンのためどんな政策を行うべきですか（在日の人的支援活用政策）？

A. 特に必要ないと思います。

Q. 最後に、韓国政府や日本政府に対する要望、日本籍コリアンの将来のため必要なこと、在外韓人とのネットワーク構築に対する意見などを述べてください。

A. 政府に対する要望は考えたことがなく思いつきません。あえていうと、抽象的ですが、お互いの国の非は認め、尊重し合うことだと思います。韓国の国としての立場向上も日本籍コリアンの住みやすさにつながるでしょうか。偏見を気にするということは、自分自身の中にそのような意識があるということ、一番はグローバルな感覚を持ちその意識を払拭することでしょうか。その意識改革が、私のような日本籍コリアンに必要なことかな？

### (3) 加藤美和さん

#### 【要約】

#### 1. 生活経緯

愛知県生まれで現在も在住している。年齢は29歳の女性で在日3世にあたる。職業は会社員である。日本国籍は美和さんが16歳のときに両親の意思によって家族全員で取得した。前に掲載した加藤由美さんの妹である。

家庭環境については由美さんの項で紹介したので省略する。

自分が韓国人であるということを受け入れている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受け入れています。しかしながら、それが苦痛なときもあります。帰化してもなお、その事実を世間に知られないように必死で隠している私たちがいます。不便なことは、それがすべてです」と述べており、書類上は自らの民族的ルーツはわからないにもかかわらず、それでもなお周囲にそれがわからないように気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日本社会のきびしい現実が浮き彫りになっている。

また、民族名の使用の可能性については、「可能性はぜったいにない。韓国人という事実が、すでに日本では生きづらかったりするから。けれども、もしかしたらアメリカ国籍だったなら大っぴらに話したような気もする。アジアだと、中でもとりわけ朝鮮系だと言いつき辛さがあるのは、やはり現在でも日本のあらゆるところで韓国・朝鮮人に対する差別意識が根付いているからだと思う。それ故、私はこれからもその事実を隠していくと思います」と述べている。

## 2. 在外韓人ネットワークに対する考え

韓国政府に対しては、「もっと積極的に日本に来て、政治と関係ない観光などをしてほしい。日本の文化の良きところに触れてそれを韓国メディアに伝えてほしい。在日の方たちと心の交流をして、それもすべて韓国メディアで取り上げてもらいたい。意識の改革を行ってもらいたい」と要望しており、また、日本政府に対しては、「自分たちが中国・朝鮮に犯してきた歴史上の罪をきちんと認め、反省すること。そしてその歴史上の事実を教科書にきちんと載せて子供たちに正しく学ばせていくべきである。それから、靖国神社参拝は絶対にやめるべきである。過去の事実をきちんと反省していないから今もなお、在日朝鮮人たちへの差別意識が根強く残っているのだと思う」と述べている。

### 【調査結果】

調査は、2007年9月20日に実施し、まず質問用紙に記入するかたちで回答いただき、それに対する疑問点をこちらから尋ねるという方法をとった。

「Q」は筆者であり、「A」は美和さんである。

### <家族生活>

Q. 家庭内で韓国語は使っていましたか？

A. たまに会話の中で冗談半分で単語をポツポツと言っていた程度は話します。

Q. 韓国語を話せますか？

A. 話せません。

Q. 韓国語に興味があって勉強したいのですか？

A. はい、興味はすごくあります。

Q. 両親はあなたが韓国語の勉強を賛成するのですか？

A. 反対はしないと思います。

Q. 全般的に両親は韓国に対してどのように話していますか（肯定的ですか、否定的ですか）。

A. 肯定的な部分もあるが、否定的な部分もあります・・・というよりも、理解出来る部分と、理解し難い部分があるように思われます。

Q. 韓国人であることをいつ頃両親に聞かれましたか？

A. 帰化するときに聞きました。

Q. 両親は韓国語を教えてくださいませんか？

A. 「韓国語の勉強」というような感じでは教えてもらったことはありませんが、こちらが望めば自分たちの分かる範囲内で単語や挨拶などの比較的簡単な言葉を教えてくれたりもします。

### <結婚観>

Q. 結婚相手は韓国人がいいとおもいますか？その場合、日本籍？韓国・朝鮮籍？

A. 決して思いません。

### <食事>

Q. 両親は韓国の食べ物をどの位よく作っていましたか（1週間何回、月何回）？

A. 週の半分ぐらいです。食卓がすべて韓国の食べ物で埋め尽くされる、という事はありませんが。

Q. それは主にどんな食べ物ですか？

A. ホウレンソウのごま油のあえ物、キムチ、チヂミ、タンポッチャン、チゲ、ナムル等です。

Q. 韓国の食べ物が好きですか？

A. 大好きです！！

### <韓国について>

Q. 「自分は韓国人だ」と思いますか？

A. 思いません。が、韓国の血が流れていると確かに感じることはあります。

Q. 韓国関連ニュースはどの位よく聞いていますか？

A. 特に意識して聞いたりはしていません。

Q. あなたは仲間の韓国人と交流や対話をしたこととか、していますか？それは在日ですか？本国の韓国人ですか？

A. していません。

Q. 韓国に行ったことがありますか（何回、目的は）？  
A. 1回あります。韓国料理、エステティックサロン、買い物为目的でした。

Q. 韓国ドラマやTVの視聴はよく見えますか？  
A. よく見えています。

Q. 韓国へ行く前と行って来た後の差異は何でしたか？  
A. 特にありません。

Q. 韓国の歌を聴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  
A. あります。

Q. 韓国の映画や歌を聞くとどんな思いがしますか？  
A. 特になにも。他の歌手たちの歌を聞くとときと何も変わりません。

Q. 今まであった韓国人の中で悪い印象を残した人はいますか？  
A. います。テレビのニュースで見た暴力的な韓国人男性の人です。

Q. 韓国人の性格に対してどう思いますか？  
A. 激情型の人間が多いと思う。礼儀正しきや情に厚いところなど良いところもあると思うが、いったん、頭に血がのぼるとまわりが見えないほどに、わめきたてたりするところもあるような気がする。そういうところは非常にナンセンスだと思うし、見ていて怖いし、非常に不愉快かつ理解し難い。

Q. 韓国式礼儀とそれを守っていますか？（祭司、正月、お盆、端午、寒食）  
A. 略式ではあるが、守っています。

Q. 近い内に韓国訪問計画や韓国で研修、青少年との交流希望はありますか？  
A. 韓国に墓参りにいく予定があります。

#### <アイデンティティ、民族性>

Q. 韓国人であることが生活上で益になりますか？  
A. どちらかと言うと、益にはならないと思います。

Q. 「自分が韓国人（民族）である」ということを受け入れてますか？他の民族であつたらいいと思つているのか？かつて韓国籍であつたとき不便なことはありましたか？

A. 受け入れています。しかしながら、それが苦痛なときもあります。帰化してもなお、その事実を世間に知られないように必死で隠している私たちがいます。不便なことは、それがすべてです。

Q. 自分は「在日韓国人」としての“誇り”をもっているとおもいますか？

A. 思いません。

Q. あなたは韓民族に対する誇り・理念などの韓国伝統を守っていますか？

A. よく分かりません。

Q. 韓国語を話せますか？

A. 話せません。

Q. 韓国語の理解と読み書きはどの位できますか？

A. 全然できません。

Q. 韓民族後継者であることの誇り、朝鮮民族の歴史、伝統習慣などへの関心と努力、在日同胞団体や組織参加、韓民族への所属観などはありますか？

A. 朝鮮民族の歴史、伝統習慣などには興味はあります。それは先祖が韓国で確かに生きていたという事実があるからだと思います。しかしながら、韓民族後継者などとは意識した事すら一度もありません。

#### <ネットワーク構築関連>

Q. インターネットで連絡する韓国人友達がありますか？

A. いません。

Q. 韓国から来た留学生に対するイメージは何ですか（留学生に対するあなたの考え）？

A. 特にイメージなどは思いつきませんが、日本という国や日本人についてどう感じているかすごく知りたいです。

Q. 今後韓国から来た学生と交流関係が増進すると期待していますか？

A. はい、期待しています。

Q. 世界在外青少年が一つになるインターネットのサイトが構築すれば参加しますか？

A. 分かりません。

Q. 現在、在日青少年達が一番悩んでいる問題は何ですか？

A. すみません。私には分かりません。

Q. 具体的に在日青少年ため、どのような助けが必要だとおもいますか？

日本籍コリアンについて・・・

A. 選挙権を与える、差別意識の撤廃、パスポートや免許証の色での差別化をなくす、公務員や民間に関係なく在日をもっと受け入れるべきだと思う。

韓国・朝鮮籍コリアン・・・

A. 上記と同様

#### <名前>

Q. あなたはこれから先、自分の民族名を使う可能性があるとおもいますか？あるいは使いたいとおもいますか？また逆に使いたくないとおもいますか？使いたい場合、使いたくない場合、いずれにしても、その理由は何ですか？

A. 可能性はぜったいにない。韓国人という事実が、すでに日本では生きづらかったりするから。けれども、もしかしたらアメリカ国籍だったなら大っぴらに話したような気もする。アジアだと、中でもとりわけ朝鮮系だと言い辛さがあるのは、やはり現在でも日本のあらゆるところで韓国・朝鮮人に対する差別意識が根付いているからだと思う。それ故、私はこれからもその事実を隠していくと思います。

#### <韓国文化について>

Q. 韓国文化をもっと勉強したいのですか？（勉強したい/したくないいずれでも）その理由はなぜですか？

A. 興味はあります。

Q. 韓国の伝統文化があなたの人生に益になると考えていますか？

A. 人生の直接の益になるかどうかは分かりませんが、その様になることもある

かも知れません。

Q. どんな面で韓国の伝統的な文化がためになったと思いますか？

A. 思い当たりません。よく分かりません。

Q. 自分の将来や進路への相談者はいますか？（その人の国籍、関係、お住まい、相談内容）

A. はい、います。

Q. ボランティア活動をしていますか？

A. いいえ、していません。

Q. あなたが参加や活動している在日韓国人団体や組織はありますか？

A. ありません。

Q. 韓国政府が支援する留学（就職 プログラム）があることを知っていますか（参加経験）？ A. 知りません。

Q. 日本の韓流についてどう考えていますか？

A. とても良い傾向だと思います。大変嬉しいです。ヨン様の功績は大変大きいと思います。どんな形であれ、日本人が韓国に親近感や好意や興味をもってくれたのは本当に素晴ら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少し前では考えられなかったことです。韓国に対するイメージがだいぶ変化したのも事実だと思います。それも好意的なものに。これからも、もっと続いて行ってほしいです。

Q. 在外青少年の未来のためあなたが考えている一番望ましい韓国からの政策的提案（支援）は何ですか？

A. 在日韓国人たちを差別・卑下・中傷しないこと。認めること。韓国政府や著名人たちがまずそのように韓国国民たちに啓蒙すべきだと思う。そして実際に、韓国政府の人たちが在日の方たちと交流する場をもっと積極的にをもつべき。在日として生きている人たちの悩みや要望を自分たちの問題として聞くべきだと思う。

Q. 韓国政府が日本籍コリアンのためどんな政策を行うべきですか（在日の人的

支援活用政策)? 日本籍コリアンの方々は、韓国政府に何か政策を望んでいるのでしょうか?

A. ちょっとよく分かりません。

Q. 最後に、韓国政府や日本政府に対する要望、日本籍コリアンの将来のため必要なこと、在外韓人とのネットワーク構築に対する意見などを述べてください。

A. 日本政府には、自分たちが中国・朝鮮に犯してきた歴史上の罪をきちんと認め、反省すること。そしてその歴史上の事実を教科書にきちんと載せて子供たちに正しく学ばせていくべきである。それから、靖国神社参拝は絶対にやめるべきである。過去の事実をきちんと反省していないから今もなお、在日朝鮮人たちへの差別意識が根強く残っているのだと思う。

韓国政府には、もっと積極的に日本に来て、政治と関係ない観光などをしてほしい。日本の文化の良きところに触れてそれを韓国メディアに伝えてほしい。在日の方たちと心の交流をして、それもすべて韓国メディアで取り上げてもらいたい。意識の改革を行ってもらいたい。

#### (4) 伊藤沙織さん

##### 【要約】

##### 1. 生活経緯

福岡県生まれ。現在も福岡市在住。26歳・女性。在日3世にあたる。

大学を卒業後、日本の企業に就職するが現在、母親は営む焼肉店を手伝う。姉と兄の3人兄妹である。姉は、このあとインタビュー調査内容を掲載する香川里美さんである。10年ほど前に祖母が74歳で亡くなり、同じ年、父が56歳で亡くなった。母は、夫の死後、少し精神的に不安定な状態になり、何もせずに生活するのは良くないと考え、焼肉店を開業した。

日本国籍に変わったのは沙織さんが小学校に入る前であった。母の兄である叔父が民団の仕事をしていたこともあり、日本籍に変わってからも民団主催のオリニキャンプに時々でていた。大学4年生になる前の春休みに、ソウルの教育院でおこなわれる語学研修(10日間)に参加した。しかし、日本国籍を取得していた彼女たちには、民団から行事の案内や誘いは来なかった。いつも叔父から情報を得ていた。沙織さんは成人時には民団の成人式にチマ・チョゴリを着て出たいと思い、それは実現した。現在も民団主催の韓国語教室で韓国語を勉強している。

沙織さんが民族や文化というものを大切にしたいと考えることに影響をあたえたのは祖母の影響ではないかと述べる。祖母の弟はまだ韓国で存命であり、祖母の生前、沙織さんや姉は、祖母について韓国の故郷を何度も訪れた。故郷の親戚はみな、温かく歓迎してくれた。そうした小さい頃からの良い思い出が、沙織さんに韓国や韓国文化を大切にしたいと考える要因となっていると思われる。

学生時代、他県の大学生の男性とおつきあいをした経験を持つ。彼はその地域の韓国人大学生の集まりに参加しており、沙織さんも何度か、その集まりに参加した。そうした韓国人青年の集まりに魅力は感じながらも、たとえば沙織さんの「さおり」という呼び方を、韓国語読みで呼び合おうとする、あるいは沙織さんにもそう名乗ることを勧める、その集まりの人々の考え方に違和感を持つ。自分は韓国人であったこと、韓国にルーツを持つ人間であるということは大切にしたいが、「さおり」という名前をつけ、読ませた親の思いを大事にしたいと考えたからだ。

社会人になって、韓国語教室の講師の紹介で国際柔道大会における、韓国チームの通訳ボランティアをした。日本の全国柔道の大会で、その年は記念大会として、韓国・中国・台湾からも選手団が派遣され国際大会をおこなった。そのときの韓国チームの通訳をしたのである。韓国からは釜山と益山からチームが来ていた。試合を見る中で、日本選手と韓国選手の対戦姿勢に大きな違いを感じたという。日本選手の技術は「基礎練習が成っている」という感じであり、韓国チームの技術は「実践的であり、やはりまず、勝たなくてどうするのだ」という感じだったという。韓国選手の技は、シルムやテコンドを融合させたような、日本の純粋な柔道の技にはないような技が多くみられたという。

法事などの民族的な行事について、母はまじめにしないといけないと考えており、自分もそう考えているという。また、結婚をする相手がどこの国の人であれ、自分のそうした思いを大切に考えてくれる人を相手として選びたいと考えている。

## 2. 在外韓人ネットワークに対する考え

在外の若者との集まりがあれば参加してみたいとおもうが、まず身の回りの地域から始めてほしい。とくに日本籍を取った人間には、民族団体からの呼びかけもないので参加したくてもできない。また、民族団体自体も現在の若者のニーズに合ったものになっていないとおもう。そうした状況を変えてほしい。

### 【調査結果】

調査は、2007年9月24日実施。「Q」は筆者、「I」は伊藤沙織さんである。

Q:今もう、ご自宅のお店を手伝っておられるんですか?

I:そうですね。

Q: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あの、学校はもうずっと日本の学校ですね、そうすると?

I:そうです。

Q:そうですね、ああ、なるほどなるほど。

I:ずっと、公立の学校ですね、

Q:そうですね。

I:はい。

Q:なるほど、あの、あ、どうぞ、

I:あ、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Q:あの、えっと、どこかで語学研修にも行かれたっていう風に、

I:その時はですね、大学に入って、

Q:ええ、

I:あのもう日本籍だったんで、民団からののがきとかも一切こなかったんですよ。

Q:ああ

I:で、実は母の弟の、そのおじさんはもうその民団の仕事されてたんですけど、もう、特別、私たちに誘いはなくて、一度小学生ぐらいのときに一度だけオリニキャンプにも行っ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それ以外の、私はそんなに参加したことがなくて、でも二十歳のときに、あの成人式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

Q:ええ、

I: で、どうしても私がその、チョゴリを着て出たいなと思って、で、叔父に言ったら、ちょうどいこの同い年だったので、

Q: ええ、

I: ジャあ二人で出なさいって言ってくれて、

Q: ええ、そうですか。

I: で、それで出たんですよ、で、その時にあの、学生会があるのを聞いて、

Q: ええ、

I: で、福岡の民団は学生会はすごい、少なくて人数が、

Q: あ、そうですか、

I: もう今はつぶれてしまったんですけど、

Q: あ、そうですか

I: でも、なんかその人数が少ないのはもったいないなと思って、私もそのわからないなりに、参加させてもらえればと思って、

Q: んんー。

I: ちょっと入ったんですよ、で、あの大学生の、学生の中で、春期学校って言って、十日間ぐらい行く語学研修とかがあるっていうのを聞いたんで、向こうの教育委員会に行くんですよ、

Q: はいはいはい。

I: 泊まって、

Q: そうですか。

I: ああ、その時に。

Q: それは、何年前になりますか。

I: えー、大学4年になる前の、

Q: そうですね、

I: 3年と4年の間の春休み、

Q: 一週間くらい

I: 十日間ですね、

Q: 十日間。

I: はい。

Q: で、ソウルの教育委員のあるところで、

I: はい、そうですね。

Q: あ、そうですね、で、さっき言っておられたオリニキャンプっていうのは小学校1年生の時ですか、

I: あ、もう覚えてないですよ、

I: はい、6になった後か、

Q: そうですね。

I: はい。

Q: おばあさんはおいくつで、

I: 74かな、

Q: そうですね、

I: はい。

Q: おばあさんは一世、

I: 一世ですよ、で、そこからお嫁に。

Q: そのおばあさんの影響ってのはどうなんですかね、やっぱり好きだったんですか、おばあさんのことが、

I: 弟さんは、おばあちゃんの、

Q: 弟

I: 祖母の弟さんはまだ向こうにいらっしゃるんですよ、

Q: あ、そうですか、

I: 田舎の方に住んで、ええ。で、なんで年に2回とか3回とかは、こう日本のお土産を、もう、何ですか、電化製品とか特に何ですけど、

Q: んん、んん、

I: 買ったり、こっちの食べ物、向こうではまだそのインスタントコーヒーおいしくなかったわけじゃないんですけど、

Q: ああ、ああ、ああ

I: こっちから大量に買って持って行くんですよ。で、持って行ったら、すごく喜ばれて、あの、「良くしてもらってる」って言って向こうの親戚中集まって、おばあさんを迎えるんですよ。

Q: そうですか。

I: そうやって、向こうに行って戻ってきた時が、あのおばあさんを見て、やっぱりなんか弟さんに会えるのを楽しみにしてたりうれしかったりするんで、

Q: うんうん

I: やっぱりその、祖母のルーツっていうかそっちは、私たちも韓国にあるんだなっていうのを感じたりとか。

Q: へー、そうですか。

I: なんか、こうやっぱりしゃべりに、一世なんで、

Q: うん

I: すごく、何ですかね、単語が出てくるんですよね、

Q: うんうん

I: あと、興奮したりしてる、してた時とかは、

Q: 興奮?

I: はい、したりするとついハングルでしゃべっているのを見て、

Q: んん、そうですね、それは、おばあさんが向こうに行かれるとき一緒に行ったりは、

I: 何度かはありますね。

Q: そうですね。

I: 私はでもまだ学生だったんで、少ないですけど、あの、姉は社会人になって、ってというか成人して、仕事してない時とかは、荷物持ちみたいな感じでついて行ったりして、

Q: そうですね、

I: はい、でも「言葉がわからない」とか言って、だから、しゃべれるようになったら、こう少しでも会話ができて、もっとなんか心通じ合えるのにな、とかって言ってたんですよね。

Q: そうですね。あの、そうすると、家の中に韓国的な雰囲気っていうのはそんなになかったんですか。おばあさんのその存在という以外で、

I: そうですね、うちは、私の家庭はもう特になかったですね。

Q: なかったですか

I: はい

Q: 料理はでも、

I: は、もう日本食です、ほとんど。

Q: あ、そうですか、

I: はい、で、その法事とかあった時に、おばあさんが作ってくれてるなんか、

Q: ええ

I: なんですかね、トックみたいなのだとか、

Q: ええ

I: キムチとか、なんかチョコチョコとしたものだけを持って帰ってきて食べるくらいで、

Q: ああ

I: 母が作るのもうほんとに、日本食ですね。

Q: あ、そうですか。お母様は、日本の方、

I: いや、違います。

Q: 韓国人なんですかやっぱり?

I: はい

Q: あ、ご両親とも韓国人なんですか?

I: はい、全く

Q: あ、そうですか。

I: そうなんですよ。

Q: はあ、やっぱり、しかしお父さんもお母さんも二世で、やはり、韓国料理とかそうしたものは、ご趣味ではもう作られませんか? でもお店で作っておられますよね?

I: そうですね、今は焼肉屋を始めて、でもどっちかって言うと、お客さんも日本の方がほとんどなので、

Q: ん、ん、ん、

I: その「韓国式ですか?」ってよく言われるんですけど、多分日本式だと思うんですよね。

Q: 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

I: はい。

Q: お店はいつぐらいに始められたんですか?

I: ええと、9年になります、

Q: 9年ですか、

I: 父が亡くなって、

Q: ええ、

I: 一年して、その土木の仕事を母が継ぐのは難しいって言うんで、

Q: んん、んん、

I: 仕事やめたんですよ、でもその家でじーっとしてても、

Q: うん。

I: 落ち込んで、

Q: うん。

I: ずっと暗くなって鬱にはいりそうな感じがあって、

Q: うん。

I: 「仕事をしたい」ってもう一人で勝手に行って決めて、

Q: そうですね。

I: はい、自宅の近所なんですけど、ちょうど土地があったんですよ。で、駐車場

とかにでもして、大家とかみたいな感じでできたらいいなって最初考えたみたいなんですけど、

Q：ええ

I：その駐車場にするには、あの、こう隣同士が普通の一軒屋だったんですね、

Q：ああ

I：で、車も台数がいらないし、

Q：んん

I：じゃあ何しようってなった時にその土木をやったときの従業員の方がうちでよくバーベキューしてたんですけど、

Q：んん、んん、

I：まあじゃあ焼肉屋ならできるかもって、親戚とかに持つ鍋やっている方もいて、お肉のその、

Q：仕入れるお肉とか。

I：はい、こう、ね、紹介してもらえるんで、

Q：あ、そうですか。おばあさんの存在という事以外に、沙織さんご自身がそういったことにこう関心持たれ続けるっていうのは特にこれがあつたっていうわけでもないですか？なんか思い浮かぶことっていうのは、

I：んー、なんだろう、もう一つは、あるとしたらですね、保育園に通っているときに、近所に韓国の方が、あの留学生会館が多かったのと、

Q：ああ、

I：韓国の方が大学の教授で、

Q：ええ、ええ、九州大学の方ね。

I：はい。

Q: いますよね、

I: で、こちらに一辺教室に来られたんですよ、で、同級生の女の子がちょうどいて、

Q: んー。

I: その子は中学校2年生からいたのかな、1年かな、で、あのすごく仲良くなって  
ですな偶然、

Q: ふーん

I: で、その、近所だったのでよく遊びに行って、

Q: そうですね。

I: お家にあるものは全部韓国の物だったり、韓国の金の、金製の、銀製ですかあの、

Q: ああ、スプーンとかチョッカラとか？

I: そういうのを直接使わせてもらったことがあって、そういうのはあとから興味  
を持つことになったのかな、

Q: あ、そうですね、

I: 今でも年に1、2回は連絡とったりとかして、

Q: あ、そうですね、どちらもお一人ですね？

I: はい、そうなんですよ、お母さんは仕事してるからここにいないんですけど。

Q: ええ

I: あの、お父さんの方はまたこっちで発表会とかがあるときは、

Q: ああ、そうですね。

I: 来られるんですよ。

Q: そうですね。

I: で、今年の春ぐらいにも一度お会いして、

Q: んー、そうですね、あの一、今はそうすると、例えば、まあ在日であるとか、同じ立場の人達と、そういう話をする機会っていうのはあまりないですか?

I: その学生会の友達とかと会ったときには、まあするのはするんですけども、

Q: うん。

I: みんなその時は学生なんで、その時の、何だろう、韓国についてとかよりも、普通の世間話とか、

Q: うんうん、

I: そっちの方が多かったんですよね、でもその春期学校に行った時に、

Q: うんうん

I: あの、大阪とかの友達、仲良くなった子達は、結婚するときは絶対在日か、韓国人じゃないとだめだって言ってる子とかがけっこう受けてたりとかして、

Q: ふうん

I: 家とはまるっきり正反対で、私の母はできれば日本人としてほしいって言うんですよね、

Q: ふうん

I: 自分がやっぱり、仕事の時もだし、小学生、中学生の時も、学生の時にそのある程度その差別を受けたりしたこともあって、んー、なんか私にも「今更韓国式に戻る必要ないでしょ」って言うし、

Q: うんうん、

I: 特別その、近所の、ご近所の方とか仲良くなれた方にも自分が在日ですっていうのは極力そんなに言わない方なんですよ、

Q: んん、んん、んん

I: で、知られたら、知られたでまあいいって言う感じで、

Q: んん

I: なので、そういう教、教育っていうか、そういう環境で育ったから、結婚とか、友達とかも在日がほとんどだっているのを聞いて、あー、なんでこんなに違うんだろうって思って、

Q: そうですね

I: その時は、面白いって言ったらなんだけど、興味深く話を聞いたりしたんですけど、

Q: そうですね、今、というか、今後ですね、

I: はい。

Q: そういうようなつながりとか集まりってもしあったら、参加されたいと思いますか?

I: あ、そうですね、その、なんか、本当にあんまり意識してないし、知識も乏しいんで、ディベートみたいなのがあったんですけど、そういうのことすると、なかなかついていけないんですけど、

Q: はい、はい、はい

I: 話を聞くとかはおもしろいなと思います。参加は。

Q: どうしてもじゃあ集まりましょうと、いわゆるその集うとと、じゃあ討論しましょうとか、

I: はい

Q: そうなっちゃうと、さっき言われたみたいに、

I: はい

Q: 世間話でいいと思うんですよね。

I: あはは

Q：まーあのこの間お話を聞く中で、

I：はい

Q：えっと、例えばまあ、日本以外の在外のコリアンと、

I：ああー

Q：ネットワーク、交流もしたいかって聞いたら、ある女の子が、「それも悪くないけど、それ以前に在日同士のつながりがないもんね」って言ってですよね、

I：はい、そうですね。

Q：で、どんどん自分も年齢が上がってきて、

I：はい

Q：やっぱり結婚の問題とか出たときに、やっぱりこう思ってる事を相談できる相手だとか、いないもんねって言って、

I：うん

Q：そういうような事を、世間話を含めて話できる場があったらいいねっていうのは言ってたんですよね。そういう「親睦の会」がいいと思うんですよね。

I：特にやっぱり福岡はそういうのが少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前にお付き合いしてた方が在日の方、あ、在日の方っていうか、そうですね、在日の方で、国籍は韓国で、でもう本名でされてるんですよ。

Q：ほう、そうですか

I：で、その出身は福井なんですけど、

Q：ええ

I：大学から京都の方を出てて、もうそっちの学生会っていうんですか、なんだったけ、

Q：留学したときとか、

I：立命とか、

Q: あ、そうですか、ああ

I: あ、違う、京都大学の方達の在日の方がうわーってなって

Q: あ、はい

I: すごいですね、なんかみなさん。もう常にみんなで集まって、もう韓国の事についてずーっと話したりとか、

Q: そうですか。

I: 学生運動みたいなこととかもやったし、

Q: んん、そうですか。

I: で、こうたまに、遊びに行ったときに、その時の友達達に会わせてもらったら、みなさんもやっぱり韓国名で呼び合って、

Q: ん、そうですか。

I: ああ、何だっけな、ハナットンって言ってたような。

Q: ああ

I: ああ、ご存知ですか、

Q: 韓国学生同盟のですね、

I: ああ、そうですね。

Q: まあ今でこそもうあの、韓国も民主化されていますので、

I: はい。そんな中に、私がだからたまに遊びに行くと、入らしてもらったんですけど、まあ一緒にお酒飲んだんですけどね、

Q: ええ

I: 私も在日ですってお話したら、帰化してますけど、全然やっぱり考え方とか、あと、なんだろう、同じように普通に日本で育っているんですけど、在日に見

えないってすごい言われて、

Q：そうですか、

I：それはなんでなのかなって。

Q：やっぱりその、人間関係とか、そのコミュニティーとかですね、

I：そうですね。

Q：どういう場で育ってきたとか、それは変わりますね。

I：それは全然違いますね、

Q：そのお付き合いされてた方とそういう中に参加させてもらったりして、やっぱり違和感はあったりしましたか？

I：ありましたね、あの、特に一番あれだったのはこの質問にもあったんですけど、

Q：はい

I：韓国名にされますか、っていうそういう質問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

Q：あ、はいはい

I：その時に、実は私あの、お付き合いされてた、されてたじゃない、してた方とも前に話したことがあって、

Q：うん

I：私はその、もう会った時から「沙織」で、「伊藤沙織」で、「さおり」って呼ばれてたんですけど、その友達に合わせる時に、自分はその学生の時に、本名に、みんなになるように進めてきたって、その在日としてのそう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ーとかを強く持つためにも、その帰化をなるべくしなかったり、韓国籍で、

Q：うん、うん、うん

I：その堂々と生きていくために、日本の中で、本名で通したいから、みんなにも勧めた、だから私に、私にその韓国籍にまた国籍を変えろとは言わないけど、

Q: んん、

I: みんなの前ではその漢字で「沙織 (サチ)」って言うんですけど、

Q: ああ

I: そうやって呼ばせてって言われたんですよ。

Q: ああ

I: でもその時にもうすごい大喧嘩して。

Q: ああ、なるほどね。

I: 私はやっぱり親がそのまず、韓国名を作らなかったですし、「沙織」っていう名前をつけたかったって言うんですよ。

Q: うん、なるほどね。

I: だから私の姉は「里美」って言って、青年会に一時期通ったんですけど、その時は「里美」って多分「リミ」って呼びやすかったから

Q: 「リミ」うんうん、

I: 「リミ、リミ」って言われてたん私は「沙織」は「シャンチ」って言いにくいせいで、やっぱりずっと「沙織 (さおり)」って呼んでもらったんですよ。

Q: うん

I: で、急に、その場で、みんなのために、私の名前を変えるのは絶対やめてって言って、

Q: うん、うん

I: 私はやっぱりその本名の名字を、「趙」だったんですけど、

Q: うん

I: 「チョです」っていうのはいいけど、名前だけは「沙織」にしたいんだって言って、

Q: うん

I: だから、なんだろう、質問忘れてしまったけど、はははは。

Q: あ、その集まりに違和感がありますかっていう、

I: そうでしたね、もうその時に、みなさん「変えないの？」って言われたんですけど、あ、私は沙織でお願いしますって言って、

Q: そうですね。

I: まあでも「日本的だからいいんじゃない？」ってこう優しく言ってくれたんですけど、

Q: だからやっぱりそういう集まりっていうのは、

I: はい

Q: 集まりの場としてあるのはいいんだけど、「こうであった方が良く」とか、「こうじゃなかったらいけない」というな、なんか、でてきちゃいますよね。

I: そうなんですよ。

Q: それはちょっと難しい問題ですね、

I: ああ、うん、あとやっぱり、韓国籍の中に日本籍ひとり入ると、なんとなくこう、日本、なんだろう、裏切り者じゃないけど、

Q: んんん、

I: やっぱり楽に生活してるじゃないですか、日本の中でその、登録証がなかったり、選挙権があったりとか、あと、特別差別もなかったりする、そういう面で、ああ、楽に過ごしてきたのか、なんか申し訳なく感じたりとか、

Q: うん

I: だから勉強もしなかったのかなっていう風を感じる時もあったし、

Q: あ、そういう問題について、

I:そうですね、触れる機会がなかったとか、

Q:そうですね、あの、ご自身その韓国のルーツを持つってということについて、ずっと成長してくるなかで考えたり、悩んだり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なかったですか？

I:そうですね、なんか親が変える時に、何で子どもまで変えたのって一度聞いたことはあるんですけど、

Q:あ、そうですね。

I:でも余りにも幼いですから、それも仕方なかったのかなと思ったり、

Q:ええ、ええ

I:で、その、だから小学生ぐらいの時に、なんとなく知ったんですよね

Q:ふーん

I:特別あなたはこうだったのよって言われるわけでもなく。で、姉が先に、8、8歳違うんですよ、

Q:んん、ん、あ、そうですね、はあ、はあ、

I:姉はなんとなく気づいて、それを親に言っているのを横で聞いて、え、それってどういう事なの？みたいな感じで。

Q:ああ、そうですね。

I:ええ、でも理解しようと思ってもできないんですよね。でもよく考えたらおばあちゃんはその結婚式とかにハンbok着てたり、こうチョゴリを着て、お嫁さんが出てきたりとか、そういうを見て、あ、韓国人だったんだ、みたいな感じで、

Q:それは小学校1年生の時に知ったんですかね？

I:初めてチョゴリを着たのは保育園の時だったので、その時は母の弟の結婚して、その時に、子ども、おばあちゃんが買ってきたのかな？ハンbok着たんですよ。

Q:あ、そうですね

I: はい。でもそれ以上、ただ着た、感じ、着せられた、法事も韓国式でするんですけど、させられてるっていう感じで、日本式なのか、韓国式なのかわからないまま、

Q: うん、そうですね、その今の例えばその、そうした、韓国に関心を持たれてるとか、っていうのは、僕は一つは「韓国」とか「韓国の文化」とか「韓国社会」とか、「韓国人」とか、っていうのを嫌いでは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

I: そうですね。

Q: そうしたら良さっていうのは何がいいなって思われますか？

I: 良さ、

Q: さっき言ったそのこういうのの一方で、

I: ははは

Q: これもですね、荒っぽっていう反面で、強さと弱さがあるかもしれないし、まあ何でも両面性はあると思うんですよ。何が好きですかね？「韓国」とか、そういう「文化」とか「人」とか「雰囲気」とか

I: うーん、何か好きなのかな、こう人をもてなす感じはあるなと思いますよ。

Q: うん

I: 最初は、最初っからこびるようにはしないけど、ちょっと親しくなったらもうおいでおいで、

Q: はあ

I: いつでも韓国に遊びにおいで、韓国に来たときは絶対連絡しろってみなさん言ってくれるし、あと、その何だろう、食堂にも食事に行ったら、日本人で、その語学研修の時とかもそうなんですけど、日本人で勉強してるって言ったら、もう「食べ食べ」って、しかも在日だって言ったら、「食べる食べる」ってキンパツとか余分にどんどんくれたりするんですよ。

Q: そうですね。

I: そういうところは、この日本人の、この環境には、まあ田舎の方に行ったらあるかもしれないけど、普通にソウルや釜山で、普通のお店ですところは日本と韓国の差があったりとかするなと思ったり、

Q: あ、なるほど

I: んー、あと何だろう。そうですね、そういう感じがとかがすごいうれしいなって思ったりとか、

Q: んんん、あのよく、括ってしまうのはあれですけど、情の熱さとか、

I: そうですね、

Q: そうですね。

I: そういうのはすごく違うなって感じましたね、

Q: ええ、ええ僕も以前、ちょっと行ったときにですね、僕がいいなと思ったのは、地下鉄の電車乗ってて、窓から見て、向かい側のホームで、お母さんが子どもを背負ってて、ねんねこで縛ってて、で帽子を被せたいんだけど、被せれなくて、そしたら、そこへこう階段を女子高生が降りてきて、それ見て、ちょっとこっち来てかぶせてやってくれと、で女子高生もごく自然にそう行ってかぶせてやるっていうか、ごく自然にこうやるのが、そういう助け合いっていうか、が普通みたいな、

I: はい、はい、私もそれすごい思いました。あのその地下鉄すごい長いじゃないですか、階段とか、

Q: あ、はいはい

I: あれをドラマとかで、映画とかでも見たことあったんですけど、ハルモ二達が重いのを持ったら、持ってあげるんですよ、

Q: んんん

I: ああ、そのテレビを、そのブラウン管通して見たことあったんですけど、実際にも見たことがあって、ああ、それっていいなと思って、私も韓国行った時とか、あと、日本でもそういうなんかハルモ二達を助けてあげる、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の荷物を持ってあげるって事はいいなあとあって、

Q: そういうところですよ、

I: なんだろう、知り合いだから、とかじゃなくて、普通に年配の方を敬う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よね、

Q: そうですね。日本ってもう、ないですよね、そういうのがね、

I: うん、うん

Q: その、あの書いておられましたか、儒教的な考え方っていうのがね、確かにこれが良くない面もあつたりしますが、良い面っていうかね、社会にとってね、

I: うんうんうん

Q: あると思うんですよ、そっか、そうですか。ええと、あの、韓国のですね、

I: はい

Q: 伝統文化が、その沙織さんにとって、人生にとって、まあ、益になるかどうかという質問で、

I: ああ、

Q: 「なると思う」と書いてあるんですが、例えばこれはどんな事がそうかなって。

I: あの、どの部分ですかね、

Q: まあこれは今、言われたような事ですかね？

I: そうですね、っていうか、ならない、ならないことが、「ならないことがない」って言いたかったんですよ、逆に。

Q: はあ、はあ、

I: 知ってて、

Q: ああ

I: 得にならないことはないっていう気がするっていう。

Q: ああ、ああ、そっか、そっか。

I: ですよ、私もその、なんだろう、初めて韓国に行った時とか、本当はもっと、その韓国に今いるんだから韓国の文化を学んでちゃんと人と話せたりとか、マナーを守れるようになりたいな、ってということですね。

Q: そうですね。

I: そういうこと考えたのかな?

Q: そうですね、なるほど。

I: あと、そうですね、その今でも、祖母の弟さん達がいるから、

Q: うんうん

I: 向こうで結婚式があつたりとか、何かあるときにこうちょっと顔を見に行ったりするんですよ、

Q: うん

I: だから、姉に子どもがいて姪っ子がいるんですけど、

Q: うん、うん、うん、

I: 前に連れて行ったんですよ、そしたら「アンニョン」で言ってごらんとか、「ハルモニ」とか言ってごらんとか、あと、この挨拶をさせたりとかするとすごく喜ぶんですよ。

Q: あ、向こうの人達がですか?

I: はい

Q: あ、そうですね。

I: 「なんでね、そんなお前ができるんだ」みたいな感じで、

Q: あ、そうですね、なるほど。

I: なんかそういうの見てたら、姉は日本人の方と結婚したんで、もう日本籍です

し、ま、実際わかんないですけど、でもハーフはハーフなんですよ。

Q: はいはいはい、あ、そうですね

I: だけど、やっぱり向こうのおばあちゃん達に会った時に、その半分韓国人っていうところで、そのそういう挨拶したりなんかしたら、喜んでもらえるっていうのがすごくいいなあって思ったりして、

Q: そうですね。

I: ううん

Q: あの、沙織さんとして、あのすごくこれは抽象的ですけども、今後もしね、その先々ご結婚されて、お子さん作られて、家庭を作られて、っていうされていきますよね、その時に自分として描く家庭像っていうのは、の中で、今言われたように、例えば子どもには、こんな感じで、それこそ、あの、何、こうあるべきたっていう言い方はもちろん違うと思うんですが、こんなところまでは、こう、例えば教えて、例えば韓国のその人達とはこんな感じの付き合いができるような家庭がいいなっという、だとしたらどんな風に、ははは。

I: 韓国の方とですか?

Q: ええと、例えば、韓国の人達と付き合う時も含めてね、

I: はい

Q: どんな家庭っていうのがいいなっていう、家庭っていうのは、まあ「幸せ」とかもあるんだけど、

I: はい

Q: 民族的なっていうところからした場合に、どんななんかイメージがあるかなって思って、

I: 母が、やっぱりその多分自分では気付いていないところだと思うんですけど、

Q: うん

I: 絶対そのチェサとか、

Q: うん

I: お墓参りとか、そういうところはまじめにしないと、

Q: うん、うん

I: 豪勢にするとかじゃないですけど、

Q: うん

I: 必ずやっぱりお線香をあげて、その後お墓参りするっていうことはまじめにしたがるんですよね。

Q: そうですか。

I: それは私もずっと続けていきたいですよね、で、できればみんなでそろっていけることがそのお墓の中にある、なんでしょうね、祖先っていうか、は喜びますね、

Q: そうすると、やっぱりそういうことを一緒にやってくれる相手。

I: そうですね、できればちゃんと、強制とかじゃないんですけど、やっぱり「しよう？」って言って「ああ、いいよ」って簡単に乗ってきてくれる、乗ってきてくれるって言ったならあれなんですけど、そういうこう「あ、いいね」って言うってくれる人がいいですよね。

Q: そうですか。

I: はい

Q: ただこれ、逆にね、相手が在日だと、その男の人の家庭の方に行かないといけないでしょ？

I: ああ、そうですね、はい。

Q: けっこう女の人としては、自分のあの実家の方の、そういうのに参加できなかったり、

I: んー、そうなんでしょうね、

Q: かなっと思ってですね、そうすると、伊藤さんはそのご自分のやっぱりこの親族や一族との関係を大事にしたいし、そこにまあ乗ってきてくれるっていうか、

I: はい

Q: そういう人をやっぱり求めておられるっていうわけですね。

I: 自分のお墓、っていうか、っていうか、結婚したら旦那さんの方に移るんだと思うんですよ。

Q: あ、はいはい

I: でも、もし私がその他県に嫁いでも、福岡に戻ったときは一緒に行くとか、それぐらいでいいと思うんですけどね。

Q: まあそういう、

I: そういう、ちょっとした、なんとか、ですかね、

Q: あの韓国人の人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こう絶対連絡してこいよとか、受け入れてくれる半面、密度濃いでしょ?

I: はあ

Q: 逆にこの、ちょっと距離おきたいなというような、

I: はい、はい、はい

Q: っていうような、そういうのを感じる時はないですか? 距離の持ち方について。

I:すごい、あった、あって、その親戚に、向こうの親戚に会いに行った時とかもなんですけど、

Q: んん、んん、

I: 初めて、びっくりしたのは、会った瞬間に腕捕まえて、腕組んで。

Q: ああ、ああ

I: もうガチャガチャガチャ、もう、食べ食べ食べ、で、

Q: ああ、ああ、

I: すっごい勢いで押されることがあったんですけど、戸惑うけど、やっぱりそれだけ歓迎してくれてるのかなと思ったら。

Q: なるほど、そうですか。

I: ひいちゃいけないなと思って、もう喜んで喜んで、

Q: そうですか、そうですか、

I: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って感じで。

Q: そうですか、いやあ、あのあれこれよかったです、あの、今韓国語はどのくらい、だいたいお話しはもう、

I: 日常生活、

Q: ほうほうほう

I: で、まあそのへん買い物とかは普通にはできると思います

Q: そうですか、そうですか。

I: 簡単な会話ぐらいならできますけど、

Q: そうですか。向こうに行って生活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か？

I: ああ、すごくしたかったんですけどね、あの、一年間だけ留学もしたことがあるんですよ。

Q: あ、そうですか、

I: でも母がさっきも言った通り、あの、あと私は国籍も日本なんで、

Q: ああ、

I: 常にビザが必要なんで、戻ってくるじゃないですか。

Q: そっか、そっか、

I: で、10週間ずつの、

Q: うん

I: 4期、4学期あったんですけど、常に戻ってくるっていう感じで、

Q: うん、んん、んん、

I: もう戻ってきたら韓国語も忘れるんですよ。

Q: あ、なるほど

I: だから戻りたくないと思ったけど、やっぱり「顔をみないと心配だ」っていうことで、

Q: ああ、なるほどね

I: 戻ってきてて、で、あと一年、

Q: え、どっちが心配なんですか? お母さんが心配?

I: はい、「顔をみないと心配だ」って、

Q: あ、なるほどね、そうですね、

I: はい、で、その一年終わった後に、やっぱりなんか自分の中で思った以上にこう上達やっばできなかったのと、なんか学校に通ったんで、次はじゃあはちょっと働いてみたいなってせっかくなら。最後のですね、2ヶ月ぐらいかな、アルバイトだけしたんですけど、

Q: うんうんうん

I: そういう感じで、なんか学校じゃ習わないこととかもあるんで、こうやってちょっと、バイトかこう働いてみるっていうことしたいなと思って、もう一年行かせてくださいって言ったんですけど、「だめだ」って言われて、

Q: そうですね、お母さんに?

I: はい

Q: そっか、そっか。その一年の留学って何年前にされたんですか？

I: えっと、2003年のときに行きましたね、

Q: ああ、そうですか、2003年度に、

I: 2003年度ですね、

Q: あ、そうですか、

I: はい、

Q: あ、そうですか、

I: はい

Q: ふーん、それは大学の語学堂？

I: はい。でも在日が多いんですよ、日本人ですけど、

Q: じゃあ日本語話になっちゃいますよね、

I: そうなんですよ。

Q: ですね、どうしてもね。そっか、そっか、あの、そうですね、日本以外、そして韓国以外の国に住んでるコリアンの人達と、接触する、接する機会があったら会ってみたいと思われませんか？

I: そうですね、まあ機会があったらおもしろ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その全然考えてることも違うし、私が、何だろう、その実際今、家に、家を手伝ってるんで、そのあんまり外の人と会う機会もないんで、

Q: ああ、なるほどね、

I: そう、人に会うって言う機会がすごく好きなんですよ。

Q: そうですか。

I: はい、その特別相手が誰っていうのではなくて、

Q: んん、そうですね。

I: はい。なんでもやってみることは好きなんで、

Q: そうですね、

I: そういう何か、

Q: そうですね

I: しようとされてるんですか？

Q: ええ、あのですね、

I: ええ

Q: ちょっと今までの聞いた事の繰り返しになっちゃうかもしれませんが、  
なんかこんな感じの集まる場なんかがあったらいいなみたいなってなんか  
ありますなんかそんなイメージ？

I: イメージ

Q: それはまあやっぱさっき言ったみたいな、なんかあった時に会ってやっぱ話  
できるみたいな。

I: んー、そうですね、なんか、まずはやっぱりそのなんだろう、地域からやって  
欲しいんですよね、福岡のその民団がもうちょっと、こう、活気がね、あれ  
ば、いいんですけど、博多駅の民団子存知ですよね？

Q: 知ってます。

I: 暗いじゃないですか、で造りかえるて聞いたんですけど、

Q: あれ、なんか、県の、県の、県本部を作り変えて、

I: はい

Q：その中に福岡市支部も、

I：はい

Q：入るって話もあったらしいんですけど、まだ停滞してるんですかね、お金がないのかな？

I：ねえ、常にそうなんですよね、その費用がなかったりとか、暗いイメージがあって、なんかその暗さが嫌だなんて思うんですよ。もっとなんかいろんな事して、明るい雰囲気になっていって、私とかみみたいな帰化した人でも参加できるような、簡単に。で、まあその、はがきとか送るときにですね、多分国籍変わってたら、その登録がないんでその住所とかわからなくなってると思うんですよ、そのせいもあるみたいだけど、なんか、もっと参加しやすく、できたらきっと人も集まって、で、福岡が集まったら、その全国、九州で集まったり全国で集まったりなるじゃないですか。

Q：ええ、そうですね。

I：そうやってなんかちょっとずつ集まったら、

Q：そうですね。

I：うん、楽しいんじゃないかなと。

Q：あの、民団ね、どこも暗いんですよ。

I：ああ、そうですね。若者が集まればね、

Q：いや、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I：いえ、こちらこそ、おもしろかったです。

## (5) 香川里美さん

### 【要約】

#### 1. 生活経緯

福岡県生まれ。現在も福岡市在住。34歳・女性。在日3世にあたる。前に掲載した伊藤沙織さんの姉である。

短期大学（2年制）を卒業後、韓国の観光ホテルの福岡営業所で勤務。現在は日本の飲食関係の会社で働いている。

里美が家族で日本国籍にかわったのは、里美さんが中学1年生のときであった。そのとき里美さんは、日本国籍を取ることに決めた親に反発した。自分で決められなかったことがくやしかったと述べている。韓国籍には愛着があったという。そのときは20歳になったら自分で韓国籍に戻すとまで考えていたという。

祖母の生前、祖母が韓国の親族をたずねるときに頻繁にそれに付いて行った。20歳で仕事を始めてからは、その親族訪問と仕事のために年間3~4回は韓国に行っていた。「韓国は好きだ」と答える。韓国の「ケンチャナヨ精神」が好きだという。「いいよ、いいよ、なんとかなるよ」と言われているようで、また困難なことがあっても、なんとか乗り切っていけるという感じがするので好きだという。そう思えるようになったのは、韓国と日本の行来の中で、自分自身が変わっていったのかというと、「親から受け継いだものだ」と述べている。

叔父が民団で仕事をしていたこともあって、毎年夏にはオリニキャンプに参加していた。またクリスマスパーティーにも参加していた。そうした行事への参加は里美さんにとって楽しいものであった。「韓国の国家を習ったり、歌をうたったりすることが楽しかった」という。

法事などの韓国の風習については、「自然に小さい頃からそういう法事があったり、たとえば、あの、本国では違うかもしれませんが、お正月やお盆に親戚で集まって、みんなでそろってご飯を食べて、法事をして、お墓参りに行って言う流れをずーっとしてきたから」、きちんと残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考えている。なぜ、そのように、韓国の習慣などを大切に考えていきたいと思うかという問いに、「それは祖先が韓国人だからだ」と答える。

里美さんは以前、福岡からは遠い、関東地域に結婚して一時期住んでいた。しかしそうした遠方に住んでいるときでも、福岡で法事があるときには帰ってきていた。「それは親のことだから帰って来たかった。かならず帰って来たかった」と述べている。

こうしたことから、国籍は日本になっても、民族としてのコリアンであることを大切にしたいと考えていることが強くうかがえる。

## 2. 在外韓人ネットワークに対する考え

やはり、妹の沙織さんと同様、在外コリアンのネットワークに関心は示しながらも、日常的なさまざまな事柄を相談しあえるようなつながりを里美さんもやはり求めている。里美さんは以下のように言う。「普通に日本のお友達とは違う、

なんていうか、つながりみたいなものはある気がするので」と。日本国籍を持ち、自分から民族的出自を言わなければ支障はないわけだが、日本人の人々とはちがう独自の民族のつながりを求めているといえる。

**【調査結果】**

調査は2007年9月24日実施。「Q」は筆者、「K」は香川里美さんである。

Q：おいくつの時に籍は日本国籍になられたんですか？

K：中学一年の時だったと思うので、

Q：あ、そうですか。

K：13歳ですかね。

Q：そうですか。じゃあそれまではそのお婆様がおられたりとか、ご両親の影響で、やっぱり韓国人であることを意識して

K：そうですね、そのあの叔父が民団で働いていたこともあって、

Q：ええ

K：夏になるとオリニキャンプがありましたからそれには毎年

Q：そうですか

K：クリスマスパーティーとかもあればそれに行っていましたから

Q：そうですか。そういう場合はいかがでしたか、楽しかったですか？

K：そうですね、楽しかったですよ。あの韓国語の国歌を習ったりだとか、歌を歌ったりだとかするのが

Q：同じようなやっぱり同年代の人と

K：そうですね。

Q：そうですか。じゃあ日本籍に変えるんだって言われた時にはどういうお気

持ちでしたか？

K：ああ、そうですね、あの、一人で怒ってました。あの相談もなく私の籍を日本に変える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ことだっていうみたいな感じで

Q：そうですか。

K：はい

Q：じゃあ韓国籍っていうものに対しては愛着がございましたか？

K：そうですね。あったと思いますけど。

Q：そうですか。

K：はい。で、勝手に親の都合で日本籍に変えられてしまったから

Q：ええ

K：その中学生の私は

Q：ええ

K：「二十歳になったらじゃあ自分で戻す」

Q：あっ、ほーう

K：って言ったんですけれども、「あんたもどしてもその後はまた日本人にもうなれないよ」って言われて、

Q：ああ、なるほどね。んん。

K：手続き上の問題が、ずっとね、どうしてもね、

Q：そうですね、あれ一回日本籍に戻したら

K：簡単にはまた

Q：そうですね、ですよ、確か

K：日本籍の取得はできないっていうのを聞いて、

Q：ええ、そうですか。

K：まあそれ、その後は、まあ、大人になってからですけど、籍はあんまり関係ないかなっていう気は、自分の気持ち次第な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

Q：うん。なるほど。あの一、国籍っていうことではなくて、あの、ご自身としては、まあ、韓国のルーツっていうか、韓国人、民族としてそういうのを、なんていうか、どういう形で大事にしたいなって思われたんですかね。

K：んー。そうですね。あんまり深く考えたことはないですね。

Q：んー。でも、やっぱり、あの一、何かしら大切にはしたいなと思われたことはありましたか

K：そうですね。

Q：そうですか。先ほどの妹さんの話でもやはり、お母さんはちゃんとこうしてきた、ちゃんとされるっていう、で、

K：ああー、はいアバウトですけどね。はい。

Q：あの一、妹さん自身もこういうことはちゃんと残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って言うておられて、

K：はい、うんうんうん。

Q：あー、そうかとか思って、やっぱりそういう点とか、

K：そうですね。やっぱり自然に小さい頃からそういう法事があったり、たとえば、あの、本国では違うかもしれませんが、お正月やお盆に親戚で集まって、みんなでそろってご飯を食べて、法事をして、お墓参りに行って言う流れをずーっとしてきたから、

Q：うん

K：しなくちゃいけないというか、

Q：うん

K：なんか、我が家やこのスタイルでっていう感じがするからですね。

Q：うん。

K：もともとその、おばあちゃん、おじいちゃんの代のやり方とは少し変わってきて、私の母親のやり方には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けど、でもその同じ気持ちで一応しているとは思いますが。

Q：そうですね。まあ日本にはそういう、まあ、習慣ていうか、

K：うん、

Q：あんまり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

K：そうですね。

Q：それはやっぱり大事にしていきたいって言う風に思われるんですね。

K：ええ。そうですね。

Q：あの、お聞きしたいんですけども、今ご結婚相手というのは日本人の方ですね。

K：はい、そうですね

Q：ですよね。そこら辺のそういうお気持ちで言うのはいかがですか？ご理解、

K：そうですね。普通にあの、

Q：そうですね。

K：受け入れてもらえますし。

Q：あの、立ち入ったことですが、そういうご実家の法事の場合なんかでは旦那様は

K：ああ、来ないですね。

Q：ああ、そうですね。

K: 今住んでいるのが遠方だということもあって。私も以前は遠方に住んでいたんですが、頻繁に福岡には帰ってきていました。はい、それはやはり自分の親のことでもあるので、

Q: うん。なるほど。そうですね。

K: だから必ず、行きたいという気持ちで行きました。

Q: そうですね。例えばその先ほど聞いた、妹さんの話にしてもお姉さんはそしたらですね、そういうのをやっぱりあの、さきほど日本籍に勝手に変えられた事に抵抗があったといわれていましたが、韓国人であ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マイナスのイメージとか、嫌だっという気持ちはなかったですか？

K: あまり小さい頃から、そういう意味での、在日でとかのいじめとかを受けたことがなかったですし、

Q: ふーん。それはやっぱり民団とかの場があって、同じそういう在日同士の、場がやっぱりあったっていうのが大きかったんですね。でもそれは日常じゃないですよね？

K: はい日常じゃないです。

Q: で、ご自身の身の回りで、在日韓国人に対する差別的な、まあ言動とかそういうものはとくにはなかったですか？

K: うーん、記憶がある限り、1回だけですね。

Q: あ、そうですね。それはご自身に言われたことではなくて、そういう話、

K: 私に直接言ったのではなくて、

Q: ええ

K: 話の中で、その朝鮮人は、みたいな、がでてきて、

Q: んんん。あ、そうですね。

K: すごく頭にきて、

Q: そうですね。

K：喧嘩したことがありますけど、

Q：そうですか。

K：小学生の頃ですけど。

Q：そうですか。あの、ずーっと在日であるということは周りに言ってきました、こられましたか？

K：そうですね。姓が日本名、っていうこともあって、

Q：うん、

K：改めて発表しないと、

Q：うん、

K：わからないじゃないですか。

Q：ええ、ええ

K：だから、あの仲が良くなった友達とかに言ってましたけど、いまいち理解してもらえないんで、

Q：うーん。ですよ。

K：それとハーフであるとは思われていました。

Q：なるほど

K：まともに2世同士で結婚しているというのが

Q：なるほど、

K：理解してもらえないですね、なかなか

Q：あの、そういうその、ま、韓国の習慣とか、あの、在日独自の習慣とか、そういうものを、やっぱりまあ、大切に考えていきたいって

K：ああ

Q：思われる背景とかなぜそう思うようになったのかなっていうのはなぜかなと思われませんか？

K：まあ自分の祖先が韓国の人だからじゃないですか？

Q：んん、でも、僕みたいに、環境の中でそれが嫌だと、

K：ああ、うんうん。

Q：あの、おばあさんの存在が自分にとって大きかった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

K：ああ、大きいですね。

Q：あ、そうですか

K：韓国のそのおばあさんの、祖母の生家に

Q：ええ、

K：に行ったんですけど、すごく楽しくて、

Q：そうですか。

K：田舎の生活が

Q：んんん

K：3日くらいしかいなかったですけど、そのときは

Q：んんん

K：何回も、何回行ったかな、、、4、5回行きました。田舎の方に。

Q：そうですか。そういうときはやはり、行った時に「ああ、よくきたね」と

K：ああ、そうですね。

Q：受け入れてもらえるっていうあれがすごくあれですよ

K：まだあの、祖母の弟が住んでましたから

Q：なるほど。そうですか。

K：そうですね。実際に今でもその祖母の弟家族は韓国に住んでますから、そういうところが大きいのかもしれませんね。

Q：うん

K：全く親戚が今どこにどうしてるのかもわからないというのではなくて、ちゃんとルーツの、その、まあ父方は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

Q：うん

K：母方の祖母の両親のお墓だとか、

Q：ああ

K：そういう生家だとかあったりするというのがそう思わせ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ね。

Q：ああ、そうですか、あの10年前まで生きておられたお婆様は、あの、お母様の

K：はい、母の

Q：そうですか。お父さんのご両親は

K：は、もうええと、何年前でしょうね。それこそ母親が、母が結婚する前にはもう

Q：あ、そうですか

K：父親が二十歳ぐらいのときに母が亡くなってまして、もっと、もっと若い、中学生かそれぐらいのときに父親が亡くなっちゃっていると聞いているので、

Q：あ、そうですか

K：父方の父の父母は全く知らないですね。

Q：そうですか。

K：はい

Q：なるほど。あの、これは私、伺っていい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ご自身が、  
まあ結婚相手っていう人を

K：はい

Q：探されるときにやっぱり、そこら辺は考えられました？

K：あー、はい。その若い時に

Q：はい

K：その青年会ってあるじゃないですか。

Q：ええ、ええ。

K：あれにも参加してたので、

Q：ああ、そうですか。

K：青年会の中で知り合った方がいて、で、あの、今の主人とはもう付き合いが  
ずうっと長かったので

Q：ふーん

K：その間にその子達と出会うんですけど、その人達と結構、仲良くなって、そ  
の人達ともし結婚することがあったら、私は韓国籍の血を受け継いでいくこ  
とができるんだなと思ったし、その血を絶つ事も、日本と韓国ではなく  
て、っていうことはできるんだなっていうとは考えてました。

Q：あ、そうですか。

K：んん。

Q：で、その当時はそうなったらいいなみたいな感じは思っておられた

K：んん。それもありましたね。

Q：そうですか。

K：そう思ったことも。

Q：そうですか。あの、今はもうそういう在日同士のつながりの場には行っておられませんですか。

K：行ってないですね。でもその当時のお友達がまだいますから、

Q：あ、なるほど。

K：時々連絡したり、会ったりはしてます。

Q：あ、そうですか。

K：はい。

Q：あの、これも全然別の方にお話を聞くとですね、あの若い時の、あの二十代の時の集まりだけじゃなくて、その年齢、年齢でやっぱりなんかお互いに持っているものを

K：はい、そうですね、はい

Q：相談しあいたい場があったらいいなと思うと

K：ああ

Q：結婚、恋愛、結婚、子育て、とかですね

K：みんな同じ悩みですからね

Q：ええ、そんなに大そうな、あの一、集まりではなくてもですね、

K：はい

Q：そういうような場をなんか、時々連絡を取り合えるみたいな、そういう、こう、コーディネートみたいなもんですね、

K：うんうん

Q: あったらいいなと言ってましてですね。

K: うんそうですね、

Q: やっぱり、なんかそういう相談しあえる相手っていうのはいたらいいなと思われませんか。

K: 普通の、普通に日本のお友達とは違う、なんていうか、つながりみたいなものはある気がするので、

Q: なるほど。

K: その、在日の友達は友達で好きですね。

Q: へええ。そうですか。

K: その、若い時に会ってて、

Q: ええ

K: お互いにもう結婚して子どもとかがいたりするわけなので、

Q: ええ

K: 子連れで同窓会じゃないですけど、

Q: ああ、いいですね

K: やりたいね、って言ってて

Q: そうですね。

K: そうなると、また子どもたちが、今でもオリニキャンプがあってるなら参加させたりして、会うことができるじゃないですか、

Q: なるほど

K: なかなかね、最近はなくなってきているみたいなんで

Q: そうなんですよ

K: まあ、私たちのような在日であっても帰化したりとかして、民団から離れたりとかする人が増えてるからなのかもしれないですね。

Q: そうですよね。なんかあの、こんな言い方おかしいですけど、珍しいとおもいますよ。逆にですね、お話伺わせてくださいって言ってですね、で、あの、こういったニュアンスで聞かせていただいて、逆にやっぱり日本籍とるのは、まあ差別とかもやっぱあってですね、

K: はい

Q: あの、今後ですね、ちょっと子どもさんとの関係でもそうですが、ご自身として、コリアンのルーツっていうものを、なんかどういう風に大切にしながら、たとえば、どのような集まりであれば参加されたいと思われますか? どういうスタイルで、やっていかれるのかなと。

K: うーん、今までもそう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多分おいしいところの見なんですね、

Q: うーん

K: ガチガチなところには参加を強制的に課せらるわけでもないし、

Q: うん

K: 自分が参加したいときだけ、のような感じで今まで来てるんで、

Q: うん、なるほど、その

K: うん、うまい具合に付き合っただけじゃないですかね。

Q: ああ、なるほど、そうですね。

K: うん

Q: あの、そのおいしいところっていうのはどんなところですかね?

K: は、なんでしょうね。いや、こういう、対密な友達同士の集まりが楽しかったからでしょうかね。

Q: そうですね、楽しかったでしょうね。そうですね。じゃあ、あんまり、ガチ

ガチっていうか拘束を受けるような集まりっていうのは苦手ですよね？

K：あはは、そうですね。

Q：そうですね。

K：なんかこう、例えば、ね、大きい会議場で、会議します、みたいな話だったら行か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ですね。

Q：そうですね、形式的になってしまいますもんね

K：あはは、そうですね

Q：あ、そうですね。そうかあ。あの、今ご自身で韓国料理とか作られたりします？

K：ええーと、母がお店しているので、

Q：はい

K：一緒にチゲ作ったりとか、韓国っぽく味付けして食べたりとか。

Q：はい。そうですね。今は夜はやっぱりお店の手伝いとか行かれることが多いんですか？

K：そうですね、でもあのずっと子どもがいて、こうやって別に仕事もしてるので、お店にはご飯食べたり、顔出したりする程度で、

Q：そうですね

K：平日はあんまり行きません。週末はけっこう手伝ってますけど。

Q：子どもさんはお一人ですか？

K：はい

Q：おいくつですか？

K：今四歳半ですね。

Q：四歳半、で、あの男の子？女の子？

K：女の子です。

Q：女の子ですか

K：ええ

Q：四歳半、かわいいですね。

K：はい

Q：かわいいですね、そうですか。

K：その子を韓国にも連れて行くんですけど、そのおじいちゃんと呼んでるんですけど、祖母の弟ですよ、ね、「ハラゴボジ」って言って、「ハラボジ、ハラボジ」って追っかけて

Q：そうですか

K：「もうあなたこのまま韓国に残りなさい」って言って言われて。かわいがられて。

Q：そうですか。

K：で、妹がやっぱり、韓国語を勉強したことで、

Q：ええ

K：で、しかも韓流ブームで家の中でよく韓国ドラマをよく見てるじゃないですか。

Q：ええ、はい、はい

K：だからちょっと、こう、韓国語に興味があるみたいで

Q：はい、子どもさんですか？

K：はい

Q：ほーう

K：「おやすみ」って何て言うの？って言ってきたりして

Q：へええ

K：妹に、私は知らなかったので、「何て言うത്？」って聞いたら「チャルジャヨ」って

Q：へええ

K：わざとね言っていたりします。

Q：そうですね。あの、これもなかなか、さっきも言いましたように、その年齢、年齢に従った形、合った形で、そんなに強い縛りではなく、

K：うんうん

Q：しかしまあ、まあ近いところの同じコリアン同士とか、あるいは、それがちょっと広がって、他の地域とか、

K：うんうんうん

Q：まあ、あるいはもし他の国のコリアンの人達なんかと

K：ああー

Q：接するような場が

K：うんうん

Q：もし持たれたら、そういうのに参加してみたいと思われませんか？

K：そうですね、おもしろ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

Q：んー。それもやっぱり、お母さんの中のそういう風な集まりなんかがあったりしたらまた面白いですね。

K：そうですね。

Q：そうですね。今は在、他の国のコリアンの方とかのお友達はおられますか。

K：いや、いないですね。

Q: あ、そうですか。韓国に友達はおられますか？

K: いや、いない、です。

Q: あ、そうですか。

K: 在日で、

Q: 在日で

K: 福岡のお友達ならいます。

Q: そうすると、やっぱり子どもさんにも、あの何かしらそういう韓国のルーツが少し流れてるんだよっという、そういうものはあの、伝えていきたいし、

K: そうですね

Q: あの、それなりにやっぱり大事にしていってほしいなって思われることがありますか？

K: 知っというて欲しいと思いますけど。

Q: そうですか

K: うんうん。だからね、できる限りその韓国の田舎の方にも、これからもね、機会があれば行きたいなと思ってます。

Q: そうですか。今日はほんとう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 (6) 川村弘一さん

### 【要約】

#### 2. 生活経緯

福岡県生まれ。現在も福岡市在住。29歳・男性。在日3世にあたる。現在77歳の祖父は5歳のときに日本に渡ってきた1世であり、1957年ごろ、祖父がおこなっていた建設業の商売上の理由から、祖父母夫婦が日本国籍を取得した。日本

国籍を取得した在日韓国人の中ではかなり早い時期に取得した家族である。

弘一さんは大学を卒業後、イギリスに留学する。そこでホテル業の勉強をした。日本に帰国後、福岡県内のホテルに就職。数年前から家業である、建設業の仕事を手伝っている。

弘一さんの家の建設会社は福岡県内でもかなり大きな会社の一つである。公共機関からの受注も多い。数年前から、韓国における仕事も手がけるようになった。そのため、弘一さんは、多い時には1か月に3~4回、韓国に行くという。韓国の親族との関係は以前から頻繁にあった。韓国における仕事の話を紹介したのも親族であったという。

祖父は仕事に一生懸命であったため、弘一さんの父には民族文化はほとんど教えなかった。というより、祖父自身が5歳で日本に渡ってきたため、自らも民族文化からは小さなころ離れ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が、その背景ではないだろうか。そのため、弘一さんの父は民族文化にはほとんど関心を示していないという。

しかし数年前から、祖父が民団の韓国語教室で韓国語を勉強し始めた。5歳までの韓国における記憶と、祖父の両親との生活体験から、韓国語は少しではあるが理解できたという。その祖父に付いていく形で弘一さんも韓国語を学び始める。

最初は、祖父につきあって勉強していた韓国語であるが、韓国との仕事が増えるにしたがって、弘一さん自身、韓国語会話の必要性を感じるようになり、今では自分ひとりで韓国語教室に通っている。

家庭での料理は日本式が主流であるという。法事などの行事の時に韓国式の料理は並ぶ。韓国の音楽やドラマにも関心はない。しかし、祖父は長男であり、韓国に一族の墓もあることから、韓国の墓や土地は自分が管理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感じている。そうした意味で、仕事上も親族関係でも韓国とのつながりは今後も保ち続けるだろうと考えている。恋愛や結婚については国籍はどこの人でもよいと考えている。

### 3. 在外韓人ネットワークに対する考え

仕事上や親族関係のつながりで韓国とは関係を持ち続け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るが、在外コリアンのネットワークについてはとくに強い関心は示していない。

#### 【調査結果】

調査は2007年9月24日実施。「Q」は筆者、「Y」は川村弘一さんである。

Q：あの、それで、えっと、川村さんご自身はですね

Y : はい

Q : あの、今ご年齢はおいくつなんですかね？

Y : 今年で29になります。

Q : あ、29歳ですか、ああなるほど。あの、ええと、ご家族で以前に日本籍をとられたっていう。

Y : そうですね、あの、一番最初は、祖父が、まあ、5歳の時に日本に来たんですよ。

Q : はい、はい、あ、そうですか。

Y : その時はまだ韓国籍だったんですよ。

Q : ええ

Y : で、うちがこの建設会社を経営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

Q : はい、

Y : 祖父の代から

Q : はい、はい

Y : やっぱり韓国籍のまんまやったら

Q : はい

Y : 仕事もとれないんですよね。

Q : あ、なるほど、はい

Y : うん

Q : そうですか。

Y : それで、ま、日本籍に移して

Q：はい

Y：それで仕事は取れるようになって

Q：はい

Y：今にこう至っているわけですよ。はい。

Q：それで、いつごろおじいさんは日本籍を取られたんでしょうか。小さい頃ですか？

Y：50年前くらいだと思いますけどね。

Q：あ、かなり前ですね

Y：そうですね。

Q：そうすると、1957年くらい、戦後すぐくらいですね。

Y：だと思いますね。最初は小さかったですもんね、

Q：あ、そうですか。

Y：会社ができて、50年くらいってものを一回聞いた事があるから、

Q：あ、なるほど

Y：はい

Q：じゃ、会社を始められて、やっぱりし始めたけれども、

Y：はい

Q：韓国籍ではなかなか難しいと、

Y：難しいですね、

Q：っていうことで、変わったと、

Y：はい

Q：なるほど、そうですか。

Y：それがなかったらもう韓国籍のまま来てたっていうのも言ってますもんね、祖父は。

Q：なるほど。その仕事のこととかなければ。

Y：はい、だから一番最初は、えっと、祖父と、

Q：はい

Y：ま、祖父のお母さんの、僕からみてお婆ちゃんにあたるんですけども

Q：はい

Y：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と兄弟も一緒にいたんですよ

Q：はい、はい

Y：で、この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だけ最初に日本籍をとって、

Q：はいはい、そうですか。

Y：この二人がまず最初だったんですよ。

Q：そうですか。あ、お二人だけで

Y：はい、

Q：えっと、その、えっと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はもちろんお父様方の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ですよ？

Y：はい、そうです。父方の

Q：そうですよね。で、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はご健在ですか？

Y：まだ、はい。

Q：あ、そうですか

Y : 今77ですね。

Q : あ、そうですか。そうですか。で、えっと、お父様も、お母様も韓国人の方ですか？

Y : そうです。

Q : あ、そうですか。

Y : はい

Q : ではもう今はご一家で日本籍を取られてると、

H : そうです。

Q : そうですか。

Y : みんな日本籍ですね。

Q : そうですか。そうすると、あの川村さんご自身が

Y : はい

Q : 日本籍をとられたのは、お父様達がとられた時に、ってということですか？

Y : そうですね、だから生まれた時から

Q : あ、そうですか

Y : はい

Q : 生まれた時からですか。

Y : はい

Q : なるほど、そうすると、もうあの物心ついて、えっと、学校に行ってる時から

Y : はい

Q : ご自身が、韓国人のまあ血というか、

Y：はい

Q：あったということは意識はされておられましたか？

Y：いや、昔は全然なかったです。

Q：あ、そうですか、

Y：はい、ええと、うちであの盆と正月とご法事をするんですよ

Q：ええ

Y：こう、まあ本場とはだいぶ違うと思いますけど、

Q：ああ、いえいえ、はい

Y：で、それでやっぱ小学校の時、「明日法事があるから何とか」とかいうじゃないですか、

Q：あ、はいはい、なるほど

Y：そうすると、やっぱこう、ちょっと反応が違うんですよね。

Q：あ、なるほど、あの周りの友人ですか？

Y：はい

Q：あ、そうですか

Y：「誰か亡くなったのか」、とかそういう感じですよ、はい

Q：ああ、そうですね、

Y：で、なんか違うなーっていうのは思ったけど、

Q：ええ

Y：そこまで意識はしてなかったですね。

Q：そうですか。

Y：はい

Q：そこらへんは確かに日本社会の法事っていうものと違いますもんね。

Y：そうですね

Q：だいたい年に何回くらいやっておられましたか？

Y：2回ですね。正月、盆。

Q：あ、お盆と正月ぐらいですか。

Y：あ、はい。

Q：そのへんは、けっこう、あの形式的には、けっこうまああの、料理をたくさん並べられて、

Y：そうですね。

Q：そうですか。

Y：こう広い机出して、

Q：ええ

Y：まあ料理をこう並べていって

Q：ええ、ええ、ええ

Y：あとは、この紙に書いて三代上までするじゃないですか、

Q：ええ、ええ、ええ三代上まで

Y：こう名前書いて

Q：ええ、えええ

Y：屏風っていうかあれに貼って、みんな礼して、

Q：へえ、なるほど、はいはいはい、

Y：けっこう簡単なやり方だと思いますけど、

Q：いや、僕も同じような感じですね。

Y：はい、

Q：あ、そうですか。じゃああの昔の本名のお名前とか、本願とか

Y：そうですね

Q：そういうのを書いて

Y：そうですね

Q：ちなみにもとごとく本名とかは、名字

Y：本名

Q：あ、本名っていうか、おじいさん達の

Y：はい

Q：元々の名字っていうのは何ですか？「朴」とか「李」とか

Y：「河」だと思います。

Q：あ、そうですか。あの、韓国の方では親戚はどちらの方に多く集まっておられるんですか？

Y：けっこう散らばってるけど、昌原（チャンウォン）、

Q：あ、昌原（チャンウォン）とか、

Y：釜山（プサン）とか、多分その辺りだと思いますね。

Q：あ、そうですか。

Y：で、田舎が昌寧（チャンニョン）って言うところなんですよ。

Q：昌寧ですか、あ、そうですか。

Y：ええ、ええ、丁寧の「寧」って書いて、

Q：なるほど。あの、「昌」にですか？

Y：そうです。「昌」に

Q：あ、なるほど

Y：そこで、うちの祖父が生まれたんですよ。

Q：あ、そうですか。

Y：はい

Q：行かれたことがあります？

Y：何度か行きました。

Q：あ、そうですか。で、向こうの親戚とも

Y：そうです。顔合わせはして、はい。この人が誰誰って、そういうのも教えてもらって。

Q：そうですか。

Y：はい

Q：それは初めて行かれたのはいつぐらいですか？

Y：一番初めて行ったのが多分、高校の時だったと思いますね。

Q：そうですか。

Y：10年ちょっと前ぐらいですね。

Q：そうですね。行かれる時の、「行こうか」って言われた時のお気持ちとかどんな感じでしたか？

Y：んーどうですかね、けっこう旅行気分だったと思いますけどね、その時は。

Q：あ、なるほど。

Y：はい。何の意識もしてなかったし、

Q：あ、そうですね。

Y：はい

Q：どうぞ。すみません、なんかあの、

Y：いえいえ、

Q：あの、聞いてばかりで申し訳ないです。

Y：いただきます。で、その、

Q：はい

Y：祖父の生まれ故郷に、今親戚が住んでるんですよ。

Q：あ、そうですね。

Y：向こうに家を建てて、

Q：そうですね、向こうでその親戚の方々と会われた時のお気持ちとかはいかがでしたか？

Y：最初はやはり、「韓国のおじちゃん」って感じでしたけどね。

Q：そうですね

Y：もう今は親戚として意識して見てますけど、

Q：そうですか。その、それまでは韓国人っていうかその血をひいてるっていうか、あんまり意識はしてなかったと、

Y：はい、してなかったですね、昔は。

Q：そうですか、で、その親戚方とも会われて、その後いかがですか？ご自身っていうものに対するその、捉え方っていうものはなんか、

Y：やっぱりルーツは韓国にあるっていうのは思い出しましたね。

Q：あ、そうですか。

Y：はい

Q：そうですか。んー、じゃあ、それまでの全然意識してなかった事とはちょっと変化が

Y：変わったと思います。

Q：そうですか、そうですか。

Y：まだ一年足らずですけど、あの、ここに入ってから、まあ向こうに、韓国に行って、

Q：ええ

Y：まあお墓があって、

Q：ええ、

Y：ここは誰誰のお墓だ、とか

Q：ええ

Y：あとあのチョックボっていうんですかね

Q：ええ

Y：家系図見せてもらって、

Q：ええ、ええ、ええ

Y：僕は三十何代目とか

Q：ええ

Y：そんな話を聞いたのがもうつい最近なんですよ。

Q：あ、そうですか

Y：はい

Q：そうですか、

Y：それまでは、もう普通の生活して、

Q：ええ

Y：日本の文化になじんで、

Q：そうですか。

Y：ですね、

Q：そうですか

Y：はい。

Q：そういう家系図とか見たりした

Y：はい

Q：そういうその、自分の韓国のルーツっていうものを、どう考えてって言うか、その、例えば、大事にできたらいいとか、どんな風に感じておられますか？

Y：やっぱ昔からずーとあって、もうその家系図も一代からずーとあるじゃないですか、

Q：はい

Y : で、僕がもう直系なんですよ。

Q : あ、

Y : 直系の長男で

Q : ふーん、そうですか。

Y : だから大事にしないといけないですよ。はい。

Q : あー、なるほど。

Y : で、お墓も、もう即行、何て言うんですかね、管理しなかったらなくなる  
じゃないですか、

Q : はい

Y : まあそういうのしていこうかなとは思いますが。

Q : そうですか。じゃああの例えば、お父様が、まあ一線退かれて

Y : はい

Q : そこら辺のところを弘一さんにお任せになられた後は、まあ時々向こうに行  
かれて、

Y : そうですね。

Q : 管理とかを。と、ご結婚はまだ？

Y : まだ、してないです。

Q : そうですか。あの、もし今後、お相手を探す場合に、

Y : はい

Q : いかがですか？相手は日本人の方、在日の方、あるいは日本籍の方、

Y : こだわってはないですけどね、

Q：そうですか

Y：はい

Q：そうですか

Y：良い人がいたら、

Q：良い人であれば

Y：はい

Q：っていうことですね。

Y：でもやっぱり祖父とかは、韓国の人ですかね、

Q：そうですか、それは

Y：がいいっていうのは言いますけどね。

Q：それは向こうの韓国の方っていうのではなくて、

Y：いえいえ、そういうのはこだわりなく、

Q：なくて、

Y：韓国の血をひいてる人ですね。

Q：あ、そうですか。

Y：でもまあ、「僕が選んだ人だったら誰でもいいよ」っていう、そういう言い方ですけどね。

Q：そうですか、今おじいさんもまだ、お仕事を一緒にされているんですか？

Y：まだ、はい元気でしてます。

Q：そうですか、で、お父さんも

Y：はい、父もしてます。はい

Q：もちろん、されてますよね、あ、そうですか。

Y：で、父はもうほとんど仕事ばかりやから

Q：んん。

Y：もうあんまり遅くからこう、何て言うんですかね、韓国の事もあんまり聞いてないから、

Q：んん

Y：父を通り越してこう僕に来てるんですよ、今。

Q：あ、そうですか。

Y：はい。

Q：あ、そうですか、お父さんはあんまり、その韓国のことにご関心っていうか、

Y：そこまではないみたいですわね。

Q：あ、そうですか

Y：でも昔から、まあ祖父もそうだけど、仕事ばかりで、

Q：うんうん

Y：もう韓国のことに気を注ぐっていうか、なんか関心する暇もなかったと思うんですよ、昔は。

Q：そうですか。そうですか。

Y：食べるために仕事するっていう

Q：なるほど

Y：そういう感じでしたから。

Q:そうですね

Y:お父さんは今おいくつですかね?

Y:は今57ですね。

Q:そうですか。二世ですよ?

Y:二世です。

Q:ですね。あの、お父様を支えられたお母様も

Y:はい

Q:あの弘一さんも

Y:はい

Q:もうずっと日本の学校でずっと教育を受けられてましたですか?

Y:日本の学校ですね。

Q:民族学校じゃなくて、もう日本の学校で

Y:そうですね。

Q:そうですか。

Y:母もそうだと思いますけどもね。

Q:そうですか。

Y:中学校くらいは、もうこっちの中学校ですね。

Q:そうですか。

Y:はい

Q:あの、お父さんもお母さんもあの、福岡生まれですか?

Y : 母は山口です。下関です。

Q : あ、そうですか、そうですか

Y : はい

Q : そうですか。弘一さんはもう福岡でお生まれになった

Y : 僕は福岡です。

Q : あ、そうですか、なるほど、そうですか。

Y : はい

Q : 今住んでおられる所ってけっこう周囲に在日多いんじゃないですか？

Y : 箱崎。なんですよ。

Q : はい

Y : 今は。でも、そこまでは

Q : あんまりその接点とかはないですか、

Y : 接点はないですね、全然。

Q : あ、そうですか。

Y : はい

Q : じゃあ、あのおじいさんもお父さん達もその民族団体とこう、つながりがあるとか、そういうのは

Y : ないですね。

Q : そうですか。

Y : 最近あの、韓国語を習っているから、

Q：はいはいはい。

Y：その民団に、行ってるんですよ。

Q：あ、そうですか。

Y：はい。あのきっかけは。

Q：あの、でもおじいさんは韓国語はどうなんですか？

Y：もう今はだいぶ堪能にしゃべれますよ。

Q：そうですか、あの習い始めた頃は、でもまだ

Y：いえ、あの独学でしてたみたいですね。

Q：あ、そうですか。

Y：はい、で、もともと向こうで生まれて、5年間くらい育ってるから、ちょっと覚えてて、

Q：あ、5歳の時にお渡りになってきたんですか。

Y：そうです。

Q：じゃあ、おじいさんの

Y：と

Q：ご両親に連れられて

Y：そうです。そうです。

Q：はあ、じゃあ、あの、それこそ、体験としては、もう上の世代の、二世に、っていう感じではありますね。

Y：そうですね

Q：日本で大半を過ごしておられるんですね。なるほど、じゃあ韓国語っていう

のは耳からは知ってるけども、あまりこのあの、詳しく勉強されたというご経歴はないわけですね。

Y：それはないと思います。

Q：なるほど、そうですか、いや、うちの母も、うちの母は広島のみまた二世ですけど、また耳からだったんですよ。

Y：ああ、はい

Q：ああ、そうですか、で、今は、初めはまあおじいさんにまあ付き合うっていう形で行かれて、

Y：はい

Q：今は川村さんご自身も自分もやっぱり覚えたいなっていう

Y：言葉ですか？

Q：はい

Y：そうですね、やはり、しゃべれないと、不便ですもんね。

Q：なるほど

Y：実際向こうに行って

Q：行ったときに、やっぱりそれは親戚との交流っていうこと

Y：もあるし、

Q：ええええ

Y：まあ、あと今向こうでも仕事を探してるんですよ。

Q：あ、そうですか、それはこの会社の仕事

Y：会社の仕事で、はい、それでちょこちょこ行ってるんですけど、

Q：なるほど

Y：やっぱりそういう時も言葉は使うし、

Q：なるほど、そうですね。では、あの、向こうのそういう仕事を受注したりとか、

Y：受注できたらいいなって感じで動いている段階ですよ。

Q：なるほど

Y：はい

Q：今までは韓国との取引はされたことは

Y：全くなかったです。

Q：そうですね。韓国は今どうなんでしょう？あの、まだそういう建設、建設っていうか、ラッシュというか

Y：ラッシュではないと思いますけどね。

Q：もう一定を飛び越しましたかね。

Y：ほとんどもう大手ばかり、が仕事を取るっていう、

Q：なるほど

Y：っていう話はしてましたけどね、

Q：そうですね。

Y：なんか釜山港が移るっていう

Q：ほーう。

Y：あそこに釜山の港に、

Q：はい。

Y : コンテナターミナルっていつ

Q : ありますね。

Y : どんどん届いてるじゃないですか。

Q ; ええ、ええ、ありますね

Y : あっこれが今足りないって言ってるんですね

Q : 拡大するんですか？

Y : あの、場所を移して、鎮海（チネ）っていうところ

Q : 鎮海

Y : 鎮海（チンカイ）「鎮める」、「海」と書いて、

Q : はい、なるほど

Y : あそこの港に

Q : へえ

Y : また、新釜山港っていう名前で

Q : そうですね

Y : してるみたいですね。

Q : そうですね。

Y : はい、もうだいぶ進んでましたよ、埋め立てて、

Q : そうですね

Y : はい、あそこの仕事をとれたらいいなって言ってるんですよ、今。

Q : そうですね。今、年に何回くらいの回数で行っておられますか？

Y：今はですね、月に4回行ったりしますね。多いときは。

Q：一週間に一回くらいですね。

Y：そうです。もう全部この仕事の関係なんです。それは。

Q：へえー、で、向こうに行かれて誰に会われますか？

Y：もう仕事の人ですよ。

Q：へえー、なんか行政関係ですか？

Y：いえ、

Q：会社、むこうの、

Y：会社もありますし、あの、区画整理という仕事なんですよ。

Q：んー、なるほど

Y：だから向こうの地主さんに会ったりもするし、組合があるから、その組合長だったり、

Q：へえ、でも向こうも当地の人を仲介せずに直接は難しいんじゃないですか？

Y：難しいですね。でも、やっぱり向こうに親戚もいるから、

Q：あ、そういうのを通して、

Y：で、その人が動いてくれて、やっぱり一番最初は、話が来たのはその親戚からなんですよ。「こういう仕事があるけど、どうだ？」っていう感じで。

Q：ありがたいですね。

Y：そうですね。

Q：ありがたいですね、それは。いや、そら年に何回か単に、あの単についていうか、あの、法事の時に会うだけでもいいですけども、今もそういうつながりが作っていけるっていうのはいいですね。

Y :そうですね。

Q :それはいいですね、うらやましいですそれは。そうですか。

Y :最初はその、家の事で行ってたんですよ。お墓見に行ったり、

Q :あ、そうですか、はい。

Y :で、その田舎に家を建ててみたり、

Q :はい

Y :そういう事をしてたらやはり、親戚からちょっとしたこう、会に来るじゃないですか。

Q :はい、はい、はい

Y :そこから話が少しずつ膨らんで

Q :ええ

Y :で、今に至っているわけですね。

Q :そうですか。それはすごいな。うらやましいな。ええと今韓国語ほどの程度進んでおられますか？

Y :まだ全然ですね。

Q :通われて、まだ一年ぐらい。

Y :まだ一年なってないですね、まだ。

Q :あ、そうですか、簡単な会話とかぐらいですね？

Y :もう身振り手振りですね、まだ。

Q :あ、そうですか。

Y :はい。

Q：でも、頻繁に行かれて、必要性をその度に感じておられたら、やっぱり勉強に身がはいるでしょうね、やっぱり、

Y：んん、早く覚えなきゃいけないと思いますね。

Q：そうですか。

Y：やはりあの、向こうに行ったら本場で、なんて言うんですか、スピードも速いんですね。

Q：うん、そうですね。

Y：全然わからないですよ。

Q：そうですね。あの、あちらの方は川村さんをどう捉えてられるんですか？日本人として捉えていますか、それとも同じ同胞っていうか

Y：その親戚ですか？

Q：親戚やまあ、

Y：親戚はやはり、

Q：そうですね、当然ですね。

Y：うん、日本に住んでる、まあ親戚っていう

Q：ですよ、

Y：見方でしょうけども、向こうの

Q：ですね、あの、初対面の方々はどうですか？

Y：企業とかそういう方からみたらやはり日本人じゃないですか？

Q：あ、そうですか。

Y：あの、言葉もわからないし、

Q：ええ、なるほど、でも逆にそれは日本籍をとって、あの僕も実は言葉あんまりだめなんですけど、

Y：はい

Q：韓国籍で、こんな本も使ってますので、でもなおかつそれで韓国に行くと

Y：はい。

Q：韓国語をしゃべれないことをですね

Y：んん、

Q：やっぱり、なぜかって言われますよね

Y：そうですね

Q：その時にはもう逆に「日本人です」って言った方がですね、

Y：はい、はい

Q：割り切られますよね。

Y：はい、確かにそうですね。

Q：そうですね、あの、今こちらの方であの、ご友人の方々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日本人の方が多いですか？

Y：もう日本人ばかりですね。

Q：あ、そうですね。

Y：はい。

Q：あの在日同士の、在日の友人とかは？

Y：いないですね。

Q：そうですね。

Y：お互い知らないだけ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ね。

Q：あー、なるほど、なるほど、なるほど、

Y：こうしている限りではないです。

Q：そうですか。

Y：はい。

Q：で、日本人のご友人達は川村さんのそのルーツ、韓国のルーツであるっていうことはご存知ですか？

Y：仲がいい人は知ってますね。

Q：そうですか。そうですか。そういう人はそれを、別にまあ特に関係ないですよ、個人の川村さんと付き合ってるので、

Y：そうですね。

Q：そうですね、なるほど、

Y：それでこう、ギクシャクするような人だったらまあ多分今はもう続いてないと思います。

Q：ああ、なるほど、そうですか。

Y：はい。

Q：あの、その親しいご友人で、

Y：はい。

Q：ルーツのことを知っておられる方と、

Y：はい。

Q：そういう話をしたりしますか？

Y：いえ、詳しいことは話さないですけど、

Q：あ、そうですか。

Y：お墓が向こうにあるとか、年に何回法事が家であるとか、

Q：はい、

Y：なんかそんな簡単なことは話すけど、

Q：そうですか。

Y：向こうもそこまで聞いてこないですね、あえて、

Q：そうですか。なるほど、そうですか。あの、ご家庭の、例えば、お食事っていうのは、

Y：はい。

Q：韓国料理はけっこう出ますか？

Y：いや、ほとんど日本のご飯ですよ。

Q：あ、そうですか。じゃ、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達は韓国料理、食べられるんですか？

Y：もうその、いかにも韓国料理っていうのは食べてないと思いますけどね。

Q：あ、そうですか、まあそういう味付け風のっていう、

Y：はい。でもやっぱり塩辛があったりとかキムチがあったり、そういうのはありますけど。

Q：ああ、なるほど、そうですか。川村さんのご家庭のほうではもうまるっきり日本的な料理ですか？

Y：もう、そうですね。

Q：あ、そうですか。

Y：はい。

Q：今韓国の料理なんかを食べられる機会ってというのは、ほとんど、外に行かれた時くらいですかね？

Y：と、あと法事の時に、ですね。

Q：ああ、なるほどなるほど、

Y：はい。

Q：法事の時はやっぱりあえてそういう料理を作られるわけですね？

Y：作りますね。

Q：そうですか。

Y：でも、それでも日本に近いと思いますけど、

Q：あ、なるほど、そうですか、そうですか。あの、まあ韓国とご親戚の行き来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が、韓国の社会についての関心っていうのはいかがですか？

Y：社会？

Q：あの、行かれるまでと、行き始めてからと、例えばニュースで韓国の事が流れたりして、

Y：はい。

Q：ちょっとまあ見たりとか、その、ええと、関心の持ち様って言うのは違ってきましたですかね？

Y：関心は、やはり、少しは違うと思いますね。

Q：そうですか、

Y：前はやはり、全然ニュースとかも知らなかったですもんね。

Q：なるほど、はい、はい、はい。

Y：聞こえてきても、関心もって聞かないから、

Q：あ、なるほど。

Y：何が、どうだっていうのはわからなかったですね。

Q：なるほど。

Y：で、今は実際行くし、

Q：はい。

Y：少し向こうのこともわかるから、

Q：ええ、ええ、

Y：ニュースが流れたらやはり聞くし、

Q：そうですか。

Y：新聞載ってたら見るし、

Q：そうですか。今あの、韓国の社会、韓国という国、

Y：はい。

Q：あるいは、韓国の文化とか、

Y：はい。

Q：そういうのひっくるめて、

Y：はい。

Q：韓国っていうものに対して、どんなことに関心がおありですかね？もし、あるとしたら。

Y：関心はですね、もう今はほとんど仕事の事ばかりですので、

Q：ええ、ええ、なるほど

Y：だから、仕事に関心はありますけど、

Q：先ほど申しましたようにですね、この調査の始めの意図は、まあそういう感じなんですけど、

Y：はい。

Q：今後、どうですかね、もし、えー、韓国の韓国人の人達とか、

Y：はい。

Q：同世代とか、あるいは他の国に住んでる韓国人の人達との交流の場とか、

Y：はい。

Q：そういうっていうのは、もしこんなのがあるんだけどー、っていうのが、呼びかけがあったときにですね、どうですかね、行ってみようかなーとか思われますかね？

Y：そうですね、あるなら、まあ行ってみて、

Q：そうですね。

Y：話も聞いてみたいですね。

Q：なるほど、他の国のコリアンがどんな事考えてるかなんて、

Y：わからないですもんね。

Q：そうですね。

Y：うーん。

Q：けっこうまた違った刺激が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よ？

Y：うん。またでも、在日っていうのと、

Q：うん、うん、うん

Y：例えば、欧米やアメリカに住んでおられる韓国の人とは、考え方はだいぶ違うと思いますしね。

Q：違うでしょうね、やっぱり違いますよね。

Y：こっちだったら、もう溶け込むじゃないですか。

Q：ええ、そうですね、

Y：でも向こうはやはり、もう現地の人やないですか。

Q：そうですね。あの実は、他の人にインタビューしたときに、

Y：はい。

Q：あの一、こういう意見が返ってきました。

Y：はい。

Q：在外とのコリアンとの交流って望めますかって言ったら、

Y：はい。

Q：在外のコリアンとの交流もいいと思うけど、在日同士の交流って今ないと思うんで、

Y：ないですね、あんまり、

Q：そっちの方が先じゃないかっていう意見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それはどう思われますか？

Y：在日も、まあし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けど、機会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ないですよ。実際。

Q：そうですね。今までその民族団体っていうものに接点がなかったとしたら、よけいにやっぱり。

Y：そうですね。

Q：今その民族団体に関わっていくっていうのはあまり、

Y：はい

Q：どうですかね、考えられないですかね？まあ民団とかっていう、今は、最近その韓国語で行ったりはしてますけど、

Y：はい。

Q：もし、あの、民団の青年会なんか、

Y：はい。

Q：日本籍の人も全然オッケーって言って、青年会のこんなコンパがあるんだけどどこない？って言われたら、どうですかね？行かれますか？

Y：行くのは行くと思いますね。

Q：あ、そうですか。

Y：別に嫌とかそういう考えは全くないですから。

Q：そうですか。まあどんな所なのかなーみたいな

Y：そうですね。興味本位もあるし、

Q：そうですか。でしたら、まあ、在日同士の集まりとか、つながりとか、

Y：はい。

Q：在外のつながりとか、もしあれば、まあ、足を運んでみようかなっていう感じですか？

Y：そうですね。

Q：そうですか。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Y：いえいえ。

## (7) 朴麗美さん

### 【要訳】

#### 1. 生活経緯

朴麗美さんは韓国籍である。23歳、女性、在日3世。調査時点で大学4年生。就職活動の最中であった。看護師になることを希望していた。

麗美さんの父親は一昨年、日本国籍を取得した。そして、お父さんは2006年の大阪府下の市議会議員選挙に立候補したが、残念ながら落選した。お父さんが日本国籍を取得した大きな理由は、日本社会の政治の世界で、在日コリアンとしての主張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あった。

以前は、日本国籍取得は、家族全員ですることが原則であった。しかし近年では、家族全員ではなく、個人個人の判断で、個人個人が申請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そのため、近年、在日同胞の世界でも、同じ家族内でも国籍が異なるというケースが増えている。

朴麗美さんのお父さんは高校を卒業と同時に、在日韓国人のための子ども会活動を友人たちと始めた。お父さんが生まれ育った地域の在日韓国人が多くは貧しく、また日本社会の差別がきびしい状況の中で、将来に明るい希望が持てずに非行に走る在日の子どもたちも多くいた。そうした状況を改善したいと、お父さんは、子どもたちに在日韓国人としての誇りを持たせ、着実な社会生活を送ってほしいと子ども会活動を始めたのであった。

お父さんの娘である麗美さんも小さいころからこの子ども会活動に参加してきた。麗美さんは小さいことから、在日同胞のために社会活動をする父親の姿を見ながら育ってきた。それは麗美さんの成長に大きな影響をあたえた。

自分は韓国籍である麗美さんが、父親の日本国籍取得をどう感じ、また、コリアンネットワークの構築についてどのような考えを持っているのかをインタビューした。

麗美さんが看護師になろうと考えた理由は、韓国籍であるということと女性であるという二点からである。看護師は国家資格であり、この資格を持っていれば仕事に困ることは、おそらくない。少子高齢化が進む日本社会であれば、今後はなおさらだ。麗美さんは小さい頃から2世である父母の苦労をみてきた。日本で生まれ育っても韓国人であるために、安定した職業をなかなか得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だから、麗美さんは国籍に左右さ

れない資格と技能を持つようと考えたのである。

そして、日本社会では、男女平等が進んだとはいえ、いまだにやはり女性がひとりです立的にしていくことのできる仕事は男性にくらべて少ない。看護師の仕事は、その中で数少ない、女性が年齢に制限されることなく、結婚をしても、また子どもを生んでも続けることのできる仕事なのである。

麗美さんが看護師を選んだのはそういう理由からである。だから、自分は父親のように、社会活動をする道は選ばないだろうという。父母がしてきたことは、「もちろん評価している」という。「だから、私たちが、韓国人であることを隠さずに普通のこととして生きていくことができた。他の、子ども会がない地域の親族の中には韓国人であることを必死で隠しながら生活している人もいる。だから両親には感謝している」と。しかし、そうした社会活動・子ども会活動があまりに身近なもので、その中には、やはり、子ども会に参加することが義務であるかのような雰囲気もあったし、だから自分や弟は受け継がないとおもう」と述べる。

## 2. 在外韓人ネットワークに対する考え

在外コリアンのネットワーク構築の可能性については以下のように述べている。

「韓国人どうしのつながりを作っていくのももちろん悪くはないとおもうけど、もっと必要なのは、本国との交流じゃなくて、在日同士の交流が一番必要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在日同士の交流が、ちゃんと出来てから本国と交流を作っていこうというならわかるけど、在日どうしの横の繋がりができていない時に、本国と交流を持っても、結局、日本でいる自分は孤独なわけですよね？コリアンネットワークをつくることに意味が無いとは言わないけど、段階として、それが最終目標であっても、まず、その住んでいる国ごとの横のネットワークを作ってからじゃないかとおもうんです。だって結局、韓国と交流を持っても、私たちは在日として日本社会で日本人の中でいろいろな悩みを持っているわけで、韓国の韓国人にそれを話しても、その悩みや思いを「共有」できますか？韓国人の人に、それを話しても、結局、理解はしてもらえないし、孤独感が深まるだけで、助けになるかも知れないけど、根本的な解決になるような助けにはならなくて、解決策にもならないだろうと思うから。どうしてもやっぱり結婚の問題とか、そういう時に相談し合えるような、そういう繋がりは必要な。その年代ごとの悩みに合わせた繋がりがあった方が、年齢が増えても、つながりはあったほうがいいじゃないですか。信頼関係をいきなり、それじゃ、この場を設定するんで作ってくださいって言われてもつくれませんからね」。これもたいへん示唆に富む指摘だと考える。

## 【調査内容】

調査は、2007年8月31日、大阪府高槻市にある子ども会事務所でおこなった。

「Q」は筆者、「A」は朴麗美さんである。

---

Q. 今まで就職活動をしてきて、韓国籍であることの影響はありましたか？

A. 履歴書を出すじゃないですか。就活のために。履歴書を出す時に外国籍かどうかをたずねられるわけです。本籍地を書く欄があったり。看護師として働くだけなのに、なぜ国籍や本籍地の記入が必要なかわからないなあとおもいました。

Q. 面接は受けましたか？

A. 面接受けました。

Q. 国籍や民族の問題について特に聞かれたりはしませんでしたか？

A. 特に聞かれてはいません。

Q. 家で法事などはしていますか？

A. 去年9月にハラボジが亡くなって、以前は、「墓などは、その辺の河原で拾った石を積み上げれば墓になる」とか、そんな言い方をアッパは言ってましたが、最近は、やはりきちんとや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って言うようになってます。

Q. そうですね。お父さんが日本籍とられたということで、お父さんに、何か心境の変化はあったとおもいますか？

A. 私たちに「日本籍取るっていうのは、申請する書類などをぜんぶ準備してから言ったのかな、家族に。申請したあとだったのか、それは忘れましたが。「まさかな」とは思ってたんですが。

Q. それはなぜですか？

A. 日本籍取るというのは、日本籍じゃなければできないことをしたいから取るんであって、父が理由もなく取るわけではないから。昔から選挙権のことは言っていたから、うん、これは絶対に選挙に出るんだなと思いました。

Q. それは家族にとって、あるいは麗美さんにとって苦痛ですか？

A. 今はもう大学で、この地域から離れているから、それほど自分に直接には影響ないでしょうが、もしこれが地元だったら嫌だったとおもう。

一度、高校の頃に、父が人権問題について、私の行っていた学校で話をするって事になった時に、思春期というのは多感なころですから、そういう時期はいちばん目立ちたくないし、何ていうんですか、高校生ってけっこう保守的じゃないですか。他の人と違うことすると周囲の目も一番気にする時期で、周りと違ってないかという事を一番意識する時期に、「自分の親が、その学年の、しかも自分の学年の生徒の前で話す。それが娘にとってどれだけ嫌なことかということ、なぜ教師たちは気づかないのか」と思っていました。それと同じようなところがあります。

小学校、中学校のときは子ども会があって、在日の子は韓国の文化的なこと習って、日本人の子の前で発表したりした。まわりの日本人の子も、私が韓国人だということをもみんなが知っていた。

でも高校は子ども会ないし、もしかしたら、私が「朴」という姓を名乗っていても、私が韓国人だということをつかまらない人だっているかもしれない。私もどちらかというと、あまり他の子と違うってことを出して目立ちたくなかった。高校生の時期って、そういう独特の心理あるんじゃないですか。

Q. 大学生になったらどうでしたか？

A. 大学に入ったら、むしろ開き直ったっていう感じでしょうか。仲良くなった友達の中にも在日の子はいて、日本名の子もいたし、韓国名の子もいました。誰にでも言えるというわけじゃないんですが、韓国名しかないです。この名前で生活するしかない。日本名を持ってたら、また違ったんだとおもうんですが。私は物心がついたときから子ども会があったから、いろいろ悩む時期に、自分からあえて周囲に、「私は韓国人です」と説明しなくてもいいじゃないですか。小学校1年の頃から活動しているのでみんな知ってるし。まわりにとっても私が韓国人であることは当然のことであり、何の偏見もなく受け入れられた。

Q. 韓国に住んでる韓国人にとっては韓国人であるということは当然だおもうけど、在日にとって韓国人であるということは決して当然じゃない。麗美さんにとって、韓国人であるということはどういうことですか？

A. 私は韓国に住んでる韓国人とは合わない気がします。

Q. それはどういう点がですか？

A. いろいろな些細なことでも、習慣や感性や、「同じ韓国人」とは言えないとおもう。韓国に住んでる韓国人と、在日って全然違うじゃないですか。在日は、韓国籍やけど、文化的なこととか、習慣的なことは、日本じゃないですか。韓国人に韓国の習慣もあるけど、どちらかという、意識というか、おたがいに許せる許容範囲というか、物差し（基準）が違うし、在日の基準は日本じゃないですか。

Q. なるほど。

A. それで、私たち若い人からすると、なんであれだけ韓流ブームが起こって、もてはやされるのかわからない。

Q. では、今、僕が聞いたように、「韓国人であることをどう思う？」って聞いても、そんな単純に答えられないね。

A. はい。自分が・・・何ていうんでしょうか、「韓国人です」と言ったときに、韓国の韓国人と一緒にされるのが嫌というか、「韓国人」ということでひとくくりされるのが嫌だというか。「名前と国籍だけ韓国です。しかし生まれは日本です」。私たちが在日からみると、韓国の韓国人とは明らか違う、自分とは全然違う、「違う」っていう意識を自分が持っているのに、日本人から見たら、一緒じゃないですか。その、一緒って言う枠に括られるのが嫌なんです。違うのに。

Q. お父さんが日本籍取られたみたいに、たとえば日本籍を取得するってことも、選択肢の一つとして考えられますか？

A. うーん、あるかなあ。あるとは思うかなあ。昨日も言ったし、日本籍取ろうかなって。なんか…なんでかな。オンマは日本籍を取る理由がないと認められないと言ってました。アッパは何も言いませんでした。私、飛行機事故おこって乗客だったら、どう放送されるのかなって。自分が日本籍をとって、そのまま日本名にするのも、それもちよっと抵抗感があって、日本社会に埋没してしまうじゃないですか。不特定多数に。しかし自分が韓国人であることは事実で、日本籍をとって日本名つけて日本社会に埋没している状態の方が、自分が韓国人であることを周囲に表明するのは、かなりハードルが高くなる気がする。

Q. 韓国や、韓国の韓国人の人たちと今後、交流を持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せんか？

A. それは、韓国だから交流を持ちたいというより、アメリカやフランスの人達

とも交流したいという、同じようなレベルで韓国の人達とも交流したいとはおもいます。韓国人どうしのつながりを作っていくというのはもちろん悪くはないとおもうけど、もっと必要なのは、本国との交流じゃなくて、在日同士の交流が一番必要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

Q. ああ、なるほど。

A. 在日同士の交流が、ちゃんと出来てから本国と交流を作っていこうというならわかるけど、在日どうしの横の繋がりができていない時に、本国と交流を持っても、結局、日本でいる自分は孤独なわけですよね？

Q. なるほど。

A. コリアンネットワークをつくることに意味が無いとは言わないけど、段階として、それが最終目標であっても、まず、その住んでいる国ごとの横のネットワークを作ってからじゃないかとおもうんです。だって結局、韓国と交流を持っても、私たちは在日として日本社会で日本人の中でいろいろな悩みを持っているわけで、韓国の韓国人にそれを話しても、その悩みや思いを「共有」できますか？韓国の人に、それを話しても、結局、理解はしてもらえないし、孤独感が深まるだけで、助けになるかも知れないけど、根本的な解決になるような助けにはならなくて、解決策にもならないだろうと思うから。だから、そのときに、悩んでいる時に何が必要かと言ったら、同じ、共有できる人、グループなどがあった方がいいと思うから。まずはそこからではないかと思うんです。

Q. もし、そういう交流する場があるとしたら、麗美さんはどういう場ならば行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か？

A. 交流目的が何になるのかなあ……。それは大人になってからですか？子供の頃ですか？

Q. 今後の世代としてだね。

A. 大人は、自分で調べて自分で動けるから自分でやったらいい。どちらかというと、子どもの方が必要じゃないでしょうか。だって私たち自身も小さい頃の方が、韓国人であることに対して悩みが大きかったから。大人になれば韓国人であることを、その思春期なりに葛藤したから受け入れる。受け入れていくじゃないですか。その受け入れがたい時期に、交流があるのはやっぱり参加するんじゃないんですか。もし、そういう集まりのボランティアなら

ば、してもいいかなって思いますけど。単に、「在日のこれからを考えていきましよう」なんていうシンポジウムは出ないとおもう。

どうしてもやっぱり結婚の問題とか、そういう時に相談し合えるような、そういう繋がりには必要かな。その年代ごとの悩みに合わせた繋がりがあった方が、年齢が増えても、つながりはあったほうがいいじゃないですか。

経験上、私がいちばん地元で連絡を取ってるのが、子ども会に参加して、そこで高校ぐらいまでのつながりがあった子と一番連絡を取っているわけですから、その、この歳になるとなんか、同年代の韓国人で同じ状況にあるから話しやすい、相談しやすいということもあるから、だから、繋がりを作って相談できる相手を、子どものころから作りましようということかな。

Q. やっぱり信頼関係ですかね。

A. そうですね。信頼関係をいきなり、それじゃ、この場を設定するんで作ってくださいって言われてもつくれませんからね。

## (8) 井口美江さん

### 【要約】

井口美江さんは調査時点で年齢51歳。在日2世の女性。職業は、居住している自治体の市職員である。2004年に日本国籍を取得した。井口さんには20分程度のインタビューであったが、2007年9月2日に調査を実施した。内容は主に日本国籍を取得したときの気持ちについてたずねた。井口さんは、「それまで、日本社会で生活するうえで韓国籍でよかったことなど何もなかったのに、日本国籍をとったときに自分でも思いもよらない“喪失感”が襲ってきた」と述べる。

井口さんのインタビューは民族のアイデンティティとは何なのかいうことを考える上でたいへん興味深いものである。

### 【調査結果】

「Q」は筆者、「A」は井口さんである。

Q. あなたにとって何かに所属するとはどういうことですか？

A. 所属するところがないだけではなく、人間や歴史をみていると、所属したいとは思わなくなってしまうっていうのか。所属すること自体がおぞましいよ

うな。それが一種の執着につながるというのか。所属を持つと排他が生まれるじゃないですか。排他を生むようなものであるなら、そんな愛着は価値もないとおもう。どんな加害も迫害も見たくないっていうか、誰かが苦しむ姿を、どんな場所でもどんな時代でも見たくないという気持ちがあり、だからそんなものを生むようなものなら持ちたくないとおもう。そういう気持ちがあるのかもしれない。

何も持たない、力もない代わりに凶器になるようなものも持たない存在でいたい。これは考えではなくて気持ちがまずある。今は言葉にするために考えているんだけど。

Q. 日本国籍を取る前と後で変わった気持ちは？

A. 私は求められれば責任は持ったとおもう。それが日本であれ韓国であれ。でも私たちは逆にどこにも責任を取ってもらえない者だっていう気持ちが強かった。中学の時か高校の時からか。飛行機事故が起こるたびに、「日本人の乗客は」って出される。「あれ？ 私たち 在日はどこに発表されるんだろう」って思ったよね。籍が韓国だから日本人じゃないから、日本人として発表されないなって。じゃあ、韓国では名前だけは出るんだろうか？ だけでも韓国で名前だけ出されても、むこうで知人もいないのに、私が死んだということさえ誰も知らないだろうなって。誰にも言わずにどこかに出かけたとき、私が死んだということを知りたい誰か気がついてくれるんだろう、と考えたらおそろしかったよ。私は別に供養してほしいとは思わないが、自分が死んだということ自体ははっきり記載してほしいし、はっきり終りにしてほしい。「死にました」って、手続き上、はっきり閉じてほしいのよ。戸籍もね。ただ 私たち 在日の立場って、ひょっとしたら状況によっては、それがしてもらえないかもしれないこともありえるのかしら思ったら、すごくこわかった。子どもながらに。

私、帰化したときいちばん喜んだのはね、これではっきり閉じてもらえるとやったことだった。責任もってもらえる。救ってほしいという以上に手続きなど、みんなやってもらえるところがはっきりできた、ということが一番うれしかったね。

だから、どこにも責任を持たないから無責任でありうるって言ったけど、私はちがった。どこにも責任を持ってもらえないからね。おそろしいなあと思った。権利とか以前にそうだった。ほんとうに宙ぶらりんだと思った。だから今、その面ではとても安心なの。手続きをきちんとね、係累がいなくても役所がちゃんとするだろうっていう。私はこれは性格かもしれないが、何でもきちんとけじめをつけたい方なんだ。だから行方不明とか、そういう形で終わるのがいやなの。身内のためにも。

私は帰化した当初、帰化する以前より、「失ってしまった」という喪失感が

はじめて押し寄せて、完璧に失ってしまったという、あれ、何て言うんだろう。自分でも不思議なんだけど、韓国人ではなくなってしまったっていう、自分がそう感じていることに自分で驚いた。

Q. それは帰化の手続きを進めているプロセスからですか？

A. ううん、ぜんぜん。手続きしているときは考えもしなかった。なくした瞬間に、なくした瞬間なの。あれはどう言えばいいんだろう。「失ってしまった！」っていう喪失感。

あの喪失感の一端はね、日本人だっていうのは嘘だっていうことがあるじゃない、日本籍を持ってたって。真実じゃないっていうのか。それで、どれだけ不安定で差別の危険性をはらんでいようと、それでも私が韓国人であるということは真実だったじゃない。立場は不安定でも。でも国籍を取って日本人になっても、それは真実ではないんだ。それが一つかなあ。真実じゃないってことが。いや、これはほんとうの私じゃないって。だから、そのほんとうの私じゃないと思う私にね、「コリアン・ジャパニーズ (Korean Japanese)」だと考えればいいんだと言いつ聞かせたのは、これはほんとうじゃないという、それにね、一所懸命、理由をあたえてやりたかったんだとおもう。落ち着きがわるいから。正当な理由をあたえてあげないと落ち着きが悪くって。この私は偽物(にせもの)だって。だからルーツは韓国人でね、でも法的には日本人っていう立場の人間なんて思うことにしようって。そう思わざるをえなかった。そう思わないと落ち着きが悪い。でも、あのときの喪失感は今、ふりかえっても、どこから来たのかよくわからない。今でも。

Q. 韓国人であることって、これまで、プラスのことってなかったですよ？

A. なかったねえ。

Q. でも、それでもなお、なくしたときには喪失感があったんですか？

A. すごく大きかった。ほんとうに大きかった。

Q. それは、もし言葉で表現すると、マイナスの体験も全部ふくめて、ひとつのアイデンティティになっていたってことでしょうか？

A. そういうものじゃないような気がする。言葉では言えない。あのとき、そのことをもっと深くつきつめておけばよかったけど、なんていうか、もっと本源的なもののような気がするの。本能のような。理屈ではなく、体験や記憶から来るもんじゃない。もっと本能的で本源的なもののような気がする。

Q. それは韓国人という、民族というものに、もっと何かを求めていたのに、それが得られないまま、見つからないまま、それを失ったというか·····

A. ·····あ、それね、それ、何か関わってる！求めていたって、言葉ではそんなものは、はっきりとはなかったの。生きていくのに必死だったじゃない。そんなこと考えられなかったよ。今から言葉でいうと、できるならば、本当の姿でいたかったと思ったのかもしれない。こんないちいち自分の今の立場に理由なんかあたえてやらないで済む。ありのままの姿で生きたかったって思ったのかなあ。生きたかったって思った。その思いだったのかなあ。

Q. たとえば最近、韓国ドラマなどで韓国人の機微とか、いろいろなことを知るようになりましたよね。その当時は、全然、そうしたこと知りませんでしたよね。

A. その当時は、マイナスのイメージしかなかった。

Q. すると、韓国人に対する同一化っていうか、同調というのではなくて·····

A. 全然、関係ない。

Q. やはり、ありのままにいたかったという感じ·····

A. 実はそんな理屈もなかった。どーんと大きな波が押し寄せるでしょ、ああいう感じで、思いもしなかった大きなものがね、わーっと突然きて、今でも言葉にできないね。だから、ほんとうに本源的なものとか、その言葉がいちばん当たっている。今でもよくわからない。

よく思うんだけど、もう一度、あのときの思いにね、何かすごく強烈な感情ってね、時間がたつと記憶は残るんだけど、実感は消えてしまうのよ。その実感が消えたあとして、正確に描写することってむずかしい。記憶では実感から少しずつれてくるね。だから言葉では語れないという方が·····

Q. おかあさまも帰化したとき、少し気持ちが落ち込んだとおっしゃっておられましたか。

A. ああ、やっぱりそう言ってました？それね、国とか民族への裏切りとかそんなもんじゃないの。もっと、すごーく純粋な、理屈とかそんなもんじゃない、純粋に淡い哀しみのようなものだったんだと思う。ほんとうにね、理屈

とか介在しない。

Q. 帰化をして、境界線を越えた、移った先が、「日本・日本人」でしょ。それは今まで自分たちを差別してきた存在だったでしょ・それについてどう思いましたか？

A. 何もない。あいかわらず、籍は持っても私の実態は在日韓国人だもの。あいかわらず。

Q. 今でも、そういう感じですか？

A. うん、そう。ただ法的にね、これで迫害されないで済むという……。私、在日のころはね、また関東大震災のようなことがあればね、いつだって私たちはすぐに迫害されるって、子どものころから思ってた。いつだって刈り取られる存在。でも、今は、そんなに簡単には、こいつはかつては在日だったとか、誰かが調べなきゃ、法的には日本人と同じ扱いをうけるものじゃない。そういう意味でね、臆病な私としてはかなり安心を得られたと思う。だけど、日本人じゃないもん、やっぱりね。在日韓国人なのよ。やっぱり加害する側より、あいかわらず気持ちの上では、危害をうける者っていうか、そういう気持の方がね。日本人にはなれないわ。

## (9) 飯田弘樹さん

### 【要約】

#### 1. 生活経緯

年齢は調査時点で39歳の男性。韓国人の母（国籍は日本国籍）と日本人の父を持つ。広島県生まれ。埼玉県在住。職業は大学非常勤講師、大学附属研究所の研究員を務める研究者である。飯田氏自身が、日本国籍者の人々のアイデンティティ問題等を研究テーマとしており、これまで多くの人々にインタビュー等をおこなってきた。

飯田氏は高校生のときまで、自分の母方の家計が韓国人だということを知らなかった。小さい頃から聞く母方の祖父母の話し方や生活様式が日本的ではないという気持ちは持ってきたが、韓国人であるとはっきりと教えられては来なかったしわからなかった。高校生のときに母親にたずねて韓国人であることを知る。

父は日本の天皇制や皇室を尊ぶ考え方を強く持ってきた人であり、長男である

飯田氏自身、子ども時代は、ミリタリー (military) 用品を好んで買っていたという。実家にいるときには、日本の祝祭日には「日の丸」を家の玄関に掲げることが長男である飯田氏の役目であったという。

高校から大阪の全寮制高校に入り実家から離れた。自分の血の半分は韓国人であるということを知り、韓国に強く興味を持ち勉強するようになる。自分では意識していなかったが、飯田氏の顔は、韓国に行くと「韓国人的な顔」のようで、日本人の友人と歩いていると、友人は日本人として扱われ声をかけられるが、飯田氏は、その町で生活している韓国人であるかのように扱われることが多いという。そうした経験からも自分に韓国人の血が流れていることを自覚するという。

実家では母親が、ときどき韓国風の料理をつくってくれた。祖父母の家からトックのスープの素をもらってきてトックをつくってくれたりしたという。しかしそうしたことの他に、韓国式・韓国風の文化はなかったという。

韓国にルーツを持つ日本国籍取得者は、これまで在日同胞研究の中でも、在日同胞の中の少数者、あるいは周辺の存在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きた。しかし、すでに数的にも韓国・朝鮮籍の在日同胞を凌駕しようとするまでになっている。日本国籍取得者のアイデンティティは、韓国・朝鮮籍の在日同胞の亜流ではなく、それ独自の性質を持つ独自の存在なのだと述べる。そういう意味で、韓国にルーツを持つ日本国籍取得者は、従来の「在日同胞」の枠を越えた新しい存在といえるかもしれない。

## 2. 在外韓人ネットワークに対する考え

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をみると、半分、韓国の血である「ハーフ (half)」あるいは「ダブル (double)」のコリアンの若者サイトがあるという。そういうサイトでは、自分が「韓国人」であることを意識する様子や、韓国に行ってみたいという意見などが多くみられるという。しかし、それらの人々はそういうことをずっと言っているだけで、それが何か行動やムーブメントを生み出すのかといえばそうではない。ずっと同じようなことを言って「意見交換」で終わってしまっている。既存の民族団体はこうした若者のニーズに応えるものとはなっていない。前の世代の価値や方法によって、あいかわらず運営されており、そこに集う人々の数はどんどん減少している。既存の団体や方法ではない、新しいサークルやコミュニティのありかたが求めら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述べる。

### 【調査結果】

飯田氏には2007年8月27日インタビュー調査をおこなった。

「Q」は筆者、「A」は飯田氏である。

---

Q. 研究をとおしてどんな見えてきたことがみえてきましたか？

A. そうですね、ま、あの最初はやっぱり在日の帰化とかですね、「国籍観」を研究してたんですが、最近は日本籍者のことをおもに研究しています。たとえば日本国籍があるとなないのとでは何が違うのかとかですね。

私の場合どちらかというとなんまり1世よりも、在日3世とか4世とか若い世代の人たちと一緒に、自分も活動しながら、彼らの様子を拝見しています。そういった人たちが、これからすごい勢いで日本国籍を取っていくと思うんですけど、取らない人っていうのもいるわけですよね。あの、少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じゃ、そういう人たち、なぜ取らないのかなっていうあたりを、逆にちょっと見て行きたいなっていうふう考えていますね。

A. ま、すごくバリエーションが多くて、なんか理論化できるかなっていう感じもありますけれどもね。でもやっぱりアイデンティティが中心になると思うんです。

Q. あの、この前もちょっと言ったかと思うんですけど、僕やっぱり、先生や宮崎先生の話し聞きながらですね、それと、えーっとあの後お酒飲みに行ったりして、話を聞きながら、ほんとに僕の中では、僕がもし日本籍を取ったら、やっぱり新たな何かそういう、問題意識っていうか、自分探してみたいなもんがたぶん始まるのかなあと思ったりもするんですけども、今、韓国籍っていうことで、いってその形が合ってしまうものですから、なんか、そこでこう、ストップしてしまってることも、深めれてない面がやっぱりあるかなあみ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ね。で、やっぱ日本籍の人が増えていく中で、逆にその、民族名を使っていると、そこに集約されてしまうようになる。で、だからルーツこれなんですよみたいだね。でも、あの一、日本名であり、国籍も日本であると、形がやっぱりないですので、よりそ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の模索っていうものが、やっぱりこう進化するとか、語弊があるかもしれないけど、内向化っていうかよりこう内面的なこの模索がですね、そこかやっぱり、進んでいくのかなあ、という気がするんですけどね。そこであの、理論化する、あるいは分類っていう事っていうのも、ひとつ分かりやすく見せるためには必要かと思うのですが、やっぱり言われたように、多種多様だと思うんですよね。で、だから、形に見えないものをいかにこう形にしていっていかっていう、ことかなあと思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

A. ルーツが韓国だとそのあと知ったって言うふうに。具体的には、高校生のと

きなんですけど。高校2年の時に、結局地元は広島なんですけど、もう、高校から大阪のほうの寮がある高校の方に行きまして、私立なんですけど、その寮にいたときに、時々故郷と電話しますよね。で、あの、母親と電話で話してたら、母親が、おばあちゃんがこないだ、韓国に旅行で行ってきたとき、婦人会で行ってきたって言うわけですね。その婦人会っていうのもよくわかんないんですよ。近所のあれなのか。よく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も、で、その時にあなたに韓国からお土産買ってきたから今度、宅急便で送るねって言われたんです。で、なんかおかしいなとは思ってたんで、とりあえず聞いておこう、て思って、その時に初めて母親に、おばあちゃんってもしかして韓国人じゃないのって聞いたら、うん、そうよっていうふうに教えられて。で、でもおじいちゃんは、日本人よねって聞いたら、じゃ、いや、おじいちゃんも韓国人っていうから、じゃ、お母ちゃん何人なんって言ったら、昔は韓国人やったなあとか言うて。

Q. あ、じゃあ、母方の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両方とも韓国人で、お母さんもかつては韓国籍で。で、結婚、…お父さんは？

A. 日本人ですね。

Q. 日本人ですか。で、結婚されてから帰化されたんですかね？

A. そうですね。私が生まれてから3年っていうから、結婚してからだとたぶん5~6年後ぐらい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で、なんで帰化したのって後日聞いたら、したらまあ、子供の事もあるし。自分はもう、あの、日本の学校しか行ってないし、日本語しかしゃべれないし、で、韓国語は、おばあさんからその、子供のときに怒られた言葉しか残ってないんですよ。あと、料理の名前とかぐらいしかって。私の母親が。母は今、65歳です。広島出身です。例えばなんか、戸閉めろとかですね、鼻かめとか、そういう言葉はなんかあるらしいんですけど、それ以外はもう、自己紹介も出来ないありさまで。で、そんなんで韓国籍を持っても意味ないっていう事で、まあ、日本に変えたって言う事を言っていましたね。

Q. ご自分が韓国人の血をひいていると知る前と知った後では、どうですか。意識っていうのは？

A. いやまあ、なんか、単純に面白いと思ってしまったんで、すごく、なんか、よく、ね、いろんなもの読んでるとなんかショックで、なんか、親と口利かなかったとか、私のインタビューして人でも何人かいますけどね。目を合わせないとかね。で、そういうのは色々いるんですけど、私の場合は単純に

知らなかったんで、面白いと思って。で、実際に広島の実家の周りでも。在日は、後から知識を持って見ると分かるんですけど、当時は全く分からない感じですね。

で、当時がちょうど、ソウルオリンピックの少し前で、日本の一般の書店でも、あの、平積みされ始めたころなんです。チョーヨンピルの、なんか、ねえ、あれとか。で、韓国、その遊びの、ねえ、色んな紹介する本だとか、観光の本だとか。

で、そういうの片っ端から買うようになって。で、読み始めて。韓国についてのだいたいのものは呼んだんですが、ただ、読んでないところが、あの、すこしづつそれぞれの本でありまして、それはやっぱり、あの近現代史あたりの事だったんですね。でまあ、それを読み始めてからだいぶ又、意識も変わっていった。で、大学に入ったんですけど、まあ、あのちょっと、半分足を踏み込むような形で韓国と交流するようなそういうサークルで、一緒に韓国に行ったりとかですね、したりしてましたね。ですから私の場合は、面白いなと思っちゃって。

Q. そうですか。あの、そのことを知るまでっていうのは、ごく普通の日本人の……

A. むしろ、あの、父親が昭和一桁生まれなんで、今年で78になったんですけど、今でもたぶん、本物の、あの人は皇国少年なんです。あの、昭和天皇が亡くなった時には、なんか、あの、自宅の、いつも、ねえ、あのふんぞり返っているソファのところで正座してテレビを見てたっていう人らしくて。じゃなぜ韓国人と結婚しちゃったの？ってのがあるんですけどね。ええ。ですから、その影響受けてましたんで、子供のときは、日本の旧陸軍の、こんなね、ありますよね。あの、いろんなあの、星が何個あって、線が何個あったら、ねえ、あの、少尉だとか何とかで、ああいうのが大好きで。なんか近所の書店に、あの、そういう本を取り寄せてもらったりして見ている様な感じで…。ええ、かなり右翼チックな少年時代ですよ。で、長男なんですけど。日本の日の丸を家の前に、こう、飾るっていうのを私の役目だったんですけどもね。当たり前のようにそれ、やりました。ええ。で、私が出てからは、あの、弟と妹がまだいたんですけど、あの、誰もやらないんで。で、父親が一人でやってたらしくて。

Q. それじゃお父さんとしてはちょっと意識して、お母さんがたの方の親族との接触っていうのはあまり…。

A. いや、ないです。あの、年が離れてるんですよ。母親と父親が13離れてて、でまあ、父親もちょっとあの、何ていうんですかね、あんまり、回りの近所の人から見ても、あいつはちょっとヤクザだとか言われてて、ま、ヤクザ

じゃないんですけども、それに近いあたりのことをいろいろやってみたいで。でまあ、ね、喧嘩してとか、大酒飲んで暴れて、あの、警察にね、入れられるとかいう…。で、まあ、その後、結局、天職就かないから、まあ、仕事かね、続かないんだってということで、板前、日本料理の板前になったんですけど。で、まあ、それになってからも水商売だということ、近所からもねえ、ものすごい悪い言われ方してたみたいで。で、今、もらった嫁さんが韓国人でしょ。だから、物凄いなんか…私らは分らなかったんですけど、成人してから近所の、幼馴染とかと話をすると、おまえん家の親、めちゃめちゃ言われとったぞうちの親に、って言われて。よくニコニコして、ね、町内会とかやってたなあと思うんですけど。

Q. そういうサークルに出始めて、

A. はい。

Q. それで、今、あの、お連れ合いは日本人の方ですか？

A. そうです。

Q. で、お連れ合いと結婚された時にはそういうご自分のそのルーツ云々というのは、なんか、特には。

A. そうですね、妻には前々から話ししてたんですよ。それを妻が、あの、義理の両親に言った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私は知らないです。で、私からは何も言わないですけど。で、まあ、一度結婚する前に、うちの両親と、あと妹が、福山から埼玉の方まで来てくれてですね、で、向こうのご両親の、ま、実家のほうに挨拶に行つて。で、それからまあ、しばらくして結婚することになったんですけど。その時も別に何も言わないですし、だからまあ、言ってもたぶん関係ないと思いますしね。

Q. 大学のサークルでは具体的にどんなことを？

A. 私がメインでいたのは、なんか、あの、学内の留学生と、日本人の学生を交流するっていう様な、そういった学生自治会の、下部組織みたいな。ですから別にコリアンとかだけじゃなくて。一番多かったのは中国人とか、あと台湾とか、でまあ、いろんな留学生と日本人の学生で、一緒になって、たとえばあの、学生、学祭ですか、学祭であの、留学生のお店を、10店舗だとか15店舗だとか出してやったりとか、そういうのやってたんですけども、ま、そこには何人かメンバーいたし、その、韓国と交流するっていうふうなサー

クルもありまして。で、そっちの方とも、やっぱり付き合いがあって、だから、ちゃんとそのサークルにいれば、なんかいろんな面倒くさい事もやら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時々そっちにお邪魔するっていう感じで。で、初めて大学1年の時にそっちのサークルの交流会で、韓国にいっしょに行かしてもらってですね。、1987年ですね。

Q. いかがでしたか？印象っていうのは。

A. うーん、なんか、行った所が、結局ソウルに、キンポ空港入ってそのまま、ね、ミョンドンだとかね、あの辺だけバーっと南山公園見て、でその後は、結局、あれですね、38度線のところまで観光で行って、そのままもう向こうの 학생さんと交流して帰ってきただけだったんですね。ですから、ま、やっぱり、印象としては何か、ま、そっくりな、弟にそっくりなやつがね、あの、地下鉄の中で新聞、新聞とかやってこう、配ってたり、妹にそっくりな子が売店のお姉ちゃんだったりとかですね、で、やっぱり、あの、母方のほうの親族の顔を見てると、なんかすごいそれに似たのがたくさんいるだなんていうのが分かりましたね、あの時。いや、絶対過剰同調ってのはあったと思いますねだから、日本人の友達とかとみんなまわったり歩いたりとかですね、日本人の友達はみんななんかこう、声かけられるんですよ。日本語で。で、私だけスルーされたりとかですね。ええ、で、ま、当時はもうちょっとなんか痩せてたし、なんか目も鋭かったんで、向こうの人から見たら韓国人に見えたみたいですね。デパートの地下1階歩いてたら、向こうからあの、おじさんが走ってきて、で、ここを掴んでですね、トイレどこだって言うんですよ。それでなんか、いや、わかんない、わかんないって言って。だから、なんか、そういうふうに見えちゃうのかなあって、思ったんですけどね。いや、まあなんか、そう、嬉しいっていうのもあったと思いますし、だからこそ、なんかこう、過剰に同調しようとして、たんだと思うんですけどね。ええ、できるだけ韓国語を向こうで使おうとしたりとか。ええ。で、ハングルの看板とかいっぱいあるのをもう、なんか、全部読んでやろう見たいに思ったりですね。今までは韓国には3回行きました。

Q. 韓国には行きたいと思いますか？

A. 思いますね。

Q. あの、その韓国に行きたいっていう気持ちって、どんなお気持ちですか？

A. なんかやっぱり、親戚の所をちょっと回って、族譜あるんだったら見てみたいなと思って。ま、でも、少し、二十歳前後ぐらいですかねえ、あの、韓

国に親戚がいるんだったら、ちょっと会ってみたいっていうことを、ちょっとおばあちゃんに聞いていてっていうふうに母親に言ったら、したら、聞いてくれたらしいんですけど、おばあちゃんに、なんか、行くな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たよっ、て言われたんですよ。

いま、専門学校で非常勤で教えてても、毎年、韓国人の留学生、一番多いんですね。そうするとやっぱりどんどん彼らの姿とか見ても変わっていきますし、そういったところでやっぱり、変わってきた韓国見てみたい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ね。

Q. そうですか。あの、先生にとって、その、韓国の韓国人の人たちとどういうふうに付き合っていきたいと思われませんか？その親戚に限らずですね。同じそのルーツを持つ同胞として、やっぱり見てほしいし、そういう親密感を持って付き合いたいかな、それとも、また違う……。

A. まあ、でも、両方あるような気がしますね、なんかやっぱり。どうしてもその、ね、自分の母方のほうは、たとえば向こうにあるわけで。ま、そういったのはすごく、ま、二十歳くらいに向こうに行った時には、自己紹介でしゃべったりするとすると、メンバーの中でね、日本人ばかりいる中で自分だけがそういう感じだったりして、向こうの方からもなんか、必要以上に良くしてもらったりとかですね。で、あと日本に来てる留学生とかと、ね、なんか仲良くなっちゃったりしたら、あの、飲み会とかにこうね、韓国人留学生ばかりの飲み会とかに連れて行ってきて、それでなんか、酔っ払ってきたら、あの、年上の先輩がですね、あの、日本人は俺は嫌いなんだって言うんです。じゃなぜ日本に来たんだって聞いたかったんですけど、怖くて聞けなくて。だけどなんか、お前は好きだ、なんてみたいだね、言われたりして。だから、そういった部分って言うのはたぶんあるんでしょうけど。ま、あとはやっぱり、その、ちょっと距離を置きたい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あの、ナショナリスティックな所、すごい強いじゃないですか。で、そういった所から、私から見ても、おいそれは、っていうようなのがあって、で、それがインターネットとかでは、なんか面白おかしくですね、誇張されて、揶揄される材料になってるっていうのもあって。で、そういう所からやっぱり少し距離を置いて、冷静に見ておきたいかなっていうところはありますよね。あんまり巻き込まれたくない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けど。

Q. 家庭生活での、その文化的なことってのは、もう特に、韓国的なことっていうのは感じたことはないですか？

A. 全くなかったですね。私ん所は別に全然そんなのないです。ただ、あの、なんか、在日関係の本がやたら本棚に多いくらいのもんです。そりゃもちろん

ありますけど。飾り物とかは特にはないですし。キムチはなんか知らんけど、最近食べるようになって来ましたね。最近つっても、ま、一人暮らししてた時は、外食ばかりですから、あまりその、ね、家の冷蔵庫って、なんか何も入ってないって状態だったんですけど、いっしょに結婚して住むようになってからは、近くのスーパーとかで、こうやって見て、キサンタンガムとか使っていないやつですね。なんかちゃんとしたやつを、こう、買って、実家の方もそういうのは全くなくて、だからまあ、余計に気づかなかったんですね。で、ただ、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が市内に住んでたんですけど、そこに時々遊びに、ま、行くんですが、そうするとなんかあの、キムチ臭かったりとかですね。で、一番おかしいなと思ってたのは、やっぱり正月で、行くと男だけ、あの、部屋で、なんかこんな卓袱台をおいてですね、後ろ屏ふうにやってなんか紙にむにゃむにゃと書いたの、こう、貼り付けてあってですね、で、その上に料理だとか、いろいろお酒だとか乗っけて、そこでなんかこう、やらされるんですよ。

田舎だからってふうに、勝手に自己解釈してですね。友達とかに聞いてもそんなことは一切ないって言うしで、で、それがおかしいなって思ったのと、あと、あのおばあさんの発音が、すごくなんか変で、キムチって言わないですね。なんか、ジムチ、ジムチっていうんですよ。語尾もちょっとおかしかったりするから、だからまあ、おばあちゃんが日本人じゃないのかなって言うように思ったのはありますね。

そのおじいさんおばあさんの家に行くと、まああの、日本人形のこう、なんですごいのもあるんですけど、なんか、そうですね、あの、テーブルとかも、貝細工のなんか、すごいの、なんかありますよね。で、ああいうのでなんか、あの、中国なのか韓国なのか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なんかそういった、インテリアがやたらあって、今から考えると、あれは、まあ、そういった、たぶんお友達かなんかからこう買ったのか、韓国から買ってきたの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けどね。

- Q. うん、なるほど。あのー、えっと、そうですね。先生の立場として、今後、例えば、よく、まあ日韓の架け橋ですとかね、ま、在日よく言われますけれども、どのような立場、ポジションであれたらいいなあみたいな、思ったりする、思われますですかね。
- A. そうですね。まあ、あの、いろんな物を混ぜるのがすごくいいことだって勝手に思ってるんで、でまあ、それがただ日本と韓国の間っていうのは、いろいろあるからまあ、難しいんだなあっていうのはあるんですけど、まあ、その間でウロウロしときたいなってのはありますよね。もうちょっと韓国語をちゃんと勉強したいな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し、そうすれば向こうの方ともね、話し合いできるわけです。でまあ、日本人の中でも、やっぱり自分

の、ぱっと見てね、名前も日本名だし、あの、日本人にしか見られないですけど、いや実はって話をするとみんななんか、エッっていう感じになるんですね。で、だいたい毎年最近は、一人、大学院だったときの先輩の方が、あの、ま、大学で非常勤されてて、で、ナショナリズムだとか、まあ、政治だとか、まあその辺の授業をされてるんですけど、その中のワンコーナーで、あの、呼んでくださるんですよ。

ただまあ、あの、後から知ったにせよ、そういった部分っていうのはすごくこう、体験の中で、ある種、思い出の中にもあるので、で、親戚とかは、ま、だいふ帰化しましたけれども、まだ帰化してないのもありますし、で、帰化してないことによっていろいろなことがあるとかですね。又は帰化したことによっていろんなことが起こってるとか、ね。結婚、さっきおっしゃってた結婚だとかいろんなことでまたあるとか、で、そういった所もすごく不思議な、普通の日本人の人から見れば、なんでね、そんな肌の色も変わんなくて、ね、みてくれも変わらないのについていうふうに、というようなことが、なんか結構大きいんだなあっていうのを感じてるんで、そこら辺もなんか伝えて行けたらな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ね。

まだまだ、なんか、もう、みんな日本人って一枚岩にしか思わなくて、で、質問するとなんか、いや、多様なんだよって言ったら、大体、ピンと来てる学生さんは、あの、え、それって、あの、アイヌの事とか、琉球のこととかですか。いえ、もっともって言ったら、あの、在日が出て来るんですよ。

- Q. ふーん。なるほど。そうですか。あの、韓国の交流ってのはもっと今後、したいと思われませんか？
- A. したいと思いますね。やっぱり。そうですね。やっぱり在日の方とはまた違うんだなって思ってるんですよ。どちらかっていうと、おもいっきり日本よりなんで。で、よくあの日本人でも、すごくあの、韓国とかに、シンパシーを抱いて。で、向こう側に立って発言される方、いらっしやいますよね。それとはまた、ちょっと違うのかなっていうところもありますね。なんか、あの、映画監督のね、パッチギの井筒監督とか、見ていても、又ちょっと違いを感じることがあります。
- Q. なるほど。あの、ちょっとほじくり返すようですが、交流をしていって、何をされたいんですかね？
- A. ああ、お互いのなんか、こう、誤解見たいな所はありますよね。そういったところっていうのを、実はこんなもあるんだよ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広げて行きたいし、それから、ま、勝手に描かれてるものあるじゃないですか。なんか、かわいそうだとかですね。（笑）よく言われるんですけど。

Q. 先生のお立場って言うのを？

A. なんか……。

Q. 韓国の人がですか？

A. うん。韓国の人から見ても、日本の一部の人から見てもそう見えるらしくて、苦勞されたんでしょうねなんて、いえ、全然苦勞してないよって。

Q. ふーん。

A. 結婚もスムーズだったし。で、差別されたかといったら、いや、してたやついるかも知れないけど全然知らなかったわけですし。

Q. それは、その人たちは在日コリアンと捉えてるからですね？

A. みたいですね。なんか、在日コリアンだけじゃなくて、やっぱりこう、あれですよ、日本と韓国といっしょにあるからって感じで、たぶん言われてるんだと思いますね。

Q. なるほど、そうですか。じゃ、やっぱり韓国の人たちが思ってる、在日コリアンとか在日同胞に対する、紋切り型の一面的なイメージじゃなくて、もっといろんな多様な存在があるんだということ。

A. そうですね。

Q. ま、伝えていきたいっていうお話ですね。はあ、はあ、はあ。

A. ま、今はやっぱりね、自分のことしかしゃべれないし、

Q. ふーん。

A. 日本の中でそれやりたいなあっていうふうにしてまして、

Q. そうですか。

A. そういった意味でもまあ、あの軽いものも書いたり、

Q. 韓国政府にはどのようなことを求めますか？

A.そうですね。やっぱりその一、在日コリアンに対しては、韓国政府から、韓国人っていう事でいろいろその、母国でのね、日本側からもあるし、韓国側から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やっぱり、あの、日本籍になっちゃうと、もうなんか訳わかんないっていうか。捉えようがありませんよね。名前もなければ、それから国籍もなければ、言葉もしゃべれなくて。だけど、なんかねえ、韓国行きたいっていうような若い子とかって、けっこういるんですけど。いるらしいんですけど、ミクシーとかって、インターネットでありますよね。日韓コリアンえーっとハーフの会みたいのとかね。観てると、やっぱり若い子達が、なんか、うまくないんだけど、ママは韓国人でパパは日本人って、で、一時期、韓国にいたことあるけど、またなんか、韓国に住んでみたい、よろしく。とかって書いてあ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ね。だからまあ、そういったふうな人たちの、何かしらの、こう、…そうですね。うーん、在日コリアンと同様とはいえないにしても何かこうね、あればいいのかなっていうように思いますね。(Q. 繋がりを作ってくれるような、…場作りですね)そうですね。ただ、今、ここ10年くらい見えますと、だいぶ変わりましたよね。日本国内でやるやつなんてもう、必ずあの、韓国籍、朝鮮籍、そして日本籍っていうふうに入るようになって来ましたし。

Q. あの、ニューカマーの韓国人の方々との交流っていうのはいかがですか。

A. あんまりないですね。一番そういう人と出会ってるって、やっぱり専門学校への留学生とかの学生になりますね。思うんですけど、やはり、まあね、言葉が、満足にこっちができないっていうのもありますし、ま、日本語でいけばいいんでしょうけど、ね。なんか、なかなか出不精なところもありまして…。

Q. あのー、さっき言われた、そのインターネット上での、その若い人たちの意見っていうのは、やはり、国籍日本でも、日本人一般の中に自分を、解消していくって言うか、では、やっぱりないんですかね。何か少数派のそういうところに何かを求めているところが何かあるんですかね。

A. そうですね、ちょっと、具体的にどういうふうな状況っていうのは解らないんですけど。ただ、何も言わなければもう、問題なく日本人でいける訳で、何も関係ないんですけど、でもなんか、あえてそういった所に、こうね、コミットしてくるっていうのは、いったい何なのかなっていうのが、私の中のすごい疑問なんです。私自身とは全然違った在り方で存在しているわけですから。ま、それを聞きたいと思いますね。逆に。うん。あの、在日のおまけでなんか、日本籍コリアンがいるようなところがすごくあるんですけど、明らかに数的には、もう逆転してる訳で、じゃ、そういった人たちに、あの、実はその、韓国のルーツを持ってるんだという事

を、どうやってその、ま、いいように捉えてもらえるかっていうふうな、まあ、イメージ作り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もなんか、まあ、それは政府がやることなのかなっていう、すごく思いますね。

Q. そうですか。あの一、この前あったその会合で、やっぱりあの一、あ、でもカンさんですか、本国の韓国人の人たちから、在日、在外を見るときに、やっぱ、自分たちの持つて、あの一民族意識とか、が、やっぱ基準であって、それをあなた、じゃあ従前に持っていないとかですね、あると思うんですね。やはり僕は、今後、韓国社会の韓国人の民族意識やエスニシティーってものも、やっぱり相対化されるべきだと思うし、あの一、在外の在り様って事も視野に入れた、多様な民族意識みたいなものをですね、で、それが韓国社会を、ま、豊かになっていうか、してくることになると思ったりするしですね、と感じたりするんですが、

A. 全く同感ですね。やっぱりあの一、そうですね一、なんか、悲しくなってくるのが、韓国のことを笑いのネタにしてるっていうのがすごい日本の中で、特に若い人たちの間にあって。なんかあの一、火の病気とかファブションなんてね、でもう、日本語の中に入っちゃってるんですよ。火の病と書いてですね、それは韓国人っていうのは、もうカーッとなったら何やるかわかんないと。もういきなりぶん殴ってきたり、いきなり物ひっくり返して壊したりっていう、で、それがドンドンなんかこう、ね、エスカレートすると、血管切れて死んでしまうぞみたいな書き方してんですよ。日本に来てる韓国人だってみんなそうなんだし、在日なんてもうその最たるものだから、もう、あの一、日本が嫌なんだったらもうみんな帰れみたいななんかあるんですね。それで、ちょっとそういったサイトで、たとえばあの一、ま、在日ですけど、あの一、そういう人ばかりじゃないよ、なんか勘違いされてんじゃない？って書いたら、ほら、ファブったやつらがまた来たよみたいな感じでね、。そういうのを見るとなんかものすごく、自分自身としては両方あるからものすごく悲しくて。

なんでもうちょっとね、なんか、いい感じでこう、関係作りできないのかな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て。で、韓国のほうでも、やはりその、たとえばねえ、日帝が昔こんなことやったっていうので、で、日本人はみんなそんなこと知らない。ね、中には、在日だってそういうこと知らない、とか見ようとしな。で、まあ、裏切り者みたいに思ったりとかですね。で、日本と韓国の間にも生まれたっていうだけで、なんかまあ、ある意味、こう、汚いもの見るか見たいにね。そういった所っていうの、なんかすごく、まあ、これは両方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韓国から見てもあるし、で、私の父親なんかは、あの一、酔っ払った時に、二人っきりだった時に、なんかもう何年も前ですが、ポロッといわれたんですね。お前彼女おらんかって言われて、ううん、今んとこおらんかって言ったら、たら、あの一、日本人にせーよって。

もちろん侵略された側と、侵略者側とでは、ぜんぜん違うと思うんですけど、今の、そのたとえば若い日本人のたちに、それをガンガン押し付けてくるだけ押し付けて、いては、たぶん、もう何か、ああ面倒くさいみたいな感じでしか思われないし。で、そういった日本人の中でも、あの、それを受け入れられるような人だけ、なんか韓国を見ている、そういう人たちを見てまた別の日本人が、あの一、ね、何ていうの?じゃ、お前たちもみんなまとめてね、半島へ行けよ見たいな感じの、書き方をされたりとかするのがあって、何かもうちょっと何とかなるためには、おそらく、やはり韓国社会の中のそういったナショナリスティックってような所も、あの、少なくとも対外的にはですね、何かしら形を変えていったほうが、あの一、建設的だなって思うんですけど。外部への、その、敵対心で、内部を固めるっていうのはもちろんあるんですけど、それだけじゃあ、何かすごく哀しいってところありますね。

英語のウェブサイト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あの一、ハーフコリアン、ハーフ何とかみたいなのがあったんですよ。で、まあ、全部はもちろん読んでないし、良く解んないんですけど、とりあえずあの、コリアンと何かの間に生まれた人たちが、いっぱいこう書き込んでるところがあって、で、ほとんどが英語なんで、全然訳わからないところもあるんですが。ま、見てるとなんかあの、ロシアと韓国とかですね、ウズベキスタンと韓国だとかですね。で、なんか、その2つだけじゃなくて、もうなんか、8つくらいあってその中の1つがコリアンみたいな、ここに来ましたとか、そういうふうな感じでも、なんか、繋がってるっていうのもあるんだなって思う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こ以上に広がっていかないんですよ。

なんか、ただそこだけがあって、時々、あの、ああこんなところがあるんだって、初めて来ました、みたいな感じで、で、何かやるのっていったら、別に、何もなし訳ですね。それがずーっと続いていってるだけで、もう少しなんか、ねえ、アクティブな動きがあっても面白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ね。

- Q. そうですねー。なるほどねー。あの、たとえばやっぱり本国の政府としてのネットワーク構築って言うのは、かなりやっぱり実利的な面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それはやっぱりチャイニーズの人とのように。次に在日の民族団体の課題ってなんでしょう。
- A. 民族団体、特に民団の若い人たちとお話していると、必ず出てくるのは、あの、魅力がない、と。だから来ない。言ってることに、夢も希望もないって。うーん、なんか、一生懸命結わえ付けておこうっていう、それだけしかなくて、そこが結局、これだっていう。で、だから、ここにいたらもっと楽しいんだよとか、なにかこう、ね、繋がれる事の喜びみたいなものを、何か特に、あの、青年会なんかは作ら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事を言っていましたね。新しい試みっていったらみんな口を噤んじやいましたよ。

私のその友人の中で、ま、あの、偶然その一番最初のインフォーマットになった方で、やっぱり、あの、ダブルなんですけれども、その方が、今でもずっとライフワークでやってるのが、日本と在日と韓国の人たちを繋げていくっていう事をずっとやってて、でまあ、月に1回とか、2月に1回とか、こう集まってはですね、あの、みんなでいろいろなことを話したり、またはどっかに一緒に行ったりとかして、やってるんですけど、何年かに1回だけ私も参加させてもらって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とこ行きますと、やっぱりあの、ま、いわゆる何かこう、言い方悪いんですけど、あの、韓国の側から見れば、すごく理解のある、あの、日本人がこう、集まってきてるなという感じがありまして、とてもじゃないけど韓国のことを斜めで見ている人っていうのはやはりそこにはないわけですよね。だからお互いにとって、すごいいい空間ではあるんですけど、まあ、ほんと珍しい人たちだなあって感じがするんですね。

そこにたとえばその、ま、入ってこないんでしょうね。そういったその、荒らしてやろうみたいな感じの人とかはね。ま、そういうのもあるし、また後は、もう、思いっきしね、論争させる様になっていう場も、時々ありますよね、用意されていたりとか。でもまあ、ドンドンやったほうがいいのかは思うんですけど、あまり不毛な事ばかりやっててもね、しょうがないかなーっていうのも、見てると思いますね。

まあ、あのここにちょうどここに、あの、「韓商」って書いてありますけど、去年あたり確か、あの、華商のなんか人たちがものすごいなんか日本の中でイベントとかいろいろやってて。そのパンフレットとかひっくり返すと、もう、並居る、そのいわゆるその、華僑の企業名が並んでいて、ですね。もちろんビジネスとしてそれをやってるんですけど、やはり、あの、この文化ですよね。そういったものをできる限りこう、全面的に押し出してやっていくっていうのがあって、すごく私は、なんかこれっていいことだなあって感じに思いますね。

## (10) 白眞勲さん

### 【要約】

#### 1. 生活経緯

白眞勲氏は1958年生まれ、インタビュー実施当時で48歳であった。韓国人の父と日本人の母の間に東京都新宿区で生まれた。一貫して日本の学校で教育を受け、1983年、日本大学生産工学部建築工学科を卒業、その後、同大学大学院生産工学研究科博士前期課程に進学し1985年修了した。

同年、朝鮮日報日本支社に入社。朝鮮日報・日本支社を立ち上げに参加した

1986年、延世大学校の語学堂に学ぶ。そして1990年、朝鮮日報日本支社副支社長に就任。94年、支社長就任。2003年に日本国籍を取得。2004年、朝鮮日報日本支社を退任後、同年、参議院議員選挙で民主党比例区から立候補し初当選をはたした。民主党内の役職として「拉致問題対策本部幹事」、また民主党が作成する「次の内閣」構想の中では「ネクスト防衛副大臣」に位置づけられている。また、国会では外交防衛委員、北朝鮮による拉致問題等に関する特別委員会筆頭理事を務めている。(以上、経歴は白眞勲HP <http://haku-s.media-trust.com/index.html>より)

## 2. 在外韓人ネットワークに対する考え

- 在日コリアンを取り巻く時代状況は刻々と変化しており、在日同胞社会へのサポートも、その変化に応じたものでなければならない。
- 韓国政府はまず、誰が日本国籍の在外同胞かを把握する必要がある。そのために申告制の登録制度を実施するのはどうか
- 実施されるサポートは、押しつけがましいものではなく、たとえば旅行に行ったときに、さまざまな経済的実利があるような、現実的実利的なものがよい。また、あまり深刻なものではなく、「楽しいこと」から始めていく。在日同胞が韓国にきて、「自分たちはあたたかく受け入れられている。歓迎されている」と感じることができるような内容のものがよい。
- 政策を実施するときに、日本国籍者と韓国籍者で差異をつけることは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たとえば日本国籍者のみにした場合、日本国籍取得を奨励しているかのような誤解をあたえる。
- 在外韓人をどのように処遇するかということは、長い目でみれば韓国政府・社会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る。在外韓人を冷遇していて、在外韓人は韓国という国や社会に愛着を持てるはずはなく、それが逆に韓国国家や社会にとって不利益となる行動に走らせる結果になりかねない。

### 【調査結果】

白眞勲氏へのインタビューは2007年8月29日、参議院議員会館の白眞勲氏事務室で1時間程度おこなわれた。

「Q」は筆者、「A」は白氏である。

在日コリアンを取り巻く時代状況の変化

A. 在日の、いわゆる韓国籍の、まあ韓国、韓国系日本人っていったほうがいいのか。ええー、の方々が、だんだんだんだんこう変成していつている部分

があると思うんですよ。国会議員でも前に新井将敬さんとかいらっしやっただ。あの時代は、自分のルーツを隠すことがふつうだったと僕はきいているんですね。しかし僕の場合は、もう隠さないでやっちゃって、逆に、それがセールスポイントになっている。自分のルーツををちゃんとはっきり出すことによって、まああの、当選をさせていただいたと。で、当選をさせていただいたって、全員日本人が当然、当選…投票してるわけですから。自分の一票一票、一人しか、一人一票しかない、その大切な一票を。私、「ハク・シンクン」の、韓国系日本人のハク・シンクンに投票してくれたっていうのは、わかって投票しているわけでしょうから。これは、大きな違いが、もう日本の社会の中で実は出てきている。そういうこの環境がずっとこう変化して、日本籍の人ふくめて在日の人たちの周りは変化している。その周りが変化しているなかで、韓国側がどういうサポートをするのかっていうのも、日々刻々変化する可能性があるんですよ。だからそれをどうやるのかいうのはとても僕は難しいと思うんですよ。

## 韓国政府の政策の可能性

### (1) 「在日パス」

A. それで、ではどうすればいいのかといたら、まず僕は、韓国政府が、もしできたらやってほしいことは、誰がそういう人なのかということをやちゃんと把握す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私は分かりますよね。私は「ハク・シンクン」という名前ですから。日本籍だけどルーツを韓国に持つ人を韓国政府として登録してくださいと。

それで登録したら何があるのかというと、まず、「絶対にあなたの秘密は漏らしません」って言ったほうがいいと思うんだけど、そういうことをしてくれた方に対しては、例えば、韓国旅行するときには、なにか便宜はかりましょうとか。まあ、文化関係がいいのかな、一番いいのはね、免税店で安くしてあげるのが一番いいんでしょうけれども、そうはいか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そういうパスポートのような、国としてね、サポートできるようなことを。証明書はすぐ出るから。あのお父さんが韓国人だったとか、お母さんが韓国人だったとかいうものは。出ると思いますそれは。国籍を変えたってことはね当然ある意味じゃ、戸籍を見りゃたぶん出るはずですから、その戸籍等を持ってきてくれと、でそうすりゃあんたに、あんだ登録して、そしてあんたに、なんかパスポートじゃないが「パス」みたいな。いわば「在日パス」みたいなのをあげましょうと。で、あげたら、そのたとえばこれを見せ

たらその韓国の国内で、なんていうんだろうな、まあ一番いいのは免税店かなんかで優遇するとか。どうですかこういうの？

在日でいくら献金したから表彰しますってのはあまり意味がない。だから一番いいのは、なんかね食堂に入ったら5%引きしますとか、なんかホテルの宿泊が少し安くするとか。あの一まあ韓国政府がどこまでできるかの問題で、その協力企業を募ればいいと思うんですよね。要は言いたいのは、具体的で実利的なメリットに感じることでないと人はひきつけら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

それを例えば、ホームページにのせるとか。だから全部これを日本語でやんなきゃだめですよ。ハングルは一文字もいれなくて、全部日本で日本語でやると。それで関係者、それは何親等とか多分それはでてくるとは思いますけれども、これは子孫になってきますので、ええ、じいちゃんが韓国人はじゃあ、あの、あげましょう。で大学合格の時にはなんか、ちょっと、プレゼントくれると。またそういうことを韓国に来たときに何かしてあげるとか。つまり在日が日本籍をふくめた、「故郷に帰ってきた」と感じ、迎え入れる側も「帰ってきたね」と、「嬉しいよ僕たち」と、そういう歓迎の気持ちを示してあげることで、なんとなく韓国に行きやすい雰囲気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そうするときと、「私そうです」って手を上げる人がいっぱいいますから、それをまずリストアップする。

そういう、まず基礎的なデータを持ってないと、漠然と、まあたぶん日本の法務省はある程度持ってるかもしれませんが。韓国政府もそういう形をとることもできるん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言葉は通じなくても、なんかこう故郷に戻ってきたなっていう雰囲気があると、やっぱりそういうところからスタートして行くとか。

まあそれがどんどん発展した場合に、じゃあ韓国で病気とかしたときに韓国の医療を受けられるようにしてあげるとか。なにかこう韓国においてよ、要するに、とにかくあなたの国なんだからさとか。で、そんな多分、もしお父さんの本拠地がわかれば、じゃあその本籍の役場に行けば、なんか、またね、なんかいいじいちゃんの田舎の所に行ったんだ、来たんだねって、その村長さんとか、なんかがさ、町長さんとかがですね、こうなんか、あの、じゃあ、せっかくだから会おうとね。そういうことも面白いかもしれませんね。

ただし、問題は韓国政府が、そういう優遇策をやるぞってことになる、日本人になれというふうに誤解を受ける可能性があるんですよ。日本国籍を取ることを奨励してるというふうに受け取られる誤解。だから、そういう懸念があるならば、在日の人たち全員に対して、やっていくと、いう中からそういう把握をしていく必要があると僕は思いますね。国籍が「日本」であるか

「韓国」であるかによって境界線を引いてしまって、変に格差をつけてしまうと問題なので全員に対しておこなう。僕が一番こわいのは、「韓国系日本人」に対してのみ、韓国政府がなんらかの恩恵を与えると、これは国籍を変えなさいって言うふうに奨励したって見られかねません。差別の中でも、がんばっている韓国籍の人がいっぱいいるんだから。

そしてそれはたぶん在日だけじゃなくて、在米韓国人でも、みんな一緒にね、うちの国に帰ってきたらこういうことやるよっていうことをしてあげるようなシステムをつくっていく。登録制にすればいいわけですよ、自己申告的な。大使館で登録してよって。

## (2) 選挙人登録制度

Q：「在日」以外の在外韓国人の多くが、その国の市民権、国籍をとっていってるといふ状況があると思うんですが、そういう状況の中で韓国政府が政策等を決めていく上で、在外韓国人の意見に耳を傾けるという可能性が今後ないだろうか。韓国政府がそういうテーブルを設けるという可能性はないものだろうか。

A. ああ、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うん。これは非常にポイントがあって、一つにはその私が思うには、やっぱり全員の話聞く訳にはいかない訳じゃないですか、なんらかの代表者っていう形になると思うんですね。で、かならずその団体っていうのがあるはずですから、その団体の長に対してやるとか、民団の中にはの民団の団長さんがいるわけだし、そういう人たちが、やはり韓国政府としてそういう人たちの声を伝える、それに耳を傾ける。そういう姿勢というの僕はあるっていいと思うんですよ。

そして一方で可能性は、国会議員選出の上での「海外在住者枠」という可能性です。フランスあたりはもうやっているはずですよ。私は今、これを、私は日本の国会議員だから、日本の制度としてできないかを考えている。日本は100万人くらいだいたい日本人が海外に出ている。海外に居住してるんですよ。日本籍で。で、日本国籍で海外で居住してる人が100万人くらいいるならば、当然、一人くらい国会議員としてね海外枠の人がいたっていいじゃないかと。

Q：そのときの活動は現地ですか。国会議員になられた場合にはやっぱり日本に来て活動される。

A. もちろんです。日本の国会に来て。北海道とかそれぞれ選挙区とかあるじゃないですか。その海外枠っていうのを一つ作ると。たとえば参議院の場合はね。韓国でも、その二重国籍はこれはまたちょっとめんどくさいんだけど

も。もし韓国籍の人だったら、当然、国会議員、この前もなんか大法院かなんかでありましたね。当然選挙権はあるわけで、法の基での平等っていう観点からすれば、日本にいる韓国籍の人は当然選挙権を持つべきわけだから。その人たちを対象に、こう、誰か一人、その人たちの代表を国会に・・というのも一つ手だと思ってます。

#### 「在日」の今後の生き方について

Q：在日の今後の生き方について、先生のお考えをお聞きしたいんですが、今後在日コリアンは、長期的展望として見たときに、やはり日本国籍を取得して、かつ自分の民族性ルーツというものを明らかにしながら、日本社会で何かしら社会的貢献を果たすと、なおかつ日韓の架け橋の役割をすると、そういう形がやっぱり望ましいんじゃないかとお考えでしょうか？

A. いや、全然僕はそういうふうには思っていません。それは国籍というものを、僕は、もっと広く見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よ。「国籍」って何ってとこまで行っちゃっていいんじゃないかなって今。「地球市民」っていうかね。もう日本国籍に帰化すべきであるとか、そういうことは言えないし、そういう議論というのはその人、個人個人の実践にまかせるべきであって、僕はそうする方向性に行くべきだとは思っていません。それはもう個人が考えればいい話です。また、「日本国籍になったからけしからん」とか、「ならないからけしからん」とか、そういう考え方は危険です。在日はやはり日本で韓国人として生きていくのは大変な時代だったわけで、いろんなことを経験している。嫌なこともあったと思いますし、まあそういう中で、なんでそれでも韓国籍、この国で韓国籍で生きていく、そのメリットってほとんどないと思うんですよ。しかしなぜ韓国籍なのか、と。私はそういうことを考えた場合に、これからの日本において、日本に限っていえば、子供たちが、僕達の子孫っていうかね、僕のおとうちゃんおかあちゃんは韓国籍なんだよって平気で言えるように、世の中を作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といかんなど、僕はそう思ってます。僕は今回選挙でも、名刺にも父の国・韓国と書き、それで選挙もやった。名前もね、「ハク・シンクン」ってなってますけども、本当は「ベッ・チンフン」でやりたかった。しかし、「ベッ・チンフン」だと、田舎のじいちゃんばあちゃんが書けないっていうんで。「べ」だか「ベ」だか「バック」だか、わからないから、じゃあ「ハク」にしましようか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はい、こういう日本人がこれからはい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多種多様な人間が日本にはいるはずだし、いなくてはならない、そういう、もう世の中になってると思います。で、逆にそういう人たちと、どう、何ていうのかな、日本人がそういう外国系のかたがたと日本、外国系日本人、あるいは、外国、ここに住んでる外国人と、どう付き合っていくのかっていうのは、私はこれから日本人に与えら

れた課題だとおもいます。もう、208万人ですよ。これは人口の100人に1人がもう外国籍の人な訳ですから。それに対する日本の行政、政治がついていないです。何のケアもできてない、これのほうがより私は大きな問題であ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Q：はい、日本のシステムは変わってないなと思うのは、自分たちの祖父母がやってきたときからですね、外国人には日本の人々がしなくなったことをさせるんですが、その役割っていうものを正当に評価してこ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その役割に見合っただけの保障をしない。それはあなたの方が勝手にやってきて、勝手になっていることでしょうか？と。そういう考え方や姿勢は、今の現代社会でもあんまり変わってないという気がします。

A. まあだいたいよくなったけれどもね、昨日ある方とね、お坊さんの方とね話したときに、その方が言われたんですよ。「いやね、ハクさんね、俺のところのね……その方もずっと何百年かなんか続いてるお坊さんだったけど、俺の親父の時代にね、俺は小さかったんだけど、はっきり覚えてるよ、っていうのは韓国人の人の葬儀をやったんだよっていうんですよ。そしたら感謝されたっていうんだよなんでかっていったら、どこのお寺も、それは近くのお寺で、韓国人、朝鮮人、は、やらねえって言われたっていうのよ。葬儀もやってくないって。それでうちの親父が仏様になるんだからってやったとたん、俺、はっきり覚えてるって、前にね、朝鮮人、韓国人みんなわーっと並んでね、みんな頭下げたっていうの。これで成仏できるっていうからさ。そういう、時代ですよ。考えられないね。だってそういう時代を生き抜いてきたんだからね。そのわれわれの親の代の人たちのがんばりはさ、いまさら日本人になれとかさ、これは言えないと思うよ。僕。「簡単になれるようにしてやればいいんだ」とかね、そういう問題じゃないでしょっていうふうに僕は思うんですよ。

#### 「在日」の政治参加・社会参加

Q：そうすると先生は、2001年の日本国籍を取りやすくするという法案、その届出制のですね、あれには賛成されませんか？

A. 僕はそれを出すのはかまわないと思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それ以上にやらなきゃいけないのは、参政権ですよ。あれは何でそういうことをやったかっていったら、参政権を出させないために、僕ら日本人になれよっていうことでやってるわけでしょ。それはもう全然ね、論理的におかしい話で。それと、これをね、セットで出してきてるんですよ。だからそうじゃないんですよ。まずは参政権のことをきちっとしてから、それからその問題を考えていったほうが僕はい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けどね。僕はやっぱり参政権問題というのはやっぱり非常に重要な問題だと、僕は思っ

ておりまして、こちらできちっとね、地域住民としての権利だと、僕は当たり前前の権利を持っているわけだし、国家とかいう次元の話じゃないんで。僕は参政権やるべきだと思います。まずは、やはり参政権は、私は早く提出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でもそれに対する反対意見がものすごい根強いものがあるので、まあ、それをどうゆうふうにな、まあ理解を得ていくかと、まあ51対49でね、その賛成多数で可決するような問題でもない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よ。やっぱり、日本国民が、みんなが、「あ、そうだね」と、外国の人も同じ住民としての権利をね、行使できるようにしてあげたほうがいいよねって大多数の日本人がね、思えて、それでこう参政権が成立するのが一番、僕は理想だともっています。あまりにも今、まだ理解が足りない。「外国人に何でやらなきゃいけないんだ」とかね、「国政が、国会議員もいるのか」とかね、なんか全然わかっていない人いっぱいい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

Q：はい、外国人に参政権ないことを知らない人も多いですね。

A. いや、いますよ。いっぱいいますよ。それで一部の人に、「なんであんなやらなきゃいけないんだ。」みたいな意見があつてね。すごい言い方する人もいるしね。「いや、地方行政っていったって、国政とは密接に結びついているんだ」とかね。まあ、そういう妙な論理を振り回す人もいますし。そうした地域住民としての、やはり権利を、あるいは、地域住民として、そのオピニオンをいうべき問題だと僕は思いますよ。たとえば、原発がそこに建てられたときに、「じゃあ、住民投票しましょう」と、でもこの原発というのは国のエネルギー政策に関連していくんだと、それになんで外国人が入るんだっていうそういう論理って僕はおかしいと思うんだよね。生まれ故郷だよ、場合によっては。在日の場合は。そこにそんな危険なもの建ててほしくないっていう、当たり前な意見を言うわけであつて。国のエネルギー政策がどうのこうのっていうところまで、その地域住民は発展してませんよね。それが普通でしょ。

Q：はい、本当に、今のままでは、特に外国籍の人間っていうのは、いったいどの社会に、自分は責任を持った方がいいのかっていうかですね、持てるのかっていうのか、そういう意味での帰属意識が薄いと思うんですよ。

A. いや、帰属意識が薄いからこそ、逆に、「俺、どうせ、よそ者なんだから」っていうちょっとした開き直りというか。だから、地域のいろんな行事にも参加したくなくなる訳じゃないですか。だから逆に僕は、地域の人として受け入れてあげる。たとえば、公、道、国道に、なんかそこに横断歩道があつて、歩道がないもんだから「通学してる子供が危ないじゃないか」と、そういう問題が地域で起こったときに、じゃ、公民館で集まって話し合おうと。そのと

きに、あの人は外国人だから呼ばなくていいでしょ、ということにはならないでしょ。「あんたも一緒になって考えてくれよ」と、言うのが普通ですよ、それは。「あんた外国人だから、どうだっていい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か今、多いですよ。それをそうじゃなく、「一緒になって考えて」と言えば、多くの人は隣近所の外国の人も入って一緒に話に加わってくれと。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彼らは逆に、地域住民としての自覚が生まれるんですよ。

### 「韓国系日本人」であることの苦勞

Q：先生は韓国系日本人でおられることで、今もお仕事されておられて、ご苦勞っていうのはございますか。

A. 苦勞ですか。いろいろ言われますよね。あたりまえですよ。まあ「苦勞」っていえるのか「喜び」っていえるのかよくわかりませんね。「ああ注目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っていうのは私の考え方として、まあそれはいろいろありますよ。「韓国人はスパイだ」って言われたりね、もうそりゃね、いろいろ言われますから。でも最近はね、そういう人たちも、「言ってもしかたがないか」といった、そんなふうになんか少しくつ変わってきた気がします。だから最近は少なくなりました。

Q：以前はかなりそういう誹謗中傷があったんですね。それはどういう形ですか、面と向かってですか。インターネットですか？

A. インターネットですよ。面と向かってなんて言えないですよ。それとか、たまに選挙運動やってると、でギャーってやってる時に、「お前は竹島はどう思ってるんだ」とかね。「御名前を聞かせてください」って言ったら、「答えるのはお前の義務だ」っていうから「あなたこそ名前言ってくださいよ」っていうと、嫌がるんだよね。「有権者ですから」とか言ってごまかす。しかし多くの場合は、面と向かって言わないですよ。僕らはもう。この仕事は悪口言われるのが商売みたいなもんで。しかし一方で、サイレントマジョリティの方々もいらっしゃるといことは私はいつもなんとなく感じますから。応援して下さる方はいっぱいいらっしゃいますから。

### 在外同胞をいかに処遇するかということは、国益に影響する

Q：それこそまあ国が、政府がですね、在日の実情を知りたいと、いう感じでもまあお金使ってますね、一つの新しい動きかなと思ったりしてるんですけども、

A. いや、僕はね、これ、すごく重要なことだと思いますよ。華僑のネットワークがある訳だし。ですからこういうね、その外にいるコリアンていうか、在日の人たち、まあ外国の人たちも、外国にいるコリアンも含めて、やっぱり

ネットワークって、絶対応援してくれる人たちですから。やはりだからその応援してくれる人たちに対してね、これは韓国政府もそうだけど、日本政府もそうですよ。日系人に対して何やってるんだっていう、全くやってないと思いますよ。僕は。過去の移民政策に対する責任問題にしても。だから今回、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で、アメリカの議会で日本政府に対して謝罪を求める決議がなされたでしょ。あれを提出したのは日系の議員ですからね。つまり、日本にとってかなりの痛手となることを、同じ日本の血をひく人がやっているわけです。これは人道的に、何人だということではなく、こういう状況になる前に、彼らの声に耳を傾ける、そういうパイプを日本政府が持って来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この点で海外における日本人のケアの失敗ですよ。日本政府は海外の日本人に何をしてきたのかということ、これ一度検証されないとだめですよ。韓国もそういう同じ轍を踏まないようにしなくちゃいけないんですよ。だから韓国も外に出て行った人々に対して、何かしらの形でサポートするんですよ。

韓国には、在日に対して、ずっと、「移民っていうのは経済苦で行ったんじゃないか」とか、その、「食えねえから行ったんだろう」と、「逃げてったんじゃないの?」とか「裏切り者だよ」という見方があったとおもいます。しかし、それで済むのかとおもうんですよ。しかし、逆に同じ国民、同じ民族を強調するあまり、排他的になってもだめだと思うんですよ。固まりすぎるとよくない。

### 楽しいことから始める

- A. しかしそのサポートは何かっていうと、あまりやると余計なお世話になるからようなことは、押しつけになってしまうようなことはまずい。「ああ、いい国だな、生まれてよかった」とか、「うちの親父が、あのうちのじいちゃんが韓国人でよかった」、そう思えるようなサポート。それでたとえば、免税店でより安くなるとかね。こういうことって、一見、「なあんだ、そんなことか」って思われるかもしれないけど、私は今のこの仕事する前は新聞社にいて、ここでもいろいろことをやりましたけれども、そのときに強く感じたのは、人間というのは楽しさから入るんですよ、みんな。楽しさから入るとすごくいいんだ。なんでもそうです。だからたぶん、ここにいる在日の人たちもね。韓国に一度も行っていない人たちだっているんですよ。だからきっかけをつくってあげる。「あ、安いから行こうぜと、あんた安くなるから行ってみよう」って。それで、行った、ああ安かった良かったね。それだけかも知れませんが。でも一度行くとね、関心持ちますよ、韓国という国に。必ず新聞でも、今まで読み流していたものが、その国に行ったことがあると、目が止まりますよね。何があったのか、何が起きたのかとかね。そういうところから入っていけば、在日の歴史、あるいは自分は何でここにいるんだろうか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の問題についても、より注目していく。それが

また周りまわっていきますから。

必ず韓国の応援団になってくれる。何かあったときにその中から、まあ私みたいに国会議員になる人だっているだろうし、事業してる人たちは、じゃあ、韓国に投資しようとか、「俺の親父の故郷だから」とか、あるいは逆に北朝鮮の被害にあったときに、あるいは韓国の被害にあったときにちょっと寄付を送ろうとか。お返ししようとか、そういう気持ちの出てくる人が100人に1人でも1000人に1人でも私は出てく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

今までは、どうでしたか？「お前、韓国籍なのにさ、え、なに韓国語しゃべれないの」っていわれちゃうでしょ？「なんだよ、じゃあもう行きたくねえよ」って思っちゃうよそりゃあ。はっきりいえば。違う？「そんなこといわれるくらいだったら俺行かないよ」と。うん、それに、韓国人ってやっぱり韓国の地元の人たちと考え方違ってますから葛藤もあるわけですよ。

じゃあ何がいいのって言ったら、さっき言ったように、やはり実利的なものが一番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ああ、よかったー！」って思える感じの。協賛企業けっこう出ると思うんですよね。けっこう韓国ってそういう協賛企業あるでしょ。で、協賛した場合にはちょっと税金安くするとかしたら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楽しいことから始めないと。

ご存知でしょうか、朝鮮日報のウェブサイトごらんになったことがあります？あれ作ったの私なんですよ。ええ。あれは作ったのはね、実は私が朝鮮日報にいるときに作ったんですよ。なんで作ったかっていったら、相互理解だろうと。それであれを作って、そのあとに「iモード」っていうのはご存知ですか？携帯インターネットですね。あれでもね、朝鮮日報は入ってるんですよ。それで、海外メディアとしては初めてなんですよ。で、ウェブが、それでね、すごい人気になっちゃって。アイモードはとくに私がね独自に作ってたんで、楽しい情報、愉快的情報、おもしろ韓国情報ってのを作って、当時まだワールドカップの前ですよ。おもしろ韓国情報ってのを作って、韓国の面白いネタばかりを集めたんですよ。で、そうするとね、みんなね、面白い話にはね、飛びつくんだよ。で韓国、占いも作っちゃってさ。で、そうすると、入口はなんでもいいからとにかく楽しいところからが入りやすい。だからたとえばご婦人方がヨン様を見に行ったら。それでたしかに原則的には、「韓国の苦難の歴史を知らないで、ヨン様だけ見て、何事だ」みたいな事を言う人もいる。しかしきっかけはなんだっていい。とにかく韓国に向いていくっていうことだね。1000人ヨン様大好きなうちに5人くらいはね、安重根までたどり着く人だっているかもしれない。人間はね、嫌なことには、つらいことはやりたがりませんよ。まずは楽しいことから。 以上

##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 자 문 진 ◆

(가나다 순)

김규일 제일동포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  
김태영 일본도요대학 교수  
김광민 오사카 코리아NGO센터 사무국장  
모리마사키 일본리츠메이칸대학 교수  
백진훈 일본민주당 중의원 의원  
진노유카 오사카부 신이쿠노 중학교 교사  
이준덕 일본아카바네 조선상공인연합회 회장  
이노구치미에 오사카부 오사카시청 공무원  
이다히로키 일본대학 부속연구소 연구원  
우에다세이치 일본 오사카부 타카츠키시 중학교 교사  
양동준 일본수기나미구 지단장

### ◆ 연구보조원 ◆

전호성 일본조치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 200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 기관고유과제

- 07-R01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 - 조사개요 보고서 / 이경상·김기현·임희진  
07-R01-1 청소년 비행의 발전형태에 관한 연구 / 이경상·이순래·박철현  
07-R0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 이경상·유성렬  
07-R01-3 청소년 사교육 이용 실태 및 효과에 대한 분석 / 김기현  
07-R01-4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 / 임희진·유제민  
07-R02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종합부문 / 임지연·김신영·김정주  
07-R02-1 한국 청소년 발달 지표조사 II : 청소년발달지표 결과부문 / 김신영·임지연  
07-R03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II - 제3국 체류 북한이탈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백혜정·최우영·길은배·윤인진·이영란  
07-R04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 오해섭·김영호·이민희  
07-R05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II -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 이종원·장근영·김형주  
07-R05-1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II - 청소년인권 영역별 실태분석 / 이용교·박창남·이중섭  
07-R06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체체계 정비방안 연구 / 이춘화·김희균·조아미·황성기  
07-R07 신종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와 대책 - 신종·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 김영한·권일남·주동범  
07-R08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과소비 실태와 대책 / 성운숙  
07-R08-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II : 청소년 디지털소비격차 실태와 대책 / 황진구·유지열  
07-R09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조사개요보고서 / 이창호·오성배·정의철·최승희  
07-R10 청소년 우대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 / 김경준·최인재·설인자·원구환  
07-R11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 이해연·서정아·조흥식·정익중

###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1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 부모자녀관계, 교  
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김은정·민경석 (자체번호 07-R1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  
현철·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Bahira Sherif Trask, Gudrun Quenzel, Yasuaki  
Aota (자체번호 07-R12-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3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국제비교 : 면접조사자료집 / 김현철·  
김은정·손승영·함인희·최연혁·배지혜·Bahira Sherif Trask, Melina McConatha Roske,  
Bethany Willis Hepp·Gudrun Quenzel·Michaela Janotta·Janina Herrmann·Hideki Watanabe·  
Shigeki Matsuda·Yasuaki Aota·Masayuki Ozawa·Peter Strandbrink (자체번호 07-R12-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4 변화하는 가족과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 국제비교 / 김현철 · 김은정 · 최연혁 · 윤인진 · 정재영 · 임창규 · 이선이 · 김현주 · 이여봉 · 박천식 · 배지혜 · Gudrun Quenzel · Katherine Conway-Turner · Hideki Watanabe · Shigeki Matsuda · Yasuaki Aota · Masayuki Ozawa (자체번호 07-R12-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6-18-05 청소년기 사회화 담론의 근대적 기원과 그 영향 / 김현철 · 고미숙 · 박노자 · 권인숙 · 나임윤경 (자체번호 07-R12-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1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조혜영 · 문경숙 (자체번호 07-R1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2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방안 연구 II : 국내체류 해외 한민족청소년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 조혜영 · 문경숙 · 박동숙 · 양한순 · 최진숙 (자체번호 07-R13-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3 북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윤인진 · 채정민 (자체번호 07-R13-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4 중국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김익기 · 이동훈 (자체번호 07-R13-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5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김태기 · 임영연 · 박일 · 배광웅 (자체번호 07-R13-4)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6 독립국가연합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 임영상 · 황영삼 · 고기영 · 박지배 · 이병조 · 권주영 · 김석원 · 최소영 · 최인나 (자체번호 07-R13-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02-07 해외 한민족청소년 인적자원 활용 중장기 대책방안 연구 / 강일규 · 전재식 · 길은배 · 배기형 (자체번호 07-R13-6)

#### ■ 수시과제

- 07-R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 정하성 · 우룡
- 07-R15 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 방안 / 권일남 · 김혁진 · 오해섭
- 07-R16 청소년육성기금 확충방안 / 원구환 · 김현철 · 백혜정
- 07-R17 YP(청소년 스스로 지킴이)프로그램의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 우형진 · 김성벽 · 성윤숙
- 07-R18 특별지원청소년 세부 선정절차 및 지원방법 연구 / 김경준 · 서정아 · 정익중
- 07-R19 한류가 베트남 청소년의 문화의식에 미치는 영향 / 서동훈 · 박영균
- 07-R20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상근지도자(PM·SM)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 김호순 · 김기현 · 최병훈 · 한도희 · 박재환
- 07-R21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 이종원 · 이경자 · 임희진
- 07-R22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 김현철 · 이경자 · 임희진
- 07-R23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 김현철 · 김진숙

## ■ 용역과제

- 07-R30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오해섭·장근영·김남정·박정배  
 07-R31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 / 김영한·서정아  
 07-R32 2007년도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시설·안전·프로그램 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 김신영·오성배·양계민  
 07-R33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에 관한 연구 / 성윤숙·임희진  
 07-R34 청소년 자율참여형 학교단체 수련활동의 운영모델 개발 / 임지연·연구철·이교봉  
 07-R35 2030 청소년 희망세상 비전과 전략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강홍렬·고원·김민·김은경·김지선·김현주·나의순·마경희·손승영·손유미·우명숙·이승현·임천순·전상진·주용국·진미석·채재은·최규종·최순종·최화영  
 07-R36 청소년희망세상비전 2030총괄분야연구 / 김기현·조혜영·장근영·이창호·고원·강홍렬  
 07-R37 청소년 통계 혁신방안 / 이경상·김기현  
 07-R38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사생활과 교사학생의 수용성 / 조혜영·이창호·권순희·서덕희·이은하  
 07-R39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인재·김경준·백혜정·강진구·김태희·송미경·이유미  
 07-R40 제4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연구 / 맹영임·조혜영·이춘화·김경준·김현철·김기현·임희진·임지연·길은배·김민·유홍식·전명기  
 07-R41 청소년독서활성화 종합대책 연구 / 황진구·김은정·백원근·허병두  
 07-R42 20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김은정·황진구  
 07-R43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규제순응도 조사 연구 / 김영한·송병국·오홍석  
 07-R44 청소년활동 참가실태 조사연구 / 이종원·장근영·김호순  
 07-R45 자연(생태)환경활동 영역의 학교교과를 연계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경자·김승규·송순재  
 07-R46 2007 청소년백서 / 문경숙·김기현  
 07-R47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07-R48 질적수급전망분석 / 김기현  
 07-R49 2007 서울시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운영평가 / 김현철·백혜정  
 07-R50 2007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평가 / 김현철·백혜정·김형주  
 07-R51 2007 청소년쉼터시설종합평가 / 황진구·이경상  
 07-R52 2007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오해섭·이혜연  
 07-R53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조사연구 / 김신영·오성배·이명진

##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07-S01 「2008년도 고유연구과제 발굴·선정과 경영혁신 방향설정 워크숍」(1.23~24)  
 07-S02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 Socialization in Adolescence」(4.20)  
 07-S03 「청소년의 역사사랑 토론회」(5.12)  
 07-S04 「제주세계자연유산과 함께하는 청소년」(8.17~18)

- 07-S05 「청소년지도사 자격 필기시험 면제에 따른 전문성 함양 방안」 (6.28)
- 07-S06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안)」 (7.3)
- 07-S07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7.5)
- 07-S08 「청소년 우대제도 국내·외 사례 워크숍」 (7.20)
- 07-S09 「다문화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방향」 (7.20)
- 07-S10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연구 포럼」 (9.11)
- 07-S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과 치료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9.13~14)
- 07-S12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9.14)
- 07-S13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9.14)
- 07-S14 「한민족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10.30)
- 07-S15 「2007 고유과제 정책제안 검토 및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11.1~2)
- 07-S16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11.9)
- 07-S17 「질적연구를 통한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연구 세미나」 (11.27)
- 07-S18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11.29)
- 07-S19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 (12.7)
- 07-S20 「한국의 청소년기 사회화과정 근대적 담론 형성의 기원과 그 영향」 (12.24)

#### ■ 학술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1호 (통권 제45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2호 (통권 제46호) / 연구정보지원팀
-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3호 (통권 제47호) / 연구정보지원팀

####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 청소년지도총서⑧ 「청소년인권론」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 기타 발간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타 발간물 01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가 함께 읽어야 할 73가지 이야기」



연구보고 07-R13-4

**일본의 한민족청소년 현황 및 생활실태 연구**

인 쇄 2007년 12월 21일

발 행 2007년 12월 24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 중 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 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12-3(93330)